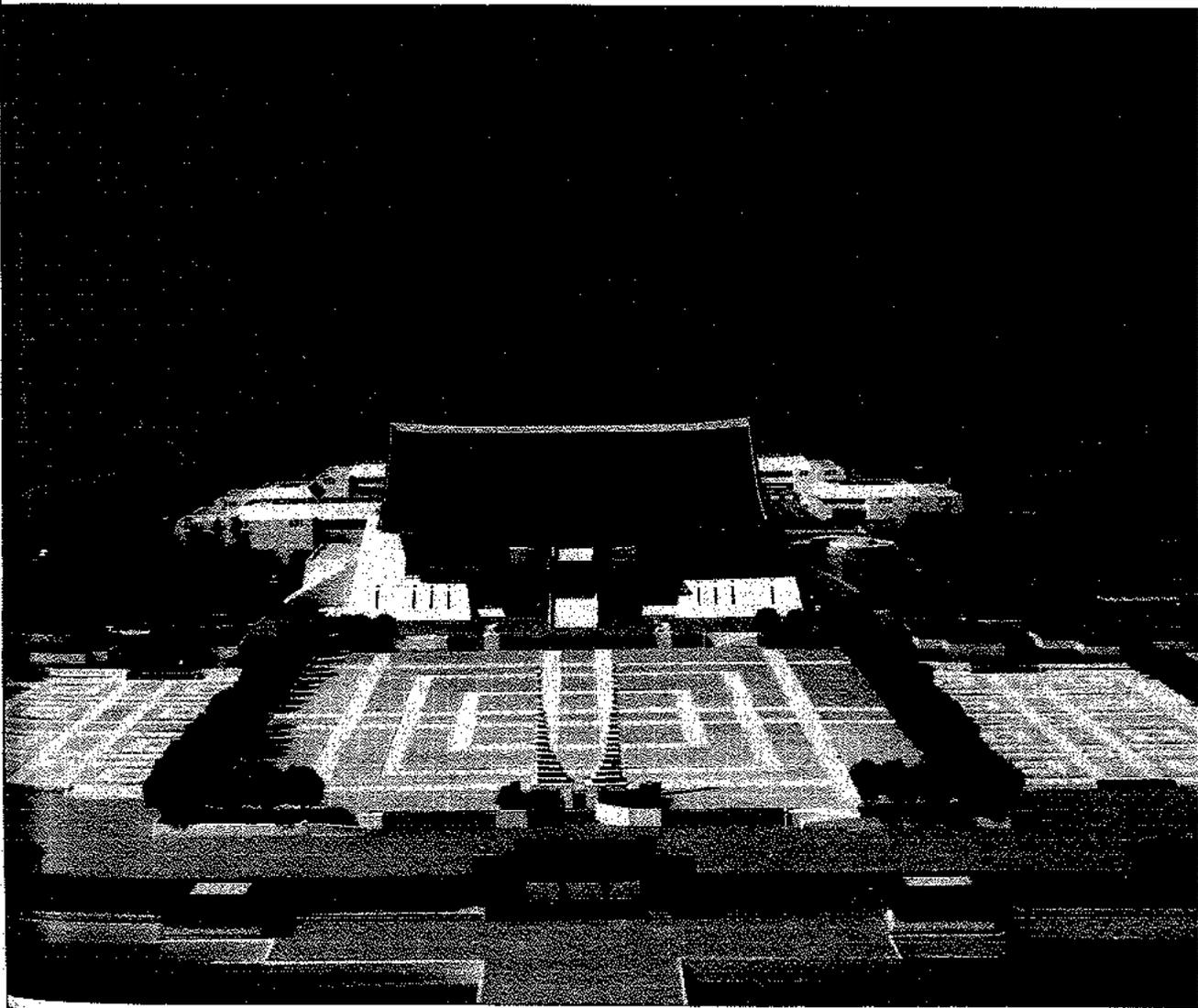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NOVEMBER 1983, NO.176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懸賞設計當選作 모형도

1983.11

오

공됩니다.

다.
다.



폴

회사

254-1171-5
75-1141-5

72-5101

플로트 공법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플로트 유리시대가 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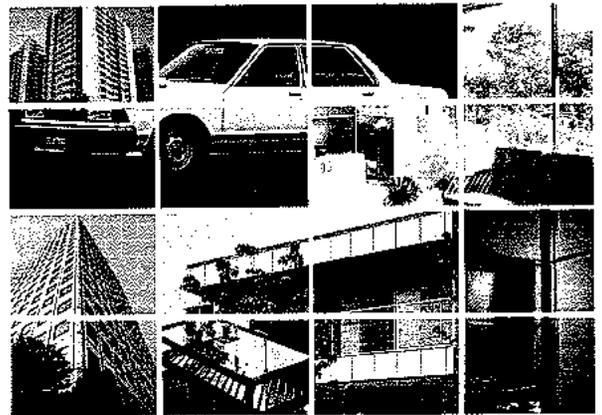


플로트 유리(Float Glass)란 인류가 발명해 낸 유리 중 가장 고급스런 품질의 유리로, 플로트 공법으로 만든 유리를 말합니다.

종래 멋진 환경을 꾸미시는 분, 품위있는 건물을 짓는 많은 분들이 찾았던 英國製 유리, 그것이 바로 플로트 유리로 韓國유리가 새로이 생산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영국의 필킹톤社(Pilkington Brothers Co.)가 개발하여 세계적 특허를 갖고 기술을 보급한 이 플로트 工法은, 금속욕조(Tin Bath)에 朱錫(Tin)을 녹여 그 위로 유리물을 水平으로 흘러보내 만드는 製造方法을 말합니다.

따라서 플로트 유리는 表面이 아주 고르며, 大型化가 가능하고 또 모든 工程을 컴퓨터로 조정하므로 결점없는 최고의 品質이 보장됩니다. 이 플로트 유리는 세계에서 10여개 국가만이 생산할 수 있을뿐인 세계적 제품입니다.



플로트 유리의 장점

1. 視覺 장애가 전혀 없습니다.
2. 모든 工程을 컴퓨터化 하여 品質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價格이 저렴합니다.
3. 모든 加工유리(복층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製鏡유리, 기타)에 이상적입니다.
4. 厚板유리는 그 자체로서 防音, 防熱의 효과를 냅니다.
5. 두께와 規格의 대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품특성

두께 (%)	두께 특성					열원류율 Kcal m ² hr ⁻¹
	가시광선 투과율 (%)	광선 반사율 (%)	중수율 (%)	격점부피율 (%)	반사율 (%)	
3	90.1	8.0	7.4	84.9	7.7	5.88
5	89.1	7.9	11.5	81.1	7.4	5.78
6	88.6	7.9	13.5	79.3	7.2	5.75
8	87.6	7.8	17.2	75.8	7.0	5.59
10	86.7	7.7	20.6	72.6	6.8	5.56
12	86.7	7.6	23.8	69.6	6.6	5.46

두께별 최대규격

두께(m/m)	길이×폭(m/m)	길이×폭(inch)
3	2438×1220	96×48
5	3048×2134	120×84
6	3048×2438	120×96
8, 10	8380×3048	330×120
12, 15, 19	8380×3048	330×120

* 15m/m이상의 유리제품은 주문생산합니다.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HANKUK GLASS INDUSTRY CO., LTD.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783-0311·0911·3711·3911

* 자세한 문의는 당사 영업부나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目次

1983.11

論壇	“社会로부터 信賴와 尊敬의 대상이 되도록 責任 다 해야...” 金枝泰	2
	都市再開發事業의 合理的인 施行方案：連載II	盧椿熙 24
	서울 都心部 再開發	朱鍾元 47

輯	獨立紀念館 懸賞設計 當選作 紙上紹介	13
---	---------------------	----

	會員建築設計作品	35
--	----------	----

● 한일은행동래지점	(주·종합건축설계사무소)	尹錫祐 36
● 김중희씨댁	(공일근건축연구소)	公日坤 38
● 이태원동L 씨주택	(신라건축연구소)	金鍾浩 40
● 동수원 병원	(건축연구소 아키반)	金錫澈 41
● 서울대학교 제 2 기숙사	(종합환경연구소일건)	趙東榮 44

傳統建築	韓國建築의 造形	金東賢 20
------	----------	--------

	百濟塔의 復元	姜奉辰 76
--	---------	--------

	빛의 匠人들 : 連載I	金起煥 61
--	--------------	--------

	建築의 컴퓨터應用 / 컴퓨터에 의한 透視圖作圖 : 連載II	曹鐵鎬 78
--	----------------------------------	--------

	인테리어 디자인의 원리(下) : 連載II	趙聖烈 70
--	------------------------	--------

여행기	커다란 공원의 어느작은 구석 그린 이야기	金琪碩 57
-----	------------------------	--------

□ 협회소식	● 제18회 定期總會 開催	3
--------	----------------	---

	● 国会建設委 간담회 참석	6
--	----------------	---

	● 會長團 建設部長官禮訪	7
--	---------------	---

	● 建築委分科研究実績보고	7
--	---------------	---

	● 新任 任員 / 就任 소감	11
--	-----------------	----

□ 건축계 뉴스		74
----------	--	----

□ 법개정 내용		87
----------	--	----

□ 건축허가(도서신고) 면적변동 추세		91
----------------------	--	----

□ 新入會員		92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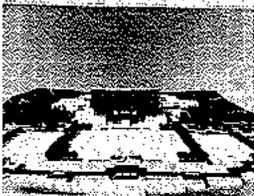
□ 회원동정		93
--------	--	----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176 호
구입년월일	19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지부	

編輯委員會

委員長	朴商浩
委員	李明浩
"	姜健熙
"	朴勇煥
"	李榮一
"	金基哲
"	姜哲求
"	朴炳善
"	金琪碩

建築士



1983.11

표지설명: 독립기념관현상 설계당선작모형도

“社會로 부터 信賴와 尊敬의 대상이 되도록 責任 다 해야...”



오늘 本協會 정기총회를 맞이 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來賓 여러분께 深甚한 謝意를 표합니다.

오늘 全國의 代議員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여 우리 協會의 오늘과 來日을 設計하는 時間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해에 한두번씩 한자리에 모여 폭 넓은 意見을 開陳하고 알찬 結果를 얻기 위해 기탄없는 討論을 펼치는 總會는 비단 協會의 장래를 여는 자리로서의 重要性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建築界의 現在와 未來를 함께 생각하는 機會라는 點에서도 값진 意味가 있다고 믿습니다.

더구나 今年 總會는 協會設立 18周年을 맞이하는 해로서 本協會가 名實 共に 成年에 들어선 뜻깊은 時点이라는 점에서 더욱 貴重한 자리라고 느껴집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65년 4월 25일 10여명의 선배 會員님들에 의해 213名の 會員으로 出發한 本協會가 오늘에 이르러서는 2천여명이라는 많은 會員과 이를 뒷받침하는 事務處 기구 및 財政의 面에서도 굳건한 基盤을 다지고 우리나라 建築文化發展을 도모하는 役割의 一部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實로 감개무량한바 있습니다.

協會의 오늘이 있기까지 心身을 다해 애쓰신 여러 會員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再三 謝意를 표합니다.

이제 지나온 발자취를 거울삼아 協會의 育成發展에 보다 拍車를 加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課題임을 銘心해야 할 것입니다. 協會는 지난 1年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狀況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任務를 充實히 遂行하는 것만이 最善의 길임을 믿고 會員을 위한 보다 알찬 協會育成에 매진했습니다.

그동안 協會機能의 活性化를 通한 會務強化 방안으로 研究檢討해 온 協會組織과 運營方法의 聯合會체제의

轉換問題는 政府의 地方自治 制度와 그 脈絡이 連關됨으로 해서 施行하기 까지는 다소 時間이 더 必要하다고 믿어집니다.

協會가 機能을 充分히 發揮하고 우리가 希求하는 權益伸張과 地位向上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다른 무엇보다 會員各自가 誠實한 業務遂行을 통한 建築文化發展에 最善을 다해서 國家社會에 기여할 때만이 可能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建築界의 不條理가 다시금 政府次元에서 提起되고 따라서 建築人들의 自省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이러한 不美스런 일로해서 우리는 스스로 지키고자 했던 權益과 地位를 스스로 失墜시킨 結果를 招來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일부 建築物에 局限된 것이지만 建築士 固有의 業務 가운데 단독住宅에 한하여 工事 監理 業務中 그 一部의 기능을 分離해서 施行케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措置가 他意에 의해 취해져야만 하는 까닭도 나지고 보면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業務를 誠實하게 遂行하지 못한다는 비뚤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社會로부터 指彈의 対象이 아닌 信賴와 尊敬의 対象이 되기 위해서는 現時點에서 우리 스스로가 周圍을 돌아보고 각성하는 姿勢가 반드시 必要하다고 믿으며 지금까지 痲痺의 不條理로 指目되었던 業務受託을 위한 넉 핏행위나 명의대여, 不實監理 등은 하루속히 根絶되어야 할 것입니다.

造形創作藝術人으로서 한나라의 建築文化를 左右하는 指導者的인 位置의 建築士인 우리가 눈앞의 작은 私益에 급급해서 社會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한다면 너무나 痛嘆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協會에서는 造形創作藝術人으로서의 矜持를 갖고 職業倫理觀 涵養을 통한 올바른 建築

文化暢達에 애쓰시는 大多數 會員들을 위해 一部 似而非 建築士를 果敢하게 逐出하는 淨化事業을 白律의 으로 계속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機會가 새로운 轉機가 되어 健全한 風土 위에 훌륭한 建築文化를 꽃피워 우리의 後孫들에게 자랑스러운 建築遺産을 물려주는 契機가 되었으면 합니다.

協會는 지난 年初부터 2千余 會員의 權益을 象徵하는 새會館마련에 힘써 드디어 近日 着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會員 여러분의 積極的인 協助에 依해 이루어진 것으로 會館의 規模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結束된 힘으로 새로운 會館을 마련했다는 데 대해 보다 큰 意義가 있다고 生覺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協會創立後 成年이 되는 해에 새會館이 起工됨에 따라 協會는 분명 새로운 轉換期를 맞이했으며 한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해 努力할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視野를 넓혀 國內活動뿐만 아니라 國際交流를 통한 會員業務領域擴張과 技術向上을 위해 相互 紐帶強化에 힘쓰고자 합니다. 아울러 明年度 協會豫算은 政府施策에 호응하여 緊縮을 前提로 하여 編成하는데 主眼點을 두었으나 會館新築에 따른 諸経費의 包含과 建設技術研究院補助金 支援 등 不得已한 增加 要因으로 해서 다소 豫算增加幅이 넓어 졌음을 밝힙니다.

끝으로 協會發展을 위해 항상 協助를 아끼지 않으시는 代議員 여러분께 다시 한번 感謝의 말씀드리며 來年度 19回 總會는 새會館에서 새롭게 만날 것을 期約하면서 부디 하시는 일과 家庭에 幸運이 깃들기를 祈願하며 이만 開會辭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8회 定期總會 開催

任期만료 임원 등 改選

予算 및 事業計劃 등 承認



제18회 정기총회가 지난달 28일 서울시내 프라자호텔에서 전국 대의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자율정화 결의대회를 겸한 이날 총회는 상오 10시 金枝泰회장의 개회선포에 이어 성원보고와 국민의례, 국민교육현장 낭독이 차례대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건축사현장 낭독과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정화결의문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 金曠植이사가 이를 낭독했다.

끝이어 金枝泰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의 국내외정세가 매우 어려운 처지임을 상기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원 각자의 성실한 임무수행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밝히고, 지난 수개월간 건축계 부조리가 다시 정부차원에서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건축인들의 자성의 소리가 높아

지고 있으며 이같은 불미스런 일로 인해 우리의 권익과 지위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金회장은 이어서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아닌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고질적인 부조리척결에 앞장설 것과 건전한 풍토 위에서 건축문화창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金聖培건설부장관은 崔炳勳주택국장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최근의 큰사건으로 난관이 겹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때일수록 사회지도자 층에 있는 건축사 여러분의 투철한 사명감이 난관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金장관은 건축의 역할이 앞으로 대규모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크게 기대된다고 밝히고 정화된 건축풍토위에서 찬연한 건축문화를 펼쳐보여 건축사 여러분의역량이 한껏 돋보일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장관치사에 이어 金眞一건축학회부회장과 건축가협회 李承雨회장의 축사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추대회원 13명 추대 직원 6명에 표창 수여

金枝泰회장은 이어서 역대 회장을 비롯한 13명의 고령회원에게 추대회원증을 수여한데 이어 모범직원 6명을 표창했다. 추대회원은 매년 해당 회원을 선정해서 총회에서 추대하게 되며 역대회장과 회원증 만65세가 되는 회원이 대상자가 된다.

이날 추대회원으로 추대된 회원은 姜明求(역대회장) 회원을 비롯해서 서울지부소속회원 4명, 대구지부 2명, 경기지부 3명 및 충북, 전남, 제주지부소속회원 각 1명씩이다.

한편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직

□ 제18회 정기총회/建設部長官致辭

“建築史的으로도 重要な 時期”

親愛하는 大韓建築士協會 會員 여러분.

오늘 貴會의 제18회 定期總會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建築文化發展을 위해 항상 努力하시는 建築士 여러분의 勞苦를 眞心으로 致賀해 마지 않습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격변하는 世界情勢 속에서 淸内外的으로 重要的 時期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소련의 민행에 의한 KAL 機 破格사건과 北韓共產集團의 剽策으로 저질러진 비어마 아웅산 大慘害는 國力の 큰 손실과 韓半島의 經濟發展에도 至大한 影響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民族은 歷史上 많은 難關과 試練속에서도 國民的 意志를 集約해서 이를 슬기롭게 克服해 온 智慧로운 民族임을 史實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國民的 悲運과 나라 안락의 어려움도 냉철한 理性과 강인한 意志로 곳곳이 克服해서 國力伸張의 한 契機로 다져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더우기 우리에게선 앞으로 해야 할 國際的 關心事가 많습니

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이 그 중 가장 큰 行事이며 그밖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世界耳目은 이러한 일들을 치루는 우리 國民의 자세와 努力, 그리고 能力으로 우리의 모든것을 評價할

것입니다.

이런점에서 생각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國民的 각오가 각별해야 하며, 특히 社會指導層에 계신 建築士 여러분의 責任이 至大하다고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올림픽경기나 그 밖에 國際的行事에서 建築예술이 차지하는 比重은 우리나라를 訪問하는 外國人들에게 示曉하는 바가 다른分野에 비해 매우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事實입니다.

그들의 눈에비친 훌륭한 施設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住居環境이 그대로 우리나라의 印象으로 남아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것을 評價하는 尺度가 될 것입니다.

이런점에서 우리나라의 建築文化를 創造하는 建築士여러분의 役割이 크게 期待되며 아울러 그만큼 使命感도 莫重하다는 것을 銘心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작은 住宅한채를 設計하고 짓더라도 그것이 곧 傳統文化를 創造하는 創作行為임을 認識해서 最善의 努力을 다하는 자세 確立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建築分野의 生態를 돌이켜 보면 設計로부터 許可·施工·監理·竣工 建築行政의 一連의 過程에서 야기되는 不條理는 不實建築物을 낳게 하였을뿐 아니라 政府에 대한 國民의 不信感과 國民總和를 증먹는 結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不條理는 一般國民의 建築

에 대한 認識不足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은 建築士여러분의 使命感과 투철한 국가과 缺如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같은 事例는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成長發展을 阻害하는 惡的 要因으로 앞으로 이를 淨化次元에서 엄중히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政府로서는 대다수 성실한 建築士 여러분들의 業務伸張과 權益保障을 위하여 最善을 다할것을 약속 드리며 여러분에게 賦與된 國家的使命을 깊이 認識하고 全會員이 一致團結하여 資質向上과 技術發展에 크게 努力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建築士 여러분.

貴協會 創立 18周年은 곧 우리나라 現代建築의 歷史와 같다고 보아지며 이는 成年으로서의 우리나라 建築文化가 새로운 座標위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고 여겨집니다.

國家의으로도, 또한 우리나라 建築文化史的으로도 重要的 時期에서 여러분 各自의 責任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맡은바 任務에 精進해 줄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貴協會의 富貴한 發展과 會員여러분의 健闘를 祈願하면서 致辭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83年 10月 28日

建設部長官 金 聖 培

원에 모범이 되는 모범직원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해당 직원은 대구지부 김홍업 사무국장장을 비롯해서 충남, 전북, 경남지부 및 본부직원 등 6명이다. (추대회원 및 모범직원 명단 참조)

표창수여에 이어 83년도 제1회 임시총회회의록이 승인되었으며 그간의 주요업무가 보고되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된 업무 가운데 주요업무만을 간추려 보고한 내용에는 건축사교육실시, 단독주

택의 설계, 감리업무 구분실시, 건설기술연구원설립에 따른 참여, 설계도서검토실시, 회원작품순회전시회, 건축연구분과위원회 활동상황 등 모두 29개의 주요업무실적 및 추진 사항이 보고되었다.

監查 結果 報告

協會운영 전반에 걸쳐

한편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감사결과보고가 있었다. 지난 8월10일부터 10월14일까지 협회 본부 및 산하 13

개 시도지부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실시결과를 행정 및 경리부문으로 나누어 李康植감사와 朴弘雨감사가 각각 보고했다.

李康植감사는 감사결과 총평을 통해 지난 2월 임시총회를 대비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와 제반업무에 대한 확인지도 및 인력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그 결과 대체로 시정되었으며 사무처의 행정질서와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제고되었으나 부분적으로 업무처



□ 金枝泰회장의 개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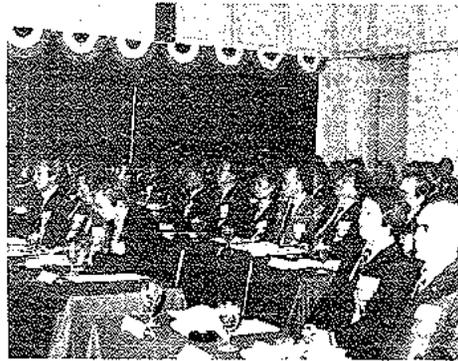
□ 長官致辭을 대독하는 崔炳勳주목국장



□ 증회에 참석한 歷代會長團



□ 추대회원 추대



□ 會議中인 代務員



□ 모범직원 표창

리미숙이 지적되어 실무자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정사항으로는 현행직제 및 사무분장의 개선방안연구와 회원업무와 관련되는 개정사항의 신속한 통보, 그리고 지부의 경우 설계도서신고 사무처리의 철저화, 업무구분의 명확화 등을 들었다.

개선연구사항으로는 연합회체제로의 점진적인 개선에 따른 지역별 특성연구와 직원승급의 시험제도도입방안연구, 지부운영우수사례활용 등이며 그밖에 건의사항으로 건축사 대체전의 격년제 시행과 직원인력부족 및 낭비를 막기 위한 사환제도부활연구 등을 건의했다.

한편 朴弘雨감사는 경리부문감사결과 개선사항으로 실적회비징수의 계산착오방지를 위한 결재과정 연구와 여비출내역의 상세한 기록과 확인날인을 받도록 할 것을 지적하고 그 밖에 본부 및 지부별 시정사항을 세부적으로 열거했다.

定款 및 諸規程 개정 승인

2차 추경예산안 승인도

감사보고에 이어 부의안건 처리에 들어가서 먼저 정관 및 재규정개정안

이 상정,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정관개정은 징계의 종류에서 제명처분을 삭제토록하는 것과 월정회비 미납회원 벌칙강화, 그리고 11조, 38조, 42조, 49조 등을 개정했다. 또 윤리위원회규정개정은 1조의 어귀수정을 비롯해서 4조, 5조, 6조, 9조, 14조 등을 수정보완했다.

한편 두번째 의안으로 상정된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수지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 되었다.

1차 추경예산규모에서 약 4억 6천 7백만원이 증가된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세출내역은 서울지부 사무국 강북별관설치에 따른 소요경비와 회원폐업위로금 부족 및 특별회계 회관건립기금 부족 예산 충당을 위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위한 세입으로는 회비수입과 기타 사업수입으로 충당케 된다.

事業計劃 및 収支예산안 승인

特別會計 수지예산안도 승인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8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과 특별회계 수지예산안이 상정, 축조심의틀 거쳐 처리되었다.

원안대로 승인된 84년도 사업계획

의 기본방향은 지부의 자율적 활성화 촉진, 회원의 권익·부리증진 사업전개, 분과위원회기능강화, 지도사업강화, 회지의 내실화, 국제교류실시, 홍보활동전개 등이며 이에 따른 예산규모는 약 16억 3천만원에 달한다.

예산 총당에 따른 세입으로는 월정회비를 비롯해서 실적회비와 사업수입, 이월금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출항목별로는 각종회비와 관리비, 사업비, 인건비, 사무비, 섭외사업비, 부리후생비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편 총규모 약 12억 6천만원에 달하는 84년도 특별회계수지 예산안도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회관건립과 회원폐업위로금 지급, 그리고 임대보증금, 충당금 적립 등에 따른 소요비용이 예산세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任期만료 任員改選

理事 및 監事選任

이어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 및 임원에 대한 개선이 있었다.

이날 임기만료된 이사는 朴商浩 宋鶴祚 金一榮 金漢根 成勳燮 이사 등 5명과 李康植감사로 이 가운데 成勳燮이사는 유임되었으며 그밖에 이사

協會消息

및 감사가 새로 선임되었다.

회장에게 위임되어 총회 석상에서 선임된 새 이사에는 俞景哲 金亨仁 李永熙 韓鍾彦 회원 등이 선임되었으며 감사에는 李春相 회원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다. (임원프로필 참조)

임원개선후 협회발전을 기원 하는 만세삼창을 끝으로 장장 8 시간 동안 진행된 총회의 막을 내렸다.

〈추대회원 명단〉

- 姜明求 (성도건축)
- 金熙春 (주·김희춘건축)
- 劉惠鏞 (선일합동)
- 李光容 (근대건축)
- 張龍雲 (우신건축)
- 尹滋均 (대림건축)
- 李智寬 (경일건축)
- 閔丙運 (대영 신안합동)
- 崔東崙 (한남건축)
- 金鎮斗 (금성창성합동)
- 吳世炯 (중합건축)
- 具天諱 (제일건축)
- 朴鎮厚 (동원건축)

〈직원표창자 명단〉

- 金洪業 (대구지부 국장)
- 梁泰俊 (전북지부 국장)
- 金舜圭 (경남지부 과장)
- 權五成 (본 부 과장)
- 金炳烈 (대구지부 서무)
- 徐源姬 (충남지부 경리)

国会建設委 간담회 참석

本協會등 4개단체 業務報告



국회건설위원회(위원장 朴權欽 의원) 간담회가 지난 11월 11일 오후 2시부터 영동소재 국토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건설위가 주관하고 李寬永 건설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本協會를 비롯하여 건설부 산하 4개 단체가 업무보고를 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金枝泰 본회 회장은 「건축사의 사회적 위치와 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후손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건축문화 유산을 남겨주는 일이 우리 건축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朴泰俊 의원은 「외국건축의 경

우 뛰어난 조형성과 디스플레이로 아 이쇼핑도 즐기고 구매욕도 높여주는 거리가 많은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런 거리가 없다.」면서 「이는 건축사들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 건축사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潘亨富 의원은 「협회를 위한 협회가 아니라 예술적 차원에서 고도의 전문 기술을 발휘하여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기수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대한건축사협회 ▲국토개발연구원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會館移轉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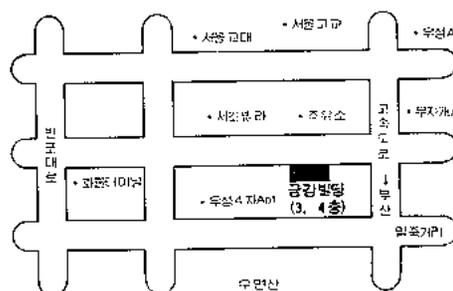
서울支部 江北別館도

본협회 회관이 강남구 서초동으로 이전했다.

서린동회관 매각에 따라 새회관을 신축키로 한 본협회는 새회관이 완공되는 오는 84년까지 임시 회관을 임대, 지난 4일 이전을 끝내고 정상업무에 들어갔다. 임시 회관이 자리를 잡은 곳은 신축회관 예정지 부근으로 협회사무처와 서울지부 본부가 3·4층을 사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 회관 이전과 동시에 서울지부 강북 별관이 새로 업무를 개시해서 서울지부 강북관내 회원 업무에 편의를 도모케 되었다. 한편 지난 7일에는 무사이전과 부궁한 발

본부 사무처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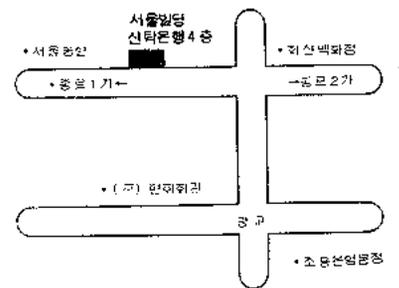


전을 비는 간소한 자축행사가 본부 및 서울지부 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전된 회관 및 서울지부 강북별관 위치는 다음과 같다.

□ 본부 및 서울지부(서울 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457-3(금강빌딩 3, 4층)

서울지부 강북 별관약도



● 본부전화번호 (584-0348, 4248, 1098, 9498, 9448, 6198, 0338)

● 서울지부전화번호 (583-7648, 7698, 7948, 584-4188, 8648, 3484)

□ 서울지부강북별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45(서울일당 4층)

● 전화번호 (723-6258, 8059)

建築委分科研究実績보고

연구내용 및 진행사항 종합

건축연구위원회(위원장 宋鶴祚) 산하 8개 분과위원회의 금년도 주요연구 내용 및 실적이 종합되었다.

회원의 권익신장과 자질향상 및 새로운 건축기술 개발을 촉진키위해 지난 82년도 연구 사업으로 책정된 이래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8개분과위원회(83년 1월부터 분과위원회 설치)의 주요 연구 내용 및 실적이 지난 18회 정기총회에서 종합 보고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설비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박용한)
 - 가. 회의개최: 5 회
 - 나. 연구내용: 각종 건축설비 관계 자료를 조사연구하여 건축사지에 게재(내용 별첨)
- ② 한국전통건축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장기인)
 - 가. 회의개최: 5 회
 - 나. 연구내용: 한국 전통건축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건축사지에 게재(내용 별첨)
- ③ 도시환경 연구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인석)
 - 가. 회의개최: 4 회
 - 나. 연구내용: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조형연구(회원 작품 전시 병행 슬라이드 제작 상영. 내용 별첨)
- ④ 설계도서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이승우)
 - 가. 회의개최: 7 회

나. 연구내용: 건축구조 설계도 작성목록 연구(82년도 건축설계도 도서목록은 83. 6월호 건축사지에 게재하였고 83년도 사업은 84. 1월호 건축사지에 발표 예정임. 내용 별첨)

- ⑤ 구조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이용하)
 - 가. 회의개최: 8 회
 - 나. 연구내용: 구조설계도 표준화에 대한 리스트 작성과 구조부분 공사감리 체크 리스트 작성 연구하여 83. 12월호 건축사지에 발표 예정임. 내용 별첨)
- ⑥ 법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윤봉원)
 - 가. 회의개최: 10 회
 - 나. 연구내용: 현행 건축관계법(건축법, 건축사법) 개정(안)을 연구작성하여 행정부처에 건의하고,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표준계약서식 등 작성 연구(내용 별첨)
- ⑦ 건축물 에너지연구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일영)
 - 가. 회의개최: 8 회
 - 나. 연구내용: 건축물 단열시공 가이드 북 작성 연구하여 별책 연구서를 발간(회원 배포)
- ⑧ 시공재료 연구분과위원회 (위원장: 송학조)
 - 가. 회의개최: 3 회
 - 나. 연구내용: 방수제 및 외장재에 대한 종류를 검토 조사하고 그 시공방법을 연구 진행

□ 建築物의 斷熱施工가이드 북

大韓建築士協會發行

본 협회 건축물에너지 연구분과 위원회(위원장 金一榮)의 금년도 연구 보고서로 발간된 책자로 건축물의 단열시공에 필요한 종합 가이드북이다. 건축물의 에너지 계획에서부터 단열자재, 부위별 단열시공 방법, 경제성 분석 및 각국의 설계기준 등이 차

례로 서술되어 있으며 특히 시공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밖에 부록으로 용어해설과 환산표, 국내의 문헌이 소개되어 있어 단열시공을 위한 회원업무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會長團 建設部長官禮訪

국회 建設委도 방문

본협회 金枝泰회장과 金基壽부회장은 지난달 26일 金聖培건설부장관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취임인사를 겸한 이날 예랑에서 회장단은 협회현황 및 회원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과 특히 협회육성발전을 위한 현안문제 등을 설명하고 건설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金聖培장관은 이 자리에서 28일에 개최되는 본협회 총회에는 국사일정으로 참석치 못하지만 다음 기회에는 꼭 참석할것과 협회에도 내방할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崔炳熙주택국장이 배석했다.

한편 金枝泰회장은 지난 11일 대국회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 朴權欽건설분과 위원장과 여·야국회의원 다수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金枝泰회장은 본 협회현황과 회원업무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현안문제점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任仁嬭사무처장이 배석했다.

住宅局長 초청 간담회 建築法관계 간담회도

건설부 崔炳熙주택국장을 비롯 관계 과장 등을 초청, 본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18일 본협회는 이같은 자리를 마련하고 협회운영을 비롯해서 회원업무에 대한 현황 등을 설명하고 건설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10월 26일 金基壽부회장과 尹鳳源이사는 건설부 주택국 및 감사실 과장 등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본협회 법분과위원회에서 연구해온 관계법규 개정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 관계자들과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1984年度 主要事業計劃

다음은 지난 10. 28일 제18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84년도 본협회
주요사업 계획이다. 사업별 내용 및 시행방법을 간추려 소개한다.

사업명	세부사업명	시행방법 및 내용
회원부리 증진	가. 회원의료 보험	1) 의료보험 수혜대상 확대실시경 토 2) 의료보험료 인하 조정 건의
	나. 건축관계 정보 자료 심 운영	1) 국내의 건축관계 기술자료 수 집, 회원에게 제공하여 회원 업무 활동 지원 2) 기술개발 자료 신속 정보 교류 로서 신건축 보급
	다. 예규집발 간	1) 건축예규집(전국시·도 조례포 함)을 발간 배포 2) 기타 외국자료 번역 회원에게 배포
	라. 지역복지 회 자율운영	1) 지역별 자율운영으로 회원 친 목 도모 2) 저축중대로 복지사회 기여 3) 회원 노후 대책 연구
회원상호 친목도모	가. 회원친목 단합대회	1) 각지부별 회원간 상호 이해 증 진과 친목을 도모키 위해 단합대 회 개최 2) 회원간 체력 증진과 취미생활 함양을 위하여 체육대회 실시
	나. 회원명부 발간	1) 전국회원의 인적 사항을 수록 하여 전회원에게 배포
	다. 간담회	1) 회원상호 이해 증진과 건축사 계 풍토조성 2) 건축법 및 건축행정상의 문제 점 발제 및 대정부 건의 3) 협회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청 취로 협회발전 도모
	가. 건축관계 법규 및 제 도의문제 점 개선	1) 건축관계 법규의 합리적이고 현실성있는 개정(안) 연구 2) 건축행정 제도 개선 연구 3) 건축사 업무의 제도 개선 연구 시행
건축사 업무개선	나. 건축연구 위원회 운 영	1) 각 연구분과위원회 활성화 2) 건축 관련분야 문제 연구개선, 보완, 시정 건의 3) 연구결과 회지개제, 책자 발 간 배포 4) 외국제도와와의 비교 검토 연구
	다. 건축사업 부및보수기 준개정건의	1)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설계 및 감리 보수기준 현실화 2) 건축물 용도 분류, 중별 규정 개정 3) 보수요율 재조정 4) 업무의 한계 설정
	라. 설계도서 검토 위원 회 활성화	1) 설계도서 절적 향상 2) 보조원 자질 향상 3) 회원 권익 옹호 4) 행정기관의 심의 생략 유도 5) 효율적인 건축사 업무풍토화립
	가. 회원사무 소 및 업무 에 관한 지 도 계몽	1) 사무소 설치 기준에 의한 제규 정 이행 촉구 2) 비회원 단속 및 조사처리 3) 회원간 분쟁 조정 4) 업무 제도 및 질서 확립 5) 성실회원 권익 보호
보조원자 질 향상 출판사업	가. 건축사보 및 보조원 강습회	1) 건축사보와 보조원의 자질향상 도모 2) 임부취급요령 및 지침서발
	가. 회지 "건 축사" 발간	1) 건축사지 발간으로 회원 대변 지로서의 역할 수행 2) 회원의 설계작품 및 논문으로 내용 충실 편집 3) 해의 및 관련기관에 배부로 협 회 홍보 4) 회지발간 개선 ○특집호 발간 회수 및 지면의색 도화 확대 시도 ○취재기사 및 지부활동 기사 확 대 ○지방 지부 회원 참여의식 촉진
	가. 회원사무 소 및 업무 에 관한 지 도 계몽	1) 사무소 설치 기준에 의한 제규 정 이행 촉구 2) 비회원 단속 및 조사처리 3) 회원간 분쟁 조정 4) 업무 제도 및 질서 확립 5) 성실회원 권익 보호
	가. 회원사무 소 및 업무 에 관한 지 도 계몽	1) 사무소 설치 기준에 의한 제규 정 이행 촉구 2) 비회원 단속 및 조사처리 3) 회원간 분쟁 조정 4) 업무 제도 및 질서 확립 5) 성실회원 권익 보호

사업명	세부사업명	시행방법 및 내용
전시회	가. 회원설계 작품전시회	1) 회원의 창작의욕 고취 2) 일반인에게 건축의 이해증진도 모 3) 기술향상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 4) 전시회 개최지역 다변화
	나. 우수건축 자재전시회	1) 신축회관 전시장에 국내 생산 우수건축자재의 상설전시로 국민 편의 도모 2) 각종 우수자재의 용도, 가격, 성능등에 대한 자료를 비치 하여 회원 업무에 활용토록 기여
	가. 정신교육 및 세미나 개최	1) 실무에 필요한 강연회등 세미 나 개최 2) 관계법령 해설 및 토론 3) 건축사 윤리관 함양 4) 국가관 및 안보강연회 5) 현대건축, 신개발자재 세미나 6) 신공법 및 사용방법 7) 건강관리 및 정신교육 8) 해외기술용역 및 특수건축물사 례 9) 건축과 에너지
	나. 건축기술 학술연구용 역	1) 특정사업을 위한 외부 연구 용 역수입 처리 2) 건축관계 조사연구 활동 체계 확립
지도계몽	다. 작품집발 간	1) 순회 전시작품을 수록 발간 2) 회원 및 유관기관에 무료 배부 하므로써 설계작품 향상 인식제고
	가. 회원사무 소 및 업무 에 관한 지 도 계몽	1) 사무소 설치 기준에 의한 제규 정 이행 촉구 2) 비회원 단속 및 조사처리 3) 회원간 분쟁 조정 4) 업무 제도 및 질서 확립 5) 성실회원 권익 보호
	가. 건축사보 및 보조원 강습회	1) 건축사보와 보조원의 자질향상 도모 2) 임부취급요령 및 지침서발
	가. 회지 "건 축사" 발간	1) 건축사지 발간으로 회원 대변 지로서의 역할 수행 2) 회원의 설계작품 및 논문으로 내용 충실 편집 3) 해의 및 관련기관에 배부로 협 회 홍보 4) 회지발간 개선 ○특집호 발간 회수 및 지면의색 도화 확대 시도 ○취재기사 및 지부활동 기사 확 대 ○지방 지부 회원 참여의식 촉진

사업명	세부사업명	시행방법 및 내용	사업명	세부사업명	시행방법 및 내용
국제교류	가. 해외활동 강화	○ 회원작품 원고료 실비 지급 1) 회원의 기술인사를 위하여 선진국 시찰 적극 유도 2) 건축관계 국제기구 가입 추진 3) 선진국 건축관계 기관과 정보 교류	확립 나. 기타교육 캠페인	무 및 보수요율 실서확립 촉구 1) 정화교육의 시행절차 2) 각종 캠페인 전개	
회관이전	가. 회관신축	1) 회관신축공사 추진 총력 2) 회관 건립위 활동 전개 3) 신축회관 준공	새마을운동	가. 직장새마을운동 활성화	1) 직장새마을운동의 정착화 2) 자연보호, 불우이웃 돕기 3) 농어촌 일손돕기 4) 물자절약 운동 적극 전개
감사활동	가. 정기감사 실시 나. 특별감사 활동전개	1) 협회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및 감사 2) 지부 감사의 분소 업무지도 강화 1) 시정업무와 관련된 지도 활동 전개 2) 특정지역에 대한 수시감사 실시	봉사활동	가. 건축행정 상담실운영	1) 건축민원 상담 전개 2) 건축민원 상담을 통한 대외홍보 및 대민봉사 3) 설계도서 검토위원회 활동
사회정화 운동전개	가. 의식개혁 운동 나. 거래질서	1) 정화위원회 협의회를 통한 정화운동 적극 전개 1) 직업윤리관 확립으로 건축사업	홍보활동	가. 홍보활동	1) 일간신문 및 방송에 회원및 협회업무 홍보 2) 국민에게 건축사업의 인식 제고
			정관 및 제규정개정	가. 정관 및 제규정개정	1) 협회 운영의 지침이 되는 정관 및 제규정을 현실정에 맞도록 보완 개정

建築과 都市環境 세미나 개최

서울지부 소속회원 참석



서울지부(지부장 吳維錫)는 지난 11일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한 '83 建築과 都市環境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내 종근당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서울대 환경대학원 양운재교수와 한양대공대도시공학과 강병기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양운재교수는 「건축과 도시」라는

주제라는 강연을 통해 개체로서의 건축과 전체로서의 도시, 장치로서의 건축과 장소로서의 도시, 관계로 본 건축과 도시 등을 차례로 설명 했으며 강병기교수는 「건축설계에 도시적 발상」이라는 주제로 건축과 도시의 사이, 건축에서의 도시적 발상, 도시설계는 건축설계의 질곡이 아니냐 라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

의 사항으로 정기총회를 대비한 사항과 기타 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회원보수교육 이수내용 및 회관이전, 특별전형실시, 감사수감, 자율결의대회, 설계도서 검토제 등이 보고되었다. 그밖에 지난 9월 28일부터 16일간 소속 회원 14명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시찰단의 활동이 보고되었다. 이번 시찰단은 김형

인 서울지부 간사를 단장으로 외국의 건축기술 및 정보 수집과 현장견학으로 건축동향을 파악해서 국내 건축발전에 기여 하코자 시도한 것이다.

한편 동지부는 16명으로 구성된 북미지역 시찰단을 결정해서 18일간 계획으로 출발을 준비중에 있다.

한편 총회를 대비한 협의사항에서는 정관개정 및 83년도 제 2차 추경예산안, 84년도 수지예산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취미별 친목행사 가져

대구지부 4개그룹으로 나뉘



대구지부(지부장 金在佑) 소속회원들은 4개의 취미별 그룹으로 나누어 체육의 날 행사를 겸한 모임을 가졌다.

정구부를 비롯한 서예부, 등산부, 수석부로 나누어 실시한 이번 행사는 정구부의 경우 지난달 1일 대구테니스코트에서 16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

代議員 간담회 개최

서울지부 총회대비한 협의

서울지부(지부장 吳維錫)는 지난달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 오 응석 지부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먼저 그동안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협

운데 있었다.

또 서예부는 23일 경남합천 가야산에서 24명의 회원이 하루를 즐겼으며 등산부와 수석부는 30일에 매화산과 길안에서 각각 모임을 가졌다.

회원친목행사 가져 부산지부 이틀간 산업시찰도

부산지부(지부장 黃在澤)는 회원친목행사를 겸한 산업시찰을 돌아 왔다.

지난 달 19일과 20일 양일간 동지부 소속회원 114명 및 직원 등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건축자재 메이커인 한국유리 군산공장을 방문하고 공장시설을 돌아봤다.

군산공장에서의 생산과정 등을 살펴본 동지부회원 등은 그밖에 남원, 진주, 충의사 및 수덕사와 현충사를 돌아 보면서 회원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벼베기작업 도와 대구지부 농촌일손돕기



대구지부(지부장 金在佑) 회원들은 농촌 봉사활동을 벌였다.

가을 추수기를 맞아 비쁜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동지부 소속회원 120명은 지난 14일 하루를 벼베기 작업에 할애, 값진 땀을 흘렸다.

상오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한 벼베기 작업은 대구 동구 봉무동에 소재한 논에서 약 3천여평에 달하는 면적의 벼를 추수했다.

북괴규탄 결기대회

대구·경기지방 소속회원 등

경기지방(지부장 林龍漆)은 북괴에 의해 저질러진 버마 아웅산참사를 규탄하기 위한 결기대회에 참여했다.



□ 대구지부 / 북괴규탄대회

지난달 15일 동지부 소속 회원 및 직원 등 45명은 수원시 공설운동장에서 대대적으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하고 북괴의 만행을 온 인류의 이름으로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과 순국의교사절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했다.

이어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단합된 의지를 과시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대구지부(지부장 金在佑)회원 120명도 지난달 14일 북괴 규탄대회를 갖고 그들의 살인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문 등을 채택했다.

李殷奎 회원에 奉仕賞

'83大田市民賞 社会 부문에



□ 상을 받는 李殷奎 회원

충남지방 소속 李殷奎(이은규 건축) 회원이 대전시민상 사회봉사 부문상을 수상했다.

대전시가 매년 각 부문별로 한해동안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시민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시민상에 李 회원이 선발돼 지난 9월 30일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수많은 시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메달 및 부상(1백만원)을 받았다.



□ 경기지방 / 북괴규탄대회

영예를 안은 李 회원은 그동안 대전시의 어두운 곳을 찾아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밝은 사회조성에 앞장서는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주위의 칭송을 받아왔다.

특히 충남지방을 중심으로 한 사회봉사활동이 대전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회원들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지역 사회의 건전한 풍토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건축업무 순회 세미나

전남지방 회원·공무원참석



전남지방(지부장 林在植)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하반기 건축업무 지역순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남도 및 각지역별 시군 건축관계과장과 계장 그리고 동지부 소속회원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를 비롯 목포 여수 순천 등 3개 지역별로 순회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의 효율적 개선방안과 건축업무와 관련된 부조리척결 대책, 회원작품활동의 활성화방안 등이었다.

순회세미나에는 공무원46명과 회원 96명 등이 참석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新任 任員 / 就任 소감

다음은 지난 10월28일 본협회 제 18회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취임소감과 프로필을 간추려 소개한 것이다.

한편 이날 임기만료된 이사 및 감

사는 朴商浩이사 宋鍾彦이사 金一榮이사 金漢根이사 成勳婁이사 등 5명과 李康植감사이며 이 가운데 成勳婁이사가 유임되었다.

본협회는 俞景哲이사 韓鍾彦이사

李永熙이사 金亨仁이사 그리고 李春相감사 등 신임임원 및 퇴임임원의 이취임식을 지난 16일 가졌다.

“內実과 和合위해 努力”



俞 景 哲 理 事

- 1934. 1. 7 일 평북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 〈주〉 종합건축 설계 대표
- 연세공대건축과 강사
- 이화여대 대학원 강사
- 건축학회이사 역임
- 건축가협회이사 역임

이제 우리의 협회도 18년이라는 青年期를 맞이하여 이끄는 자와 이끌려가는 자가 따로 없고, 미는 자와 밀려가는 자가 서로 편청을 부리며 침묵의 대다수가 知覺있는 선도 그룹의 외침을 外而했던 時節의 거북스러운 幕을 서서히 내리고 있다.

어느 團體이거나 안고 있는 構造的인 多樣性을 均衡있게 調和하는 役割로서의 理事會 기능과 散在한 여러 機構의 活性化를 꾀하는 能動的인 회생精神을 발휘할 때 그리고 他意에 의해 強制된 劃-(통합)化를 多樣化하는 過程에서 忍耐를 갖고 順理대로 풀어나간다는 소명의식이 작동될 때, 비로소 協會의 內実과 會員간의 和合의 길이 트일 것이라고 믿어진다.

진정 사협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期待하기보다 우리가 사협회의 發展을 위해 〈한말의 밀알〉이 되어 奉仕하겠다는 마음 갖음으로 理事의 職에 임하고자 한다.

“相互協力으로 与件마련”



韓 鍾 彦 理 事

- 1937. 3. 1 전남
-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 김한섭건축연구소 근무
- 금성건축연구소 설립(현)
- 건축기술사 합격
- 국립공원시설 자문위원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지부감사

이번 總會에서 本人이 協會의 重寶를 맡게된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함과 同時に 責任感을 느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建築士들은 建築文化 發展을 위하여 最善을 다하고 있으며, 그 役割 또한 高度社會의 展開와 더불어 앞으로 더욱 增進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課題들을 先賢 建築人들이 닦아온 길을 따라 會員들과 幅 넓은 對話를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이 어디 인가를 摸索해 보겠습니다. 우리 建築士들은 왜 社會的으로 많은 責任만 어깨에 짊어진 채 應分の 待遇를 받지 못하는 不均衡한 現實에 처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조용히 研究해 가면서 스스로의 位置와 姿勢를 뒤 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建築士들이 作品活動에만 專念할 수 있도록 相互協力을 통한 与件 造成에 다같이 노력합니다. 많은 協助를 부탁드립니다.

“確固한 位置 확보에 注力”



李 永 熙 理 事

- 1938. 5. 29 경북
- 1961.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 김중업건축연구소 □ 국회사무처
- (현) 회림건축 대표,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지부 강사, 건축가협회, 건축학회정회원, 한국엔지니어링클럽 정회원

성년을 눈앞에 둔 우리 협회. 이제 어른다운 방향설정을 명확히 하고, 전문인으로서만 구성된 화합된 단체로서의 긍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역사를 통해서 급속하게 발전하는 현대건축 기술을 땀흘려 소화시키고 우리것으로 만들어 건축문화 창달의 주역이 되어온 우리 이천 회원입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이사회에서 전문 건축인으로서 만족스런 위치를 굳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고있는 환부는 과감히 수술을 하고, 우리 분야에 관한 정책입안에는 적극참여와 부단한 건의를 하여 우리의 자리를 다듬어 가야겠으며 또한 주어진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적 의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재임동안 긍지를 갖고 일하겠사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領域 모색에 努力”



金 亨 仁 理 事

- 1940. 11. 25. 서울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 대한주택공사 근무
- 농수산부양정국 근무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지부 간사
- 세한건축종합사무소 대표 (현)

協會의 발전이 곧 會員의 權益과 地位向上의 길임을 믿는 會員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一線에서 協會運營에 參與케 됨에 무거운 責任感을 느낀다.

이미 우리協會는 2천여 會員의 求心體로서 단순히 建築士라는 專門技術人들의 共同權益만을 追求하는 役割만을 行使해서는 眞正한 意味의 명백유지가 될 수 없으며 보다 視野를 넓혀 國家와 民族에 貢獻할 수 있는 폭넓은 領域모색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는 建築文化가 点有하는 廣義의 觀點에서도 그 백락을 같이하며 그만큼 우리 會員의 責任이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 建築分野의 關心事가 對內外的으로 크게 부각됨에 따라 協會를 중심으로한 有機的인 対応方案이 現實에 맞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 努力의 일단을 所信껏 遂行해 나가고자 한다.

부디 우리나라 建築文化 육성에 애쓰시는 會員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라며 많은 지도 편달을 마란다.

“協會 運營刷新에 힘쓸 터—”



李 春 相 監 事

- 1936. 5. 1. 서울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 중앙산업(주) 설계실 근무
- 신양건축사무소개실
- 서울시건축자재심사위원역임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지부간사역임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역임
- 한국건축사협회정회원, 건축학회 정회원
- 신양건축사무소 대표(현)

지난 18회 정기총회에서 본협회 監事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을 맡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협회가 창립된지도 어언 18주년이 되었고, 협회의 制度和 運營도 本軌道에 올랐다고 여깁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65년에 창립되어 본인이 서울支部 幹事와 그 후 本協會 理事로 在任했을 때는 협회의 운영체제가 支部단위로서 협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차츰 秩序가 잡히고

이제는 우리의 會館을 新築할 만큼 성장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會員여러분의 協조와 勞苦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에 본인은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키 위해 監事로서의 職分에 重責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협회의 任員으로서 좀 더 發展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평소에 느낀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협회의 총회는 代議員으로서 構成되므로 총회에 참석치 못하는 會員의 代辯을 정확히 하고, 첫째 모든 사업계획수립이 妥當하며 그에따른 予算編成이 能率的이고 效果的으로 편성되었는가를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事業에 의한 受益團體가 아니며 회원의 權益을 옹호하는 團體로서 運營方針이 正常軌道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支部間의 運營 및 業務가 統一性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業務處理의 統一性이 결여되어 회원업무에 불편이 招來되고 있습니다.

셋째 협회운영에 生動感을 조장하기 위해 人事管理 徹底와 人力監査의 徹底로 紀綱을 바로잡아 懶怠性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째 협회(支部포함)의 予算歲出이 좀더 能率的이고 適正하게 執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監査의 目標設定을 통해 우리協會가 날로 發展하여 先進祖國에 부합되는 先進協會가 되도록 誠意를 다하고자 합니다. 부디 會員여러분의 많은 協助를 當부드립니다. 늘 이로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옵기를 빌며 건강과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本協會 移轉紀念品 답지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4일 본협회 이전에 따라 각계에서는 이를 기념하고 장족의 발전을

성원해 주었다. 특히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서는 각종 기념품을 전달하고 뜻을 기렸다. 답지된 기념품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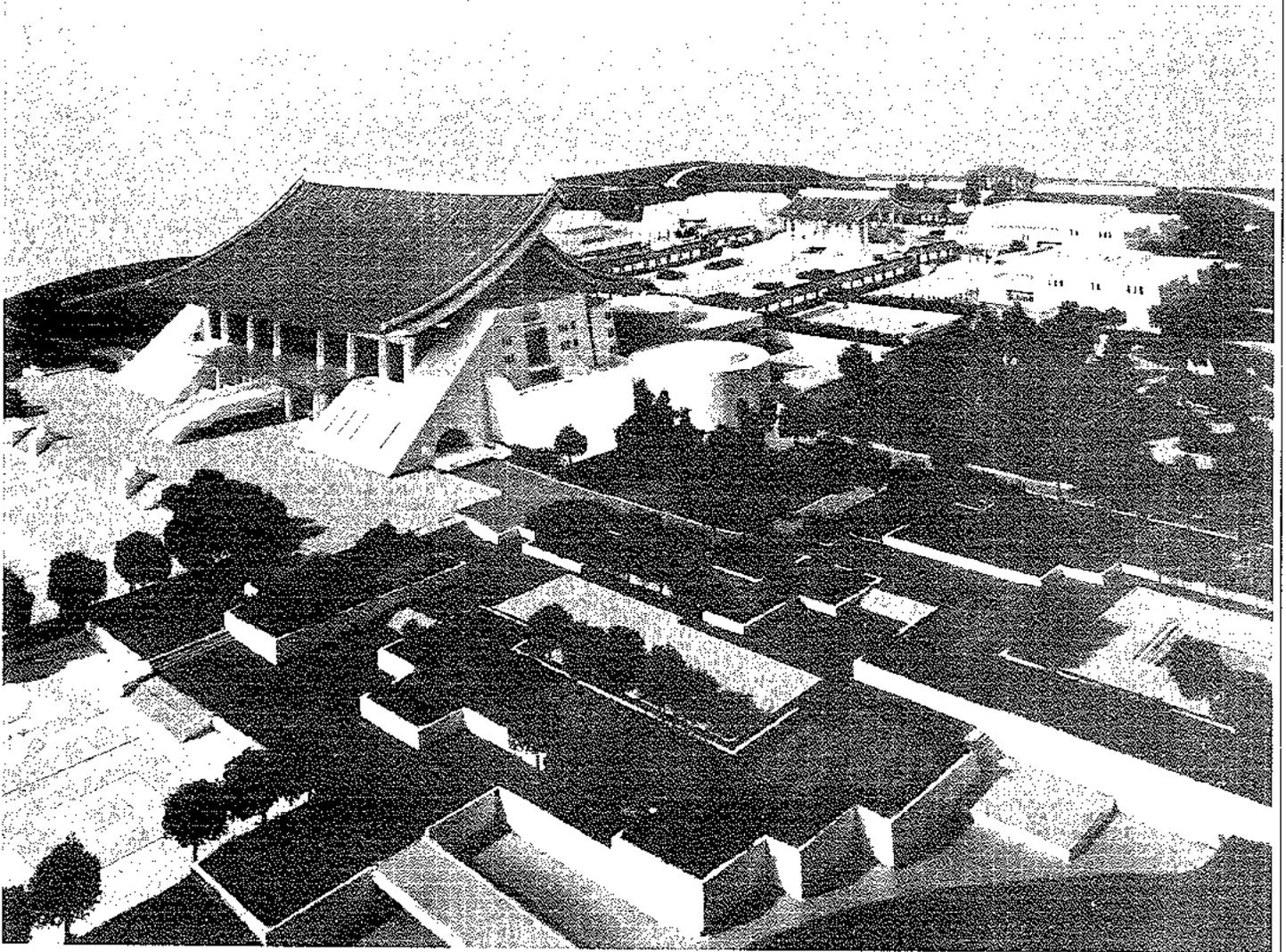
△(주)대룡= 화분 2 개스주택은행저축추진부- 탁상용풍스주택은행 서대문지점

= 벽시계 2 개스주택은행양재동지점= 화분 2 개스한국건설교육원= 화분△(주)삼호= 화분 △의환은행서초남예금취급소 = 화분△신정문화사= 벽시계 △종로화원= 화분

特 輯

獨立紀念館 懸賞設計 當選作 紙上紹介

金基雄 / 건축설계연구소 소장



독립기념관 현상설계 당선작이 발표되었다.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현상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아 당선작과 가작 2편을 확정 발표했다.

최종 당선작에는 본협회 金基雄(삼정건축) 회원의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그밖에 金炯萬(홍익대 환경대학원장)

씨와 鄭吉浹(재미 건축가) 씨 작품이 각각 가작으로 뽑혔다.

당선작은 독립기념관 건립 대지의 지형 특징을 살려 옥성산으로 부터 독립기념관 입구로 이어지는 축을 활용, 입구인 독립대문, 상징조형물, 독립연못과 광장, 기념당, 전시관, 기조광장, 기획전시공간, 소기조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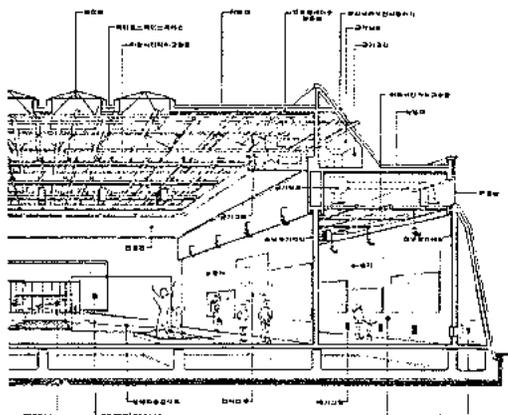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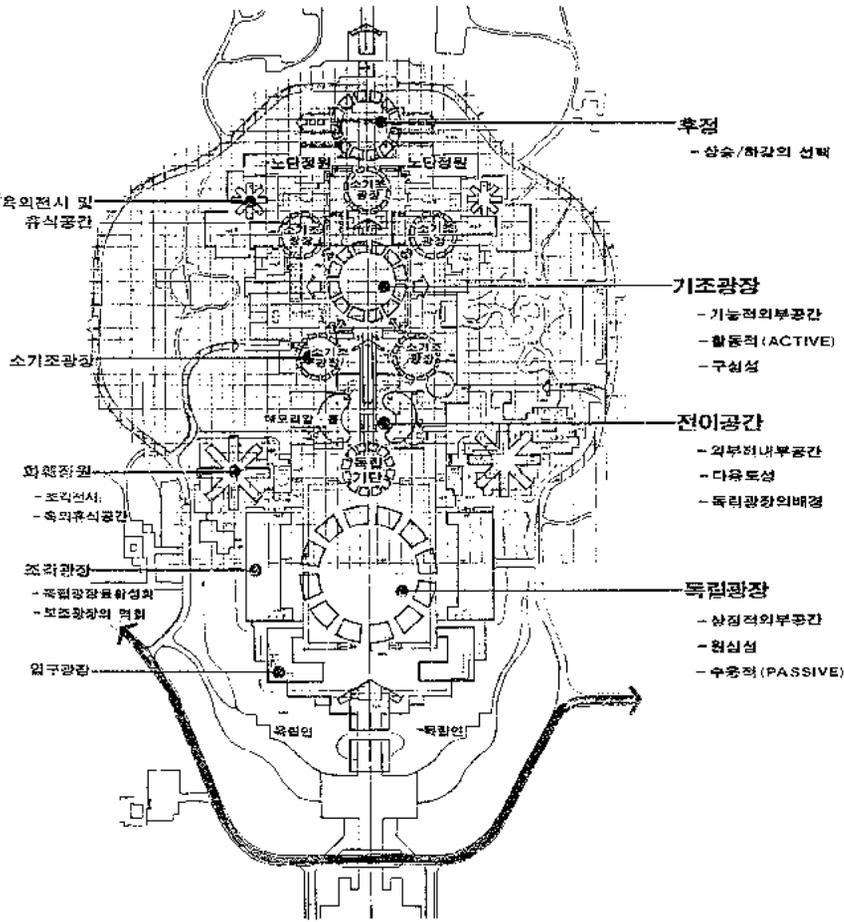
추념의 장으로 연결했다.

독립기념관건축추진위원회는 모두 46점의 공모작품중 지명설계한 6점을 9일부터 20일까지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반에 공개했다.

일반공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선작가와 협의, 실제 기념관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 공간구성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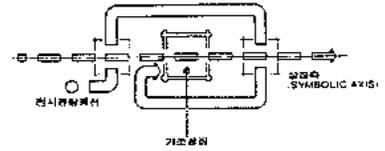
— 전통적공간구성체계의수용과합성화



부분상세도
축척 1/200

□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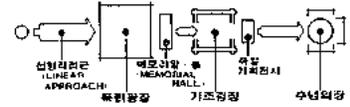
● 상징축과 체형축의 병리에 의한 경직성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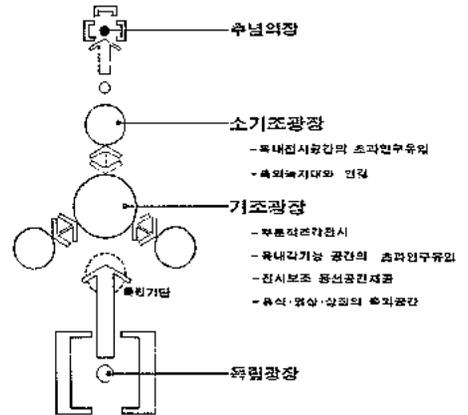
● 정형적인것과 비정형적인것 (정·형)의 대립과조화

● 기존 선형축(LINEAR AXIS)의 보강

— 대지규모(SITE SCALE)에서 점요소(Point Element)에 의한 영역의양호수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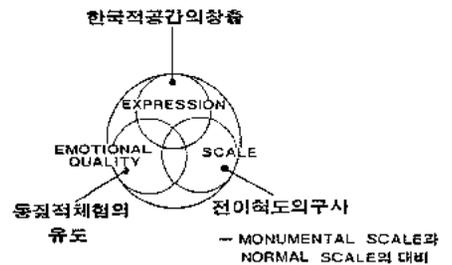


□ 외부공간의 분화(分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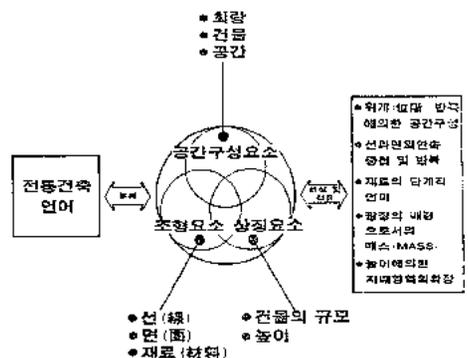
□ 상징성의 해석

— 체형과 시각적 쾌적성 (VISUAL AMENITY)의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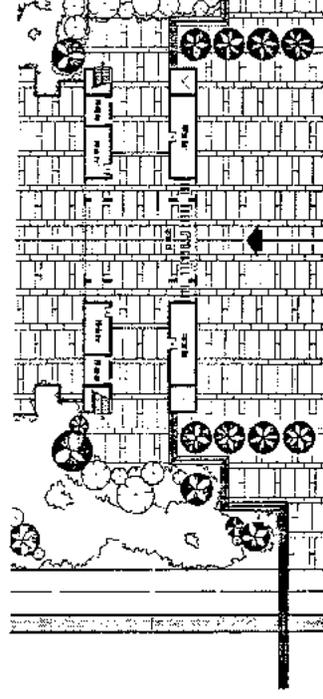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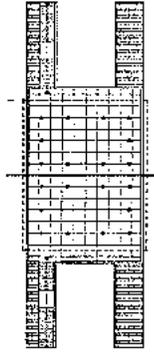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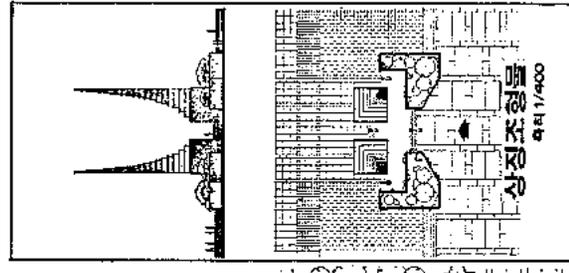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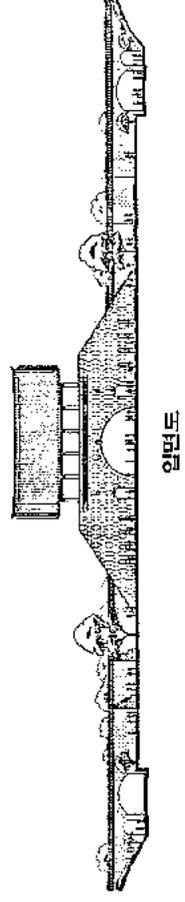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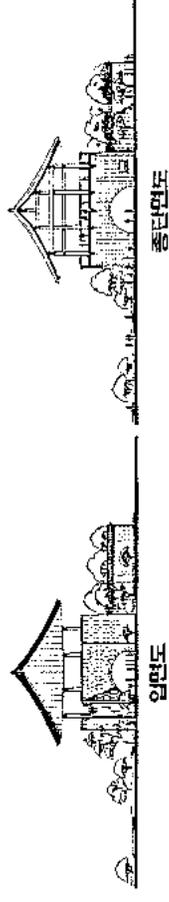


□ 전통의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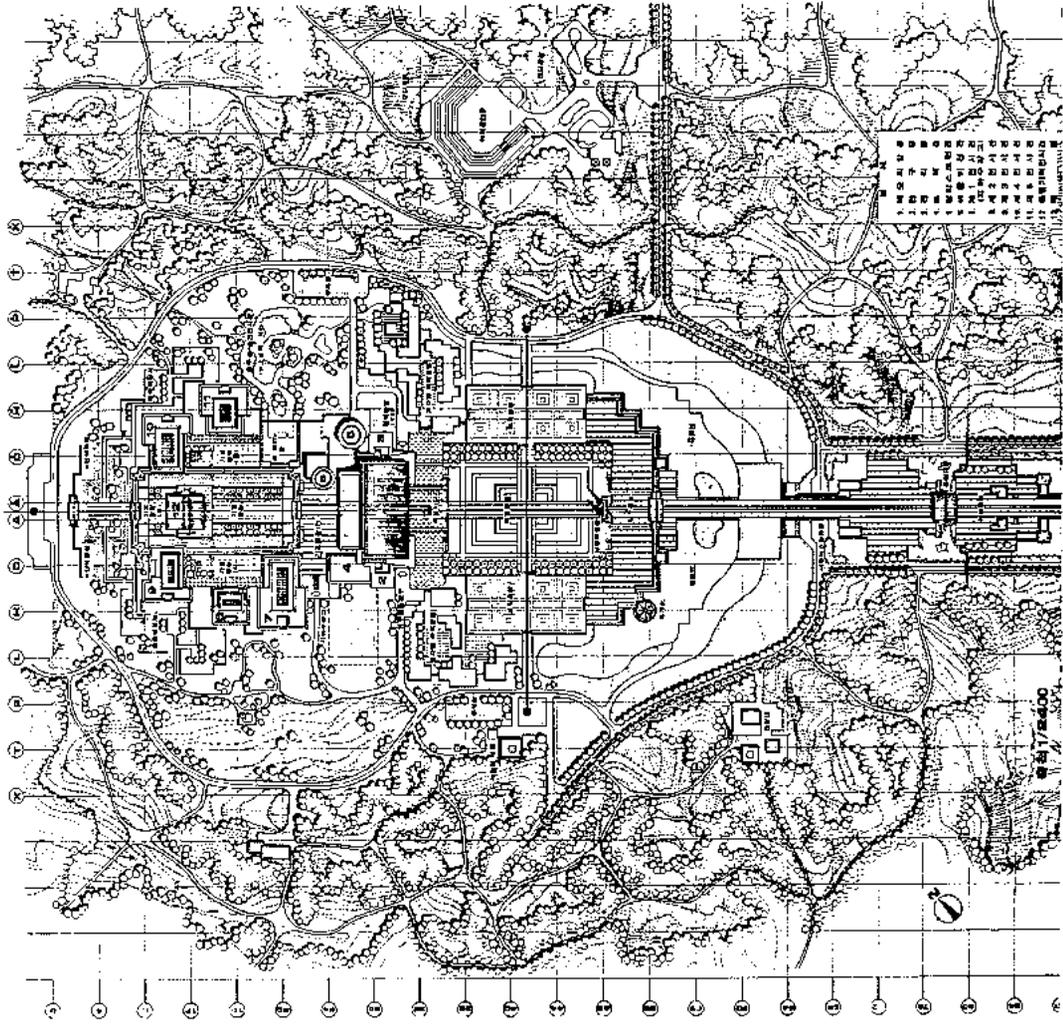
— 전통건축 언어의변해 및 적용



독립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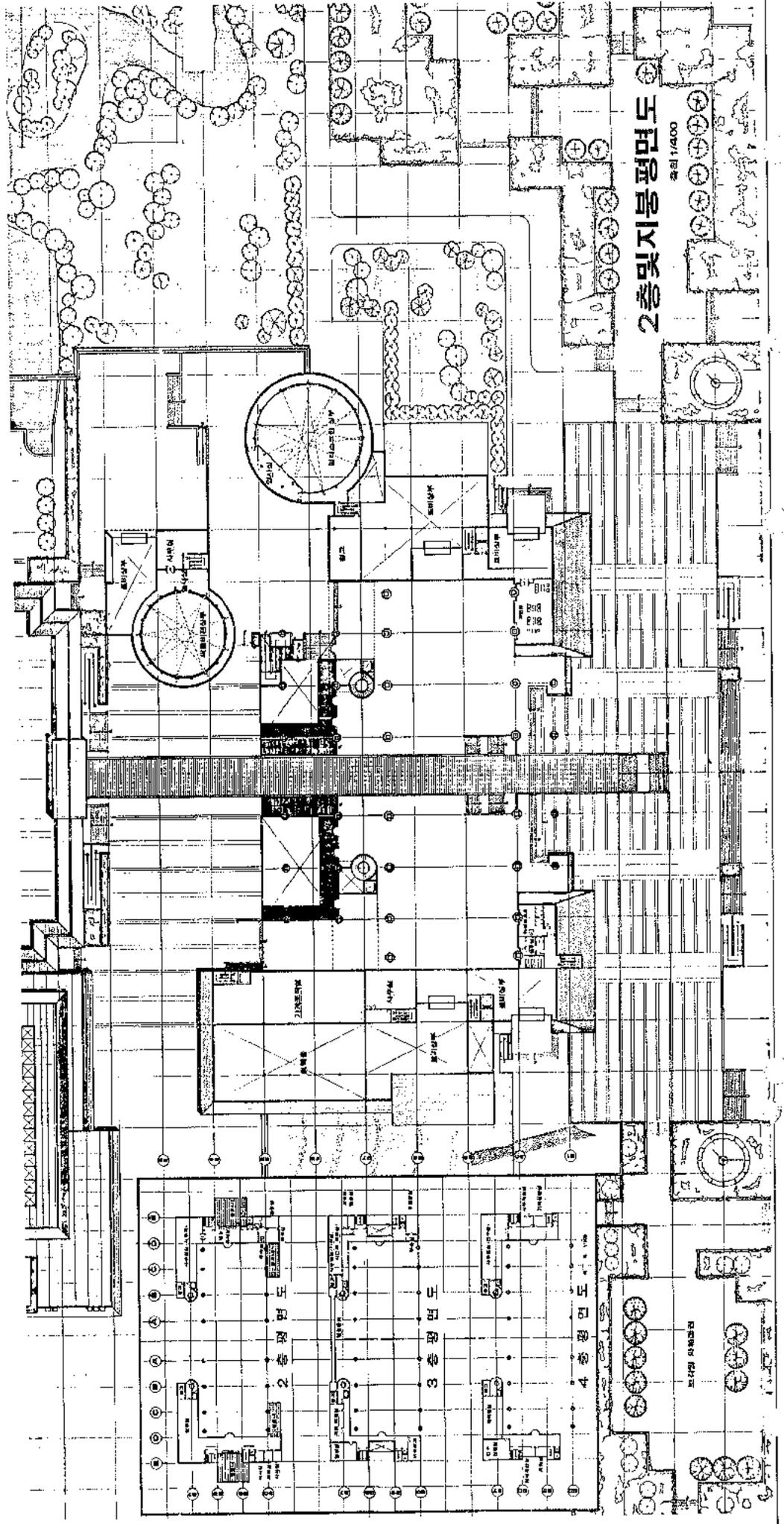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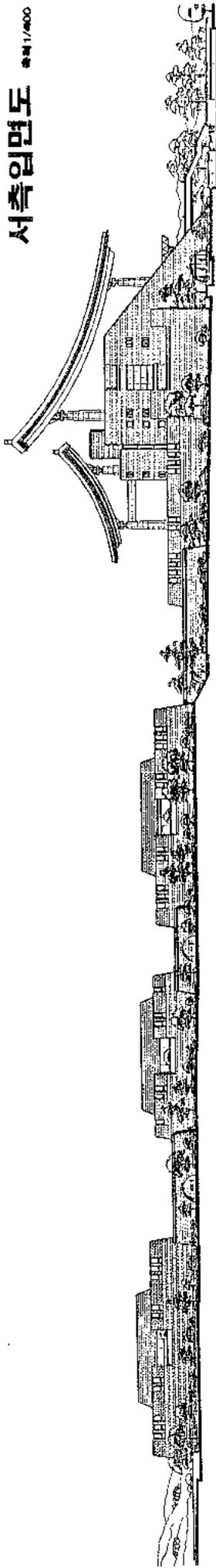


종합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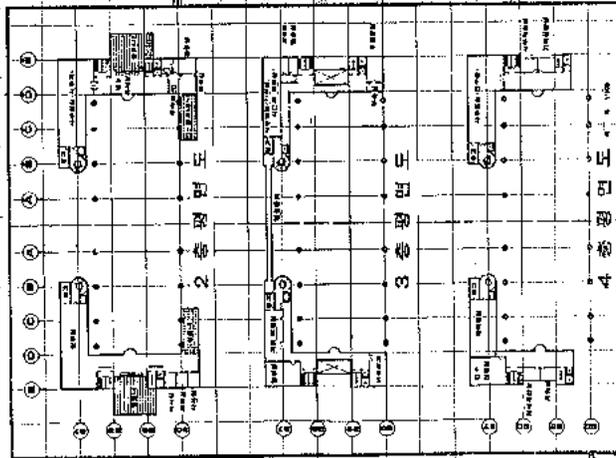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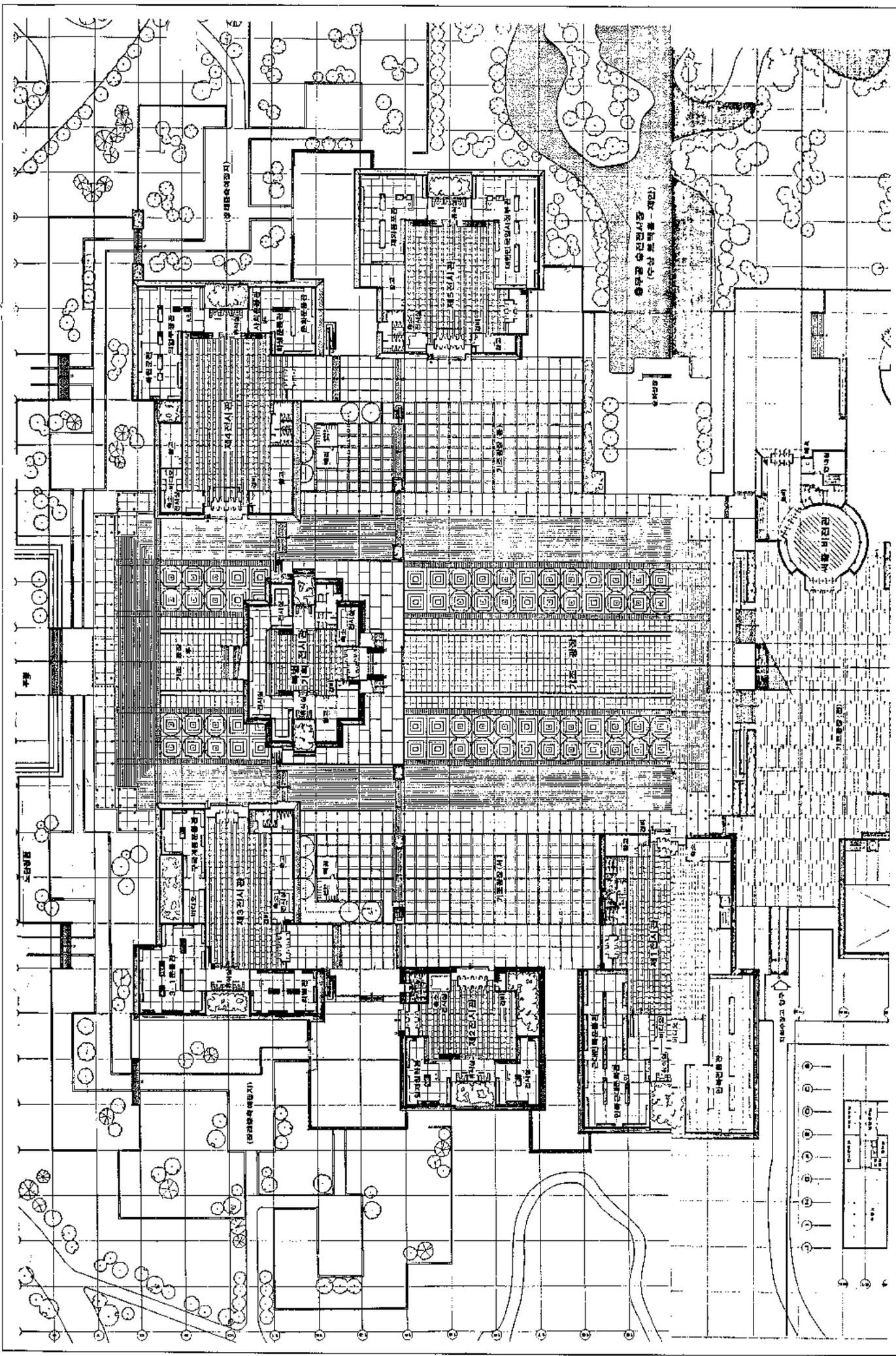
축척 1/400



2층및지붕평면도

축척 1/400





배치 및 1층 평면도

규모 1/400



경복궁 근정전 일부

□ 傳統建築 / 現住所

韓國建築의 造形

金 東 賢

(文化財研究所 / 保存科學研究室長)

建築의 造形美는 여러가지로 분석되고 측정되어 결론에 도달된다. 말하자면 건축이 놓여지는 주변환경이라던가 建築自体가 갖고 있는 形態나 色相들, 그리고 이들 形態와 色相에서 나타나는 對比·反復·比例·調和 등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분석되고 파악되어야만 전체적인 評價基準이 導出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建築이란 원래 美的인 要素外에 人間生活의 容器로서의 實用的인 根本問題가 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審美的인 見解만으로 考察해 나가는데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建築美의 분석에는 個個人의 接近方法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數學的

公式과 같이 평가방법 數値를 代入해서 美的要素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형편에 있다.

우리나라 建築에 있어 그 造形美를 고찰해 나가는 데에도 역시 어려운 점이 따르고 있다. 한국의 建築美를 처마曲線에서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연과의 조화에서 찾기도 하고 구부러진 기둥이나 보의 自然材 그대로의 形態에서 그 특색을 찾기도 하였다. 따라서 韓國建築의 造形美는 曲線의 美, 自然順應의 美, 自然志向의 美로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고 이러한 美的 요소들을 包括해서 造作은 自然性, 無技巧의 技巧性 또는 非整齊性·無觀心性 등으로도 표현하였

다.

韓國建築은 일반적으로 自然과의 對應에서 自然 그대로의 모습을 크게 變形시키지 않으려 한 것은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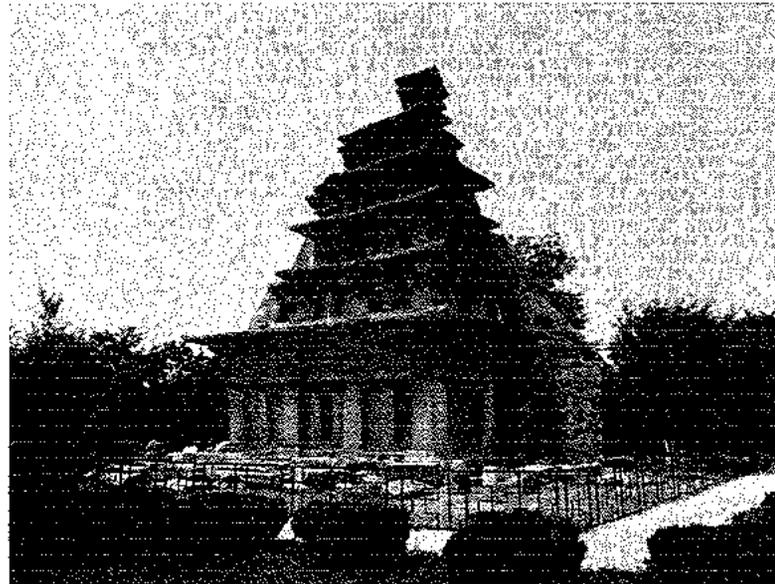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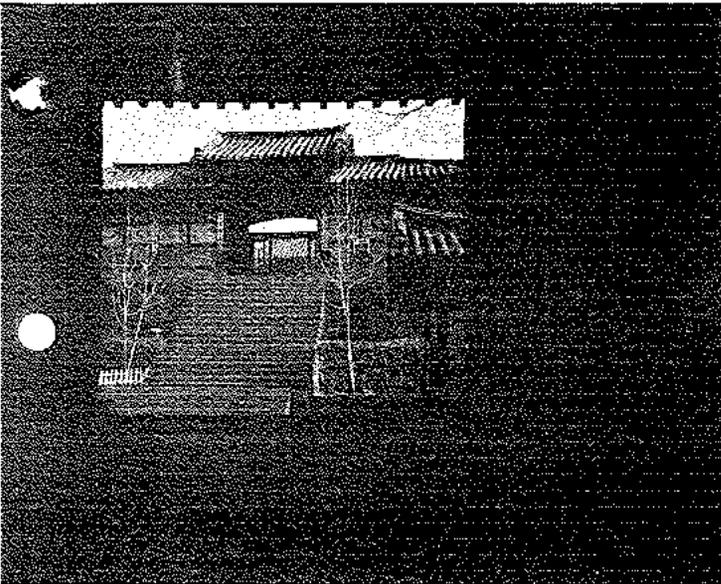
이러한 實例는 특히 山寺의 배치에서 볼 수 있는데 自然地形에 알맞는 軸을 여러개 두어 自然地勢에 拒逆함이 없도록 하였다. 경북 榮州의 浮石寺나 경남 陝川의 海印寺, 전남 求禮의 華嚴寺 등에서 이러한 좋은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自然地形의 원형유지 원칙과 地形에 따른 屈折軸이나 平行軸 등에 의한 建物配臚는 人工造景의 조각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처음부터 아예 造山이나 庭園樹 따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게 하였다. 이러한 實証資料는 韓國民族의 얼굴이고 마음이라 할 수 있는 住宅建築의 地地選定과 활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住宅은 四面으로 둘러싸인 自然 그대로가 住宅庭園이 되었고 自然 한 구석의 큰 소나무 한그루가 그 住宅의 庭園樹로 鑄用되었다.

門으로부터 시작되는 正殿에의 到達過程에서 보면 解脫門·天王門·中門 등의 通過經路없이 正殿에까지 쉽게 접근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는 宮闕建築의 配置形式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韓國建築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住宅의 경우, 行廊間의 大門을 통해 中門에 다다르게 되고 중문

해서 부드럽고 曲線이 많은 女性的의 造型물이 되게 하였으며 釋迦塔은 多寶塔에 비해 단순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男性的의 造型물로 만들어 서로간의 균형이 相對性을 갖도록 造營되었다. 그런데 이 多寶塔과 釋迦塔의 開어진 均衡調節이 紫霞門, 즉 中門 동과 서에 세워진 左經樓와 泛影樓



해인사 進入軸 미륵사지석탑

다시 말하자면 울타리 안에 自然아닌 自然模倣을 배겨하고 울림어 自然을 울림으로 끌어들이는 지혜를 짜내었던 것이다. 이러했던 韓國建築의 生理는 自然 속에서 생활하기를 갈망했던 韓民族의 心性이 노골적으로 表出된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建築空間 내에서가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人工物과 自然과의 조화에도 造形的 構想이 作動, 自然과의 어울림에서 自然이 人工의 建築物을 포용해서 서로 共存自生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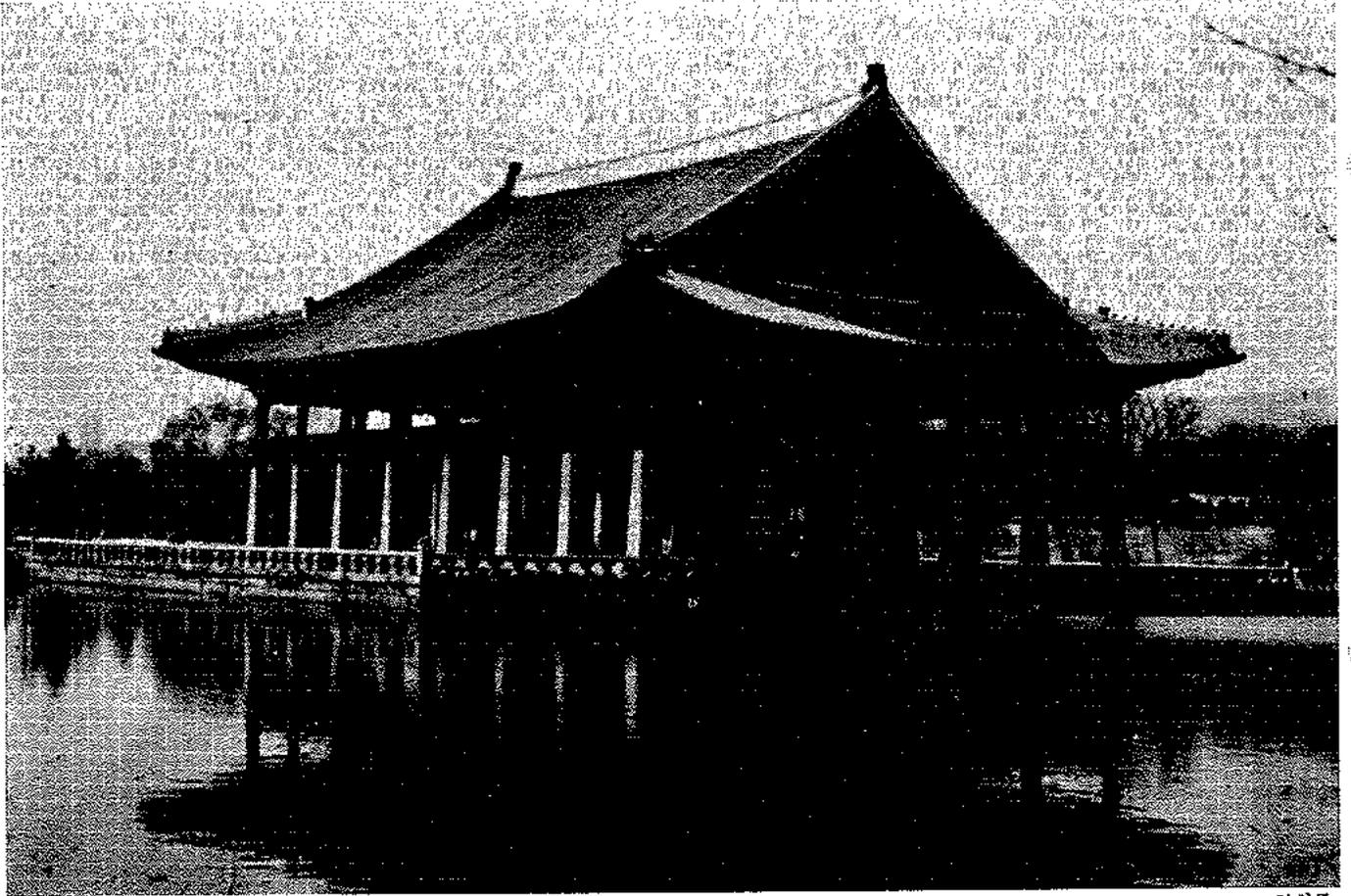
결국 韓國建築에서의 立地選択은 곧 自然에로의 歸還이며 歸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自然歸還·自然歸屬 때문에 韓國建築의 이해와 판단은 좀처럼 쉽게 우리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 건축의 이해는 여러번 두들겨야 비로소 자신의 문을 열어 自己紹介를 하는 그러한 큰멋과 깊은 내용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寺刹이나 宮殿建築과 같은 權位爲主의 建築과 住宅에서의 正殿·正堂·안채를 한꺼번에 노출시키지 않는 平面的 配置形式에서도 알 수 있다. 山寺의 경우 柱

을 통해 안채로 들어가게 되는 配置形式이 일반적인 예이다. 이때 大門과 中門의 배치는 서로간 一直線上 놓이지 않도록 軸을 달리해 엇비껴 배치해 안채가 대문에서 들여다 보이지 않게 하였으며 中門과 안채의 大廳도 一直線上의 배치를 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배치는 소위 非整齊性이나 非對稱性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配置原理는 韓國建築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非整齊性 원리는 立面上的의 조화나 대비와도 연결되는 造形美 원리와 결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예는 경주 佛國寺의 平面과 立面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佛國寺의 경우 平面 배치형식이 教理에 의해 大雄殿 一廊이 동쪽에 위치, 現世的 平面이 되고 極樂殿 一廊은 서쪽에 大雄殿 一廊보다 한段 낮추어 未來指向의 平面이 되었고 大雄殿 북쪽에는 한段 높게 毘盧殿 一廊을 만들어 과거의 空間으로 잡아 三次元的 時間性을 平面自体에 부여하여 주었으며 立面에서는 大雄殿 앞 石塔 배치에서 동쪽에 多寶塔 서쪽에 釋迦塔을 세웠는데 多寶塔은 釋迦塔에 대응

(石經樓)의 石柱에서 조정되었다. 左經樓의 石柱는 石窟庵의 前室과 廣室 사이의 羨道 끝부분에 세운 八角石柱와 同形의 것으로 八角石柱 중간부분에 蓮花紋 中臺石을 놓아 단순하게 처리하였음에 대해 泛影樓의 石柱는 眼象形 石柱로서 동쪽 左經樓 것에 비해 複雜性을 띄우게 하여 결국 內廊에서의 두 塔, 釋迦와 多寶塔에서의 不均衡을 外廊立面上에서 바로 잡고 있다. 이 예는 非整齊性·非對稱性에서의 질서이며 통일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非整齊性 내지 非對稱性에서의 질서와 통일성은 建築과 建築 사이에서만 아니라 自然과 建築이 서로 對比條件이 될 때에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크게 보아 都市計劃의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여러가지 암시를 준다. 이 예를 景福宮에서 찾아 보면 우선 주요 建築物들은 主山인 白岳에 대해 그들 지붕마루의 線 처리가 水平的, 즉 靜的方向인데 대해 主山인 白岳은 垂直的인 動的方向의 흐름이며 서쪽의 仁旺山에 대한 主要建築物들의 지붕처리는 水平에 대한 垂直에의 對比를 이룩해 조화있는



정외루

空間處理를 하였다. 이러한 예는 韓國建築에서 그 實例를 많이 찾을 수 있는데 비단 景福宮에서의 周邊環境과 建築物間의 水平·垂直의 對比가 아닌 水平과 水平, 垂直과 垂直 등의 질서나 통일성의 반복 예도 적지 않아 그때그때의 周邊環境과 대상 建築物간의 상호 連繫性이 크게 造形心理를 작용시켰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韓國建築의 立面觀은 建築群間의 균형도 균형이러니와 독립된 單一建築物에서도 그 특색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木造建築의 경우 基壇과 軸部 그리고 지붕은 서로간에 異質的인 재료들로 구성되어 자칫 比例를 잘못 잡으면 不調和·不均衡의 醜物로 전락하기 쉽다.

木造建築에서의 正面觀 비례는 대개 屋蓋높이와 軸部높이를 1대 1로 잡은 경우가 많으며 軸部와 基壇高 비례는 建築物이 놓이는 地形과 地勢에 따라 비례의 기준이 일정치 않으나 權位建築일 경우에는 基壇高 비례는 軸部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사사로운 建築物일수록 약하게 잡고 있다. 또한 建物の 延面積이 커지고 建物高가 높아질 때에는 越臺(月台)라

는 완충공간 구역을 두어 建物の 内部空間과 外部空間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도 하였고 獨立建物の 偉容도 돋보이게 하였다.

軸部の 造形處理에도 세심한 배려가 기울여졌다. 즉 柱間의 크기 設定, 기둥高의 調整, 기둥의 安쏠림手法, 이와같은 細部技法에서는 주로 意匠的인 面과 力學的인 안복에 힘을 기울였다. 柱間은 建物中央에 놓이는 御間을 가장 크게 잡고 兩側 夾門으로부터 退間 쪽으로 가면서 차차 柱間 크기를 御間보다 짧게 잡아 立面上 安정감을 주도록 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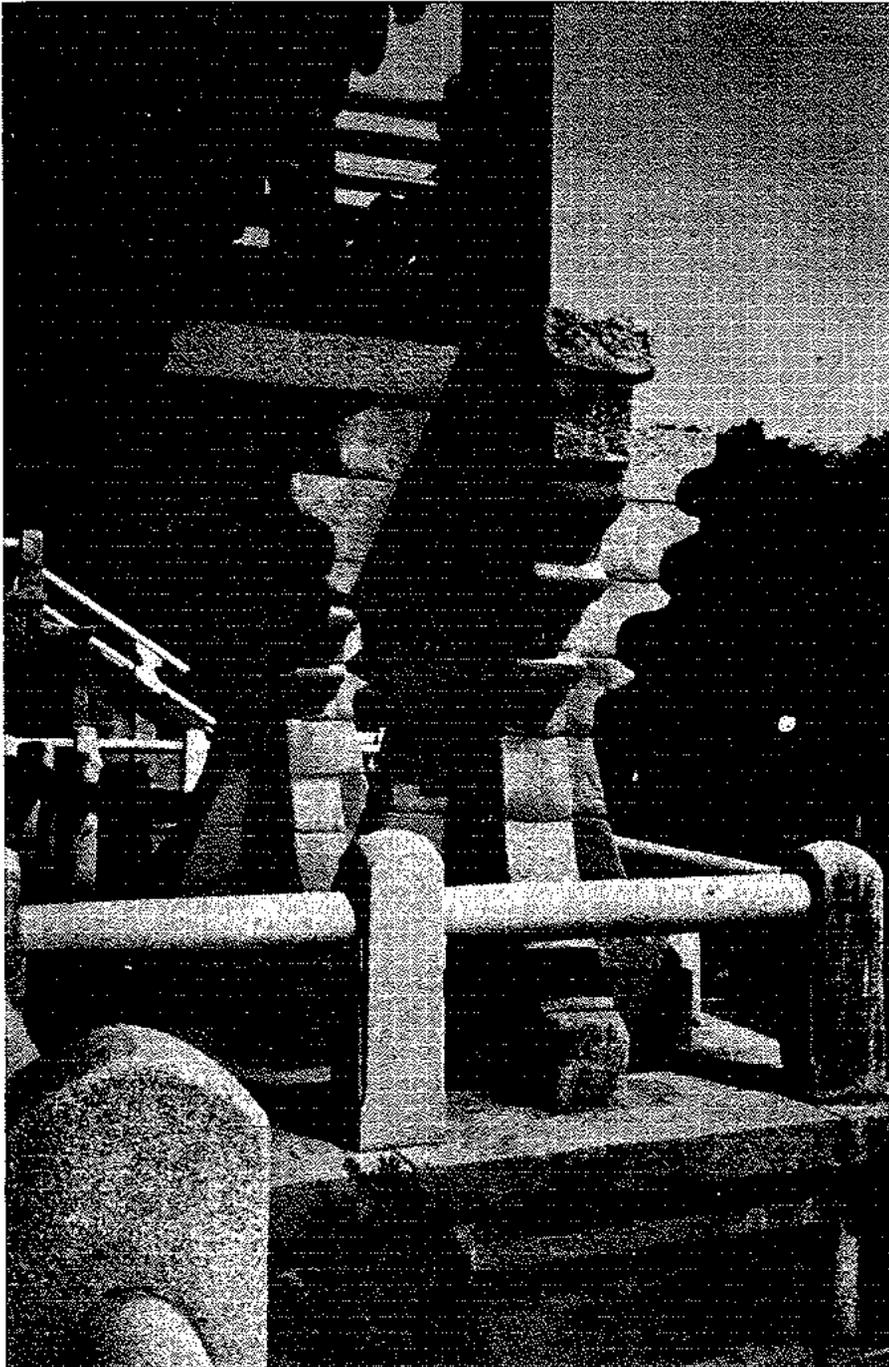
기둥의 높이는 柱間크기 설정과 반대로 중심에서 遙으로 갈수록 御間의 中央 기둥 높이보다 길게 하여 礎기둥에서 가장 길게 하였다. 이러한 技法을 귀솟음 기법이라 한다. 이 技法은 錯視로 인한 軸部 및 建物全體의 不安定함을 교정하기 위한 첫째 이유가 되었으며, 둘째 이유로는 柱間 크기의 변화와 기둥높이의 변화로 시각적 無倦怠와 對比意味를 追求함에 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안쏠림技法도 솟음技法과 동일한 목적추구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技法은 力學的인 고려도 함께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技法의 일종이다. 기둥의 안쏠림技法은 혹 오금手法이라고도 하는데 외두리기둥(外陣柱)을 건물내부 쪽으로 약간씩 기울여 세우는 기법으로 기둥뿌리에서 기둥머리가 기울어지는 정도는 柱間數와 기둥고에 따라 기울기 차이가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외두리기둥의 기둥 머리를 건물 안쪽으로 기울임으로써 立面觀이 임격히 말해 사다리꼴(梯形)로 되어 결국 堅實하고 安定되게 보이며 力學上으로는 軸部の 뒤틀림을 방지해 주는 역할도 하였다. 이 수법은 비단 木造建築에서만 보이는 技法이 아니라 三國時代의 石塔을 비롯해 면면히 전수되어 내려왔다. 百濟 때의 益山 彌勤寺址 西塔石柱와 統一新羅期의 石塔들 대부분에서 흘림기둥이나 솟음기법 그리고 안쏠림技法을 발견할 수 있다.

韓國建築에서의 意匠의 기법은 여러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우선 立面處理의 예를 들어 한가지 소개하려 한다. 樓閣의 경우 흔히 欄干이라는 裝飾部材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欄干部材는 기능상 樓閣 床面에



불국사 眼象石柱

서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된 施設物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外觀上으로는 意匠材가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欄杆은 대부분 아래 윗층의 中間部位에 설치되는데 이는 아래 윗층 사이의 不協和를 슬기롭게 減少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아래층 기둥을 높기둥으로 하고 윗층 기둥을 나무기둥으로 사용한 亭子나 樓閣建物에서는 돌과 나무라는 異質材의 不調和를 크게 격감시켜주는 裝飾的 효과를 나타내어 建物을 보다 均衡있는 造形美에로의 追求에 다다르게 하였다.

이 實例는 景福宮에서의 方池에 세

워진 慶會樓가 그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南原 廣寒樓, 삼척, 竹西樓 등, 수많은 實例에서 접할 수 있다. 이러한 異質物間의 不協和를 意識적으로 해소시킨 예는 단지 건물에서만이 아니라 基壇 築石에서도 엿 볼 수 있다. 佛國寺의 紫霞門 앞 大石壇 하층의 築石工法을 보면 地面으로부터 石築을 쌓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石築은 自然石 그대로를 사용하였다. 이는 윗층 築石인 大石壇이 人工石材를 사용한 것에 對比되는 築石工法이다. 이는 自然의 地盤面에 人工物의 설치가 不自然함을 상쇄시키기 위한 완충적 意匠效果를

발휘한 新羅人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즉 自然物 위에 곧바로 人工物이 놓였을 때의 不調和를 中間層에 自然石築을 쌓음으로 해서 調和美를 남게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목조건물을 지을 때 礎石을 自然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데 礎石 높이를 고르게 하지 않고 上面도 다듬질되지 않은 위에 그랭이 된 기둥을 세웠던 原理와 같다.

이러한 技法 또는 手法을 조작없는 自然性이라던가 技術的인 完璧에 대한 無關心性 또는 無計劃性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는 무관심이나 무계획에서 나온 所産이 아니라 오히려 關心과 計劃性이 達觀된 경지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낼 수 있는 넓고 깊은 멋의 技法이나 手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韓國建築 細部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안동의 鳳停寺 極樂殿이나 淨石寺 無量壽殿, 修德寺 大雄殿, 康津의 無為寺 極樂殿, 景福宮의 勤政殿, 그리고 昌德宮 내의 諸殿과 秘苑 建物들에 보이는 대들보의 治木한 솜씨나 栱包의 침차부재 세부, 萃盤의 彫刻 技法 등 자그마한 곳에서도 소홀함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三國期·統一新羅期의 石造建築 細部에서 보여주는 치밀성은 한층 더 이를 증명해 준다.

또한 意匠의 효과는 架構 構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現代建築論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최적의 구조재가 최상의 외장이라는 이론에 부합되는 架構形式을 한국건축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階層台의 曲線處理라든지 修德寺 大雄殿의 架構, 淨石寺 祖師堂의 內部空間 구성에서 더 넣지도 뺄 수도 없는 架構形式을 實例로 들 수 있다.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한국건축의 造形美 뿌리는 결국 깊고도 큰 멋을 지향한 自然으로의 귀환을 목표로 삼고 숙련과 경험을 토대로 한 達觀된 造形意識에 있었다고 생각해 봄직하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뿌리를 바탕으로 우리 건축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만을 알고 행하는 工匠에 그치지 말고 「무엇을」까지도 곁들여 알고 행하는 哲學을 갖춘 建築家들을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都市再開發事業의 合理的인 施行方案 (連載 II)

(서울市 事例分析 中心으로)

盧 椿 熙

(서울市立大學 都市行政大學院 教授)

(2) 우리나라의 都市再開發

現代都市의 再開發은 外部空間爲主의 再開發이 아니라 그 시대의 意志를 담은 創造的인 綜合再開發計劃(Comprehensive Plan)이 되어야 하며 再開發의 목표는 地域社會(Local Community) 自体가 바라고 선택하여 추구하는 目的이 라야 한다.²⁸⁾

우리나라에서는 8.15해방 이후 6.25 등란 등 전쟁과 混亂期의 부질서 속에 計劃性없는 建築 등으로 首都 서울의 再開發問題가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의 再開發事業이 都市發展에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인식하게 되었으나 1966년 10월 15일 建設部告示 第2819호로 敦化門에서 퇴계로 區間을 再開發地區로 지정하게 되어 세운상가를 建立하면서 再開發事業이 시작되었다. 이후 1968년에 비교적 高地帶의 不良地區인 南山·漢南·龍山·永川·新堂·孔德地區 일대 1,356千坪이 建設部告示 第2153号(1968. 1. 18)로 住宅改良事業의 再開發地區가 지정되었다.

그 당시 再開發事業이 都市開發 政策上 주요한 사업으로 대두되어 事業施行을 위하여 地區別 현황조사, 開發計劃案의 樹立, 地區內의 建築 및 財產處分의 制限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별다른 事業의 進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 主要原因은 어느 地區를 막론하고 事業施行을 위한 財政의 부족, 土地所有者들의 參與度 부족 및 民間資本의 零細性 또한 法的 으로도 강력하게 시행할 근거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諸問題를 해결하고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1971년 1월 19일에

改正된 都市計劃法에서는 再開發事業의 施行要件·實施計劃·管理處分計劃·清算 등에 대하여 規程함으로써 再開發事業을 위한 法的根據를 뒷받침하여 주었으며 이어 1972년 12월 30일 都市計劃法의 改正으로 “特定街區整備地區”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特定地區開發促進에 관한 臨時措置法이 제정되어 再開發事業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都市開發轉換點의 계기가 되었다.

그후 政府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再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1976. 12. 31 法律 第2689호로 都市再開發法을 制定·公布하여 都市의 계획적인 再開發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再開發事業을 촉진하고 건전한 都市發展과 公共福利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再開發事業의 目的은²⁹⁾

- 首都서울의 中樞 都市機能回復
- 將來의 都市整備를 고려한 施設需要의 供給 및 質의 向上

· 都市部 全般의 綜合計劃 樹立에 의한 地區計劃의 方向設定 및 統一性 維持·市民의 情緒純化를 위한 都市空間造成과 公共施設確保(道路·公園·停車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目的下에 1977년 11월 22일 서울市 再開發事業條例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1978년 12월 5일 租稅減免 規制法의 개정과 1979년 1월 9일 “再開發地區建築物에 대한 市稅課稅免稅에 관한 條例”가 제정되어 國稅 및 地方稅의 免稅惠澤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서울市 再開發에 있어서 주요 年華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³⁰⁾

1971. 1. 19. 都市計劃法改正(都

市再開發事業에 關한 條項新設)

1973. 3. 15. 再開發豫定區域 指定(20個區域)

1973. 9. 6. 再開發區域 指定(小公區域等 9個區域)

1973~1974 特定街區整備地區 指定(半島特定街區等 4個地區)

1975-1976 再開發區域指定(光化門區域等 3個區域)

1976. 12. 31. 都市再開發法 制定

1977. 8. 13. 同施行令 制定

1977. 11. 22. 서울特別市 再開發事業 條例制定

1978. 6. 29. 再開發區域 指定(乙支路2街區域等 4個區域)

1978. 9. 26. 再開發區域指定(陽洞區域等 10個區域)

1979. 7. 9. 再開發區域指定(世運商街 麻浦路等 2個區域)

1980. 10. 21. 再開發區域解除(明洞2, 新門路2, 南大門路5, 蓬萊1街等 4個區域)

都市再開發의 효시라 할 수 있는 西小門 第2地區(舊太平路 2街 2地區 東邦生命)와 小公1地區(플라자호텔) 再開發事業을 필두로 70년대 급속한 經濟成長과 아울러 본격적인 再開發事業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방대한 再開發區域에 대하여 現在까지 완료되었거나 進行中인 地區가 총43개 地區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財政의 부족, 所有者의 이해 부족 및 영세성으로 적극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아직까지 민간 주도형의 事業推進에만 의존한 소극적이었으며 적극적인 推進方法이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가. 서울시 都心再開發事例

서울시의 都心再開發區域의 土地利用 및 建築現況을 보면,

○土地利用

1) 筆地: 總49,392筆地

規 模: 全体平均56.3坪,
 垓地平均45.9坪,
 連建洞(19坪)(最
 小洞)

形 態: 長方(35.9%), 不
 規則(64.1%)

所有面積: 國公有(45.4%),
 私有(54.6%)

地目別面積: 垓地(68.7%), 道
 路(25.7%), 公園
 (2.6%), 其他(3
 %)

2) 道路: 29%(地目上25.7%) - 大
 路(10%), 中路(3%), 小
 路(16%)

3) 公園: 43%(地目上2.6%) - 古
 宮(2.9%), 運動場(1%),
 其他(0.4%)

○建 物: 29,020棟

1) 平均規模: 바닥面積21.6坪(35.1
 %), 延床面積71.7坪
 (116.8%), 層數3.3層

2) 用途(棟): 住宅51.2%, 店舖28.
 3%, 事務室2.8%, 其
 他17.7%

3) 構造(棟): 木造58%, 라멘조18.7
 %, 組積造23.3%

4) 年限(棟): 12年以下 21.5%, 12
 ~32年 49.2%, 32年
 以上 29.3%

規模面에서 筆地나 建物規模가 영
 세함을 알 수 있다.

筆地規模에 있어서 垓地平均이 45
 坪이고 形態面에서 不規則한 것이 64
 %, 私有地가 54%인가 하면 地目別
 面積에 있어서는 垓地가 전체의 68%
 를 점하고 있는 실정인가 하면, 平均
 床面積에서 35% 이상이 21坪에 이르
 고 있으며 構造의으로는 木造建物이
 전체의 58%이며 30년 이상된 建物이
 전체의 70% 이상이나 된다는 문제
 이다.

서울의 不良住宅問題로서는 전체주
 택의 45%가 재래식 변소를, 51%가
 立式아닌 재래식 부엌을 쓴다는 것이
 고 46% 이상이 자체복욕시설이 없는
 가 하면 10%가 上水道가 없는 실정

(表1) 規 模 別 住 宅 數

(單位: 千戶, %)

坪 型 別	年 度	1970	1975	1980
計		4,360(100.0)	4,734(100.0)	5,340
10 坪 未 滿		1,424 (32.7)	929 (19.6)	586
10 ~ 15 坪		1,406 (32.2)	1,399 (29.6)	2,697
15 ~ 20 "		824 (18.9)	1,162 (24.5)	
20 ~ 30 "		526 (12.1)	872 (18.4)	1,377
30 ~ 40 "		115 (2.6)	222 (4.7)	369
40 ~ 50 "		34 (0.7)	79 (1.7)	265(40~70py)
50 坪 以 上		31 (0.7)	71 (1.5)	45(70py이상)
平均住宅規模(坪)		13.8	16.7	19.3

註: () 內의 수자는 構成比임

資料: 經濟企劃院, 總人口 및 住宅調查報告 '70, '75

이다.³¹⁾ 그리고 서울에 있는 1백 8
 만 7천여채의 住宅中에는 7坪 미만
 의 작은 집에서 6명 이상이 살고 있
 는 경우가 6천 6백여채나 된다는 것
 이다. 주택 한채를 놓고 居住者數로
 보아도 1住宅1家口는 49만 3천가구
 뿐이고 나머지 住宅은 2家口 이상이
 살고 있으며 5家口 이상이 함께 살
 고 있는 집도 4만 5백 家口나 된다.
 ('80年 經濟企劃院 人口 및 住宅센서
 스 報告)

그런데 經濟成長과 함께 우리나라
 住宅規模가 1970년의 경우 13.8坪,
 1975년에는 16.7坪으로 확대되었고
 15坪 미만의 住宅이 1970년에는 전체
 住宅數의 64.9%, 1975년에는 49.2%
 나 占하고 있어 점차 上向趨勢을 보
 이고 있어서 住宅不良化의 가속 현상
 이 일어날 것이다. (<表 1> 參照)

서울의 대부분의 再開發地區가 市
 街化된 지 40년 이상의 연륜을 가진
 都市狀態에서 오늘날과 같은 급격한
 變化 속에 都市機能을 다하지 못한뿐
 만 아니라 土地利用度의 저하, 交通
 施設의 미흡, 容積率의 저하로 인한
 建物の 영세화는 현대적인 市街地로
 서 水準以下가 되고 있다.

美國의 再開發은 이를 그 시대적으
 로 구분하여 보면³²⁾ 社會的인 요인
 으로 인한 不良地區再開發로 시작하
 여 1960년대에 와서는 構造的인 住宅
 改良事業과 1970년대의 점차적인 住
 宅改良事業을 비롯해서 貧困의 退治
 와 쇠퇴하여가는 都市를 어떻게 구하
 느냐는 문제로 그 再開發事業이 전
 개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都市再開發 事
 業은 社會的인 요인이 되는 不良地

區問題가 두드러지는데 반하여 실제
 再開發事業은 都心再開發 사업만이
 進行되고 있는 느낌이 있는바 不良
 地區再開發事業이 都心再開發事業보
 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나. 改善方向

우선 法的措置에 있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히 설정하고 있는 土地
 收用に 있어서 美國의 예를 들면 地
 方自治團體가 不動產所有者에게 "正
 當한 時價"를 제공함을 전제로 협정
 이 이루어지고 이 계약이 실패할 경
 우 비로소 土地收用權을 發動하게 되
 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管理處
 分計課", 즉 時價에 근거해서 이를
 變換 또는 補償條件으로 함으로써
 所有者 및 權利者와 施行者間에 충
 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權利變換基準을 課稅標準
 時價 또는 正當한 時價額에 상응하도
 록 하는 法的裝置가 필요하다.

둘째로, 「都市再開發法施行令」에
 따르면 基礎調查費와 公共施設事業費
 의 一定比率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國庫에서 行政庁 施行者에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行政
 庁이 아닌 施行者에게 보조할 수 있
 고 용자 및 이를 알선할 수 있다는
 보조 및 용자에 관한 규정은 설치되
 어 있으나 規定自体가 可能性만을 설
 정할 뿐이고 구체적인 보조범위—
 撤去 및 移轉·宅地造成 등의 규정
 이나 구체적인 融資方式—貸付·保
 證 또는 購入抵當權의 設定 등—의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財政的 조치와 既設置되어

있는 장치의 실질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책로, 장려적인 조치의 측면에서 볼 때 民間開發業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不動産의 公開入札額 이하의 금액으로 개발업자에게 轉渡하는 미국에서의 特惠措置에 해당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방식의 援用이나 事業施行者에 대한 稅制상의 혜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네책로, 行政的인 조치의 측면에서 볼 때 再開發事業計劃의 立案 및 施行上의 行政節次 및 手續節次를 간소화하여 事業期間의 단축 및 經費支出의 경감, 組合이나 第3開發業者와 行政片間의 관계개선이 가능토록 복잡한 관계서류 및 書式의 적절한 생략이나 사업계획서의 간소화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특성은 외국의 계획에 비하여 計劃敷地가 소규모여서 計劃人口가 소규모로 되어 지역의 특성 등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 주변지역과의 連繫 등이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物理的 계획에 집착하여 環境增進의 기여가 흡족치 못하다.

또한 立法体制의 不備로 인한 行政的 애로점이 지적되어 왔고 政府財政의 빈곤으로 財源確保와 稅制의 追加立案이 필요하다. 그리고 再開發에 대한 市民意識은 參與度의 문제와 인식부족에 대하여 수익성 指導教育과 制度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市民參與 참조).

(3) 都市再開發의 方法과 節次

가. 都市再開發의 方法

再開發地區로 지정되는 대부분의 不良地區들은 都心에 있거나 都心部 외곽지역에 위치하며 地價는 고가이고 土地規模는 세분되어 權利關係 마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都心部 재개발의 수법은 ① 全面買収方法 ② 土地區劃整理方法 ③ 先買權 制度 ④ 全面買収와 區劃整理를 結合 하는 방법 등으로 再開發事業을 施行하고 있으며 각 手法別로 그 내용을 記述하면

① 全面買収 方法

이 事業은 一定區域内の 土地 및 地

上物에 관한 권리를 施行者가 전부 買収하는 방법³³⁾으로 綜合開發計劃을 수립하여 再開發事業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土地의 取用權 등이 있는 관계로 小規模開發로 끝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이 방법은 새로운 機能의 賦與, 既存機能의 構造的再改編 등의 적극적인 再開發이나 地區開發에 많이 쓰이며³⁴⁾ 또한 經濟性보다 政治的인 면이 강조되어 일괄적인 事業施行이 필요한 곳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② 土地區劃整理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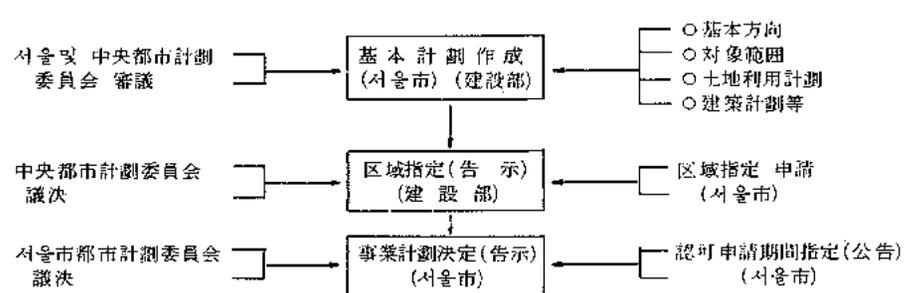
土地區劃整理事業은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결정된 都市計劃區域內와 國土建設綜合計劃法에 의하여 지정된 特定地域에 한하여 시행되어 都市區域內라고 用途地域上 制限을 받는 公園·綠地·風致地區 등은 이를 피하는 住居地域이나 商業地域·工業地域에 적용하는 방법이다.³⁵⁾

이 방법은 開發財源이 부족한 우리의 실정에 알맞는 再開發手法으로서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新開發地域에 많이 적용되는 수법이다. 이 방법은 平面擴張計劃에서 보다는 空間再開發 확보에 이 수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³⁶⁾

③ 先買權制度

再開發 지정지역에 있어서 再開發措置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土地를 簡易節次로서 신속히 取得하기 위해 市에 未建築地 및 既建築地에 先買權이 부여되는 제도로서 市의 先買權(Municipal Priority Purchase Right)이란 所有者가 賣渡하려 할 때 市 當局에서 市場價格으로 賣渡할 수 있는 法的인 選擇權(Legal Option)으로 買入의 優先權이 주어지며 행사할 때는 타인에게 賣渡하는 것이 금지된다.

(圖 1) 計劃段階



先買權制度는 계획의 집행과정 또는 장래 필요로 하는 토지를 정당한 경로로 購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 제도의 목적은 土地投機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이다. 先買權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事業先買로서 이는 都市計劃業認可 또는 승인 후의 先買로서 土地의 投機의 거래방지와 事業用土地 취득의 단일화³⁷⁾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둘째, 計劃先買는 일반적으로 施行者가 미정인 都市計劃決定段階의 先買이며 최종적으로 事業用地的 단합한 취득에 기여하지만, 직접적으로는 土地의 투기적 거래를 가급적 미연에 방지하는⁴⁰⁾ 것이 公的 土地保有의 확대에 그 목적이 있다.

④ 全面買収와 區劃整理의 結合식은 計劃対象地區에서 道路計劃用地와 建물을 行政片이 전면적으로 買収하여 이를 철거 또는 정비한 후 나머지 부분을 區劃整理方法으로 再開發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民間再開發의 여건조성을 위해 또는 公共性이 강조되는 곳에 많이 적용하는 수법이다.

나. 再開發事業의 施行節次

都市再開發事業의 施行節次는 計劃段階와 施行段階의 2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計劃段階

計劃段階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行政片에서 계획을 樹立·完成하는 절차이다.

都市全域에 대한 再開發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再開發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의 対象範圍를 정한 후 그 범위내에서 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을 선정, 街區單位로 再開發 區域

으로 지정하게 되며 지정된 구역을 수개획지(BLOCK)로 분할하여 道路·駐車場·公園 등 公共施設에 관한 劃地와 각 劃地別로 建築物에 관한 계획을 立案 결정한다. (圖1 참조)

2) 施行段階

다음은 再開發事業을 실시하는 시행의 단계로서 事業計劃이 결정된 구역에 대하여 각 劃地(BLOCK) 別로 土地建物所有者 및 面積의 2/3 이상 同意(法定認可要件)를 얻은 土地所有者 또는 그들로 구성된 조합이 事業施行認可를 득함으로써 施行者가 되어 사업을 실행케 되는 것이다. (圖2 참조)

施行者는 事業施行認可를 득한 후 着工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垆地 또는 建築施設을 分讓받고자 하는 土地 등의 所有者는 事業認可告示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事業施行者에게 分讓申請을 하여야 한다.

分讓申請을 받은 施行者는 垆地 및 建築施設에 대한 管理処分計劃을 정하여 管理処分計劃認可를 받아야 하며 施行者外 토지 등의 所有者가 없는 경우는 생략한다.

3) 事業施行에 따른 行政支援

再開發事業施行에 따른 行政支援으로서 租稅減免規制法(第3條의 3 第18項)과 再開發區域內 건축물에 대한 市勞課稅 및 免稅에 관한 條例(第2條)에 의거 事業施行地區에 대하여 稅制上의 免稅惠澤이 주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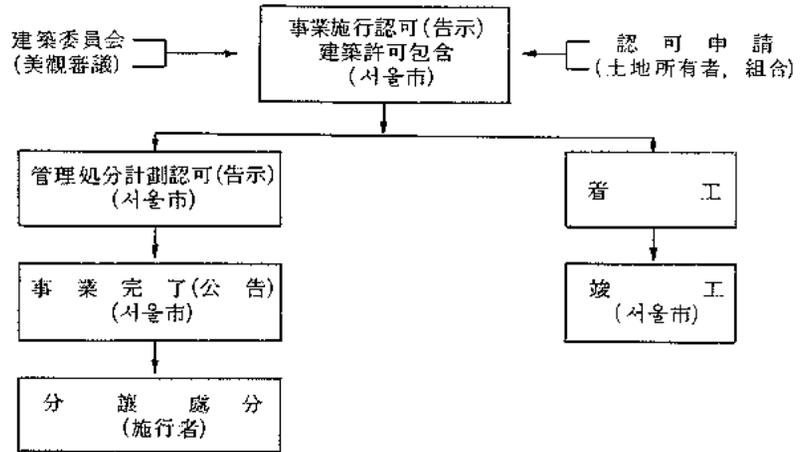
免稅가 되는 租稅는 國稅 또는 讓渡所得稅와 法人特別附價稅이며 이 경우 土地所有者가 事業施行者에게 土地를 讓渡하는 경우가 事業施行者가 事業計劃에 따라 新築한 建物 및 土地를 1년내에 讓渡時에 免稅惠澤이 주어진다.

또한 地方稅로는 事業施行者가 건축한 건물과 事業施行 당시의 土地所有者가 事業施行者로부터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取得稅·登錄稅·免許稅·財產稅·都市計劃稅를 사실상 竣工日로부터 1년간 免稅惠澤을 부여하고 있는 등 行政支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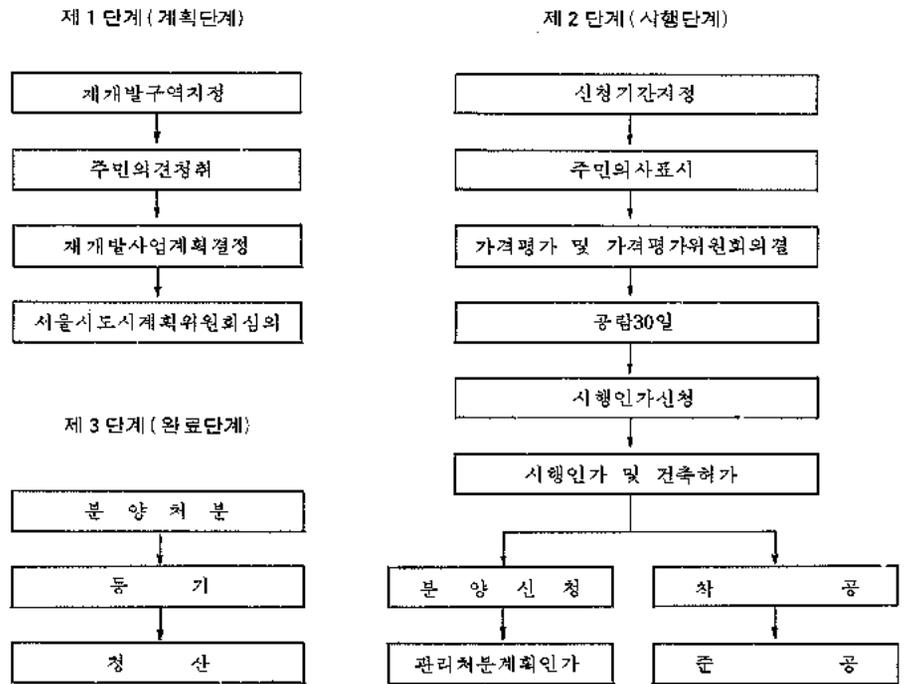
4) 再開發事業의 施行節次

再開發事業의 施行節次는 제 1 단계인 計劃段階와 제 2 단계인 施行段階, 그리고 제 3 단계인 完了段階로 구분된다. (圖3 참조)

(圖2) 施行段階



(圖3) 재개발사업 시행절차



(가) 施行主體

再開發事業은 再開發地域 안의 土地 또는 建築物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한 再開發組合과 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 및 再開發事業의 시행을 事業目的으로 하거나 事業種目으로 하여 설립된 特殊法人 그리고 일정한 要件下에서 第3開發者로 지정된 자가 시행할 수 있는 바 (第9條·10條·11條) 여기서는 住宅公社가 施行主體로 된 경우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나) 事業施行節次

再開發區域內에 土地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그 再開發事業의 시행으로 인하여 造成 또는 建築되는 垆地 및 建築施設의 分讓을 받고자 하는 자는 再開發事業의 시행에 관한 建設部長官의 認可告示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分讓申請書에 그 所有土地 및 建築物에 관한 登記簿謄本을 첨부하여 施行者에게 垆地 또는 建築施設에 대한 分讓申請을 하여야 하며 (第40條 1項), 土地 및 建築物의 소유자 이외의 權利者도 그 權利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施行者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管理処分計劃

施行者は分讓申請期間 경과 후 지체없이再開發地域內的 垷地建築施設에 대한 管理処分計劃을 정하여 建設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하며 認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② 分讓処分

分讓処分은 再開發事業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施行者가 再開發事業의 施行区域内에 있는 土地나 建築物에 대하여 再開發事業의 施行前의 土地나 建築物에 대하여 再開發事業의 施行前의 土地나 建築物의 各筆地 各棟 및 權利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감안하여 이에 갈음하는 再開發事業의 完了後의 垷地 建築施設 기타의 權利를 지정하는 処分 및 종전 土地나 建築物에 대한 權利와 換地로 발생하는 權利 상호간의 불공평을 금전으로 청산한 것을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問題點으로서는

첫째: 政策的 지원부족

우리나라에 있어서 도시 住宅政策 우선순위는 아직 심각한 住宅不足難解消 및 都市의 量的 擴大에 치중하여 都市再開發問題에는 政策的 배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都市再開發法 第9條에 의하면 都市再開發의 시행은 土地所有者 또는 그 組合에 일차적인 우선권이 있으나 이들은 사업을 시행할만한 技術經驗, 住公 또한 財政面에서의 지원부족으로 再開發事業을 적극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다.

둘째: 事業施行 節次의 복잡

都市再開發法은 認許可 등 行政節次를 까다롭게 정하고 있고, 假取用 및 補償節次를 번거롭게 규정 함으로써 강력한 行政力이 없는 施行者는 事業施行의 復雜性으로, 土地 建物取用 등 再開發事業 施行이 어렵게 되어 있다.

셋째: 각종 既存權利의 調整·變更의 困難

都市再開發事業을 시행함에 있어서 再開發 지역에서의 土地 建築物의 所有者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各種 權利 및 利害調整의 어려움이 뒤따르며 民怨이 過多하게 발생 함으로써 事業施行者의 業務遂行에 遲滯를 초래하

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넷째: 財源의 不足

再開發事業은 위치상 土地價格 및 建物補償價가 막대하므로 資金所要가 극대하여 資金調達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資金의 回收期間이 長期化되어 資金需要의 擴大로 新需 需要 充足이 곤란하다.

또한 対象住民들의 再開發費 부담력이 부족하고 公共施設事業費의 보조가 미흡하여 사업의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다섯째: 原住民의 反撥憂慮

事業施行上 불가피한 原住民의 철거 및 移住에는 불가피하게 民怨의 발생 소지를 안고 있으며 이는 철거에 따른 損失補償이 미흡하고 적절한 移住 對策이 마련되지 못하며 營業權 상실 등에 따르는 生計對策 등이 미흡한데 기인한다.

여섯째: 事業性格上 경제적 財源이 不明確한 반면 住民의 經濟的 기반의 빈약(대부분 零細民居住地域) 등으로 資金의 回收 및 利益發生 가능성이 희박하다.

앞에서 지적한 問題點을 극복하고 都市再開發事業을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政府의 政策的 고려와 關聯機關의 협조, 專擔機關에 대한 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뒷받침이다.

둘째: 복잡하고 어려운 利害關係를 조정하며 稅制上의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한 現行法律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都市再開發事業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財源확보를 위하여 多角의 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事業施行者의 事業費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요간선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 國公有地의 무상양여, 각종 稅金의 면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再開發事業을 전담하는 기구에 대하여는 再開發事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력한 行政力을 부여하여 신속한 業務施行을 도모토록 積極 支援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民怨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 住民들의 自發

的인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걱정된 보상비의 支給·賃貸住宅建設 등의 移住對策이 마련, 營業權(Good Will)보상에 따른 생계 대책의 마련 등이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다. 市民參與

1) 住民參與의 概念

住民參與란 國家政策決定過程에 특수한 엘리트가 아닌 일반주민이 직접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³⁸⁾ 都市 및 지역계획에 있어서 住民參與란 計劃의 수립·결정·제안·집행 과정에 있어 직접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한다.³⁹⁾

이 都市再開發事業에 있어서는 직접적 利害關係가 있는 住民은 물론, 都市行政에 관심을 가진 一般市民이 계획의 立案으로 부터 사업의 진행에 이르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都市再開發事業이야말로 직접적 利害關係가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는 관계로 市民간에 合意가 쉽사리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의 市民의 참여, 확보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중에서도 어려운 것이다.

2) 住民參與의 必要性

國土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國土計劃이나 國土의 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地域計劃·單位都市地域을 대상으로 하는 都市計劃 등은 당해 地域내에 거주하고 있는 住民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시키고 생활여건을 개선시켜 나가는 한편 국가적 입장에서 國土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역과 지역간의 연관성을 증진시킴에 方向座標을 두고 있다. 전자의 목표가 地域開發에 대한 住民參與의 필요성을 뜻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목표는 주민참여의 한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계획에 있어서 住民參與의 필요성을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自然스러운 感情의 表現

住民의 경제적 활동을 비롯한 일상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地域計劃이 住民의 진심된 인정과 受容의 확보와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뒤따르지 않고는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참여한 住民集團의 구성원이 地域問題에 관해 평소 갖고 있던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큰 利点이며, 비록 行政機關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못 주었다 하더라도 住民들의 社会·心理的 住民의 요구가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우선 참여의 意義를 느끼게 되고 나아가서는 都市의 불안과 地域의 긴장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나) 地域問題의 共同解決

開發計劃은 그 地域에 거주하고 개발의 受惠者인 住民이 직접 참여하며 각종 사업계획의 결정과 事業執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고, 計劃遂行의 성공을 가져오며 보다 나은 地域社會를 지속하고자 공동으로 노력하게 된다. 많은 政策決定者는 住民參與節次를 생략함으로써 地方行政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계획·실시함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경비·노력 등의 낭비를 줄이는 가운데 地域問題를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할 지 모른다.

그러나 住民參與가 갖고 있는 장점 중의 하나가 위와같은 몇가지의 낭비만큼 참여에 의한 보상으로 公的 問題의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다) 生産的 論爭

地域開發은 근본적 意義와 理念이 地域住民의 福祉增進에 있으므로 地域開發의 發議는 住民의 의사에 근거하고 그 결과적 효과는 住民의 생활에 귀속되어지는 것이다. 利·害가 직결되어 있는 開發計劃에 대한 住民參與는 調整과 生産的인 論爭을 통하여 住民참여가 가져다주는 잠재적 利点 중의 한가지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공개적인 論議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住民의 輿論은 억압되고 정규적인 意思決定機關에 대한 의미있는 배출구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악의에 찬 論爭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다.

(라) 計劃의 實踐力

주민의 의사와 욕구가 반영된 地域計劃은 그 수행과정에 주민의 반발과 疏外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納稅를 비롯한 각종 부분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주민참여는 地方政府가

계획을 지체시키거나 취소하는 사례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계획의 執行力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성숙한 住民參與體制가 사업계획의 실천에 장애가 되는 경우는 드물며, 그것은 어떤 사업의 시종에 利害關係를 갖는 계층과 영역의 住民들로 하여금 計劃樹立 이후에도 최대의 투입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마) 意思疏通의 增進

開發計劃에의 주민참여는 計劃事業에 직접 참가한 計劃家나 政策決定者가 그 地域사회에 필요한 開發需要와 사업효과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 보다 세심한 認識을 심어 줄 수 있다. 곧 政策決定者와 주민간의 자유로운 아이디어의 교환은 생각의 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바) 社会·心理的 보상

주민참여의 利점에 관해서는 시민의 社会·심리적 긴장에 관계되는 많은 利点들이 제시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각종 委員會가 여러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人士들은 生態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환경을 창조하는데 참여하게 되는 市民들은 자신의 긍지를 일깨워 주는데 용기를 북돋워 준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3) 參與方案의 設計

(가) 住民參與의 段階

計劃은 시작으로부터 종결에 이르는 一團의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걸음씩 전진하는 과정으로서 단순한 理想郷 Utopia의 可視的인 청사진이 아니다. 따라서 계획과정은 계획의 논리적 단계를 거치는 動的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계획과정의 일반적 단계로 크게 ① 突態把握 및 자료분석 ② 목표 및 목적의 설정 ③ 計劃作成 ④ 計劃執行의 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計劃作成이란 計劃地圖를 그리고 계획서를 만드는 단계이며, 計劃執行은 설계된 計劃案을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다.

(나) 參與技法의 比較

우리나라는 議會를 통한 住民의 참여와 통제의 길이 막혀있는 실정이라므로 여기서는 개인 내지 집단에 의한 住民參與만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開發計劃의 계획과정에 있어서 住民은 개별적인 客体와 개별적인

參與者 혹은 主役 및 集團參與者의 속성을 가지는데 客体로서의 주민의 사업계획의 標的에 불과하고 개별적인 參與者 또는 主役은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이며, 集團參與者는 압력 단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 가운데 集團參與者는 그 지역에 속하고 있는 構成員 전원이 되기도 하고, 그 지역의 일부 居住者들만으로 구성되기도 하며 또 하나의 공통목적을 가진 특수한 利益集團이 될 수도 있다.

開發計劃에 주민의 의견과 희망을 반영하기 위한 住民參與의 여러가지 技法들이 있으나 각기 長短點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참여의 단계에 있어서나, 계획의 종류, 용도에 따라 그 有用性은 각기 다른 것이다.

4) 우리나라 市民參與의 實際

앞에서 都市計劃에 대한 市民參與의 類型을 參與의 制度化程度에 따라, 計劃過程에 따라 「이니시에이티브」의 所在에 따라, 事業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政治·行政過程의 구분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市民參與는 市民運動이 參與的인 운동 보다는 抵抗的인 운동이 대부분이고, 그 抵抗的인 운동도 豫防鬭爭의 저항운동보다는 對症療法的인 저항운동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參與의 制度化도 「自治」化的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參贊」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고, 그 「參贊」도 실질적 參贊보다는 名目的 參贊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計劃過程別로 볼 때에도 立案, 決定過程보다도 運營過程에서 「協調」를 행하는 參與가 고작이다. 그리고 그 參與는 住民의 「이니시에이티브」에 의하기 보다는 行政의 「이니시에이티브」에 의하고 行政과 住民은 垂直關係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政治過程에의 參與를 議會가 구성되고 있지 않으므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가) 市民參與의 方法

이러한 상황에서 都市計劃에 대한 市民의 참여의 확보의 문제는 지극히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5) 市民參與의 問題點

市民參與는 단순한 「參贊」에 그치

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市民參與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로 市民參與를 事業執行에 뿐만 아니라 政策形成 및 計劃決定에의 參加가 확보되어야 한다. 決定段階에서는 市政當局이 일방적으로 행하고 執行段階에서 參與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추종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 밖에 안된다.

둘째로 參與는 단순한 발언만의 허용에 그쳐서는 안되고, 그 발언은 傾聽하고 그것을 政策, 計劃에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반영되지도 않는 발언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셋째로 진정한 參與가 되기 위해서는 市政當局이 가지고 있는 情報는 이를 독점하지 말고 市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넷째로 市民參與를 市民 상호간, 市民과 市民代表間, 市政當局과 市民代表間의 이해 및 의견의 대립을 조정하는 계기도 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여건하에서 市政에 대한 市民參與의 확대는, 그 制度의 정비 여하에 불구하고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一般行政과 달리 都市計劃의 경우, 그 중에서도 특히 都市再開發事業에서는 住民간의 직접적인 利害가 날카롭게 대립되기 때문에, 이에 市民들이 參與하여 平和적으로 讓步, 妥協하여 하나의 意思를 형성해 나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市政에 대한 市民參與는 行政의 民主化, 行政과 市民의 共同責任化를 위해서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都市行政에 있어서 都市計劃 자체를 얼마나 잘 樹立·執行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어떤節次를 거쳐서」 樹立·執行하느냐 하는 都市政治도 중요한 것인만큼 都市行政에 있어서의 市民의 參與의 확대의 문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5. 서울市 都市再開發의 問題와 改善方向

(1) 都市再開發의 要因分析

서울의 都心部再開發의 要因은 機能的, 物理的, 社会的 그리고 經濟的 要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機能的 要因分析

서울市 都心部再開發의 機能的 요인분석을 함에 앞서 都心部 전반적인 機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都心部 전반의 機能을 보면 國家의 中樞管理機能은 세종로와 태평로 일대의 중앙청을 비롯하여 行政各部廳舍, 大法院, 서울市庁 등의 官庁街에서 형성되고 명동과 충무로를 비롯하여 종로, 을지로, 청계천一帶는 都心商街를 형성하고 있으며 소공동과 남대문로, 을지로一帶, 서소문로一帶는 銀行과 大會社, 言論機關 등이 中心業務地域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都心商街와 業務街의 사이나 이면에는 고급호텔과 극장·음식점과 아케이드상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都心部라면 고도의 土地利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市 都心部는 産業用財(生産財), 業務用製造業種, 農水産物(都賣業種業体) 등의 非都心機能이 立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非都心的 機能의 土地利

用으로써 住居, 學校, 工場 및 古宮用地面積이 都心全体面積의 25%를 차지하고 있음이 큰 문제이다.⁴⁰⁾

都心部の 不適格한 상업기능을 조사한 사례⁴¹⁾중 을지로 2가에서 6가까지의 8個商街區劃 총면적 171,118坪에 都心部 不適格 2,124個 店舖(15個業種 31個品目)가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表2 참조)

不適格機能이란 결국 都心은 立地上的의 利點과 集積利益으로 機能이 집중하여 상호 依存, 共生 또는 補完되면서 機能의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은 자연적인 지형조건, 역사적인 배경, 외부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都心の 集積利益이 현저한 만큼 機能의 집중이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그것을 방지한다면 都心に 立地가 꼭 필요한 機能은 점점 확대될 뿐만 아니라 都心に 꼭 있지 않아도 될 機能까지 受容하게 되어 상호보완적이든 상호마찰적이든 간에 兩者가

〈表2〉乙支路地域 不適格 業種

業種	店舖數	品目別店舖數	構成(比)	業種	店舖數	品目別店舖數	構成(比)										
建 材	260	合 板	41	12.2	印 刷	6~8切	197	25.1									
		木 材	9			4 切	104										
		타 이 루	29			半 切	36										
		衛生陶器	12			全 紙	9										
		織 物	72			2.0	自 動 車		42	部 品	37						
		페 인 트	33							타 이 어	4						
		알 미 농	22							裝 飾	1						
		其 他	42							8.2	乾 魚 物	175	8.8				
		家 具	110											實 具 用 品	42		
		事 務 用 品				40	機 械 工 具		187								
營 業 用 品	18	機 械 工 具		12													
廚 房 用 品	10	製 作 機 械		1													
原 資 材	105	鐵 板	29	4.9	古物荷置	3	0.1										
			非鐵金屬					30	製 品	120	5.6						
			鐵鋼製材					35				農 産 品	240	11.3			
			其 他					11							縫 織	30	1.4
			化 工 藥 品					44									
木 工 芸	13	0.6		計	2,124	100											
			紙 業				174	8.2	25.1	공판·프린트127	寫真植字 60						
印 刷	5.33	25.1		計	2,124	100											

* 乙支路 2 街~6 街까지의 周邊의 8 個商街區劃總面積 171,118坪을 調査한 것임.

資料: 서울市立産業大學 首道園研究所, 都心不適格 商業機能의 再配區計劃에 關한 調査研究, 1978, 12. 30. p. 31.

都心に共存하여 급기야는 바람직하지 못한 共生的 단계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必須的인 都市機能의 自然發生段階에서 集中擴大段階를 거쳐 不必要한 都市機能의 立地誘發段階를 지나 共生的 段階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共生段階에 이르게 되면 都心に 適格한 機能과 不適格한 機能의 구분이 어렵게 되며 不適格機能은 그 자체가 都心に 不必要한 뿐만 아니라 都心の 機能을 저해하는 요소로 된다.

그러나 都心が 自然地域으로 발생된 이상 機能의 円滑이 도모된다면 어느것도 不適格이라고 지적될 수는 없는 것이나 도시의 規模擴大에 따른 都心區域의 확대로 기존의 非都心施設이 그대로 수용되어 存置하고 있음으로써 土地利用上 非効率의인 것 또는 文明의 발달로 인한 交通 및 통신의 手段發展, 技術革新, 産業構造 및 도시인의 의식구조의 변화 등에 의한 시대적인 변천에 따른 都心内の 存置가 불필요한 요소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서울의 경우 현재의 都心은 당초 그 자체가 도시의 전체였으며 오늘날의 都心으로 계획된 것도 아니었으며 더우기 都心을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구조의 변화가 작용된 일이 없이 단지 機能的으로 우세한 營業·業務機能에 住居機能의 蝕食된 형태로 都心に 발착한 것이다.⁴²⁾

不適格業種의 구성은 建材 12.2% (260個店舖), 印刷業 25% (533個店舖) 物舖 82.4% (174個店舖), 機械工具 9.8% (186個店舖), 家具 5.2% (110個店舖), 原資材 4.9% (105個店舖), 農水産物 19.5% (415個店舖) 등이 主要業種을 이루고 있음을 <表2>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都心部の 土地利用 極大化와 効率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都心部の 不適格機能을 再配置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 都心部機能에 적합한 再開發事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은 機能이 立地하여 都心部の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都心部再開發을 최근에는 道路, 駐車, 綠地 등의 공간확보를 위한 施策을 펴나감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都心部の 병리를 배제하는데 온갖 행정력

을 집중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나. 物理的 要因分析

1) 都心部再開發豫定地區의 物理的 現況分析

(가) 都心部再開發施行主体別現況 事業主体別 現況(表4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土地所有組合에 의한 것이 9個地區에 6,012坪으로서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個人法人에 의한 시행은 26個地區로 85%에 해당하고, 公企業 또는 行政府에 의한 開發主体가 전혀 없는 것은 都心部再開發事業이 個人法人에 의해서만 실시되어 土地公概念에 입각한 再開發의 실사가 어렵게 되어 綠地空間確保, 都市基盤施設의 확보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再開發事業實施를 민간단체 또는 법인과 함께 行政府가 적극 참여 함으로써 都市基盤施設 및 綠地空間의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官, 民 合同으로 한

官主導型的 協의체가 조성되든지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個人을 밀어 내는 式的 개발보다 都心部開發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힘을 뭉쳐서 共同的協同體로 이루어지는 개발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

(나) 都心部再開發地區의 住宅現況 <表5>에서 보는 바와 같이 都心部總 20,920棟중 都心部再開發地區로 지정된 20個地區 總6,539棟(22.8%)의 건물 연도별 현황의 특징을 살펴 보면, 1900~1945年 사이에 都心部の 28.3%인 8,208棟이 건설되었으며, 그중 再開發地區內에는 2,125棟으로 26.2%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56年~1965年사이에 건설된 건축은 102,011棟으로 35.2%가 건설되었으며, 그중 都心部再開發地區內의 건설은 2,022棟으로 대부분 都心部建築物이 해방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거나 6.25동란이후 건축된 건물에

<表3> 서울시 都心部再開發地區 機能計劃

地 區 別	機 能 別	地 區 別	機 能 別
1 남대문지구	상업기능(도매업, 소매업)	14 양 동	상업기능
2 광화문지구	관리기능(관공서 대기업본사)	15 동 자 동	상업+주거
3 서소문지구	상업기능(도매업, 소매업)	16 을지로 2가	서비스업
4 소공지구	교통시설기능(주차장)	17 을지로 1가	주차장시설
5 신문로	상업기능(금융업, 사무실)	18 서울-서대문	도로기능강화+상업
6 무교동	위락기능	19 청계 7가	공원녹지
7 다 동	위락기능	20 공 평	서비스
8	주거지구+상업기능	21 장 교	주차시설
9 반도특정지구	서비스업	22 청 진	서비스
10 금문로	관리기능(기업본사 사무실)	23 회 현	공원녹지+사무실
11 세종로	관리기능(사무실)	24 마 포 로	주거기능+상업기능
12 도림	주거지구+사무실	25 소공 4 지구	상업기능(사무실)
13 격 신	주거지구+사무실		

資料: 1) 서울特別市, 서울시 都心部活動의 空間的 配分計劃에 關한 研究, pp. 283-311
2) 서울特別市, 都心部 整備力向 設定을 위한 土地利用研究, 1977. 12.

<表4> 서울시 都心部再開發의 事業主体別 現況

區 分	施 行 完 了		施 行 中		計	
	件 數	施行面積	件 數	施行面積	件 數	施行面積
組 合	7	4,636.1	2	1,376.7	9	6,012.8
	39%	19%	17%	9%	30%	15%
個人法人	11	19,268.4	10	14,296.4	21	33,564.8
	61%	81%	85%	91%	70%	85%
計	18	23,904.5	12	15,673.1	30	39,577.6
	100%	100%	100%	100%	100%	100%

資料: 서울特別市 都市計劃局, 都心部再開發事業現況, 1983, pp. 11-14에서 抜萃

〈表 5〉 서울시 都心部 및 再開發地區 建物年度別 現況

年 度	都 心 部		再 開 發 地 區	
	建物棟數	%	建物棟數	%
1900~1945	8,208	28.3	2,026	31.0
1946~1955	3,541	12.2	788	12.0
1956~1965	10,211	35.2	2,022	30.0
1966~1970	4,470	15.4	1,145	7.9
1971~1975	2,543	8.8	537	8.2
1976~1977	47	0.1	21	0.3
總建物棟數	29,020	100	6,539	100

資料：1) 서울特別市, 서울市都心部 整備方向設定을 爲한 土地利用調査研究, 1977. 12. p. 123.
 2) 서울特別市, 서울都心部 整備方向設定을 爲한 土地利用基礎資料集, 1977.
 3) 서울特別市, 再開發1課資料, 1981年 10月

〈表 6〉 서울시 都心部의 形態別 駐車施設 現況

	구분	주 차 면 적		주 차 장 개 소 수	평균주 차 량 당 1 개 소 당
		臺(%)	m ²		
노 외 평면	무 료	6,737 (20.5)	111,805	249	27(臺)
	유 료	5,333 (16.2)	84,912	145	37
	소 계	12,070 (36.7)	196,797	394	31
외 입체 주차물	무 료	3,011 (9.2)	73,100	108	28
	유 료	5,904 (17.9)	131,804	63	94
	소 계	8,915 (27.1)	204,904	171	52
노 외 소 계		20,985 (63.8)	401,621	565	37
노 노상주차	무 료	142 (0.4)	1,860	16	9
	유 료	1,752 (5.3)	24,219	37	47
	소 계	1,894 (5.7)	26,079	53	35
상 노상불법	산 발	1,398 (4.3)	13,281	778	1.8
	집 단	8,639 (26.2)	82,071	558	15.5
	소 계	10,037 (30.5)	95,352	1,336	7.5
노 상 소 계		11,931 (36.3)	124,431	1,389	7.3
총 계		32,916 (100)	523,052	1,954	16.8

* 參考：법정주차용량 노외평면 72,298m² 입체건물 42,086m² 노외주차장합계 114,384m²

資料：林岡源, "우리나라 大都市 駐車需要特性調査와 適正駐車施設計劃管理에 関한 研究" 国土計劃, 大韓国土計劃學會, 1979. 8. p. 23.

〈表 7〉 서울시 都心部 駐車場 所要判斷

駐 車 所 要		區 分	現 況 不 足			
면적(m ²)	臺 數		면적(m ²)	臺 數	면적(m ²)	臺 數
968,446m ²	38,737臺	計	352,598	15,536臺	615,848m ²	23,201臺
		노 상	27,550	2,755 "		
		노 외	70,532	2,331臺		
		건물부설	254,516	10,450 "		

資料：서울特別市, 81市政, p. 436.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중 陽洞, 明洞, 新門路 1街, 東子洞, 積善의 地區는 6.25동란이후 대부분이 건축된 지역이며, 그외 지구는 해방이전 開發地區內의 總建物 6,539棟 중 22.5%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중 특이한 사실은 木造建物이 都心부에 16,643棟으로 5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 再開發地區의 木造建物이 3,570棟으로 總6,539棟중 53.7%로서 再開發地區는 물론 都心部の 건물구조도 木造建物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은 老朽建物이 많이 점유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都心부에 적합한 건물이 배치되지 못하고 老朽建物이 立地하고 있어 都心部 景觀은 물론 都心부에 화재의 문제, 住居, 環境 등의 諸問題를 야기시키고 있다.

都心部再開發地區의 茶洞, 長橋洞, 新門路1,2街, 都染, 清進洞, 東子洞, 乙支路地區內의 건물이 비교적 木造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며 이곳에 주로 老朽建物이 집중되어 있다.

(다) 都心部再開發地區의 停車場 現況

現 서울시 都心部の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停車場施設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차가 路邊 駐車되어 보행자 및 進入車輛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都心部 停車場施設은 서어비스 지구의 停車場施設은 크게 부족한 상태는 아니나 業務地區의 停車場施設 부족으로 인하여 주차공간의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부분이 路上駐車나 道路邊에 주차하고 있어 都心部の 交通滯症現象을 심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都心부에 실제이용 중인 正常駐車面積은 22,879臺分(面積으로는 427,700m²)으로서 법정허가된 停車場面積 114,384m²의 무려 3.8배에 달하고 있다.⁴⁾ 이러한 현상은 법적 및 施設의側面에서 본격적으로 停車場形態를 갖추지 못하였지만 막대한 駐車需要에 부응하여 현실은 駐車用의 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제면적은 훨씬 상회하고 있다. (表 6)

都心部 駐車施設의 面積은 總352,598m²로서 現在 968,446m² 駐車施設

面積이 필요한 실정이나 615,848m²의 駐車施設이 부족한 실정이다.⁴⁴⁾〈表 7〉

이러한 都心部の 주차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都心部再開發地区事業을 실시할 경우에 共同駐車施設을 설치함은 물론 地下駐車施設의 확보가 필요하다.

가장 駐車場施設의 부족을 겪는 茶洞地区, 武橋洞地区, 明洞地区 内の 再開發事業을 실시할 때 都心部の 전반적 현황분석을 통해서 볼 때 駐車專用建物の 설치를 통하여 都心部 駐車場施設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의 都心部再開發事業의 물리적 현황을 事業施行規模別 現況, 宅地面積과 건폐율, 用積率現況, 交通施設現況, 公園綠地施設計劃, 上水道施設計劃別로 分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施行規模別現況

都心部再開發事業 施行規模別로서 사업의 平均施行面積을 우선 事業完成地区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表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19坪, 500坪 이하의 사업규모가 5件으로 전체 事業完成地区의 20.9%에 달하고 있으며 중간규모인 500坪~1,500坪 이하가 54.9%에 달하고 있어 都心部再開發事業施行이 소규모의 사업이 많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表 8〉에서 보는 바와같이 소규모再開發이 많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을 미루어 볼 때 綜合的計劃에 의한 地域地区 原則에 의한 단순한 건물위주의 建物立地를 중시한 地区再開發方法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地区計劃制度란 都市計劃區域 内の 비교적 소규모地區를 단위로 하여 도로, 공원 등 地区施設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형태·층地 등에 관한 사항, 기타 土地利用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都市計劃으로 정해 이에 따라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을 誘導·規制함으로써 양호한 시가지의 형성·보전을 도모코자 하는 制度이다.⁴⁵⁾

都市再開發은 地区나 街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層地와 건물은 물론 都市全體를 매크로한 市街地形成方法으로 開發 및 건축행위를 誘導·規制하여야 한다.

② 層地面積과 건폐율, 용적율 현황

서울시 都心部 再開發事業完了 또는 시행중인 지구에서 건폐율을 살펴

보면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 35%에서 最高 71.4%의 범위로서 평균 건폐율은 層地面積의 규모에 상관없이 균등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表 8〉 서울시 都心部 再開發事業施行 規模別 現況

事業施行規模(坪)	完 成 地 区		進 行 地 区	
	件 数	百分率(%)	件 数	百分率(%)
300이상	1	4.2	-	0
300-500	4	16.7	1	5.3
500-1,000	6	25.1	2	10.4
1,000-1,500	7	29.3	8	42.1
1,500-2,000	3	12.6	3	15.8
2,000-2,500	-	0	1	5.3
2,500-3,000	1	4.2	-	0
3,000-4,000	1	4.2	3	15.8
4,000-5,000	-	0	-	0
5,000-6,000	-	0	-	0
6,000이상	1	4.2	1	5.3
計	24	100	1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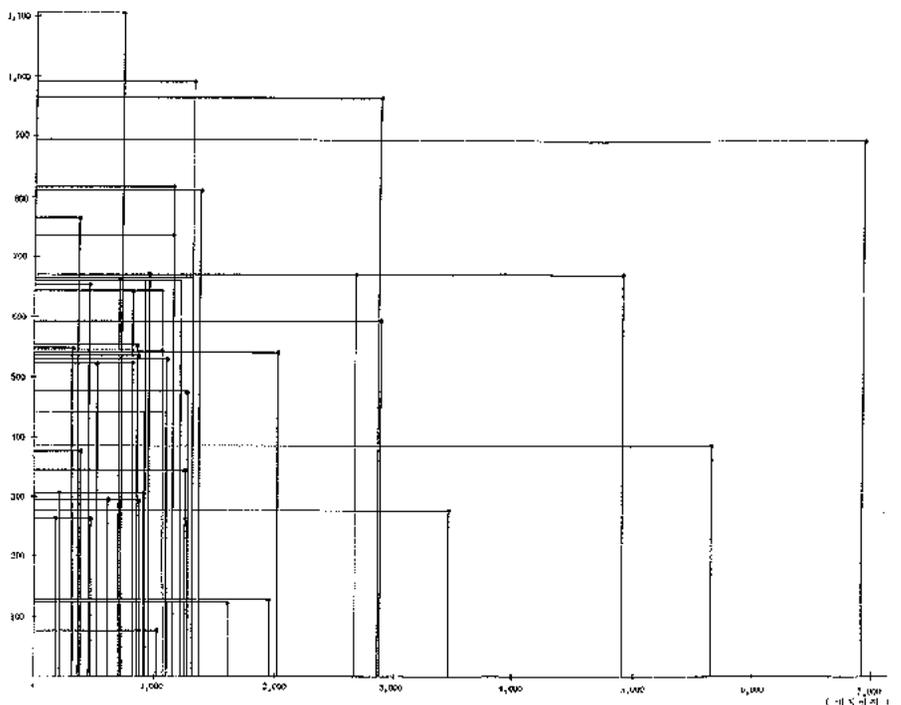
資料：서울特別市 都市計劃局, 都市再開發, 1983, pp. 18~20에서 발췌

〈表 9〉 서울시 都心部 再開發事業地区의 建蔽率变化

용 도 별	사 업 완 성 지 구		사 업 진 행 지 구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사무실	11	73,411.4	15	18,447.3
호 텔	2	83,385.4	1	23,790.4
관 매 시 설	6	37,511.9		
업무시설·공동주택	2	9,955.9	3	24,637.6
아케이드, 주차장	1	5,365.9		
교회, 주차장	1	4,998.5		
사무실, 점포	1	9,384		
計	24	2,240,130	19	23,290.1

資料：서울特別市 都市計劃局, 都市再開發, 1983, pp. 18~16에서 발췌

〈圖 4〉 서울시 都心部 再開發 地域層地 規模別 容積率 分布圖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율의 현황을 살펴보면 最小 12.4%에서 最高 1,265%의 넓은 폭을 나타내고 있다. 대개의 경우 265% 이상의 용적율을 나타내고 있어 대체로 貸地面積이 커짐에 따라 용적은 다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圖 4>

그러므로 都心部 再開發事業을 계획할 때 건폐율이 貸地面積의 크기에 따라 변동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貸地面積에 대해서 비율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서 평면적 建築密度의 변동이 없음을 의미하게 되어 결국 日照, 採光, 通風 등 위생을 양호하게 하고 화재 또는 비상시 延燒의 遮斷, 消火 및 避難 등에 유효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都心部の 環境側面은 도외시한 都心部 再開發事業이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③ 層數現況

서울시 都心部再開發事業의 施行地區 建物層數 현황분포는 最低 1층에서부터 최고 37층의 큰 폭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체로 18층 사이에 주

<表 10> 서울시 都心部再開發事業 實施後의 容積率現況

用 途 別	件 數		面 積	
	件	數	面	積
사 무 실	16	53.3	16,148.4	40.8
호 텔	3	10	14,038.9	35.5
판 매 시 설	6	20	4,458.9	11.2
업무시설·공동주택	2	6.8	1,376.7	3.5
아케이트·주차장	1	3.3	1,625	4
교 회·백화점	1	3.3	773.9	2
사무실·점포	1	3.3	1,155.5	3
計	30件	100%	39,577.7坪	100%

資料: 서울特別市 都市計綱局, 都市再開發, 1983, pp. 16~18에서 轉載

로 분포되고 있다.

17층이상의 건물은 10개로서 전체 중 33%정도이며 이들은 물론 1977년 4월 首都圈人口再配置計劃에 따라 首都圈人口의 억제를 위해 다른 행정조치의 일환이었다. 1983년 3월 都心部建物 高度制限의 해제로 土地利用率의 高度化를 위해서나 都心部再開發事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이나 都心部の 스카이라인 형성에 배제됨과 동시에 都心부에 또 다른 문제점을惹起시킬 것이다.

④ 用途別 現況

서울시 都心部再開發事業完了, 進行分의 용도는 대체로 CBD 機能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業務施設과 宿泊施設 그리고 商業施設이 주종이며, 都染 6.7地區, 都染 3地區를 業務 및 共同住宅의 복합 기능 입지 즉 職住近接을 기할 수 있는 複合用途策이 特色이다.

연년적의 측면에서 볼 때 사무소 용도가 16,148坪으로 가장 크고, 호텔용도는 3件이나 單位開發의 규모가 커서 延床面積은 14,039坪에 이르러 전체 開發床面積 중 35.5%를 차지하고 있음을 <表 10>에서 볼 수 있다.

28) Jewel Bellush et al. (ed), Urban Renewal, People, Politics and Planning, A Doubleday Anchor, New York, 1967. P. 79
 29) 서울特別市, 都市再開發, 1983. 1, P. 13
 30) 서울特別市, 前掲書, P. 14
 31) 東亞日報, 1983. 2. 21日字
 32) Michael S. Gibson & Michal J. Langstorf, op. cit., P. 5
 33) 曹東植, 都市再開發과 住民參與에 관한 研究, 建國大學校行政大学院 碩士學位論文, 1979. P. 17
 34) 上掲書, P. 18
 35) 李子九, "韓國의 土地區劃整理事業과 市

街地造成", 國土計劃, 第4卷, 大韓國土計劃學會誌, 1961. 3. P. 33
 36) 서울特別市, "79. 再開發事業基本計劃: 靑涼地區의 10地區, 1979. 4. P. 269
 37) 曹東植, 前掲書, P. 19
 38) Michael Fagene, Citizen Participation in Planning, Pergamon Press, 1977. P. 4
 39) Eversley, The Planner in Society, London, Faber & Faber, 1973. P. 125
 40) 盧椿熙, 都市學概論, 一潮閣, 1982. P. 104
 41) 서울市立大學 首都圈研究所, "都心: 不

適格商業機能의 再配置計劃에 관한 研究", 1978. 12. PP. 29~46 참조
 42) 서울市立大學 首都圈開發研究所, "서울市 都心機能의 再配置方向", 第4回學術發表會, 1978. PP. 85~86
 43) 林國源, "우리나라大都市 需要特性 調査와 適正駐車 施設計劃管理에 관한 研究", 國土計劃, 大韓國土計劃學會, 1979. 8. P. 23
 44) 서울特別市, 81市政, P. 435
 45) 大韓國土計劃學會, 國土計劃 第16卷 第1號, 1981. 6. P. 31

정다운 우리사이 청탁으로 멀어진다

會員建築 設計作品

한일은행동래지점

尹錫祐
주 : 종합건축설계사무소

THE DONG RAE BRANCH OF THE HANIL BANK

Yoon, Suck Woo
Chong Hap Architects & Engineers Associates

김종희씨댁

公日坤
공일곤건축연구소

MR. KIM'S RESIDENCE

Kong, Il Kon
Kong Il Kon Architects & Engineers Associates

이태원동 L씨주택

金鍾浩
신라건축연구소

MR. L'S RESIDENCE

Kim, Jong Ho
Silla Architects

동수원병원

金錫澈
건축연구소 아키텐

DONG SU WON HOSPITAL

Kim, Suk Chul
Archiban Group

서울대학교제 2기숙사

趙東榮
종합환경연구소 일건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ECOND DORMITORY

Cho, Dong Young
Total Environmental Design Group II-KUN

한일은행 동래지점

THE DONG RAE BRANCH OF THE HANIL BANK

- 소재지 / 부산직할시 동래구
- 대지면적 / 990.52㎡
- 건축면적 / 989.27㎡
- 연면적 / 2,857.8㎡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외부 마감재 / 커튼 월 및 화강석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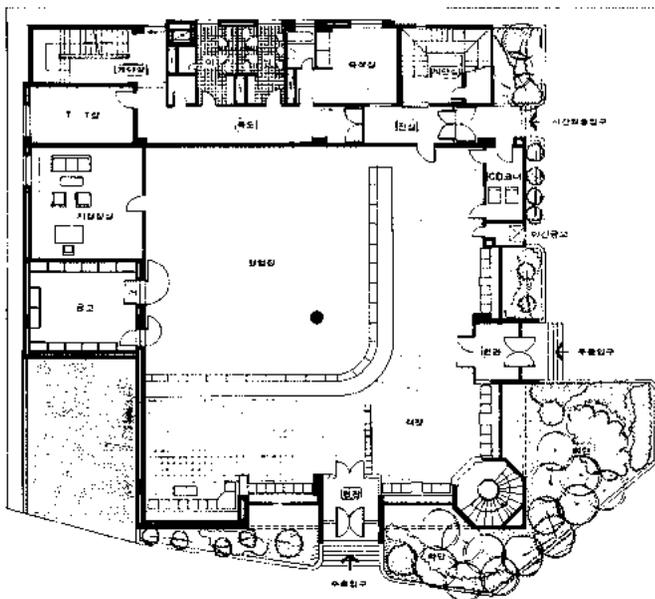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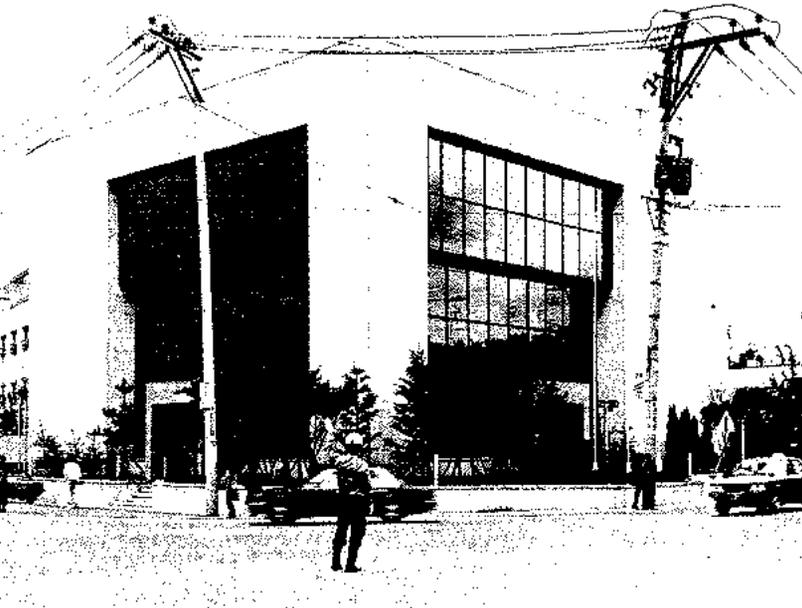


尹錫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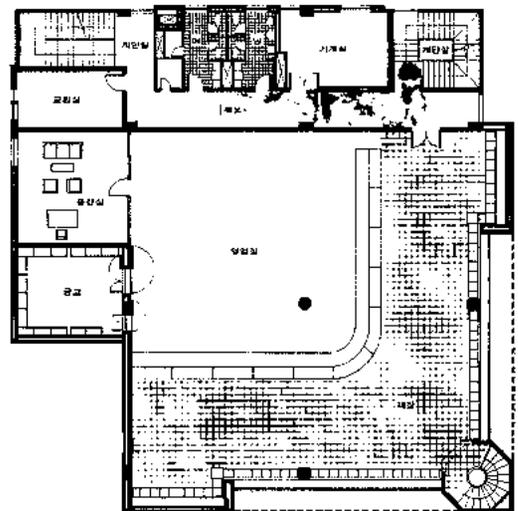
Yoon, Suck Woo

주 • 종합건축설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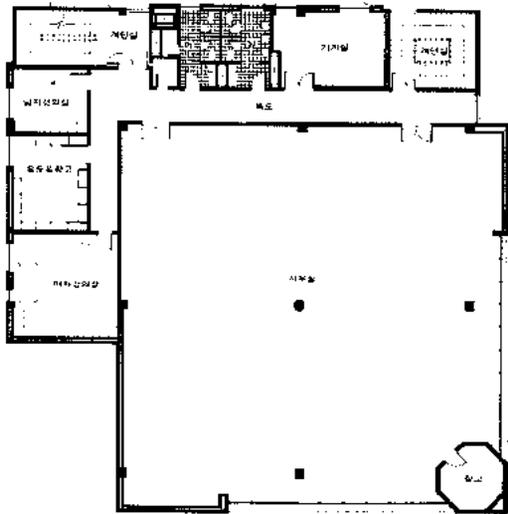
Chong Hap Architects & Engineers Assoc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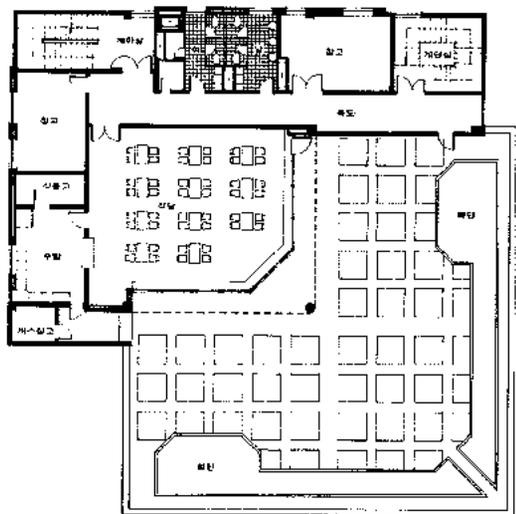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 층 평면도



4 층 평면도



김종희씨댁

MR. KIM'S RESIDENCE

- 소재지 / 서울 물산구 효장동
- 대지면적 / 187㎡
- 건축면적 / 91㎡
- 연면적 / 165㎡
- 규모 / 지하 1층 · 지상 2층
- 구조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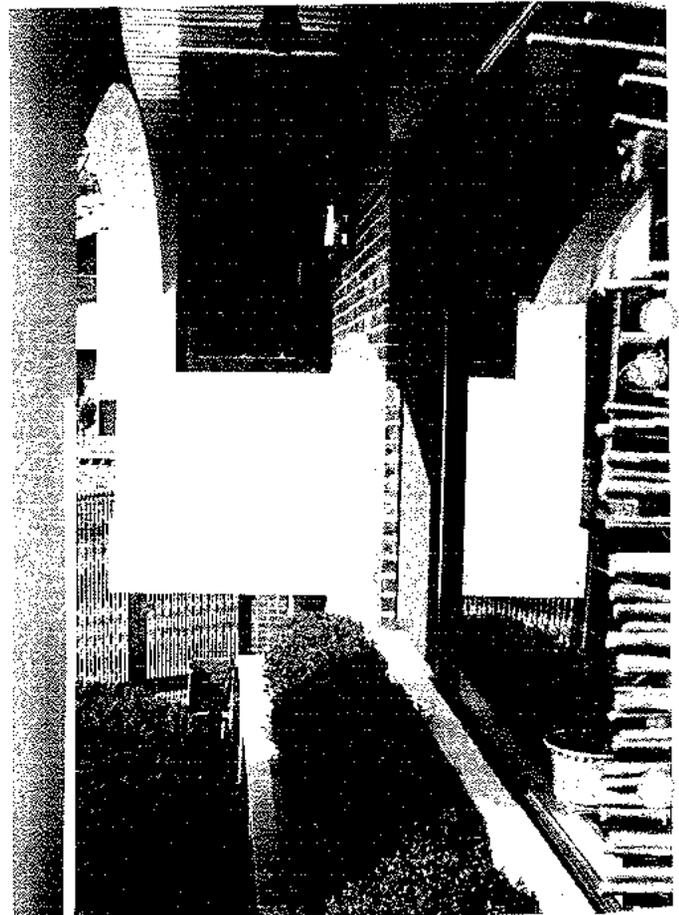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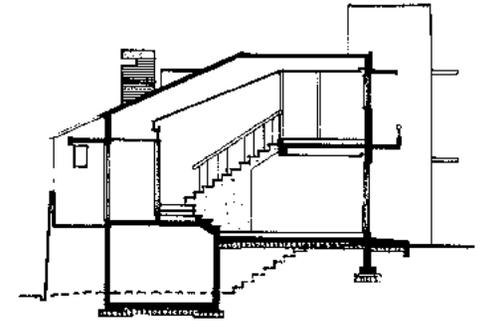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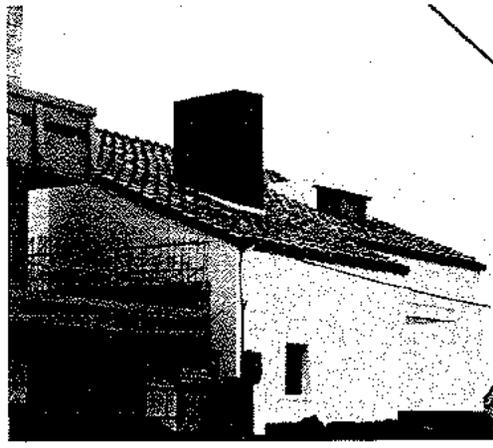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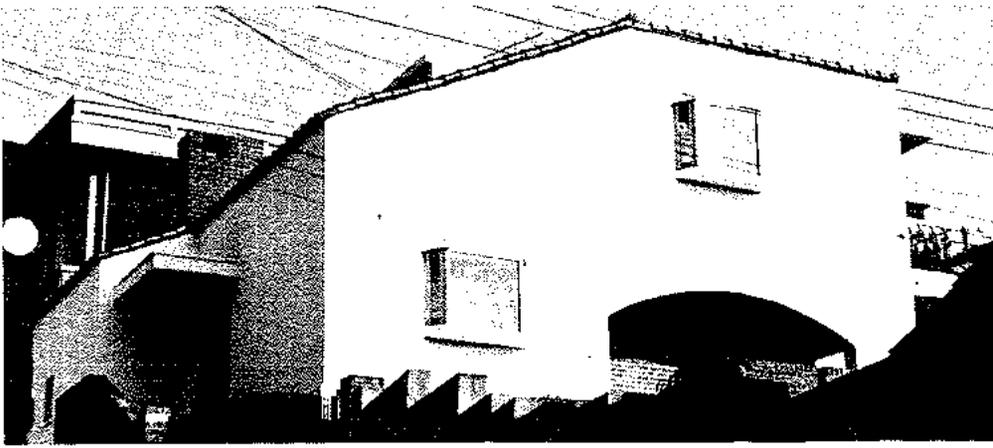
公 日 坤

Kong, Il K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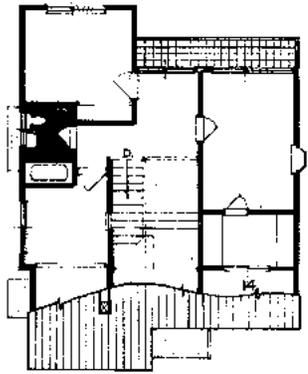
공일곤건축연구소

Kong Il Kon Architects & Engineers Assoc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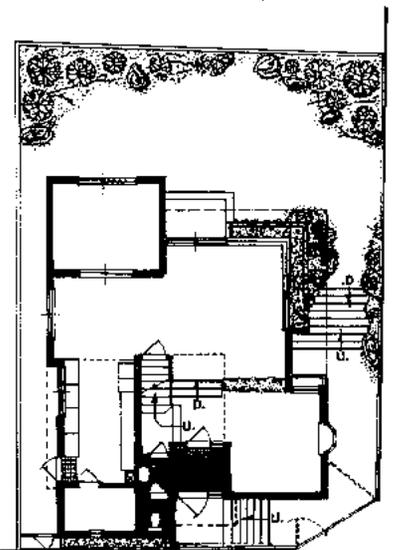




단면도



2층평면도



1층평면도





이태원동 L 씨주택

MR. L'S RESIDENCE

- 소재지 / 서울 을산구 이태원동
- 대지면적 / 732.82㎡
- 건축면적 / 146.29㎡
- 연면적 / 307.86㎡
- 구조 / 조적조(변색벽돌 치장쌓기 및 오지기와엇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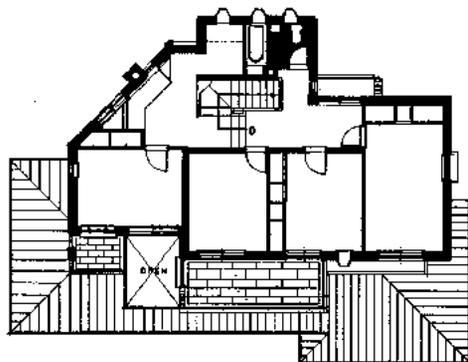
북측으로 꺾인 도로와 대지의 고저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평면 구성도 대지의 까다로운 공간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 전체적인 주거생활을 남향으로 배치하였으며, 거실과 식당 사이에는 온실을 두어 보다 쾌적한 생활공간을 가진 평면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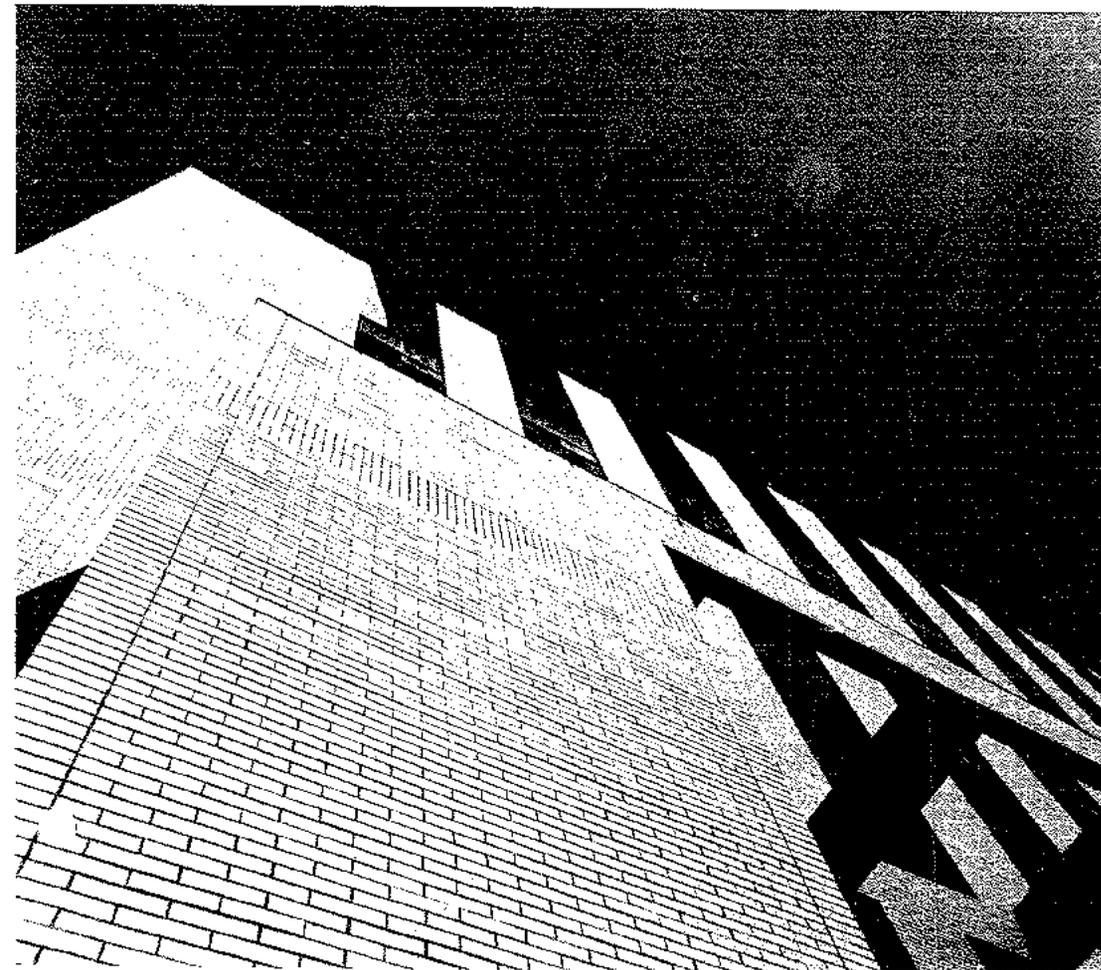
金鍾浩
Kim, Jong Ho
신라건축연구소
Silla Architects



1층평면도



2층평면도



동수원 병원

DONG SU WON HOSPITAL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우만동
- 대지 면적 / 2,357.6㎡
- 건축면적 / 1,152.8㎡
- 연면적 / 5,755.57㎡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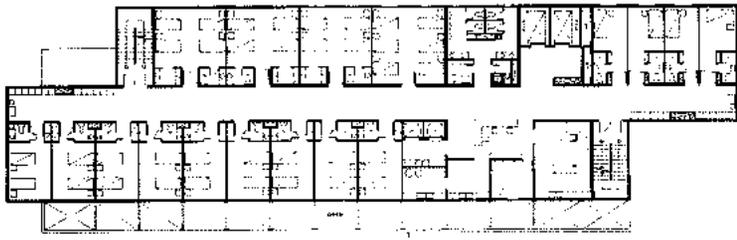


金 錫 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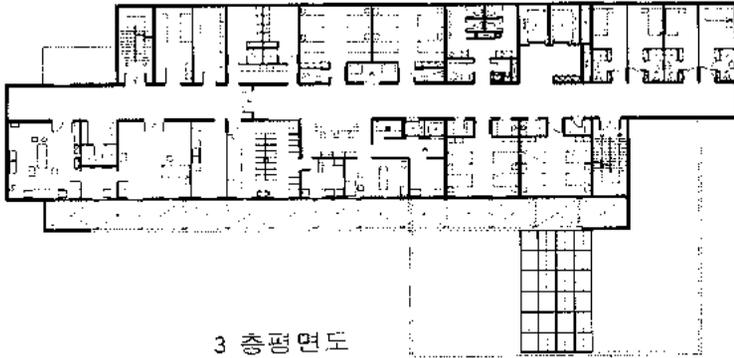
Kim, Suk Chul

건축연구소 아키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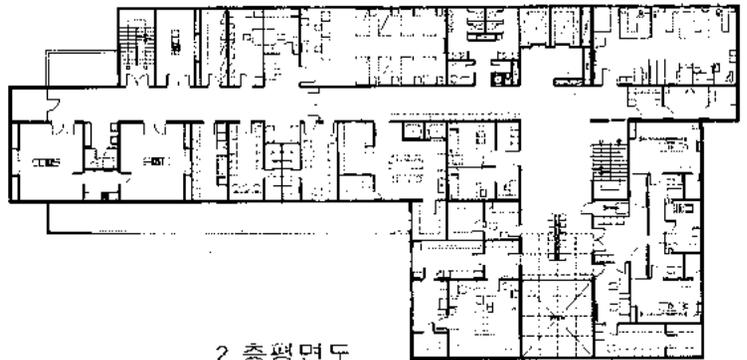
Archiban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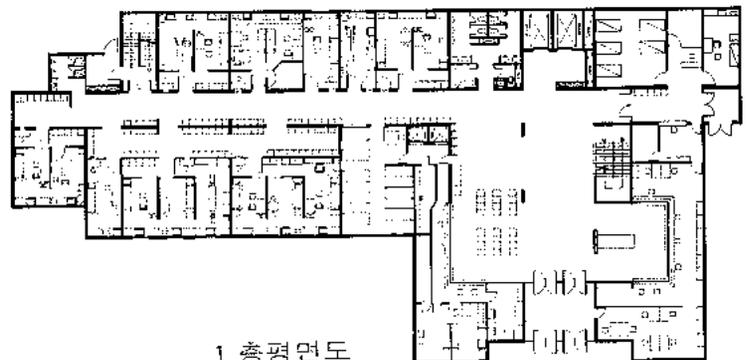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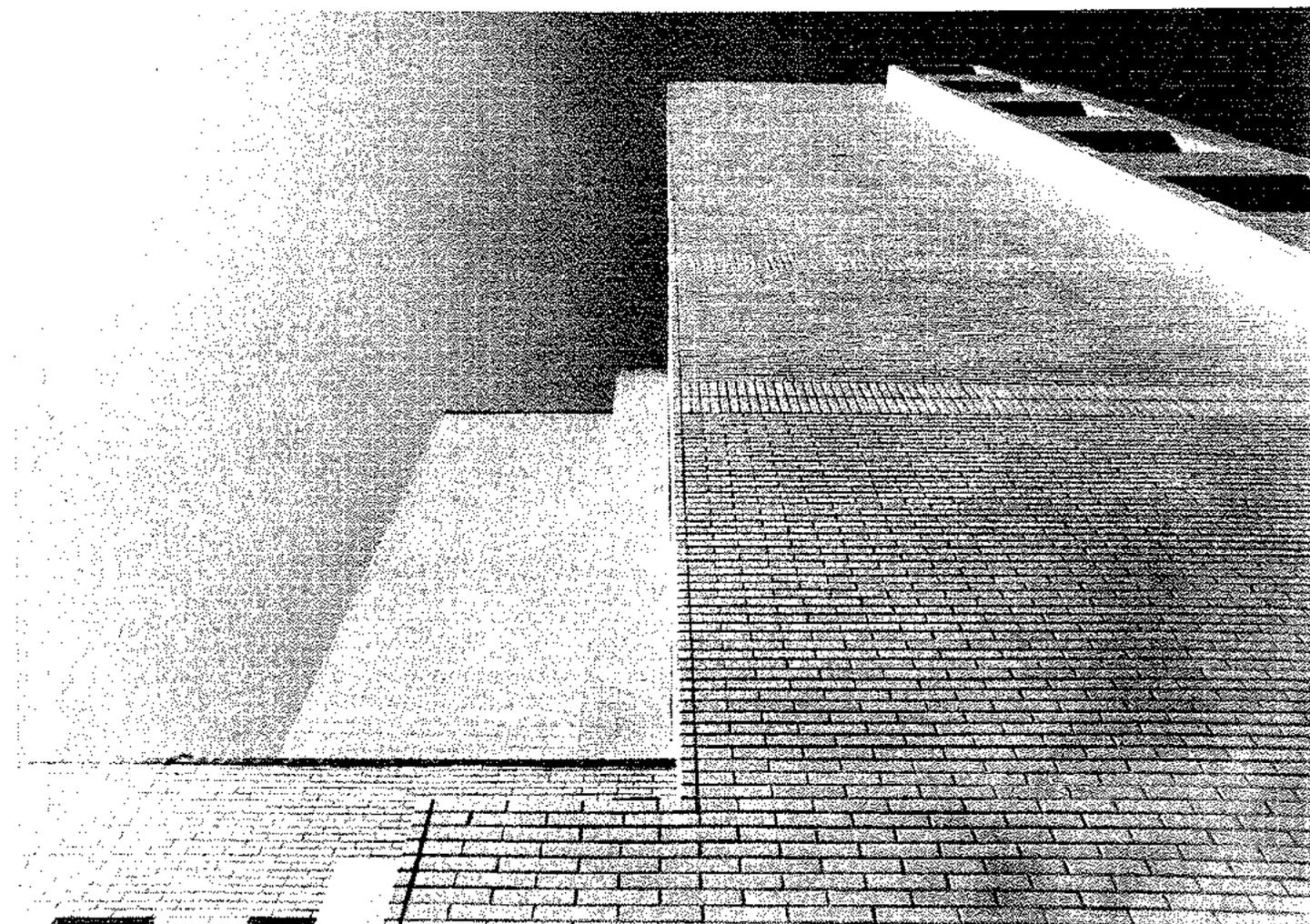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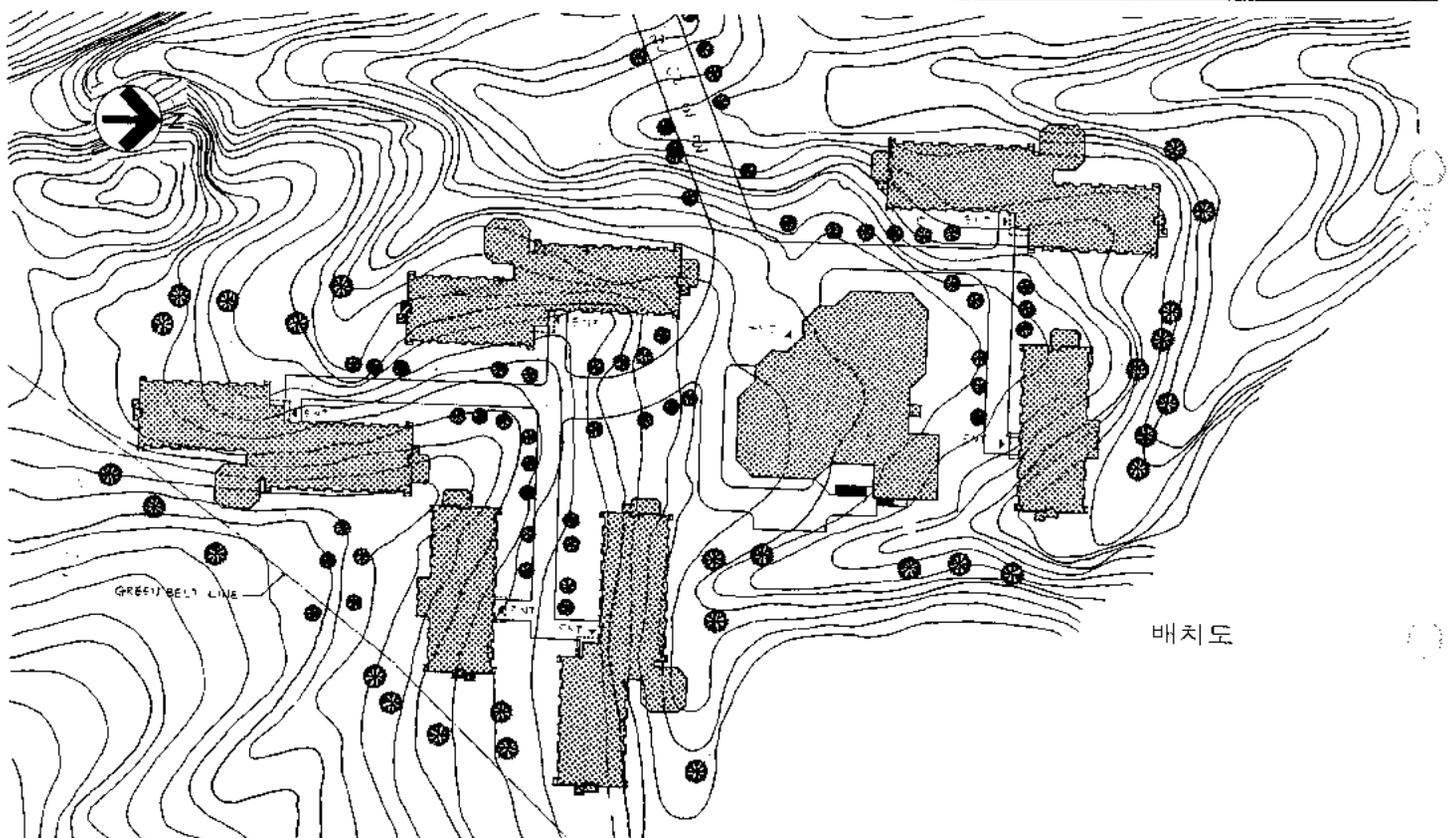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제2 기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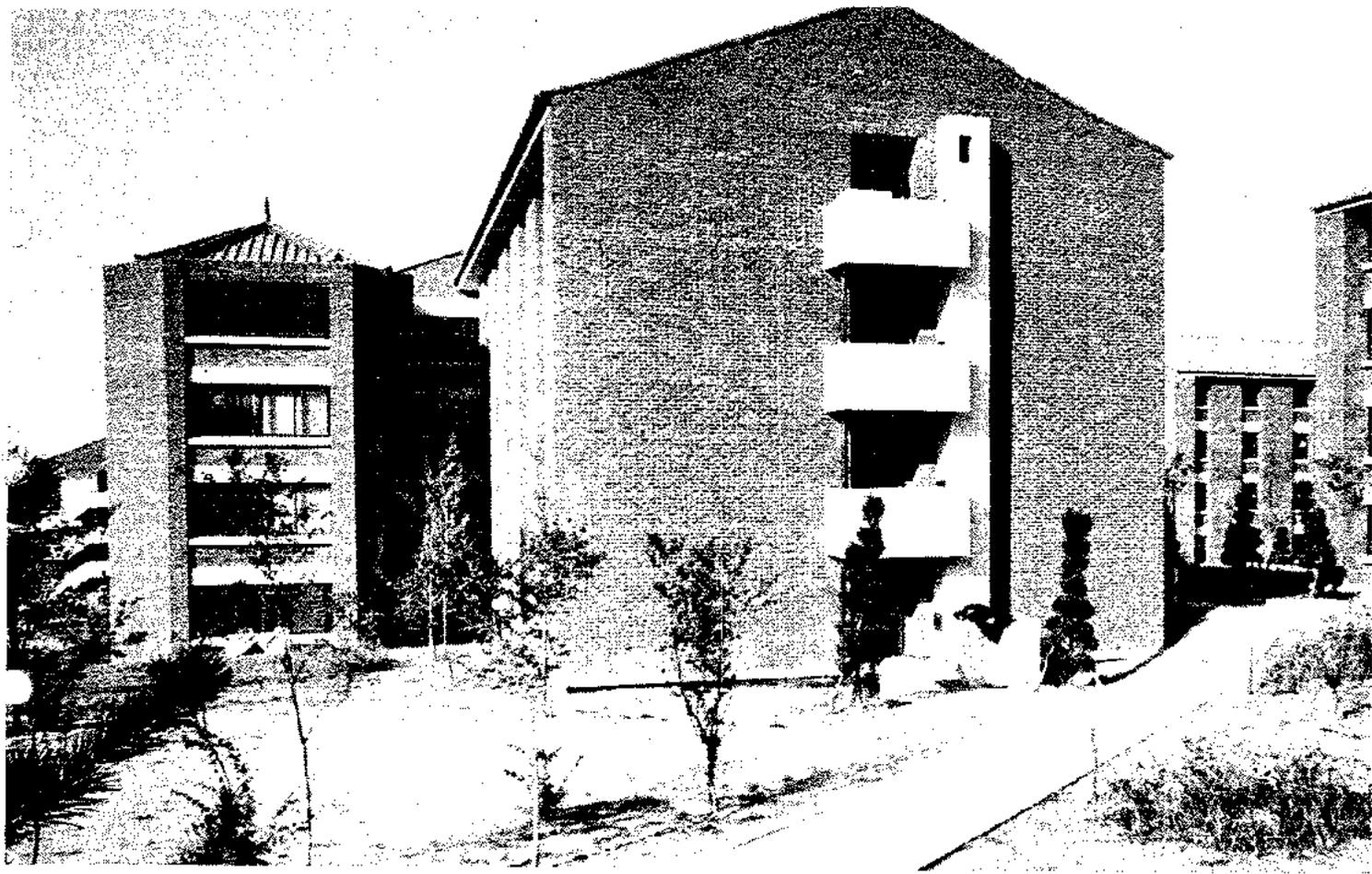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ECOND DORMITORY

- ◉ 소재지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관악캠퍼스내
- ◉ 건축면적 / 3,914㎡
- ◉ 연면적 / 15,404㎡
-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 주요외장재 / 붉은벽돌 • 님색일미능 새시 •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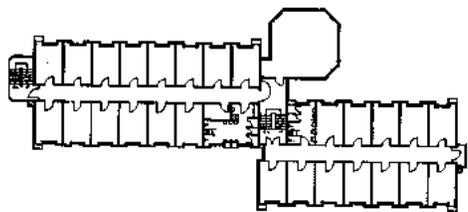
Green Belt Line과 두 개의 계곡 사이에 위치한 기존의 울창한 수목과 심한 고저차를 가지는 삼각형의 대지에 1,000명 정도 수용의 대학생 기숙사를 계획한 것으로서, 가능한 한 기존의 자연조건에 순응시키는데 설계의 주안점을 두었으며 인근의 기존 기숙사와의 조화도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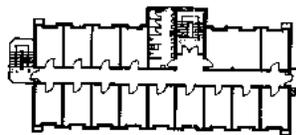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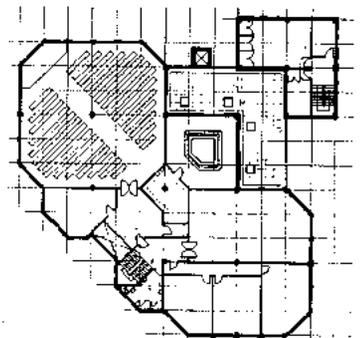
趙 東 榮
 Cho, Dong Young
 종합환경연구소 일건
 Total Environmental Design Group II - K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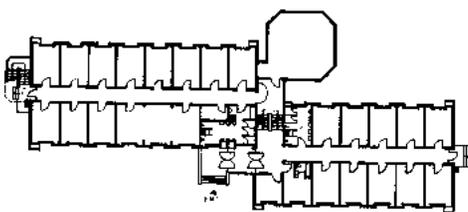
기숙사 A 동기준층



기숙사 B 동기준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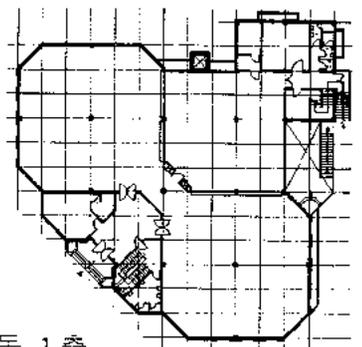
공용동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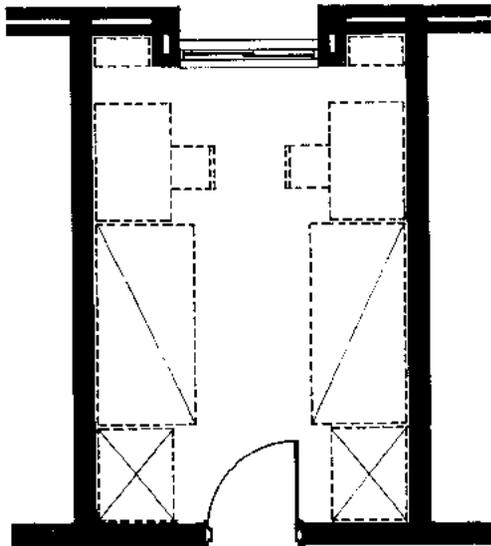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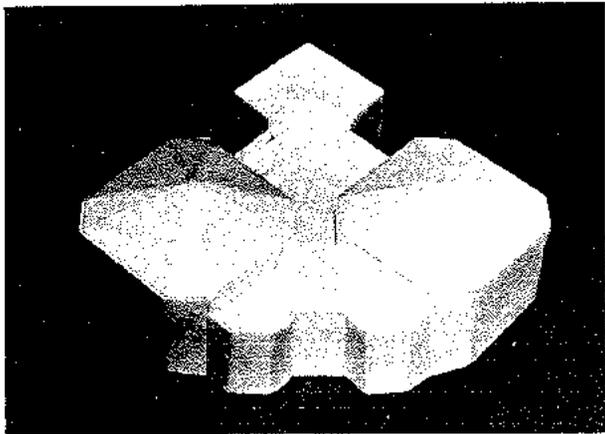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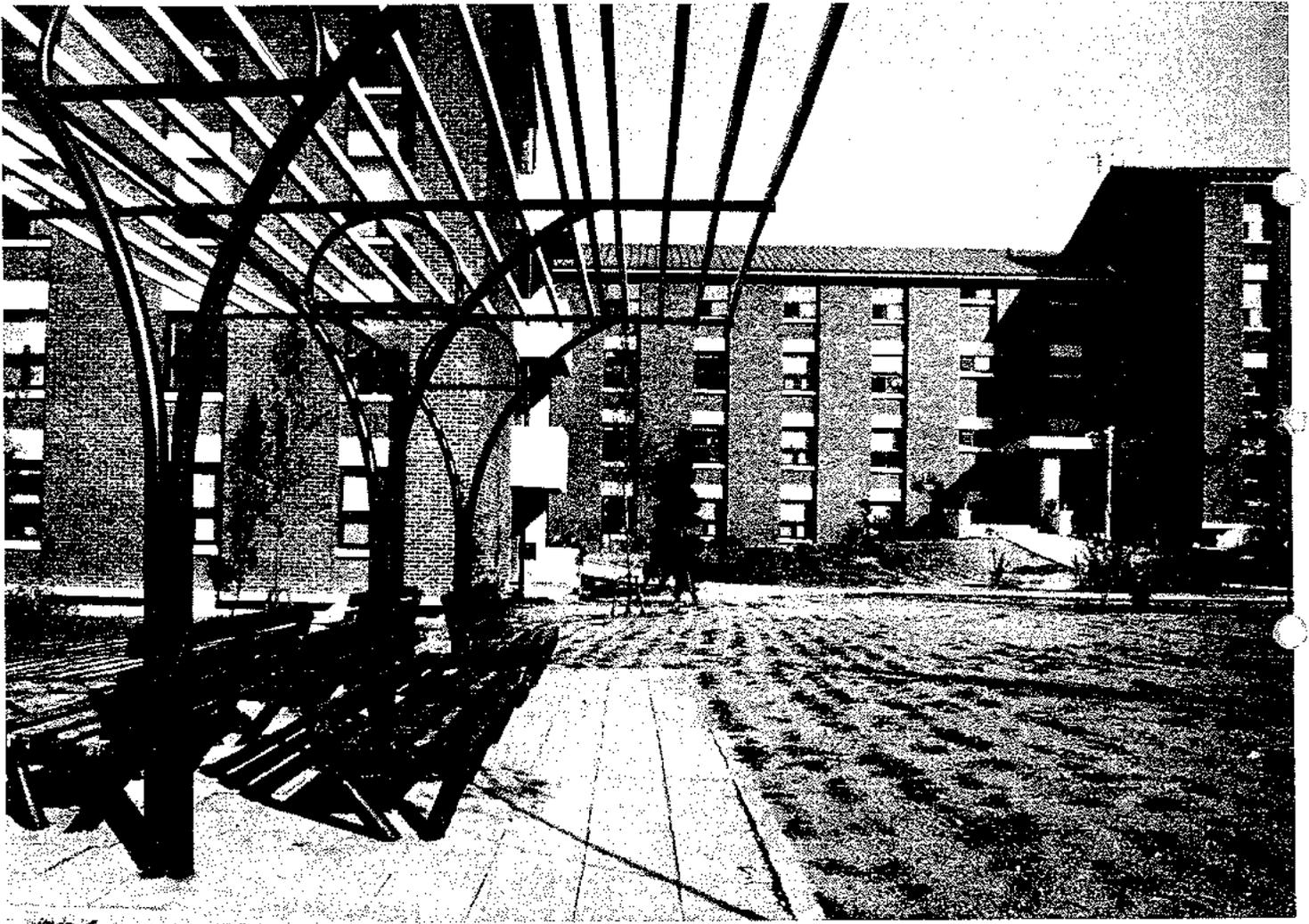
기숙사 A 동 1층



기숙사 B 동 1층



공용동 1층



서울 都心部 再開發

朱 鍾 元 - 서울 대학교 교수

URBAN RENEWAL IN SEOUL CITY CENTER

Chu, Chong Won - Professor - Seoul University

1. 序 論

서울시 도심부 再開發地域으로 지정된 43개 지역의 총 면적은 1,811,641m² (549,000坪)에 이르고 1986년까지 353,100m² (107,000坪)를 再開發하겠다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한국일보 1982. 11. 24).

한편 서울시는 都心の 機能을 높이고 거리 美觀을 가꾸기 위한 長期綜合計劃으로 世宗路·太平路·鍾路·乙支路 등 都心地區에 대한 都市設計案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再開發計劃과 都市設計案은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겠으나 都心部の 基本計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와 같은 계획안이 집행된다면 서울시 전체의 觀景에서 볼 때 바람직한 都市構造 및 都市機能을 형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本稿의 목적은 서울시 당국에서 시행하는 再開發 및 保存計劃의 指針이 되도록 하고자 그 基本의 틀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수립된 再開發計劃案을 소개하는데 있다.

2. 서울시 都心部の 範圍

서울시 당국에서는 도심부 再開發計劃區域의 범위를 제 1차 순환선 内部全域과 東大門~新設洞 로타리~上往十里 로타리~을지로 6街 로타리를 연결하는 幹線道路 内部全域 및 陽洞·會賢洞 일부지역으로 정하고 있다(그림1 참조).

本稿를 위하여 서울시의 중추적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鍾路와 中區의 範圍를 대상으로 하되 지형상 都心部の 機能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鍾路區 부암동과 평창동은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이 都心部の 面積은 2,326ha (6,978,000

坪)이고 1980년 현재 511,658인이 거주하고 있다(그림3 참조).

이 都心部の 開發可能地域은 약 2,000ha (6,000,000坪)이고 未開發地는 불과 3ha (9,000坪)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用途地域으로는 住居가 1,133ha, 商業이 763ha이며 綠地가 457ha로 되어 있다.

3. 都心部 現況

서울시 鍾路와 中區의 37個洞(평창동 및 부암동 제외)의 23.26km²에 1980년 현재 511,658명의 人口가 居住하고 있다(서울시 통계연감, 1981. 참조).

그림 4에서 보는 바와같이 19.6%

(763ha)가 公園綠地로 되어 있고 20개의 保存하여야 할 文化財가 散在하고 있으며 이미 運行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을 비롯하여 4개 노선의 지하철이 建設中에 있다.

이 도심부內에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 대한 官公署의 집중율이 32%, 外國기관 73%, 事務所 70%, 觀覽場 33%, 百貨店 75%, 숙박업 57%, 음식점 40% 등으로 이 都心部는 서울의 核心部의 役割을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都心部 機能을 살펴 보면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서울시의 4大門 안 제 1 순환선으로 둘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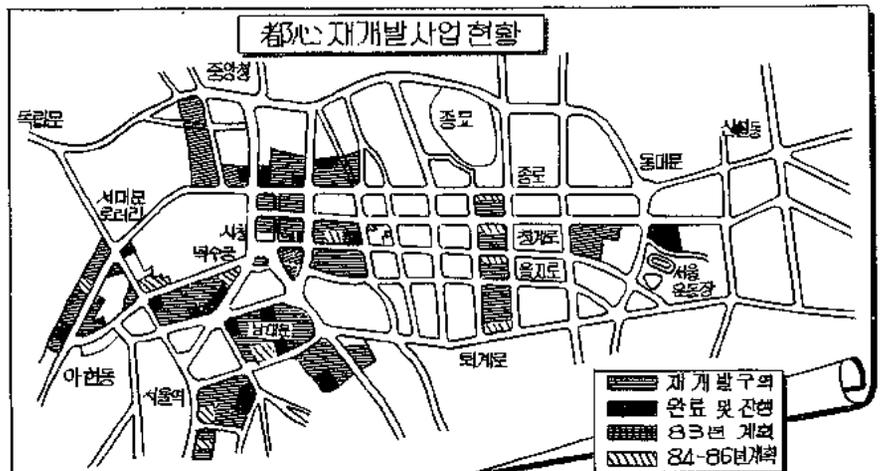


그림 1 자료: 대한건축사협회지, 建築士, 1982. 165호, P.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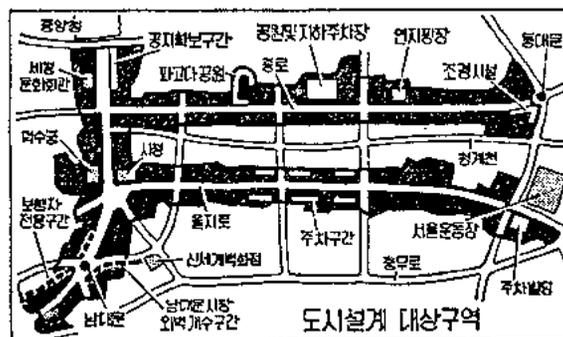


그림 2 서울 都心部 都市設計 대상구역도

싸인 지역 중 世宗路 동쪽 부분의 간선도로변과 明洞地域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都心部에는 選買品 販賣기능(食料·洋品·洋服·貴金屬 등)이 24.3%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서비스와 金融 및 企業管理 기능이 각각 20.7%와 20%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음식판매업이 14.2%를 차지하며 不適格시설로 移轉할 것으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 部品販賣 기능도 10.5%가 된다.

또한 各業種의 층별 選好性向을 보면 1층 선호업체는 ① 기계·기구·部品販賣 및 수리(75%) ② 選買品販賣機能中 洋裝과 集團販賣施設을 제외한 19개 業種(75%) ③ 製菓店(75.5%) ④ 교통시설業種 ⑤ 약국(95%) ⑥ 種苗·농약점(100%) ⑦ 간판점(81.8%) ⑧ 포장센터(100%)로 되어 있다.

그리고 都心部の 土地利用 現況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역 - 남대문 - 시청 - 중앙청에 이르는 길을 따라서는 업무·상업·위락 및 관공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종로를 따라서는 전문상가, 청계천과 을지로를 따라서는 建材·化工·전기·기계부품상이 點하고 있어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美觀을 해치며 공해를 발생하는 위험한 시설로서 不適格업체로 지정하고 移轉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都心部の 인구는 1975년에 595,163 사람이던 것이 1980년에는 511,658인으로 83,505인이 감소하였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都心部는 人口密度가 150인/ha 이하가 되는 洞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都心部の 人口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의 수요도 감소하게 되어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수의 학교가 이미 이전하였고 이전 예정인 학교도 있으며 앞으로 학교의 수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4. 서울시 開發方針

서울시의 과도한 機能集中을 완화하고 地域都市体系의 定立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開發方針을 세웠다.

① 서울시의 江北·江南地域의 겨

서울都市計劃區域 720.87km²

서울市行政區域 627.06km²

都心部面積 23.26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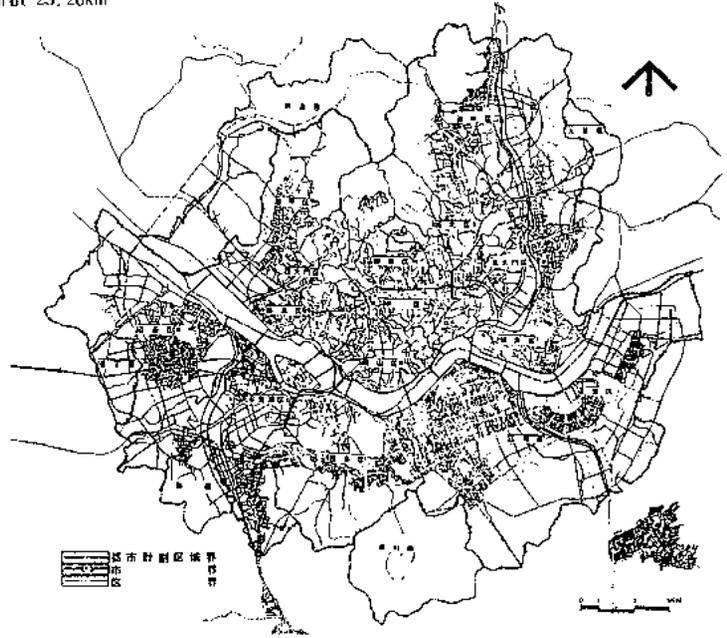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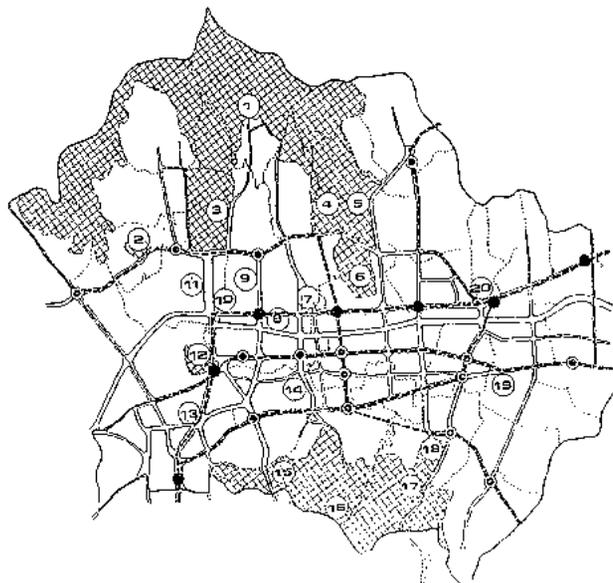


그림 3 서울시 都心部



- ① 삼청공원
- ② 사직공원
- ③ 경복궁
- ④ 창덕궁
- ⑤ 창경궁
- ⑥ 종묘
- ⑦ 카고나공원
- ⑧ 중각
- ⑨ 조계사
- ⑩ 비각
- ⑪ 세종문화회관
- ⑫ 덕수궁
- ⑬ 남대문
- ⑭ 명동성당
- ⑮ 국립도서관
- ⑯ 남산공원
- ⑰ 국립극장
- ⑱ 장충공원
- ⑲ 광화문
- ⑳ 농대문
- 기존지하철역
- 計劃지하철역

그림 4 서울都心部 공원녹지계통, 문화재 및 지하철 노선과 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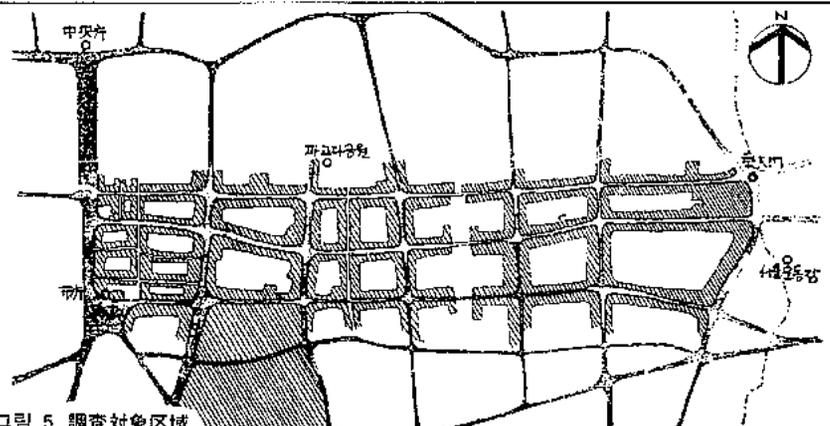


그림 5 調査対象区域

表 1 都心施設の 都心集中現況

施設種類	全 市 (A)			C. B. D (B) (鍾路·中区)			比 率 (B/A)%		
	施設 数	延床面積	敷地面積 (㎡)	施設 数	延床面積	敷地面積 (㎡)	施設 数	延床面積	敷地面積
官 公 署	1,746	1,193,805	4,629,580	289	376,158	2,118,451	16.55	31.51	52.24
外国機關	32	14,510	212,199	23	10,605	205,819	71.88	73.09*	97
事務所	2,083	2,389,565	949,863	998	1,671,509	407,902	47.9	69.95*	42.94
教 育	5,111	4,960,357	13,413,466	538	637,739	1,173,754	10.53	12.86	23.66
製造工場	14,446	5,930,394	13,199,745	201	83,725	63,956	1.39	1.41	0.48
其他工業用	944	225,403	346,495	52	13,017	11,203	5.5	5.77	3.23
宗 教	2,429	734,504	1,914,584	198	166,716	147,054	8.15	22.7	7.68
函 書 館	2	72,177	33,466	6	14,901	3,726	14.29	20.65	11.23
博 物 館	11	3,324	6,812	1	70	74	9.09	2.11	1.09
觀 覽 場	148	188,180	131,820	30	61,162	51,635	20.27	32.5	39.17
医療·保健	2,330	1,012,901	827,550	465	268,492	145,887	19.96	26.01	17.63
社会·福祉	548	248,973	1,039,312	58	37,118	49,376	10.58	14.91	4.75
百貨店	24	182,022	49,457	13	136,001	27,945	54.17	74.72*	56.50
市 場	1,165	1,308,088	1,138,439	154	277,480	208,011	13.22	21.21	18.27
宿 泊 業	2,686	1,255,758	578,218	693	721,062	172,801	25.8	57.42*	29.89
飲食店	2,958	516,855	412,531	1,003	207,885	153,245	33.9	40.22	37.15
遊 興 場	619	170,575	511,425	130	35,643	26,039	21	20.9	5.09
運輸·倉庫	1,226	415,926	1,085,606	130	67,156	70,367	10.60	16.15	6.48
其他公共	32,988	5,851,818	5,840,147	5,353	1,423,482	749,696	16.23	24.33	12.84
其他商業	231	182,456	550,128	44	20,740	77,041	19.05	11.37	14
		26,857,666	46,870,843		6,230,661	6,163,982			

資料：서울市都市現況精密調査 77. 12. K. I. D
企劃部, 都市問題와 對策 1978. P. 116

용적율57%

용적율 101%

表 2 都心部の 機能構成

기 능	비 율(%)	
1. 選買品販売	24.3	24.3
2. 서비스 提供	20.7	45
3. 金融 및 企業管理	20.0	65
4. 음식판매	14.2	79.2
5. 기계·기구·部品販売	10.5	89.7
6. 居 住	3.5	93.2
7. 教育·문화	2.7	95.9
8. 기 타	2.3	98.2
9. 交通·통신	0.8	99.0
10. 관광서	0.6	99.1
11. 종 교	0.4	100.0

자료：강병기, “서울都心活動의 立体的 空間利用에 관한 研究”, 국토계획학회지 제16권 2호 1981. 12. PP. 11~26

- 차해소
- ② 副都心の 補充에 의한 都市機能의 多核構造化
- ③ 職住近接과 都市施設의 最大活用으로 土地利用효율 極大化
- ④ 不適格業體의 移轉으로 工住混合地區의 純化
- ⑤ 電鉄網의 建設로 區域交通網과의 원활한 連繫
- ⑥ 公園綠地의 量的 擴大와 體系化에 의한 接近利用性 提高
- ⑦ 業種別 特化團地의 造成(出版·自動車부속품상 등)

- ⑧ 都心地의 物的 流通機能과 高速 터미널의 郊外移轉
- ⑨ 都市高速道路網의 建設
- 5. 서울시 都市構造
서울시는 현재의 單核都心構造에서 3 都心(現都心·永登浦·잠실), 3 副都心(신촌·청량리·영동)의 多核 도시 구조로 전환할 것을 계획하였다.
즉 현재의 都心(鍾路·中区)은 行政·금융 등 中樞管理業務만 담당하고 永登浦는 產業 및 商街中心으로, 잠실은 文化 및 유통중심으로 都市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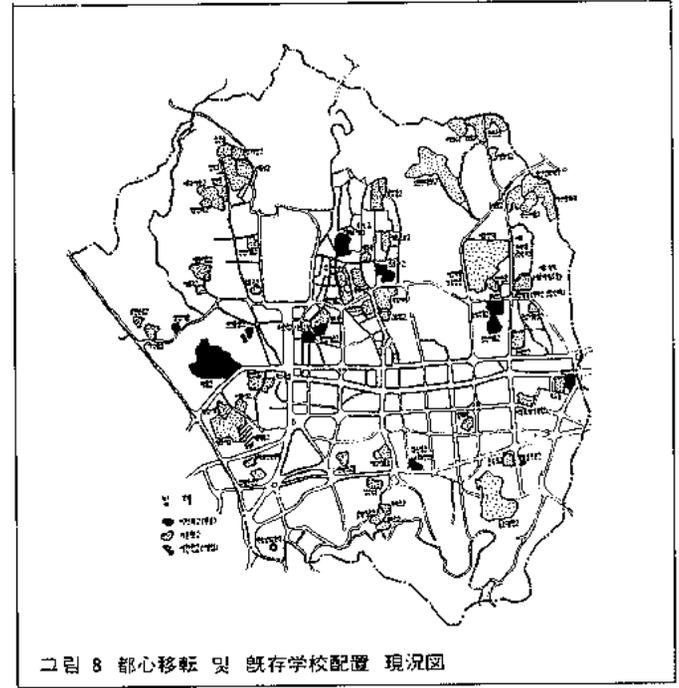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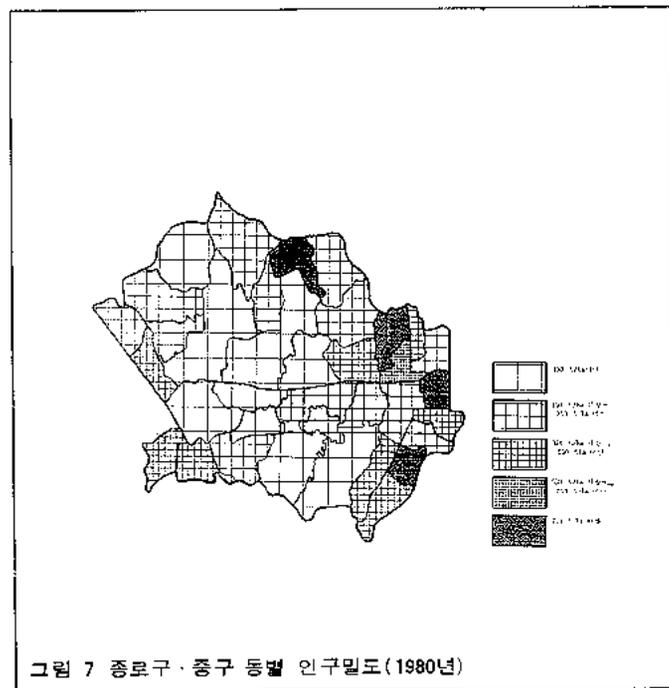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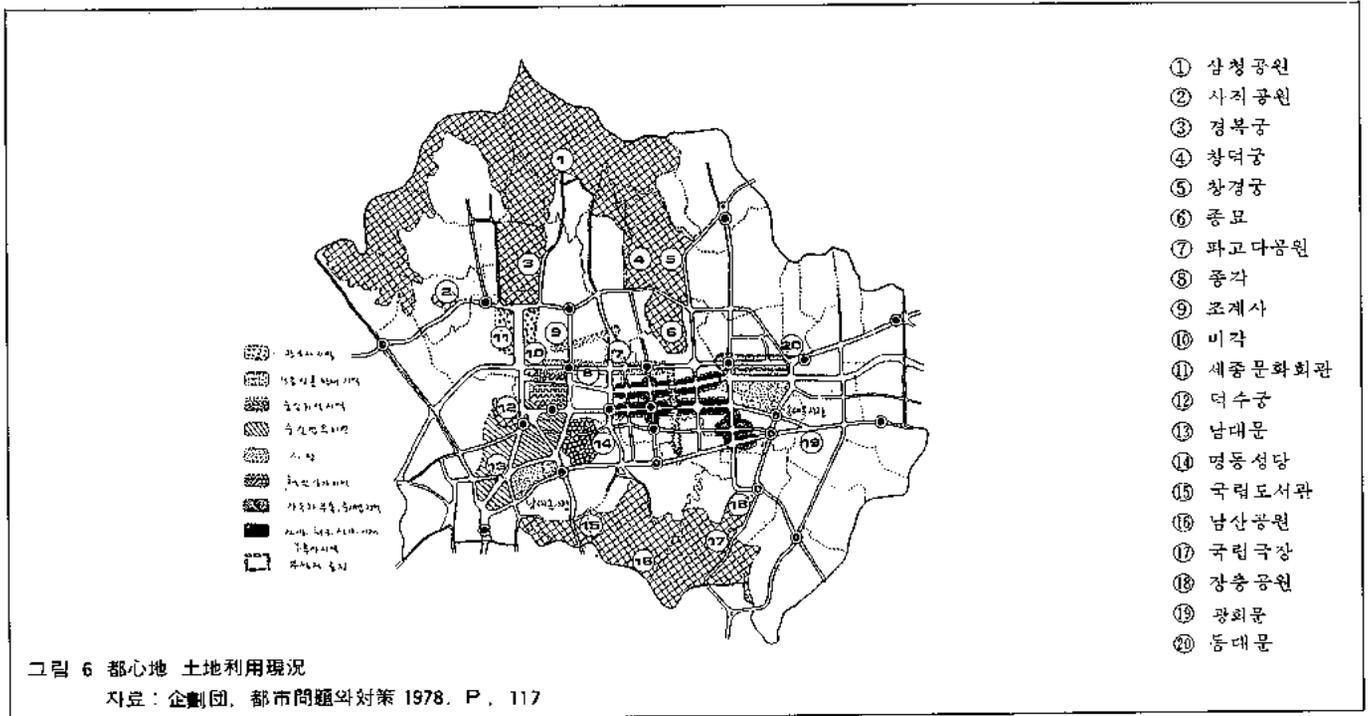
機能을 3 개의 都心圈으로 分散 조정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副都心으로 新村·清涼里·永東지역을 상업 및 業務 기능에 맞게 개발하여 都心圈의 기능을 보완토록 하고 있다(조선일보 1983. 2. 9).

6. 都心地計劃의 基本方向

서울시 당국에서는 都心地計劃의 基本方向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 ① 保存地域의 확대조정과 都心部의 선택적 再開發
- ② 不適格機能의 移轉整備



- ③ 街区單位 綜合開發
- ④ 自然景觀의 최대 존중과 도시미관 확립
- ⑤ 未來에 대응한 留保地의 最大確保
- ⑥ 交通手段別 固有長點을 극대화할 수 있는 均衡있는 交通手段 分担構成

서울시 당국에서는 桂洞·원서동지역을 한옥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都心部에 있는 文化財 보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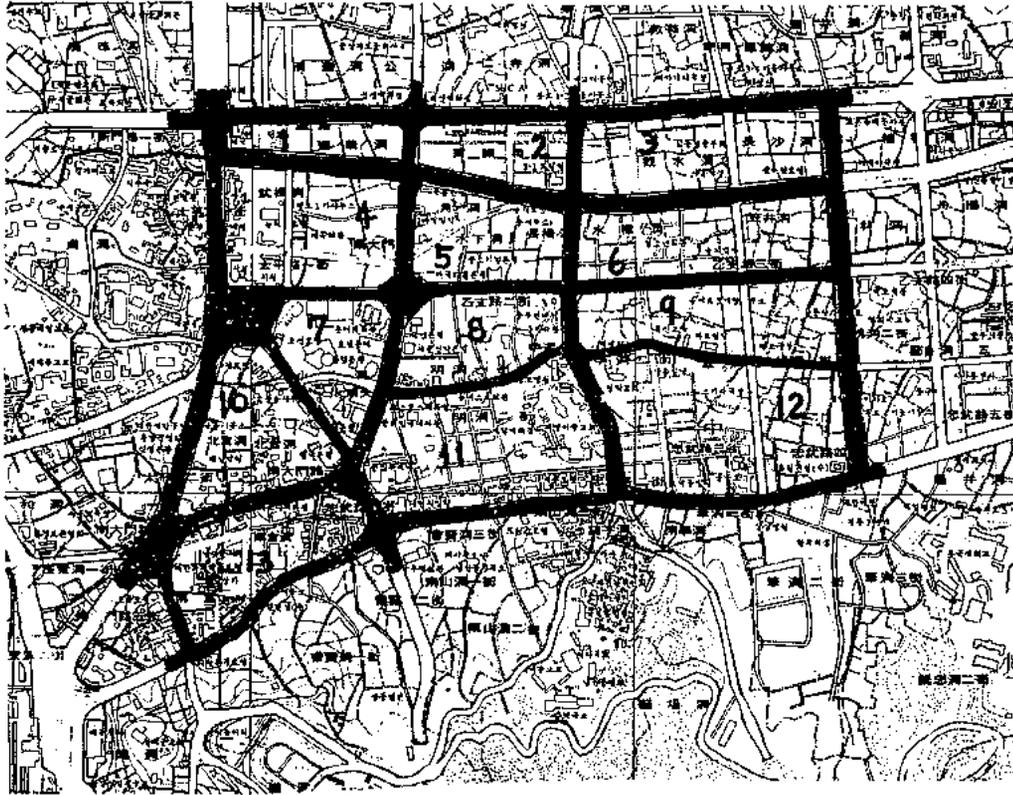
그리고 都心不適格 기능 정비계획

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다.

- ① 建材 및 化工약품점 : 乙支路2-4街→건축종합전시장 건설
- ② 기계工具 : 청계천변과 염천교부근→구로동이전계획
- ③ 自動車部品 : 돈화문에서 乙支路3街로 통하는 街路변과 광희동 일원에 密集→매매상은 장안평 軍자동으로 이전 완료. 부품상은 전농동·담십리로 이전 계획(일부)
- ④ 鉄材商 : 청계천3.4街→구로구신용동으로 이전 계획

- ⑤ 農水産物市場 : 五壯洞의 中部市場→강동구 가락동에 이전 계획
- ⑥ 印刷業 : 長橋洞→전양상가주위에 배치
- ⑦ 南大門市場·東大門市場 → 도매기능은 가능한 한 分散하고 전문소매업 기능으로 유지
- ⑧ 봉제업→서초동

街区單位의 종합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本稿에서는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은 明洞을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의 종류와 그 수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결과 明洞일



街区	면적 (ha)
1	3.5
2	5.8
3	11.8
4	13.9
5	9.0
6	12.4
7	8.0
8	9.1
9	12.3
10	11.3
11	18.9
12	34.2
13	10.7
合計	160.9

그림 9 部心部一部の土地利用 調査地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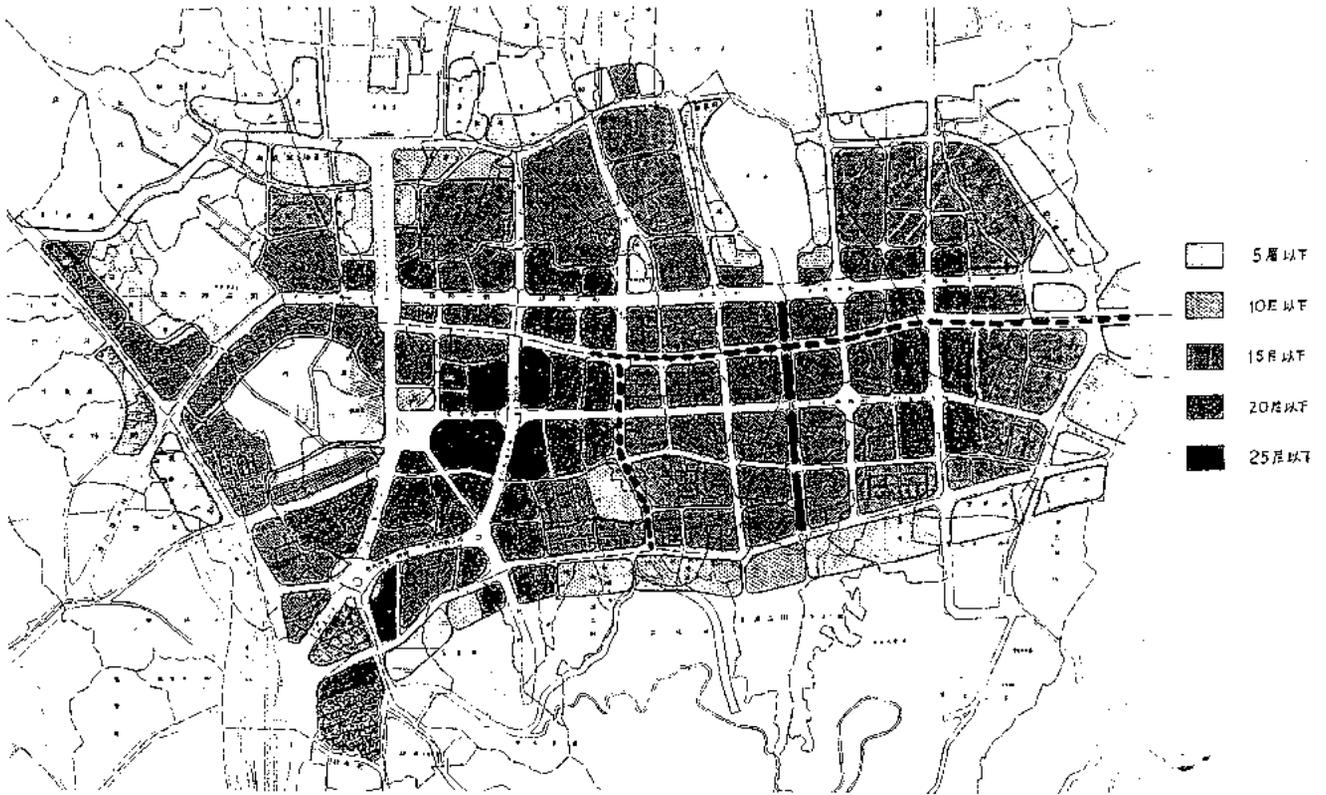


그림 10 高度制限区域 計劃案

表 4 既 移轉學校의 活用內容

學校名	出所在地	移轉地	活用內容	活用類型
文理大	鍾路區 東崇洞	冠岳區 新林洞	住宅·事務所·公園	分割一般分塊
서美大	" 蓮建洞	"	디자인 포장센터	公益全面買収
師大	東大門區 龍頭洞	"	住宅 "	分割一般分塊
울音大	中區 乙支路 5 街洞	"	農協 "	官公署
大法大	鍾路區 東崇洞	"	서울사대附屬國民學校	學校代替
工商大	城北區 鍾岩洞	"	서울師大附屬中高等學校	"
工大	道峰區 孔陵洞	"	京畿工業專門大學	"
서울 教育大學	城東區 杏堂洞	江南區 瑞草洞	德壽商業高等學校	"
京畿工專	麻浦區 阿峴洞	道峰區 孔陵洞	-	-
首都電氣工業高等	麻浦區 塩里洞	江南區 開浦洞	韓國技術檢定公團	公共機關
京畿高等學校	鍾路區 花洞	江南區 三聖洞	精澁圖書館	公益施設
蔚松國民學校	鍾路區 壽松洞	廢校	鍾路區 庁·消防署	官公署
日新國民學校	中區 忠武路 3 街	廢校	極東빌딩	私有全面買収業務施設

表 5 학교 移轉地의 活用內容

학교명	面積(坪)	活用內容
1. 서울高等學校	38,716	西部教育區 庁(10層) 校舍: 現代그림의 몇개社事務所로使用(29,788坪)
2. 徵文中·高等學校	6,390	現代자동차의 사무소, 現代건설 기능공훈련원
3. 淑明女子中·高等學校	3,700	石炭장학회(1,000 坪) 대한再保險公社(2,300 坪)
4. 貞信女子中·高等學校	8,786	대한保證保險(3,390 坪) 대호홍산(2,700 坪) 신교사住宅(2,700 坪)
5. 東人附中高맞은석국민학교	4,288	극동건설에서 매수使用하지 않고 있음
6. 德壽商高		德壽綜合개발에서 店舖 및 임대사무소 展示場 使用하지 않고 있음
7. 聖貞女子中學校		
8. 輔仁商高	1,400	大一興産에서 事務所로 임대
9. 東北中·高等學校		太光産業이 事務所 건축
10. 培材中·高等學校	7,927	使用計劃 없음

表 6 용적율에 따르는 시설인구 算定

용적율	延床面積(1000 m ²)	시설인구 10m ² /人	승용차	버스	合計
100	18,960	1,896,000	284,400	50,560	334,960
200	37,920	3,792,000	568,800	101,120	669,920
300	56,880	5,688,000	853,200	151,680	1,004,880
400	75,840	7,580,000	1,137,600	202,240	1,339,840
500	94,800	9,480,000	1,422,000	252,800	1,674,800
600	113,760	11,376,000	1,706,400	303,360	2,009,760
700	132,720	13,272,000	1,990,800	353,920	2,344,720
150	28,440	2,844,000	426,600	75,840	502,440

① 平均승차人員 승용차 2 ② 住居地域 1,133ha → 1,896ha
 버스 15 商業地域 763ha

③ 1991 수송수단分担率 버스 40%, 전철 30%, 승용차 30%

④ 종로·중구 都心시설 延床面積 6,230,661 m², 空地面積 6,163,982 m², 용적율 101%

⑤ 재개발지정 1,811,641 m², 용적율 500% 적용하면 延床面積은 9,058,205 m²가 됨
 18,960,000 + 9,058,205 = 28,018,205 m² → 용적율은 150%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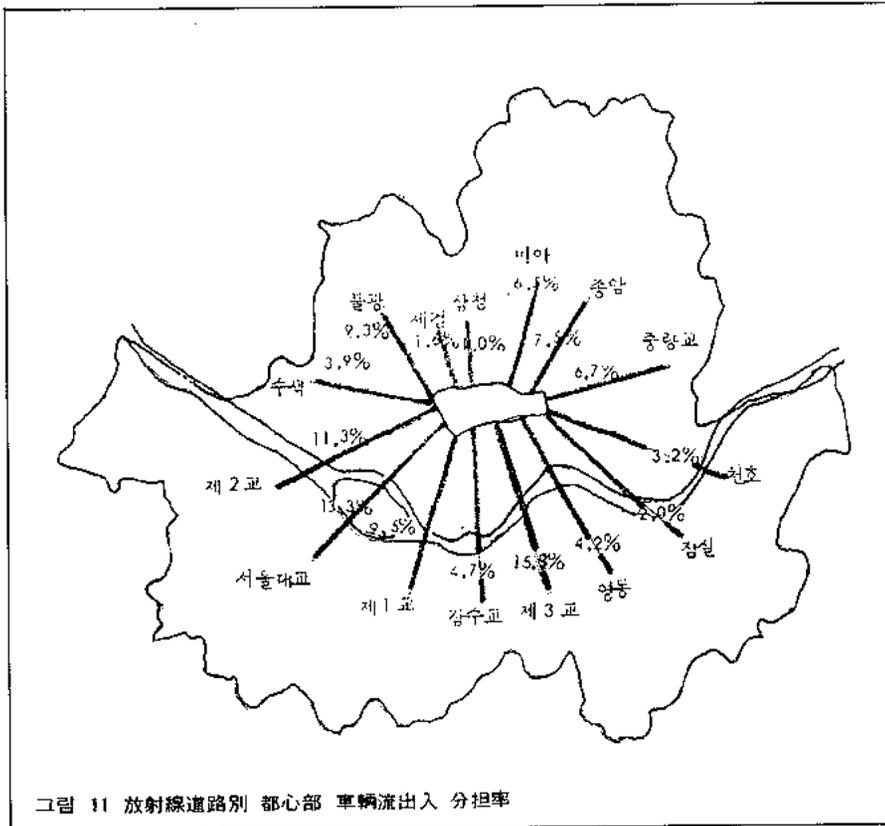
대의 시설 종류가 27가지로 가장 많고 다음이 영락교회가 있는 街區가 21종류로 되어 있고 롯데호텔·산업은행본점·조선호텔 등이 있는 街區는 8종류 밖에 되지 않으나 백화점이 있어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街區單位로 綜合開發計劃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表3 참조).

自然景觀의 최대존중과 도시미관확립을 위하여는 당국에서 高度制限區域 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이것은 街區單位로 綜合計劃을 작성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그림 10 참조). 그리고 종로와 南山을 이을 수 있는 道路 위에 세운상가를 건설하여 동쪽과 서쪽을 갈라놓은 것은 큰 과오였으며 계기가 마련되면 세운상가 자리는 綠道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가지 크게 잘못된 것은 3.1路 高架道路이다.

이 道路는 의곽으로 관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체지점이 많이 생기게 되어 高架道路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이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아름답게 하는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未來에 대응한 留保地의 最大確保策은 적극적으로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留保地를 확보하는 方案의 한가지로서 이전 學校用地를 市當局에서 확보하는 方案이 있겠는데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이전된 학교용지 活用內容을 보면 학교代贖가 4 건, 공공기관 이용이 5 건, 개인이나 私企業에게 분양한 것이 3 건으로 비교적 신중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移轉하였거나 이전하게된 학교用地 10個所 모두가 私企業이 활용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학교用地는 當局에서 확보하고 單位街區 개발 계획에서 用途가 결정된 후에 매각할 수 있을 것이다.

都心部の 住居機能이 商業 및 業務機能으로 대체되므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즉 夜間에는 都心部가 無人의 도시가 되고 出退勤 時間에는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더우기 서울시의 都市構造는 15개의 放射線道路로 형성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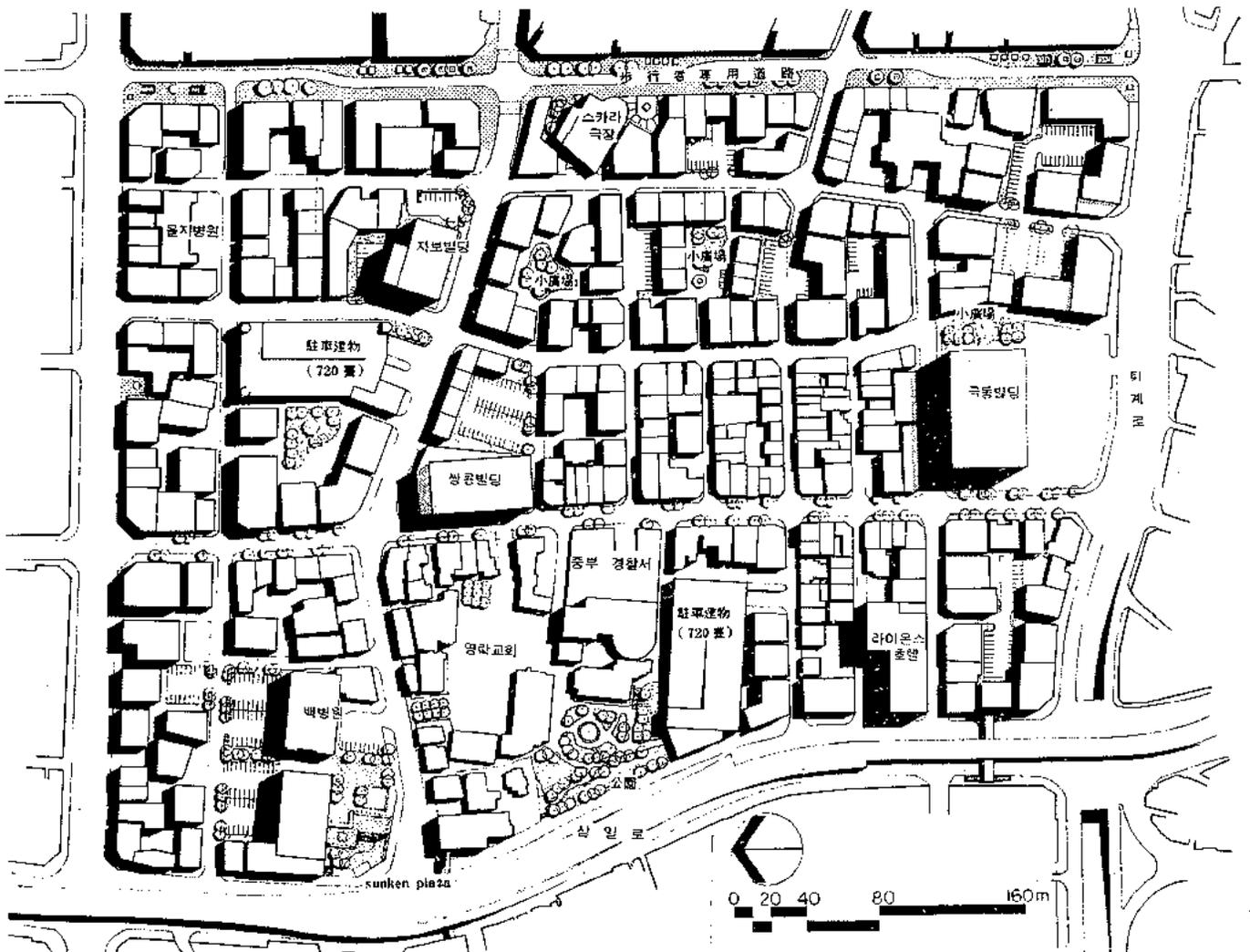


어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래서 1991년에 전철공사가 완료되면 수송분담율이 버스 40%, 전철 30%, 승용차 30%가 되리라 推定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都心部 용적율에 따르는 도심부 車輛流入出량을 算定하여 보면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도심부 再開發地域으로 지정된 1,811,641㎡에 500%의 용적율로 건물이 세워진다고 가정하면 都心部의 (주거와 상업지역의 1980년 현재로 용적율이 약 100%) 주거와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율은 150%가 되고 시설 인구는 2,844,000인이 되고 승용차와 버스의 流入入車輛은 502,440대가 될 것이다. 이것을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방사선 도로별 分担率을 적용하면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된다.

즉 제3 한강교에서는 都心으로의 流入入車輛 76,873대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시



자료: 都市設計II 事例適用研究, 国土開發研究院,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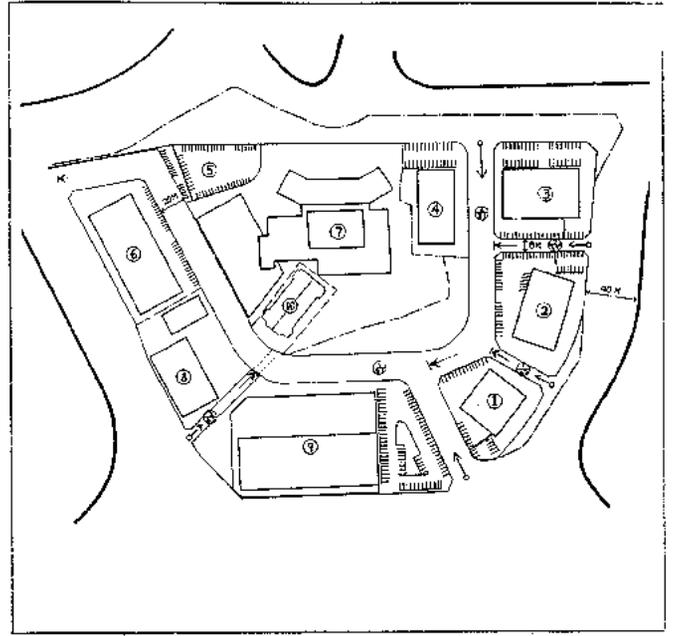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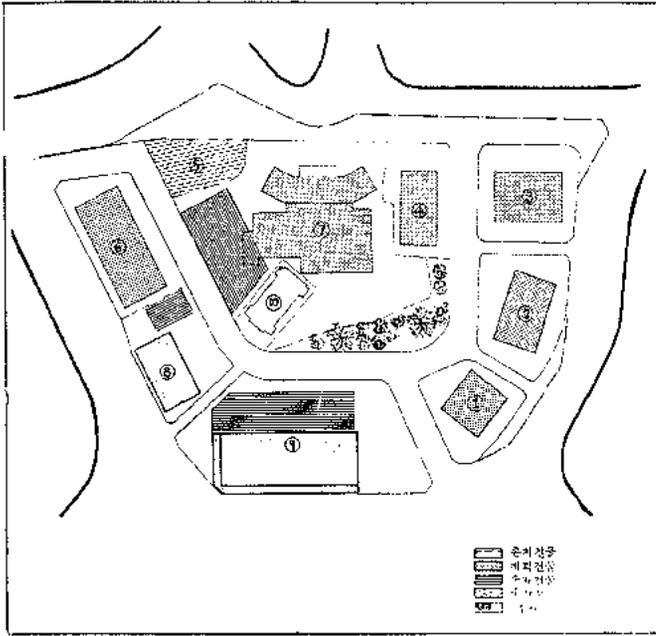


그림 11 양동지구 재개발 綜合設計圖

그림 13 交通計劃圖

자료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부속 생산기술연구소 보고
제 3 권 제 1 호, 1979. 12. P. P. 79-95
“再開発事業計劃에 関한 研究(陽洞区域)” 朱鍾元.

表 7 용적율 150%인 경우 放射線 道路別 車輛流入出分擔

지 역	分擔率(%)	分擔車輛流入出量	1 시간평균 유출입량(8.33%)
1. 서울대교	13.3	66,824	5,566
2. 제 2 한강교	11.3	56,776	4,729
3. 제 1 한강교	9.5	47,732	3,976
4. 불 광	9.3	46,727	3,892
5. 종 암	7.5	37,683	3,139
6. 중 량	6.7	33,664	2,804
7. 미 아	6.5	32,659	2,720
8. 제 3 한강교	15.3	76,873	6,404
9. 잠수교	4.7	23,615	1,967
10. 영 동	4.2	21,102	1,758
11. 수 색	3.9	19,595	1,632
12. 천 호	3.2	16,078	1,339
13. 잠 실	2.0	10,049	837
14. 세 검	1.6	8,039	670
15. 삼 정	1.0	5,024	419

表 8 용적율에 따르는 延床面積·주차대수 및 駐車台數 算定

용적율	住居 및 商業地域 延床面積(m ²)	주차대수	駐車面積(m ²)
100	18,960,000	75,840	1,896,000
200	37,920,000	151,680	3,792,000
300	56,880,000	227,520	5,688,000
400	75,840,000	303,360	7,584,000
500	94,800,000	379,200	9,480,000
600	113,760,000	455,040	11,376,000
700	132,720,000	530,880	13,272,000
150	28,440,000	113,760	2,844,000

住居地域, 商業地域
延面積 250 m² 당 1 台의 주차장
駐車場面積 1 台 당 25 m²

간당 6,404台).

1977년에 都心部에 유출입한 차량 수는 443,342台였다(서울特別市, 首都圈長期綜合交通計劃 樹立에 關한 研究, 1978. 12. P. 23 참조). 또한 용적율이 150%가 되면 都心部에 주차하여야 할 車輛台數는 113,760台가 되고 주차면적은 2,844,000 m² (861,818 坪)가 필요하게 된다.

7. 結 論

本稿에서는 서울 都心部の 문제점을 분석하고 当局에서 수립한 都心部計劃의 基本方向을 검토하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方案을 제시하였다.

① 保存地域을 확대조정하는 방안은 좋으나 保存地域에 있는 建物主의 보호대책과 保存地域의 活用方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都心部의 선택적 再開發을 하는데 있어서는 街區單位로 면밀한 연구검토 후에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② 不適格機能의 移轉整備 計劃은 상당한 정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都心의 立地의 이점을 고려하여 移轉計劃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들 시설에 대한 특

성을 조사 연구하고 부적격 기능의 시설소유주의 의견을 들어서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③ 그림 11·12에서 보는 바와 같은 街区單位 綜合開發計劃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하고 本稿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都心機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점차적으로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④ 都市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地域別로 最高高度를 정하는 것

을 제안하였고 都市美觀을 저해하는 새운상가와 3·1교가도로의 美化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⑤ 未來에 내용한 留保地는 이전하게 될 관공서 건물이나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⑥ 전철이 건설 완료되면 서울都心の 交通難은 완화되겠으나 그래도 버스와 승용차의 부담율이 70%를 차지할 것을 감안하여 都心の 建物床面積 증가에 따르는 13개 방사선도로가 分担하여야 할 교통용량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本文에는 기술하지 않았으

나 洞境界의 기준이 애매하여 街区의 体系가 맞지 않고 따라서 통계자료를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고 번지에 의하여 建物를 찾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街区單位에 의한 洞境界 조정의 있어야겠다. 그리고 都心部가 종로와 중구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都心部의 基本計劃이 2개의 용역 업체에 의하여 2개의 基本計劃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개의 案으로 작성되어야 겠으며 행정적인 큰 어려움이 없는 한 종로·중구가 통합되는 것이 더 능률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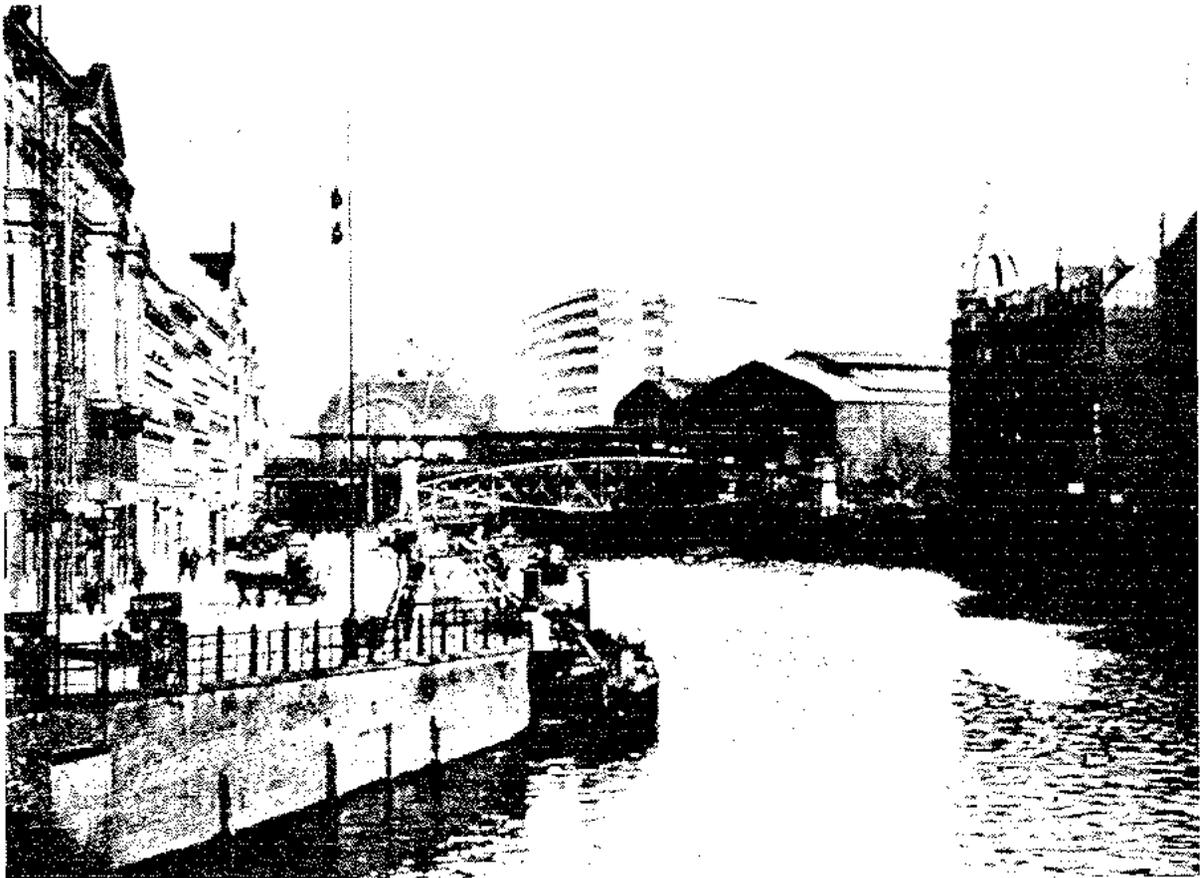
參考資料

1. 서울特別市 建築關係法令集, 1979
2. 大韓建築士協會誌, 建築士, 165号, 1982
3. Kent, Jr., T. J. The Urban General Plan, Chandler Publishing Co., 1964
4. 서울特別市, 서울市 都心部 整備方

向 設定을 위한 土地利用調査研究, 1977. 12

5. 한양그룹, 잠실종합관광유통단지 개발계획, 1982. 9
6. 企劃團, 都市問題와 対策, 1978
7. 한국과학기술연구소, 市内 交通疎通改善에 관한 研究, 197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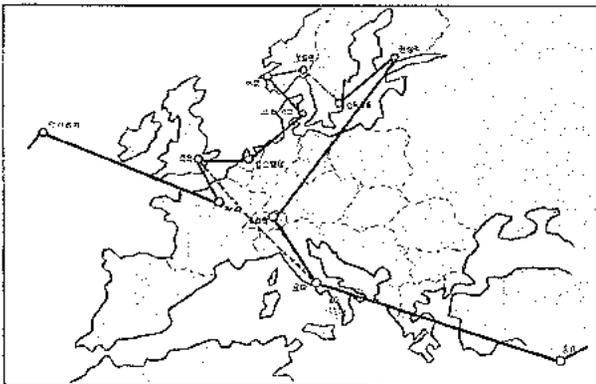
8. 国土開發研究院, 人口定着 基盤의 造成(第2次 国土綜合開發計劃), 1982
9. 서울特別市, 서울市 都心高度制限 基準에 관한 研究, 1981
10. 서울特別市, 서울 都市開發 長期構想中期計劃, 1980



키다란 공원의 어느 작은 구석 그런 이야기



金 琪 碩 / 아동건축연구원소



○놀웨이 비경

비행기는 구름 위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조그만 창문 밖으로는 낮에 익은 산봉우리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지금 왼쪽 밑으로 보이는 것이 몽블랑입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 나왔다.

구름 위로 솟은 몽블랑은 아침 이른 햇살을 받고 연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발탁에서만 보던 몽블랑을 하늘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몽블랑 바로 위에서 비행기의 날개가 왼쪽으로 한번 기웃거렸다. 「수단」 비행기의 까만 기장은 몽블랑을 향하여 아침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흰 이빨을 드러내고 웃고 있는 까만 여승무원들이 커피를 나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새벽 6시에 로마를 출발한 비행기는 런던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른쪽은 우리가 돌아본 유럽의 북쪽에 해당하였다. 우리가 향하고 있는 비행기의 뒤편 아랫쪽으로는 소련이 있었

자. 그리고 좌측 저 멀리로는 세느강을 가진 프랑스가 깔려 있겠지. 간간히 갈라진 구름의 골짜기 아래로 보이는 유럽의 새벽은 어둡침침하게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높이 떠서 둥그런 세계지도를 생각해 보는 것은 상당히 즐거운 일이었고 전혀 특수한 체험에 속하는 일이었다.

새벽 하늘 위에 떠서, 이른 햇살을 받고 있는 몽블랑을 내려다 보며 지나가는 것은 인상적이었다. 몽블랑은 내가 돌아본 유럽 전체의 경험을 한꺼번에 떠올려 주었다. 유럽은 하나의 키다란 공원이었으며 이 거대한 공원 위로 몽블랑은 솟아 있는 것이었다.

평활한 대지, 완만한 구름을 끼고 어디에나 허술한 곳이 없이 정돈된 유럽의 도시들,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들, 낮은 말소리로 지겨리는 조용한 사람들… 파리·런던·암스텔담·코펜하겐·버겐·오슬로·스톡홀름·헬싱키·뮌헨·로마·나폴리·폼

페이… 슐덴트의 언덕…

나는 「버겐」에서 우리를 안내하였던, 잘생긴 편은 결코 아니었으나 매우 유쾌하였던 놀웨이 여자의 얘기를 상기하였다.

“우리나라에는 부자니 가난하다니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사는 사람이 있고 더 잘사는 사람이 있고 덜 잘사는 사람이 있다구요.”

그 말은 참 옳아 보였다. 그러나 「버겐」의 한적하고 깨끗한 영화관에서 플래쉬 댄스라는 영화를 보았을 때, 경쾌한 걸음걸이로 우루루 영화관으로 들어오는 능금처럼 귀여운 아이들 중에서 누가 더 잘사는 집의 아이들인지 누가 덜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거리에서 그런 것을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버겐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코펜하겐을 출발했었는데, 비행기 위에서 보

이는 놀웨이는 온통 물질투성이었다. 호수가 없는 곳이 없었으며, 상당히 높아 보이는 산경에도 물이 고여 있었다.

버겐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조그만 도시를 들르기 위해 없는 시간을 쪼개야 하는가를 불평하고 있었다. 인구는 20만, 한때는 놀웨이의 수도였으며 놀웨이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버겐에는 무엇이 자랑거리입니까?”

“버겐은 매우 아름다워요. 그리고 유명한 작곡가 그릭의 집이 있구요” 그 여자는 자신만만 하였다.

“작곡가 누구요?”

나는 그 여자의 말소리를 금방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다시 물었다.

“그릭, 에드워드 그릭.”

그릭, 그릭... 그릭이 누군가. 그가 누구이든간에 시골 작곡가 한 사람 때문에 이 먼길을 돌아가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호텔에 머무시게 됩니다. 오리온 호텔... 일류지요.”

일류호텔에 머문다는 것은 우선 반가운 일이었다. 파리에서, 암스텔담에서, 코펜하겐에서 우중충하고 좁고 신통치 않은 호텔투숙에 진력이 난 여행자에게, 오늘밤만은 일류호텔에서 잠자게 된다는 희망은 상당히 안도감을 주었다. 버스는 작은 어촌만한 도시의 한쪽 끝에 잠은 상당히 말끔한 현대식 호텔 앞에서 우리를 내려다 놓았다. 해운대 관광호텔만 하였다.

로비는 꽤 깨끗하였고 꽤 상냥한 여자 한 사람이 프론트를 맡아보고 있었다. 로비 뒤편으로는 유리로 된 칸막이 뒤에 벽난로의 불꽃이 조그맣게 타고 있는 방이 하나 보였다. 빠-라고 쓰여 있었다. 열개 정도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두어 사람이 앉아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다. 저녁식사 후 비바람에 쫓겨 밤거리 구경을 포기한 나는 혼자서 그 벽난로 옆에서 진토닉 한잔을 마셨다. 천천히 천천히, 인색한 서양사람들 처럼 나도 천천히 몸을 잡아가며 진토닉을 할었다. 벽난로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천천히 할아도 15분을 넘기기 어려운

한잔의 진토닉을.

“여기 뭐 재미있는 데 없습니까?”

“지하에 디스코 데이 있어요. 11시부터 시작해요. 시내에는 나이트클럽이 한 군데 있구요. 전부 Normal이예요. Normal!” 정상적이라는 뜻인 모양인데 이 여자가 왜 그걸 강조하는 것일까? 칵테일을 날라다 주는 아가씨는 가만 바지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조금 수줍은 듯이 웃는 화장기 없는 웃음이 매력이 있었다. 마치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같은 분위기였다.

“밤새도록 일하세요?”

“아니요. 난 12시가 되면 집에 가야 돼요. 여기서 10분이면 걸어가요” 그 여자는 소박하게 자꾸 웃었다.

같이 여행하던 젊은 K사장이 옆자리에 끼어들었다.

“같이 놀러가자구 좀 말해줘, 응! 응!” 그는 내옆구리를 자꾸 쑤셔대었다.

“같이 가면 안돼요?” 내가 물었다.

“안돼요. 난 집에 가야돼요. 정말이에요.”

그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여자는 시골 처녀처럼 착하게 웃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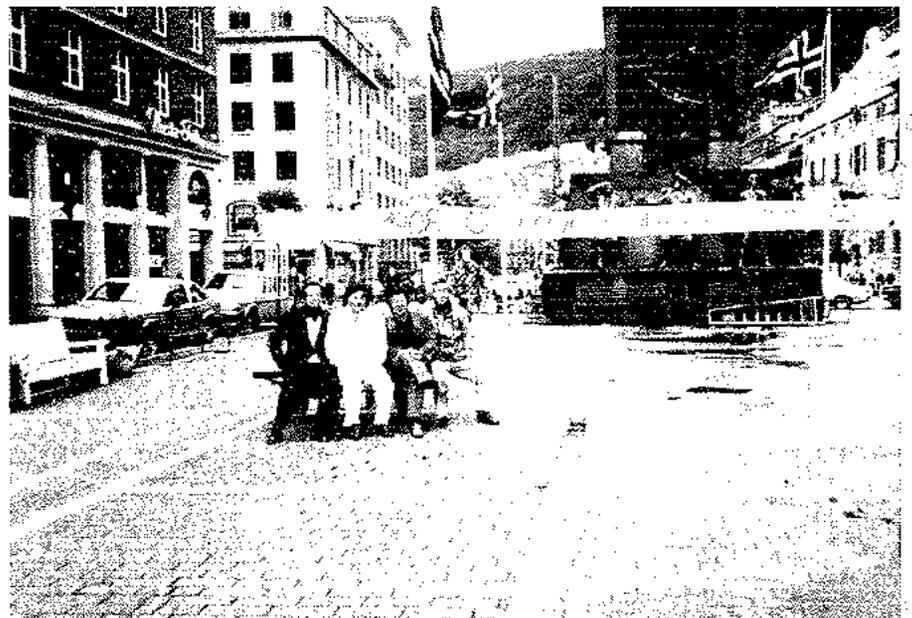
우리는 그 수줍어 하는 놀웨이 여자를 포기하고 디스코 맥으로 내려갔다.

“스카치 언더 러스!”

빠텐더가 테이블을 잡고 기다리라고 했다. 맥주는 셀프 서비스, 스카치를 마시는 사람은 귀빈 대접을 받는 모양이다. 우리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주위를 두리번 거렸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서울의 디스코 맥처럼 붐비지는 않았다. 남자들끼리 앉은 테이블, 여자들끼리 앉은 테이블, 여자들이 등성등성 끼어 있는 테이블, 맥주잔을 들고 연상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말을 붙이고 있는 젊은이, 술취해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빼고는 평범한 광경이었다. 그들은 평범하게 술을 마신다. 취하려고 술을 마시는게 아니라 그냥 저녁산보를 하듯이 가벼운 표정으로 술을 마신다. 가벼운 농담을 하면서, 가볍게 웃으면서.....

나도 산보를 하듯이 가벼운 기분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테이블을 기웃거리면서 개기를 부려보고 싶은 욕망은 일어나지 않았다. 꽃이 피어야 나비가 날지.....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 때 나비는 다만 눈을 꿈벅거리면서 앉아 있을 뿐이다.

상당히 시선을 끌만한 미인이 한 사람 들어오고 있었다. 쨍쨍한 편이었다. 덩지도 크지 않고...말을 한번 걸어볼까?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에 가려서 그 여자의 모습도 보였단 안보였다 했다. 혼자 왔을까?.....뜸들이기 잘하는 동양의 나비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어느새 한 젊은이가 말



○버겐의 광장에서 /

뒤에보이는 조각담에는 작시대의 바다사진들이 사면에 세겨져 있다.

을 붙이고 있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기웃거리던 아까 그 젊은이였다. 나보다 체구도 작은 친구인데 이 녀석은 열등감도 없는 모양이었다.

“저기 여자들끼리 온 테이블이 있는데 가서 춤춤 추자고 말쯤 걸어봐, 응!”

젊은 K 사장이 다시 내 옆구리를 쑤셔대고 있었다. “영어는 뭘다 언제 써, 이럴 때 쓰지!” 그는 안타깝다는 듯이 추궁대다가 혼자서 출동해 버리고 말았다. 금방 되돌아 오지 않는 것을 보니 성공을 한 모양이었다. 나는 비맛은 나비처럼 주그리고 앉아서 유리잔에 담긴 얼음알만 애꿎게 달그락거리고 있었다.

“실례!”

어떤 한 쌍이 내 옆자리로 들어와 비비적거리고 앉았다. 구석자리가 되어서 자리가 이어져 있었다. 가만히 보니 아까 그 잘생긴 여자와 말을 붙이던 젊은이였다. 그들은 어느새 친해졌는지 마주 보고 소근거리느라고 나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다. 인연이 닿긴 닿았는데 약올리는 인연이었군…… 상념을 바라보는 자의 눈에는 이 세상은 아주 잘 짜여진 각본처럼 보이는 법이다.

또 한쌍이 어느새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앞에 앉은 녀석은 덩치가 상당히 큰 편이었는데 가느다란 여자를 무르익에 앉혀놓고 강아지를 어루만지듯이 어루만지고 있었다. 코너에 몰린 나는 술잔을 달그락거리면서 몇 알 남은 얼음알이 흔들리는 것만 바라보았다. 얼음알이 한조각이라도 남은 것이 다행이었다.

“일본사람이냐?”

덩치큰 녀석이 뽀뽀를 하다말고 물어왔다.

“아니, 한국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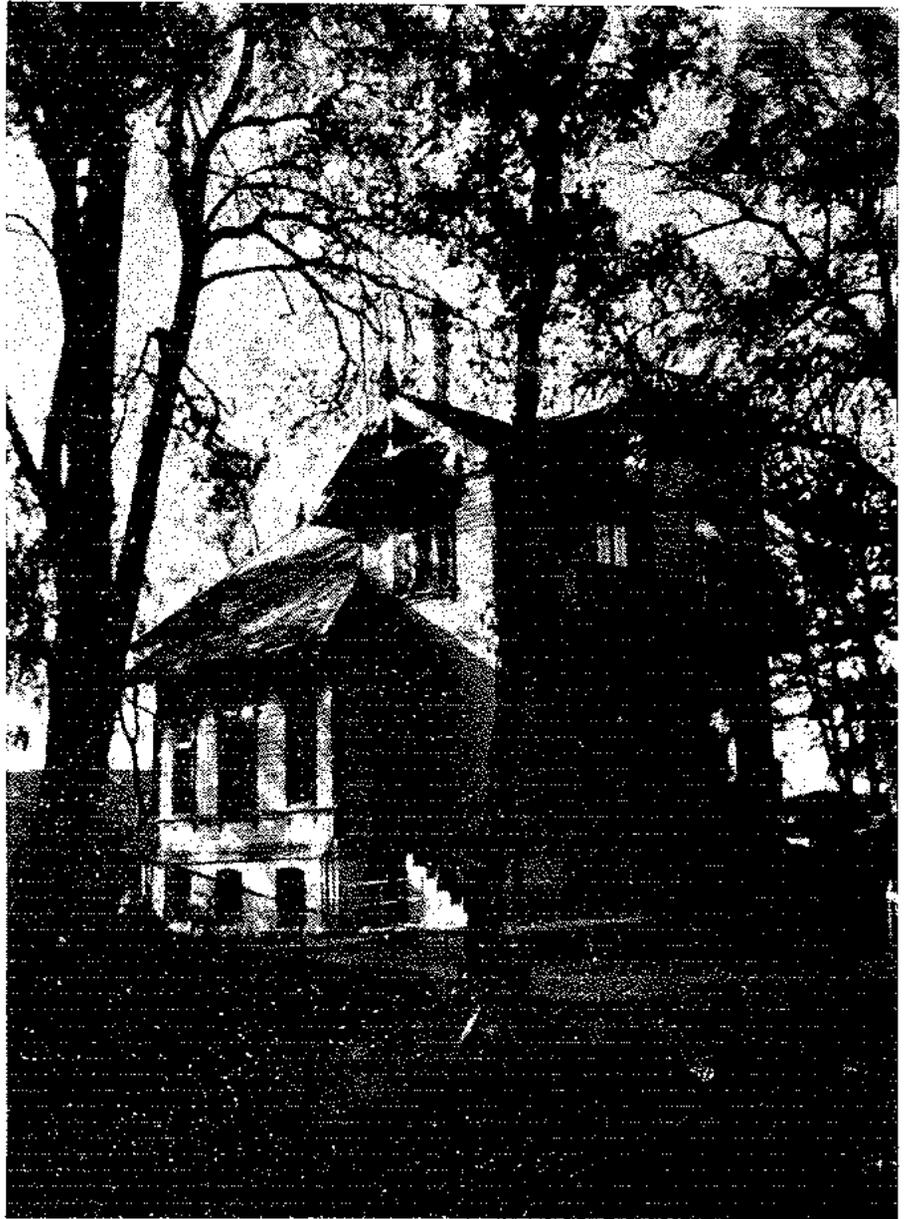
그는 큰 눈을 깜빡거렸다.

“너네들 KAL 기가 쏘련 미사일에 맞은 사건을 아니?”

“야! 잘 알지. 코리아. 너네들 화났었겠구나. 우리도 몹시 분개했지. 쏘련이 나뻐어.”

그는 큰 소리로 외치다가 다시 뽀뽀를 계속하였다.

나는 그 틈에 코너를 빠져나와 가운데 비어 있는 큰 테이블에 앉아서 커



○그럭의 생가

다란 매주를 시켜다 마셨다. 좀 덜 어색하였다.

“농경은 큰 도시냐?”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던 조금 어려 보이는 한 녀석이 앞자리에 앉으면서 물어왔다.

“난 서울사람이다. 서울은 큰 도시다.”

“높은 빌딩들이 많으냐?”

“그렇다.”

“뉴욕은 크냐?”

“그렇다.”

“파리는 크냐?”

“그렇다.”

“내 영어실력이 어때냐?”

이 녀석은 나를 상대로 영어회화 연습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홀안은 시끄러웠고 이 녀석은 알아듣기 힘든 영어로 떠들떠들 횡설수설을 늘어 놓

고 있었다.

젊은 K 사장이 돌아왔다. 두 사람이 나 성공했다고 했다. “춤추는데 영어 같은 건 몰라도 되더군!” 그는 의기양양하였다.

버젠 —

당신은 아마도 「켄디스 버젠」을 연상하겠지. 그런데 작은 항구도시 버젠은 확실히 켄디스 버젠을 닮았다. 처녀일리는 절대로 없는데 언제나 처녀같은 이지적인 미인들.

버젠은 12세기부터 발달해 온 도시로 북대서양의 항해와 고기잡이의 지지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위도가 앵커리지와 같은 북쪽인데도 멕시코 난류의 덕택으로 기후가 온화하고 풍물이 아름다운 북구라와의 휴양지다.

버젠의 체험은 파리나 런던·뉴욕·로마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세익

스피어·피테·빅토르 유고같은 문학가들과 썸뱃쥐 베리가 전혀 다른 것처럼. 그러나 버젠은 그러한 대규모의 역사적 도시가 보여주기 어려운 집약적 특성과 역사적 다양성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피테가 장황한 파우스트를 통하여 (축을 힘을 다하여) 말하려 하였던 생애의 에스프리를 썸뱃쥐 베리가 짙막한 동화와 낙서같은 그림 몇 장을 통하여 단숨에 말하는 것처럼.

1983년 9월24일 버젠을 순회하는 우리에게 안내양이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것은 주로 언제 언제 세웠다는 조그만 소방서랑, 스웨덴에서 선물하였다는 현대식 병원이랑, 작고 가느다란 폭포라든가 항만에서 석유를 캐내는 배라든가 꽃과 생선을 파는 작은 야시장이라든가 대포가 있었던 조그만 포대라든가 독일선원이 머물렀던 동네, 그 당시의 창고, 평범해 보이는 목조가옥들이 다닥다닥 잇다어져 몰려 있는 중세기의 주택지, 3Bed Room 짜리 현대식 주택들이 등성등성 놓여져 있는 한남동 UN빌리지 정도의 주택단지들이었다. 그것은 국민학교 사회생활 시간에 도시란 이렇게 생긴 거야 하고 설명하는 것과 흡사한 느낌을 주었다.

임금님이 대관식을 하였다는 평범한 13세기 건물, 12세기의 그저 그런 성메리교회당, 해안가 거리에 불나기 딱 알맞게 뻗뻗히 들어찬 상점가들(그래서 안내인은 제일 먼저 오래된 소방서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였었지), 바이킹 냄새가 물씬 풍기는 식당가들, 바이킹식 뷔페(실은 뷔페란 원래 바이킹식 습관이라 했다) ... 그리고 중심가의 작은 광장에는 이곳 시장이 월요일마다 시민을 만난다는 커다란 나무 의자가 덩렁 놓여져 있었으며 한쪽 끝에는 동화책에 나올만한 예쁜 통나무집이 있었는데 구두담이가 구두를 닦는 집이라고 했다.

“저 골목길을 보세요.”

중세기의 주택가를 지나면서 놀웨이 여자의 얼굴이 반짝하고 빛났다. 4M 쯤 되어 보이는 골목길이 상당히 급한 경사를 지으며 밑으로 빠져 있었다.

화강암 포석이 깔려 있었는데 바닥이 3등분 되어서 양쪽은 매끄러워 보였고 가운데는 도들도들해 보였다.

“길 가운데에 튀어나온 돌들이 깔

려 있지요?

눈이 오는 겨울에는 경사진 길이 몹시 미끄러웠답니다. 옛날 남편들은 대개 술을 먹고 늦게 집에 돌아왔지요.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버젠의 주부들은 술취한 남편이 미끌어져 다칠까 봐 길 가운데에 오들도들한 돌들을 박았지요. 술취한 버젠의 남편들은 그걸 붙잡고 기어서집으로 돌아 왔답니다...”

이런 것들이 도시를 만드는 이야기들이었다. 이런 얘기에 비하면, 무솔리니가 로마의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 이미 자기들보다 더 근대화 되어 버린 주위의 야만인들을(야만인들이었던 사람들을) 겁주기 위하여 세웠다는 어마어마하게 큰 데르미넬리(종착역) 같은 건물은 유치한 얘기가 아닐까? 객기(客氣)와 생기(生氣)는 다른 것이니까...

피요르드식 해안을 따라 아름답게 구불어진 길을 가면서 우리는 버젠이 자랑하는 그림이라는 작곡가가 바로



○그림의 집 입구

「쉴베이지의 노래」를 작곡한 〈그리어그〉(우리는 이렇게 발음해야 알아 듣지)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림의 집은 아름다운 바다가 호수처럼 내려다 보이는 산언덕 모퉁이 위에 세워져 있었다. 조그만 목조가옥이었지만 평면계획이 제법 근대적이었고 당대의 건축가가 5년 동안 길러 완성한 집이라고 했다.

「입센」과 더불어 스칸디나비아문화권에서 거의 영웅시 되었던 그림은 세계를 돌며 연주여행을 하다가도 여름이 되면 이 집으로 와서 휴양을 하었다고 한다. 7평 남짓한 거실에서는 수풀사이로 바다가 호수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뜰에는 하얀 벤치가 있었고 쉴베이지의 작고마한 동상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쉴베이지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 긴 겨울 지나가고 봄은 돌아오건만 떠나간 님은 돌아오지 않네...”

그때 나에게는 어젯밤 호텔일층에서 소박하게 웃던 놀웨이 처녀 얼굴이 떠올랐다. 까만 바지에 하얀 블라우스, 목욕탕에서 금방 나온 것같은 얼굴, 손님도 별로 없이 불타고 있었던 벽난로, 조용하고 상냥한 말소리들... 산동성이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집들, 하얀 집에 빨간 기와들, 별나게 모양내지 않아도 예쁘게 어울리던 집들, 아주 조그마한 흔적들을 자랑하던 활기찬 놀웨이 여자, 적당한 여유와 적당한 역사와 적당한 크기, 적당한 문화와 산업, 적당한 특성을 가진 도시— 버젠의 전체적 생명이 순식간에 이해되었다.

해적질을 하던 바이킹의 후예들이지만, 정복적인 것과 전혀 인연을 끊은 사람들을 나는 만난 것이다. 시골벽적인 사교계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일들하고 풍요로운 자기의 생애를 기록해 가는 참으로 참하고 작은 미인을 나는 만난 것이다.

오솔로로 가는 기차역에서 탑승 수속을 기다리며 놀웨이 여자는 자기가 중학교 영어선생이라고 말했다. 나는 어린 아이들이 참으로 예쁘고 귀엽다고 말했다. “어릴 적에는 참 예쁘지요. 그런데 자라서 열다섯 열여섯이 되면 미워져요. 말도 못해요. 얼마나 다루기 힘든지. 선생질하기가 제일 힘들다구요.”

기차가 떠나기 전 우리의 침대차 좁은 복도에서 그 여자는 “사요나라”를 한국말로 무어라고 하느냐고 물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대답했다.

그 여자는 그 말이 너무 길어서 따라하지 못하였다.

그냥 “안녕”이라고만 해도 된다고 내가 가르쳐 주었다.

“안녕 — 사요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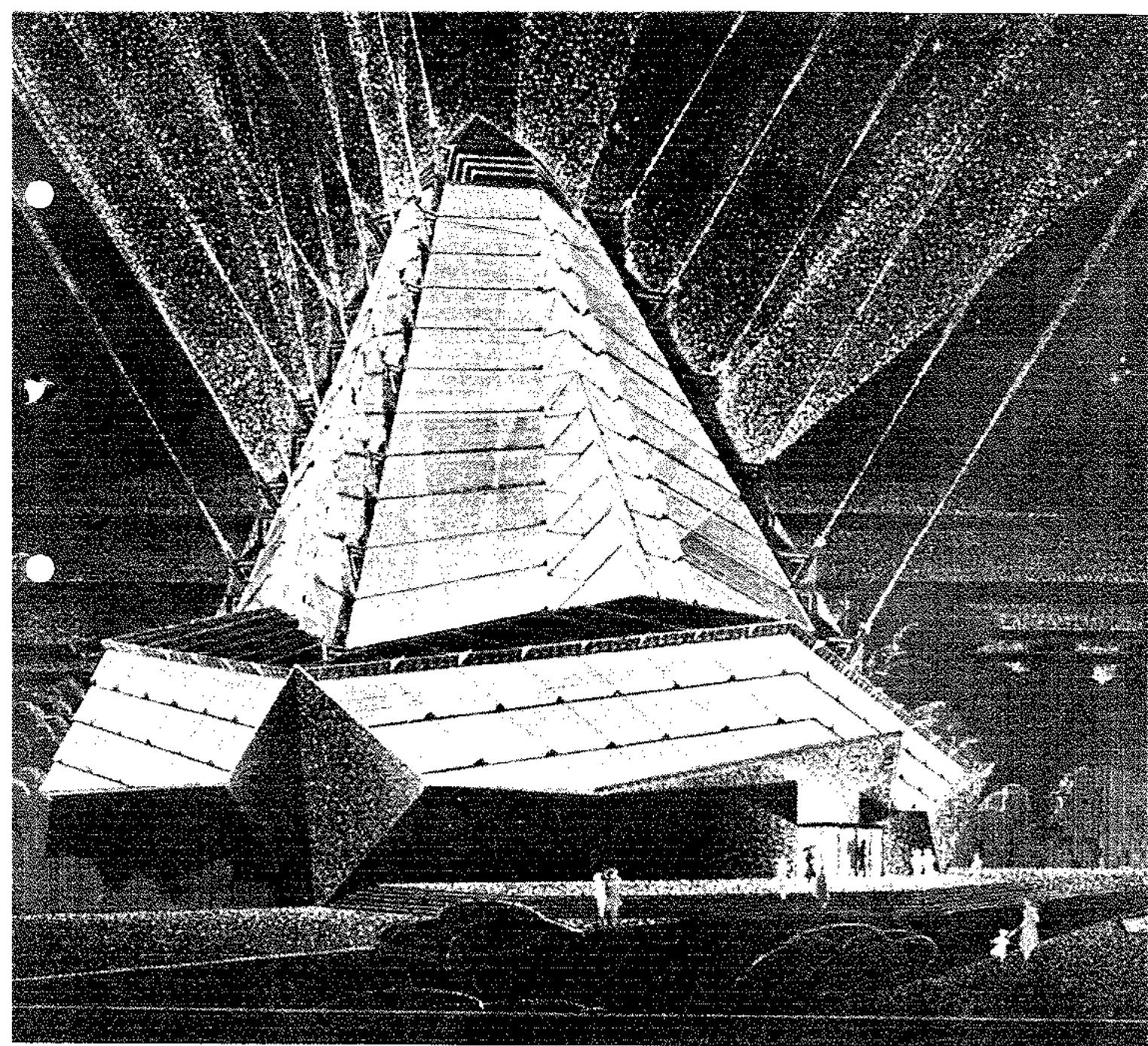
“〈사요나라〉는 빼고!”

“안녕 — .”

“안녕 — .”

기차가 떠나고 있었다.

하나의 도시를 떠날 때는 언제나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빛의 匠人들(I)

金 起 煥

-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 연세대, 건국대, 경기대강사

■ 빛의 제작자

빛의 建築的 구성요소는 (建築士誌 83년 10월호 P. 56~63, 「建築과 빛」 참조) 그 연출의 기법에 의해서 다양한 전개가 가능하다. 건축에서 빛의 연출은 건축작품에 의해서만 생성된다. 그리고 연출가인 건축가의 빛에 대한 개념이나, 그의 감성에 의해 표정을 달리하고 있다.

建築 속에서 이루어진 빛의 연출에 더욱 접근하기 위해서 작가 개인 개인의 의도와 작품에 표현된 빛의 의미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축의 역사에 받침돌을 놓아준 작가들은 의식적으로, 공간과 공간특질로서의 빛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Wright도 Mies도 Corbusier도 그 후의 작가들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건축에 임하였다. 이제 건축에 이정표를 제시해 준 작가들을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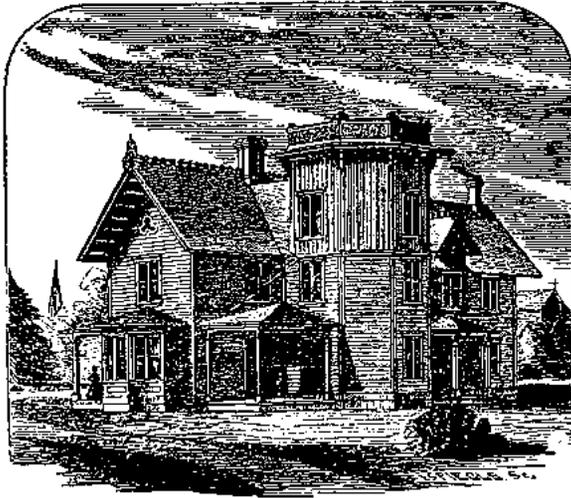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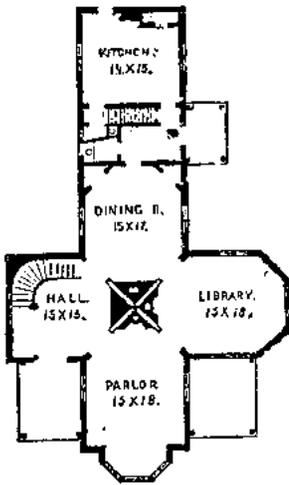
정, 그들의 새로운 공간추구의 의지로서의 빛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 原始的 永遠의 어두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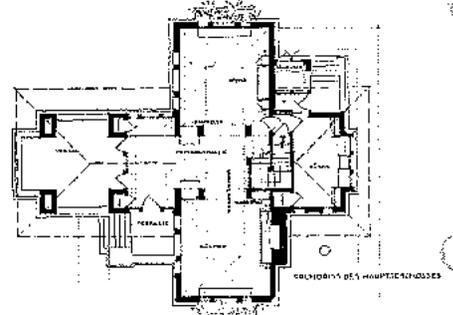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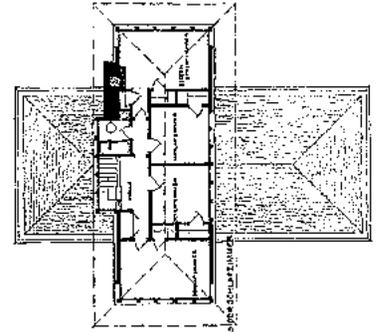
— Frank Lloyd Wright —

Frank Lloyd Wright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90년이나 되는 天壽를 누린 미국의 건축가이다.

그는 남들이 생각하기에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많은 작품을 남기었고, 그 작품의 대부분이 住宅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有機的 건축과 水平線 등의 새로운 用語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1] G. E. Woodward House (1873)



[2] Darwin D. Martin House (1904) 평면



[3] Darwin D. Martin House 의 외관

는 스승 Louis Sullivan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란 말을 「기능과 형태는 일체이다.」라고 해서 근대 건축의 기능과 형태를 보았다.

Wright가 동시대인들보다 뛰어난 건축가로서 그 생애의 최후까지 강한 영향력을 가진 작품을 창조해 온 사람이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최초부터 그의 생애에 중심이 되는 문제들 -- Shelter로서의住宅에 정력을 기울였다. 미국 주택의 전통 속에 장래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해 내고, 이 요소들을 기본으로住宅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開放平面 속의閉鎖性

Wright는 미국초기부터 내려 오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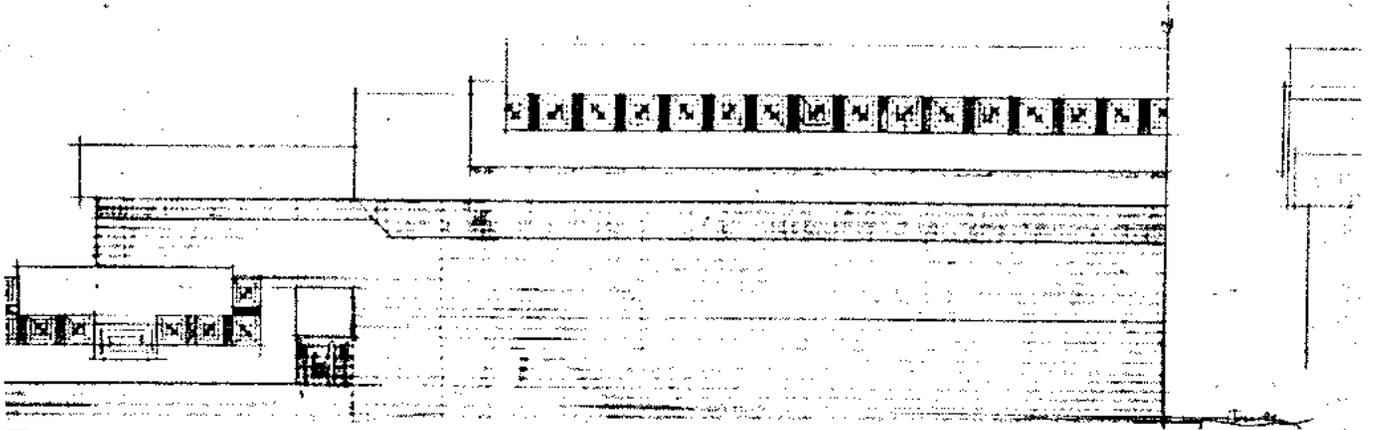
十字形의 平面 — 中央煙突을 中心으로 그것을 둘러싸고 全体를 만든다는 — 을住宅의 기본평면으로 삼고 있다.

그는 근본적으로 주택을 一室로 취급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모든 바닥은 하나의 室」이라고 하였다. 그것도 주방은 작업장으로 떼어 놓고 고용인의 침실과 거실을 연속시켜 반독립 가구식으로 한층으로 하고 큰 室 속에 일정한 가정적인 복제 — 식사·독서·방문객의 접대를 위해 각종의 부분을 가볍게 막아 놓은 하나의 室로 보았던 것이다. (그림 1)

1910년까지 Wright는 이때까지 누구도 취급하지 않았던 開放的인 평면의 융통성에 도달했다. 이 시대에 자주 볼 수 있었던 일이지만, Wright

의 주택은 두개의 높이가 다른 量의 相互貫入에서 만들어진 十字形의 평면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러한 평면 위에 십자형 평면의 날개로 취급한 쉼터로써 공중에 내밀어 날아갈 것 같이 가볍고 대단한 처마를 써서 수평선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 처마를 「넓은 보호 지붕덮개(Broad Protecting Roof Shelter)」라고 불렀다. (그림 2.3)

Wright는 자기가 설계한 모든 방에서는 光線을 三方向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집의 설계는 각실에 채광이 좋은 남쪽 방위를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10室中 9室은 동남을 향하여 적어도 하나의 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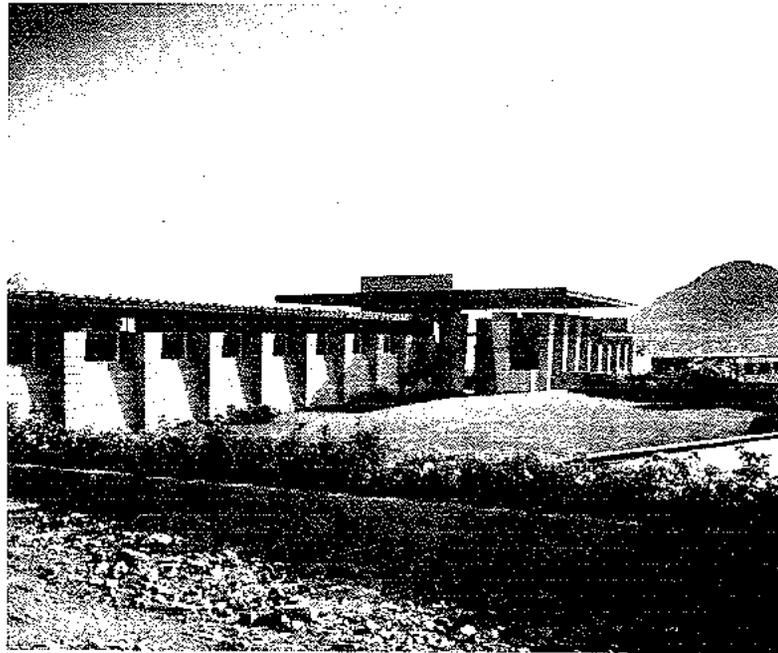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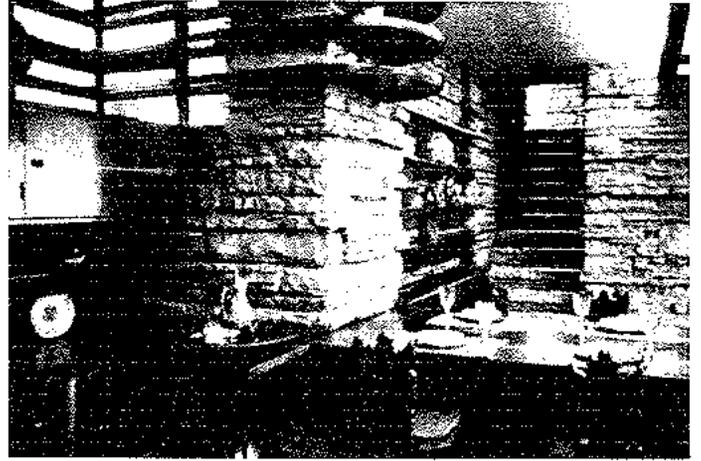


4 벽돌과 콘크리트를 위한 습작(1904)

5 H. C. Price Co. Tower (1956)



6 Falling Water (1937) 의 Dining Room



7 Harold C. Price House (1955) 의 외관

그러나 Wright가 開放的인 창을 쓴 것은 아주 後의 일이다. 그의 창은 초기의 미국주택이 外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 1층에 작은 개구부만을 내는데 그친 것과 같은 작은 창이었다.

Wright의 주택이 약간 어둡다고들 말하는 것은 돌출한 깊은 처마와 천정이 낮은 방, 그리고 작은 창에서 기인한 것이다. 깊은 처마는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은 더욱 날렵해져서 수평선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대지에서부터 올라오는 벽체—개구부가 적은—에 의해 받쳐지고, 자연 속에 안착하려는 비행체와 같은 조형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조형은 내부의 개방된 유기적 평면과는 반대로 커다란 날개로 보금자리를 보호하려는(Shelter) 강한 의지 속에 껴싸움을 보여주고 있다.

●自然과 빛의 만남

Wright의 주택은 지붕의 강한 수평선, 지붕 좌우로 생기는 파진공간—공허부—에 의해 새로운 可塑性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가소성은 각종 재료의 면, 특히 벽돌면에 의하여 강조되고 있다. 몇몇 건축가는 이 벽돌면, 특히 수평면을 강조하여 강한 가로움을 만들거나, 수평으로 튀어나온 장식적으로 보이는 돌출부에 의해 그것을 단순히 장식적 사용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Wright는 그의 습작(그림 4)이나, 수평으로 올린 사무실의 건물(그림 5) 또는 그의 시대의 명작인 낙수장의 돌벽(그림 6)에 까지도, 칼로 그이논 듯한, 또는 재료가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듯한 자극을 내었다.

이러한 자극은 장식성만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 주로 자연적 재료를 사용한 Wright의 벽이나 기둥은 재료 하나 하나를 드러내려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이 자연적인 재료는 빛을 받아, 밝은 부분과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므로 스스로를 표현코자 한다.

그의 벽·기둥·담벽은 모두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내부에서 더욱 확실해지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내벽을 외벽과 같이 평탄한 면으로 취급했다.

유럽 건축가들이 1890년대에 했던 일—Rococo식의 장식을 Art Nouveau의 꾸불꾸불한 선으로 대처하는 일—을 그는 하지 않았다. 평탄한 면을 사용하면서 한편으로 소재 그대로의 솔직한 사용에 의해 힘과 표현을 주었다.

내부재료의 사용도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해 외부재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Falling Water에서 보여준 벽체와 바닥의 내·외부 상호관입(그림 6)과 같은 수법이 사용되었다. Harold C. Price House에서 보여 주듯이 그의 대부분의 건물은 내부와 외부가 거의 같은 재료와 같은 방법들—재료에 수평선을 강조하는 줄눈, 또는 재료의 세포 하나하나를 그대로 표현하는 수법—이 사용되었다. (그림 7, 8)

내부공간은 외부공간에 그의 공간 구성의 특징인 넓은지붕(Shelter)을 덮으므로 상호관입의 유기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 보호덮개와 벽체 사이에서 들어오는 빛이 자연 그대로 자리잡고 있는 재료와 만나서, 자연의 실체를 나타내 주고 있다. Wright에 의해 자연 그대로 내부 깊숙이 까지 자리잡은 자연이 동굴에 들어오는 듯한 빛을 받으므로 원시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를 표상하고 있다.

Wright에게는 집은 Shelter이고 인간이란 동물이 洞穴 속에 은거했듯이, 휴식할 수 있고 風雨나 日光에서도 보호되는, 숨는 집이다. 인간은 거기에서 우리 속의 동물과 같이 완전한 안전과 휴식 속에 웅크릴 수 있을 것이다. S. Giedion은 이렇게 말한다. “그 배후에는 19세기 말에 유행했던 흐릿하고 어두침침한 것에 대한 요망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인젠가 만족되어야 할 原始的인 영원의 본능을 향한 충동인 것인지, 그것은 우리들로서는 알 수 없다!”

●銀色빛과 形態의 可塑性

Wright는 採光上的 새로운 特性을 발견하려는 연구에서도 자연의 재료와 더불어 세련된 능력을 발휘하였다.

Arizona 사막에 있는 Taliesin공방의 겨울의 집에서는 많은 대조적인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사막의 암석이나 질석 콘크리트벽, 목조 트러스,

창이나 천정을 하나의 면 속에 형성해서 특이한 성질을 나타내는 Canvas의 斜面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재료와 빛을 동시에 사용하는 능력은 사무실 건물들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대표적인 예를 Wisconsin주 Racine의 Johnson Wax Company(1937~1939)에서 찾아 볼 수 있다.

Johnson wax건물은 Wright의 주택에 대한 개념과 같이 건물 전체가 하나의 窓의 개념으로 다루어져 있으며, 외부에서 차단된 똑 같은 거대한 벽으로 둘러 쌓여져서 光線을 天窓과 높은 곳에 있는 창에서 또는 유리관을 통해 받아들이고 있다. 이 건물은 이상한 形의 기둥으로 유명해졌다. (그림 10) 버섯 형태의 기둥이 들어찬 Hall 상부에는 기둥 상부에 내열 유리관의 사이에 수련의 잎이 떠있는 듯한 큰 원반이 있다. 이 유리는 변색되지 않는 Pyrex Glass Tube이며 이 유리관에 의해 채광이 되고 있다.

관을 통해서 光線은 이 Hall에 마법과 같은 느낌을 준다. 사람은 연못 속에서 빛을 보듯이 올려다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림 11)

Wright는 이 건물에서 銀色的 빛과 형태의 가소성으로 새로운 空間感情을 만들어 낸 것이다.

■ 20세기의 裸婦

— Mies van der Rohe —

Mies van der Rohe의 초기작품은 Wright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에 병합되지 않고 20세기 건축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준 순수형태의 창시자가 되었다. 독일 Aachen에서 부친의 공방에서 실무를 하며 벽돌과 돌을 정확히 쌓아 올리는 기술을 습득한 경험이 순수형태의 기반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1910년 Wright의 작품전시를 목격한 그는 크게 감동되어 「심한 정신적 혼란」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후의 그의 작품은 Peter Behrens의 용의주도한 신재료의 사용과 Wright의 주택평면에서 많은 것을 얻고 있다. 그러나 Mies의 위대함은 이 두 건축가의 장점을 답습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건축의 경지를 개척한 데에 있다.

1919년에 착안한 Glass Skyscraper가 그 효시였다(그림 12).

이 건축은 하나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13).

Mies의 이 작품은, 1863年 E. Manet가 '술속의 점심'이라는 작품을 「落選展」에서 전시한 것과 같은 변화의 기점이다. Manet는 전통적 미술이, 인공적인 조건하에서 사람이나 물체를 표현하는 수단을 발견한 것에 반기를 들고, 옥외의 밝은 광선아래서 사물을 새롭게 관찰, 묘사 하였다. (그림13) 그러나 이 작품은 官展에서 보수적인 미술가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거의 30년간이 되는 긴 투쟁을 거듭하였다. Manet는 外光, 옥외의 자연광선에 의한 사물의 탐색을 시작하였다. Mies도 보수적 건축에 반기를 들고 자연의 빛을 실내에 흥민히 쏟아 넣었다. 이 또한 건축에서의 자연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 순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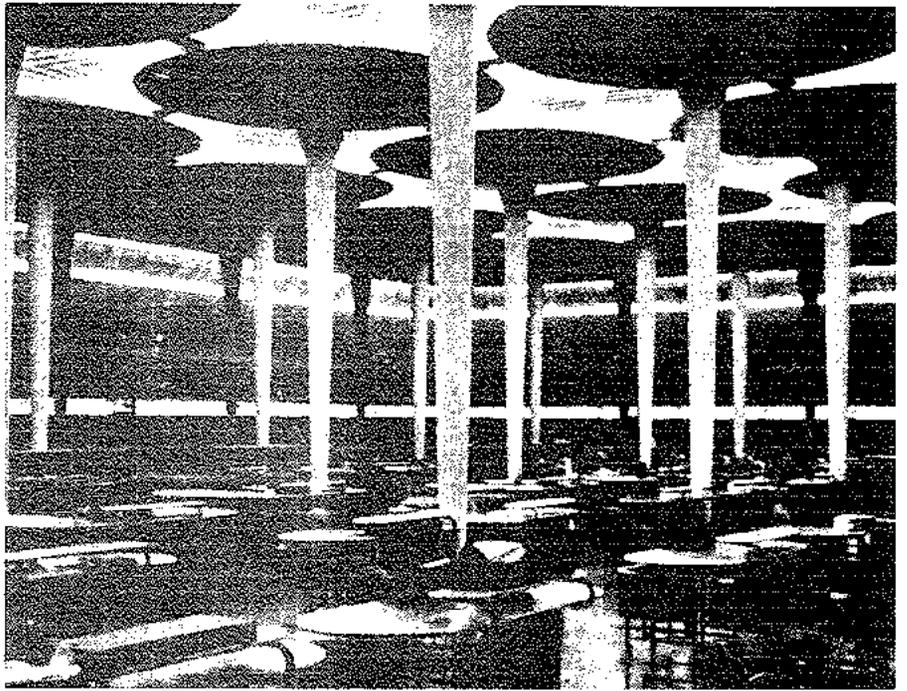
Mies의 이러한 혁명(어찌던 전송인지도 모르는)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작품은 1923년에 설계한 Country House이다. 그리고 이 대담한 구상은 1929년 처음으로 Barcelona 박람회의 German Pavillion에서 실현되었다.

그는 전통적 재료로 만들어지는 덩어리로서의 건축 공간에 대해 정면으로 대결하여, 드디어 해체를 명령한 것이다. 유럽에서는 역사 이래 창은 벽 속에 뚫린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Mies는 창외의 기성개념을 근대적 내용으로 쇄신하려 태동하고 있다. 과거에 근대건축의 탄생에 자극을 준 과학회의 자유스러운 분위기(특히 Crystal Palace)와 참신함을 주려는 열의가 벽으로 공간을 봉쇄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공간을 필요에 따라 차단하고 적당한 강조를 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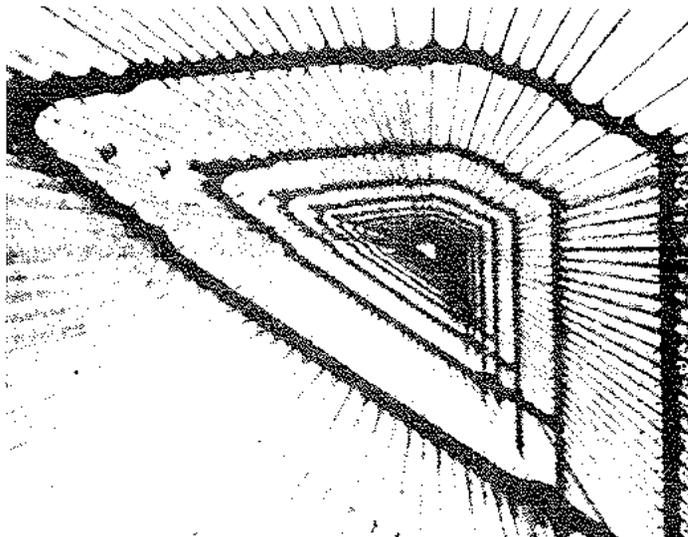
이미 이 Pavillion에는 창이 존재하지 않는다. 벽 그 자체가 투명해져서 거추장스러운 외투를 벗어버린 女体和 같이 날렵하게 서 있다. 그리고 쏟아지는 태양빛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흡사 일광욕(Sun Shower)을 바라는 인간의 욕망이 건축의 욕망이 된듯이 순수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그림 14).



8 Harold C. Price House의 거실



16 Johnson Wax Co. 빌딩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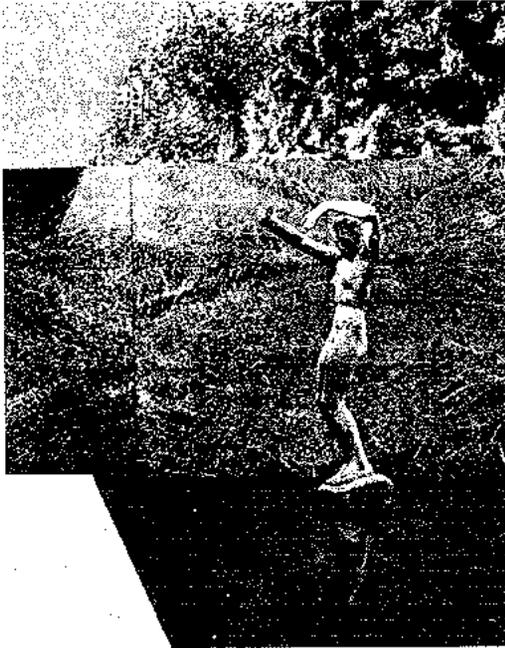
11 Johnson Wax Co. 빌딩 외벽에 사용된 유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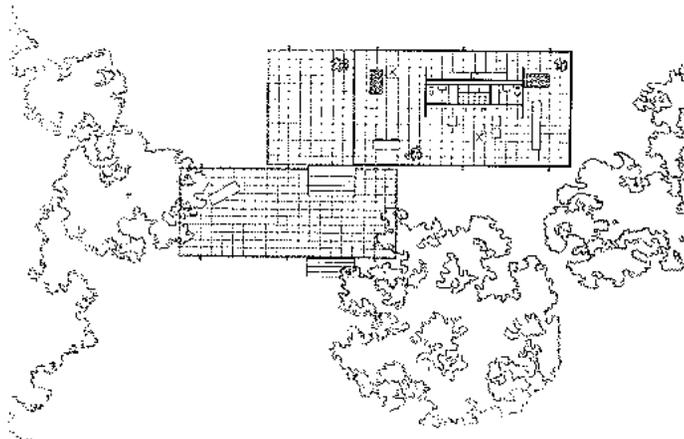
12 Glass Scraper(1922)의 모형



13 E. Manet의 숲속의 점심(Le déjeuner sur l'herbe, 1863)



14 German Pavillion의 내경



15 Farnworth House 평면



16 Farnworth House의 외부

●대지 위에 신 鐵과 유리의 차가운 빛

Burcelona의 German Pavillion 이후 Mies의 작품은 주택에서 사무소건축, 대학 건물에 이르기 까지 일관된 합리성의 순수가 있다. 엄격한 합리성 재료의 극히 미세한 부분(Detail)에서 부터 전체를 나누는 공간의 분할(Module)에 이르는 규칙이 있어, 조금의 여유도 양보하고 있지 않다.

그의 빛을 다루는 태도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기능상 폐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빛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가 주택의 기본 개념을 고층 아파트에 적용시켰듯이, 주택에 적용시킨 전제로 받아들인 빛을 고층아파트에도 사무소에도 받아들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50년 설계한 Dr. Edith Farnsworth House에 나타나 있다(그림 15, 16).

그의 주택은 너무도 순수하다 못해 차가운 자태로 철과 유리 그리고 Concrete에 몸을 지탱할 부분만을 남기고 홀연히 서 있다. 쏟아지는 햇빛을 거부감없이 받으며.....



17 현대도시의 주택군(1922)

철과 유리 그리고 차가운 빛. Mies는 초지일관 차가운 빛 속에서 살다간 순수의 상징이다.

■ 빛나는 빛

— Le Corbusier —

Le Corbusier (본명 Charles Edouard Janneret)는 1887년 Swiss의 프랑스어 지역에서 태어났다. Janneret家 사람들은 역대로 화가나 판공가였고, Corbusier도 시계에 조각하는 것을 배웠다. 이러한 배경이 그의 일생을 단순한 건축가가 아닌 회화에서는 Purism을 개척하게 하였고, 건

축 조형에서는 모든 귀결을 인간에 대한 또한 사회에 대한 윤리관에 기인하도록 만들었다. 그의 일생을 통한 노력은 모든 것을 어떤 원칙·규범·기준·척도 등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고 할만큼 무질서한 자연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는 꾸준한 싸움이었다.

Corbusier가 단순히 필요·기능·인간적 질서를 주는데만 그쳤다면 많은 다른 건축가와 차이나는 점이 없다. 그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밑받침으로 한 건축 예술의 창조가 누구보다도 다채로웠고 특징적이었기 때문에 현대 건축가 중 누구도 따라 갈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이다.

●人間の 精神과 自然의 精神

Corbusier는 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우리들의 눈은 광선 가운데서 형태를 인식하게 되어 있다. 건축은 교묘하게 정확하고 강한 광선 가운데서 전개되는 Mass의 회곡이다. 광선과 음영은 형태를 명백히 한다. 입방체·원추·구·원통·사각주는 광선이 뚜렷히 나타내는 원시형태이다. 이것들의 이미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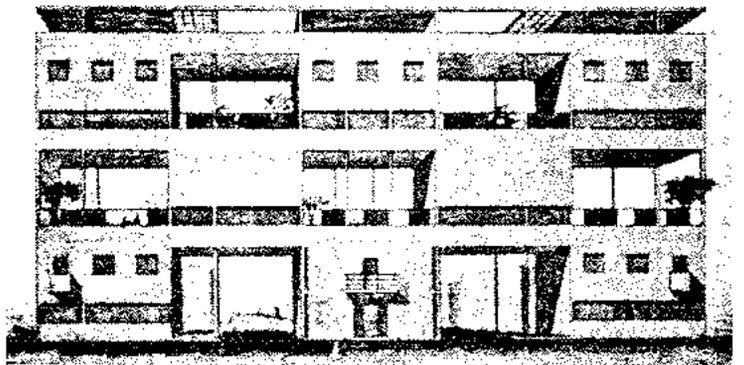
것이다. 그는 건축구성을 기하학이라고 까지 하였다. 1948년 그는 Modulor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이즈음을 전후로 Corbusier가 자연, 그중에서도 형태를 명백히 해주는 빛을 받아들이며,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아마도 자연의 정신을 대할 수 있는, 인간정신의 나름대로 완벽한 질서라는 도구를 쓰기 시작한 것일까.

●사각틀(Frame) 속의 빛

1915년 Corbusier가 Domino 구조의 계획안으로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로 1922년에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이때에 나온 現代도시의 주택群에 대한 시안(그림 17)과 25년에 전원도시를 위한 주택의 형태는(그림 18) 구조체의 일부를 완전히 열어 놓아, 자연의 대기, 빛이 마음대로 들어오게 하고 있다. 그 속에 자연이 숨쉬게 녹색 식물과 햇빛을 담고 있다. 의도된 사각형 속에 담겨진 자연이다.

Poissy의 Savoye주택은 구조적으로 기둥과 보의 절대적인 규격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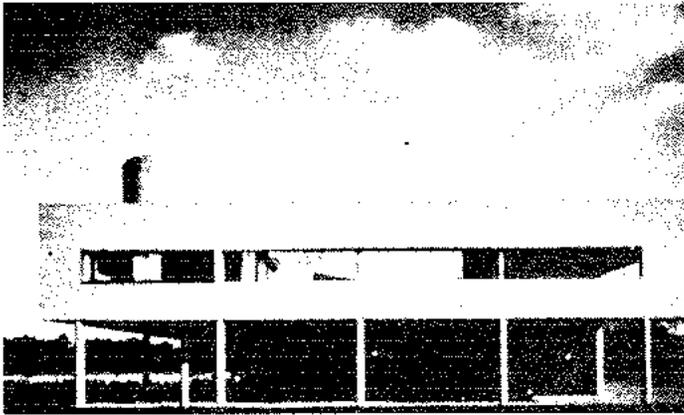
18 전원도시의 주거형태(1925)

명쾌하고 명료하여 애매하지 않다. 아이도 야만인도 형이상학자도 알 수 있는 아름다운 형태이다. 이것이 조형예술의 본성이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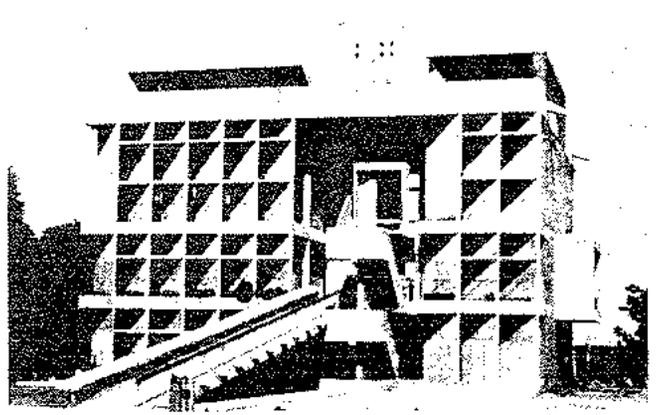
Corbusier가 이야기 하는 원시형태들은, 건축의 원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념적 원형(Ideal Archétye)이다. 그는 건축의 창조의 원형을 이념적 형태에서 부터 출발시켰다. 그리고 이것으로 자연과 합일되는 일치점을 찾으며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근대건축의 5원칙, 도시계획의 3대 요소, 주택의 4가지 형태 등으로 인간의 정신을 함양시켜 나갔던

지고 있다. 그러나 평면은 자동차 동선과 일광욕장으로 올라가기 위해 곡선 형태를 씌므로 공간의 회곡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선은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도록 전개가 되고 있으나 일광욕을 위해 마련된 공중정원의 영역은 엄격한 격자형의 구조체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림 19) 이와 같이 Corbusier에 있어서 개구부는 회화에서 또는 사진에서 쓰이는 액자의 효과 (Effect of Frame)가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

이 Frame은 점차 입체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1946년의 Duval F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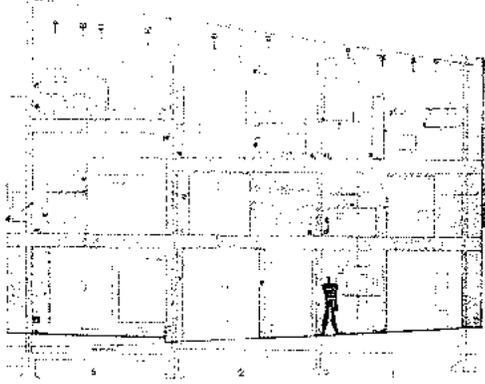
19 Villa Savoye (1931)의 입면



20 Millowner's Association 입면



21 Unité d'habitation의 입면



22 Ronchamp교회당
남측 내부입면도



23 Ronchamp교회당
내부남측입면

ory에서는 이 격자가 수직·수평의
깊숙한 Louver로 발달을 하기 시작
한다. 47년에 지은 Dr. Curruchet의
집에서는 이 Louver가 채광과 조망
을 위한 목적에 강한 조형적인 특성
을 주기 시작하여, Corbusier 건축의
조형을 이루어 주는 요소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사진 20, 21).

이러한 기하학적인 Louver에 의한
채광과 입면의 조화는, 48년 Modul-
or를 완성하고 그 이론에 의해 1950
년에서 55년까지 Lonchamp 교회당의
입면과 창을 처리하면서 부터 원숙화

되기 시작하였다.

●精選되는 빛

Corbusier는 Lonchamp 교회당에
서 일대 변신을 하게 된다. 스스로 만
들어 놓은 기하학적 구성의 골레에서
벗어나, 신비로운 조형과 광선의 정
점을 이루어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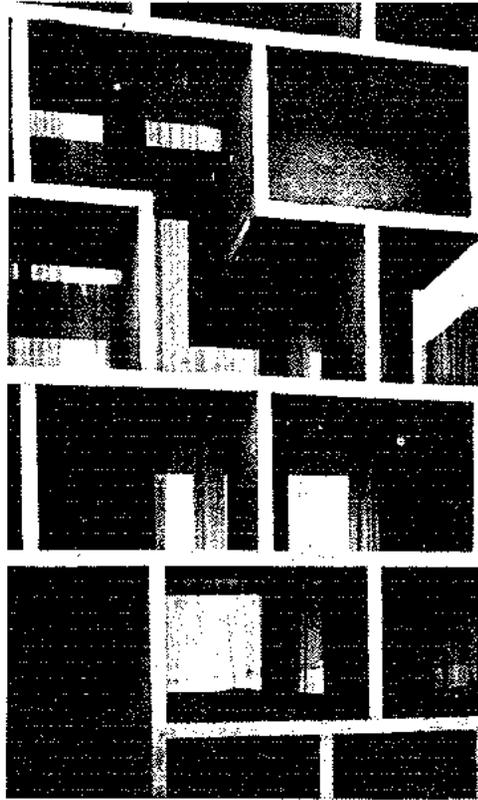
흡사 부계획적으로 뚫어놓은 듯한
벽체의 창—빛의 수용을 위한 구멍
이라는 표현이 낫겠다—은 엄밀히
계획된 시라고 할 수 있다(그림 22,
23).

Corbusier는 빛을 조금씩 조금씩

아껴가며 사용하고 있다. 많은 양의
빛이 싫어서일까? 그보다는 빛의 소
중함을 느끼고 지극히 良質의 빛을
만들어 쓰기 시작한 것이다. Mies 가
이 시대에 모든 것을 다 열어놓은 裸
婦의 모습을 취한다면, Corbusier는
다시금 옷깃을 여미며 영롱한 눈빛만
보내는 모습이 아닐지.

Chandigarh의 La Palais de Jus-
tice에서 Corbusier는 Lonchamp 교
회당의 정선된 빛과, 그 이전에 사용
했던 사각형 Frame의 만남을 시도
하고 있다. 채광을 받을 전면 벽에는
이미 Louver의 형태를 떠난 격자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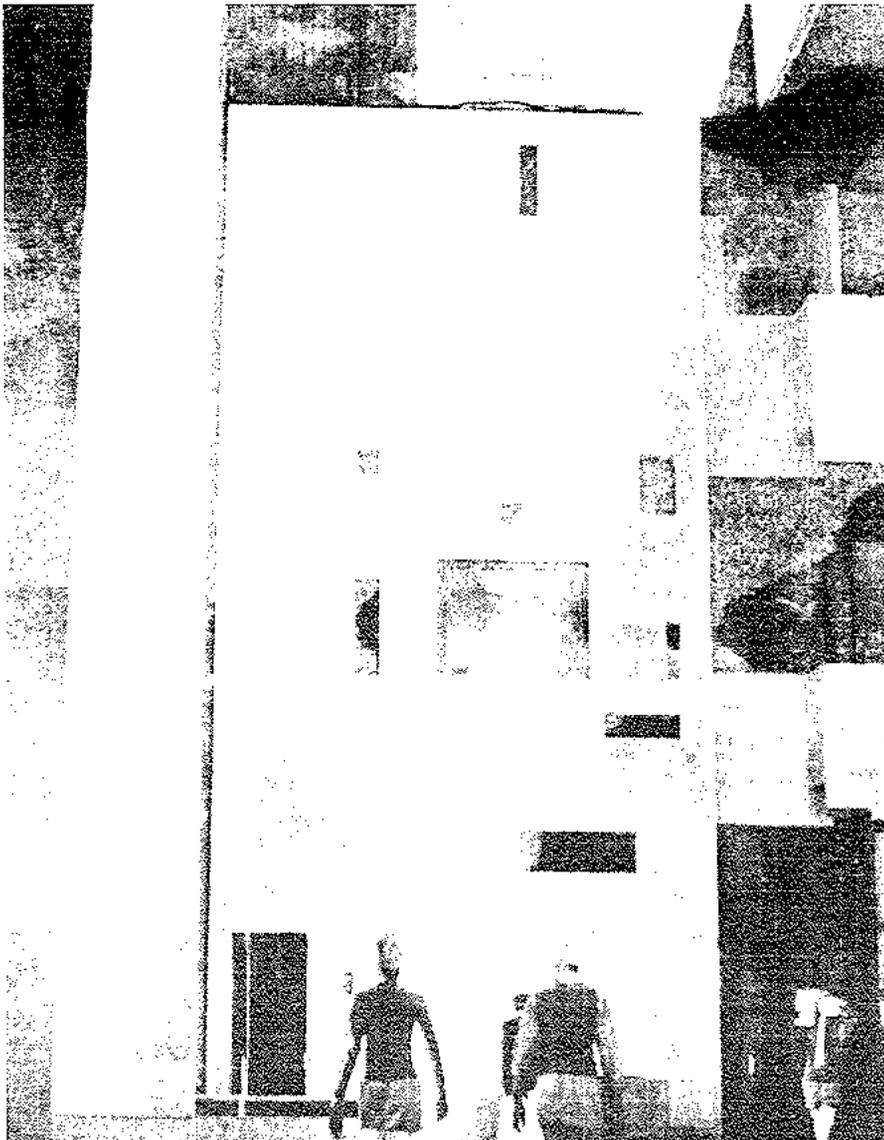
24 Chandigarh 고등법원의 정면사각틀



너를 역상케 하는 또 하나의 Frame 이 형성되고 그 뒤에 실제 벽과 창이 있다. 내부에서 보면, Frame의 두께 때문에 채로 친듯한 조망과 빛을 받아들일수가 있다. 외부조형 역시 하나의 추상화를 보는 듯이 만들어져 있다(그림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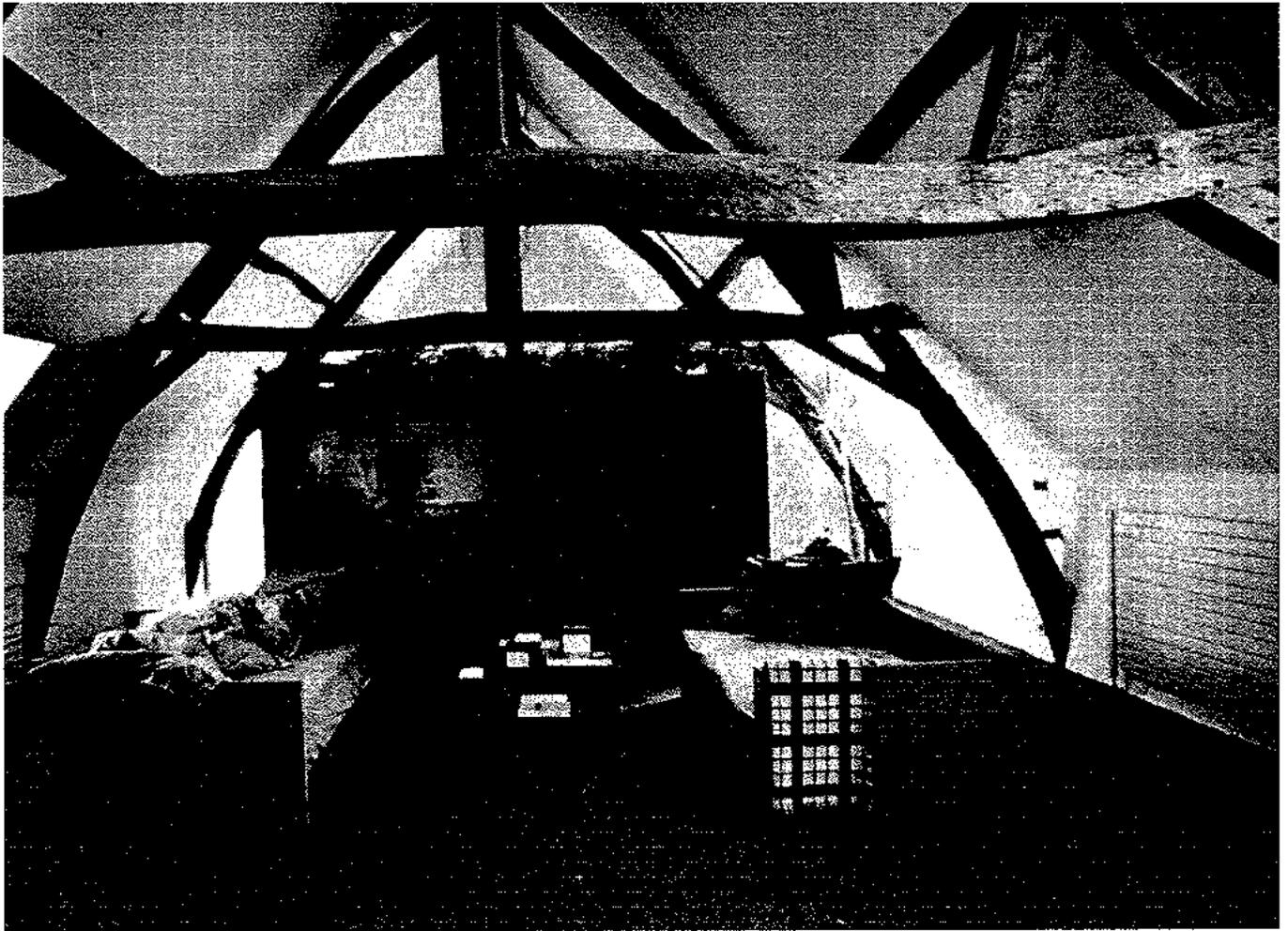
이 고등법원의 장관은 입구 부분의 빛의 유희에 있다. Lonchamp와 같이 정제된 빛이 Corbusier의 계산된 벽면의 개구부 사이로 기둥을 이루며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그림 25). 이 환장의 정제된 시간, 나는 이 멈추어선 시간을 빛나는 빛이라 부르고 싶다.

25 Chandigarh 고등법원의 입구부분



참 고 문 헌

1. S.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Harvard Univ. Press, 1967
2. Bruno Zevi, Architecture as space, Horizon Press, New York, 1974
3. Manfredo Tafuri, Modern Architecture,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New York, 1976
4. The Frank Lloyd Wright Foundation, the Early Work by Frank Lloyd Wright, Bramhall House, New York, 1968
5. —, A Testament by Frank Lloyd Wright, Bramhall House, New York, 1957
6. —, Frank Lloyd Wright; 柳榮進 編譯, 후- 랑크 · 로이드 · 라이트, 産業圖書, 1975
7. Werner Blaser, Mies van der Rohe, Praeger Publisher, New York, 1972
8. Phillip C. Johnson, Mies van der Rohe,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78
9. Willy Boesiger, Le Corbusier, Praeger Publishers, New York, 1972
10. W. Boesiger, Le Corbusier et Pierre jeanneret; 集文社 編, 르-코르부지에 全作品集 Vol. 1~Vol. 8, 集文社, 1981
11. Le Corbusier, Manière de Peneser L'urbanisme; 崔昌奎 譯, 빛나는 도시, 産業圖書, 1976
12. Le Corbusier, Towards A New Architecture, Praeger Publishers, Inc., New York, 1960



안정감이 느껴지는 바닥으로부터 벽과 천장이 이어진 이 실내는 목조 구조체를 노출시킨 실내 율곡선이 강조로 나타나고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원리(下) (連載 2)

趙 聖 烈 (建築家·큐빅디자인 연구소 대표)

(4) 율동감(Rhythm)

어느 디자인에 있어서도 균형 다음에는 당연히 리듬의 배려가 뒤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리듬은 춤에서와 마찬가지로 균형에 의존하며 균형은 바로 주목할 만한 리듬이기 때문이다.

리듬의 열쇠는 연속성이다. 즉 반복되고 발전되는 무늬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연결되어 전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집의 전체적인 조화·성격과 개성은 근본적인 리듬의 연속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정해진다. 이러한 것들은 반복(Repetition)·교차(Alternation)·진행(Progression)·대조(Counterpoint)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선 또는 형의 반복(Repetition)은 하나의 선에서 그 다음으로 디자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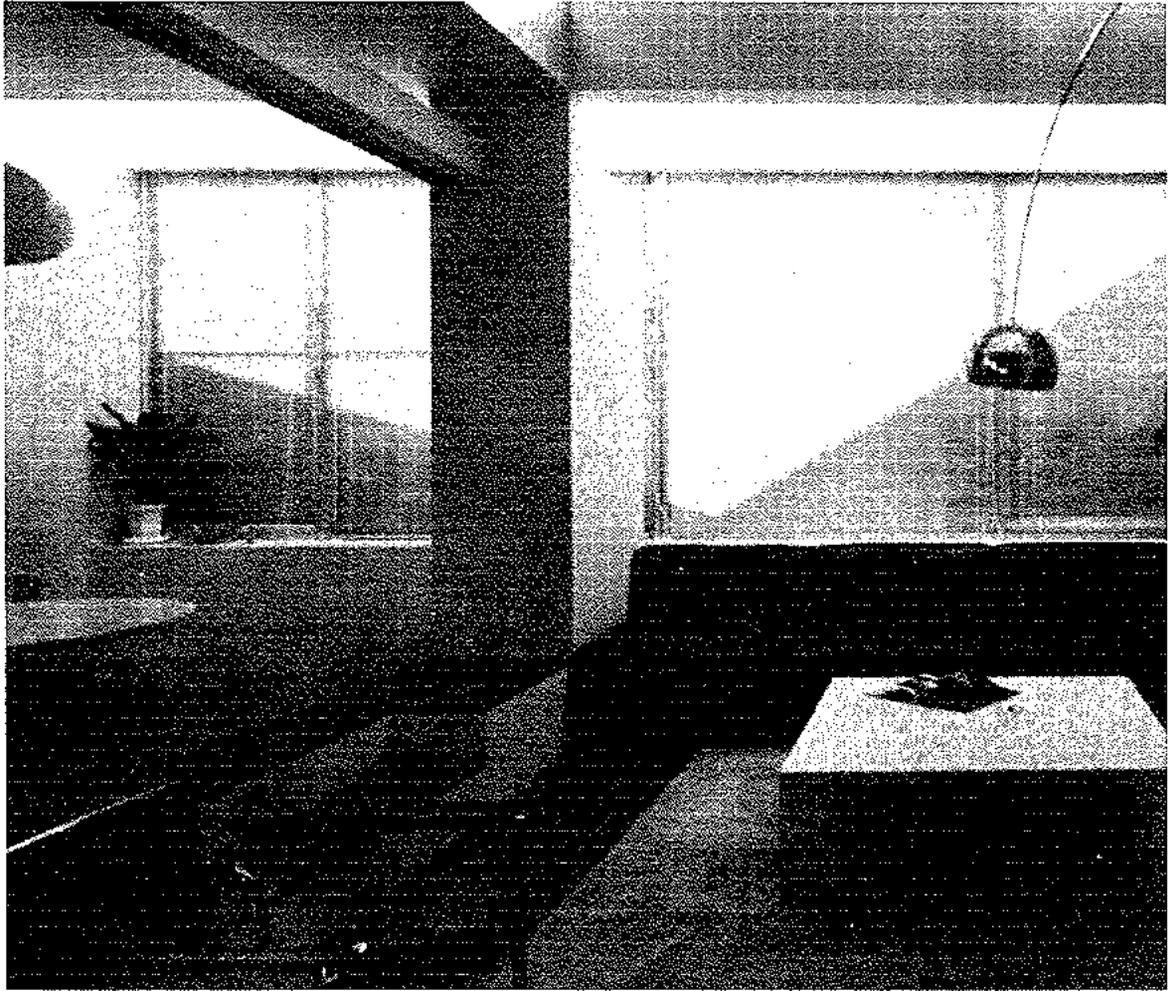
따라 시각을 순차적으로 옮겨 주므로 리듬감을 준다. 이러한 리듬은 모티브의 정확한 반복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직물의 무늬에서 가장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집은 창문 형태에서부터 식기류에 이르기까지 반복으로 가득차 있다. 때때로 이러한 결과는 가구 형태가 너무 지배적일 때와 같이 단조로움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지루함은 보통 무의식적 반복으로부터 일어나고 보다 큰 식견을 가진 사람은 정확한 선이 아닌 형태나 무늬의 내용을 반복할 것이다.

이같이 반복에 의한 리듬은 자칫 너무 무디거나 단조로움을 일으키기도 하므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 동일과 변화는 리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동일은 디자인을 통해 움직이도록 도와주며 변화는 그것을 더욱 흥미있는 운동으로 만들어준다.

교차(Alternation)는 공간의 형태를 만드는 반복되는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의 공간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보다 다이내믹한 교차는 두번째로 두드러진 모티브나 색깔이 그 밑에 깔려 있는 바탕에 약간의 부드러움이나 좀더 무겁고 오래 지속할 의미를 가미할 경우에 일어난다.

실내공간에서 벽에 나타나는 교차상태는 창과 창 사이의 벽, 문과 문 사이의 장식에서 느낄 수 있으나 그것들은 전체의 벽·창과 문의 구성에 따라 교차감이 달라진다. 반복상태는 교차감을 내며 또 다른 교차감은 배



인근색 조화와 채도차를 둔 동색조화는 보색조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쉽고 편한 색조화로서 널리 쓰이고 있는 색조화이다.

치와 구성에서 생긴다. 불규칙적인 템포를 일으키는 교차상태는 리듬을 형성한다.

진행(Progression)이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불가피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은 방의 벽면이나 가구들의 크기가 다양하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공간·형체·빛깔의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인 진행은 명백하나 미묘한 느낌을 줄 것이다. 즉 천천히 부풀어 오르거나 줄어드는 느낌 또는 그 밑에 깔려있는 리듬을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명백하게 알 수 있게 된다.

크기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변하며 선은 직이나 방향에 있어서 변하고 모양은 네모꼴에서 둥근 것으로 조금씩 변하고 빛깔은 혼합하거나 연속적으로 반복된다. 진행은 단순한 반복보다는 덜 눈길을 끌지만 보다 더 창의적이다. 이러한 예는 커튼과 같은 직물에 있어서 선이나 형태의 움직임에서, 가구들을 세워놓은 데에서, 방이나 집의 연속된 공간 등에서 보게 된다.

대조적 리듬(Counterpoint)은 항상 어느 정도 사용되어 왔지만 '접촉'이 있는 주제가 되었다. 가장 단순한 형태에 있어서의 대조는 형체와 색채를 교묘하게 배치하여 돌발적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반대감각을 주는 것이다. 즉 둥근 것에 바로 이어 네모꼴을 형성하거나 붉은색 옆에 녹색을 두는 것 등이다. 이것은 반응을 일깨우는데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여기에서 야기되는 리듬은 강렬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도전적인 디자인의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어떤 규제를 가지고 사용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리듬이 서로 떨어져서 혼란감을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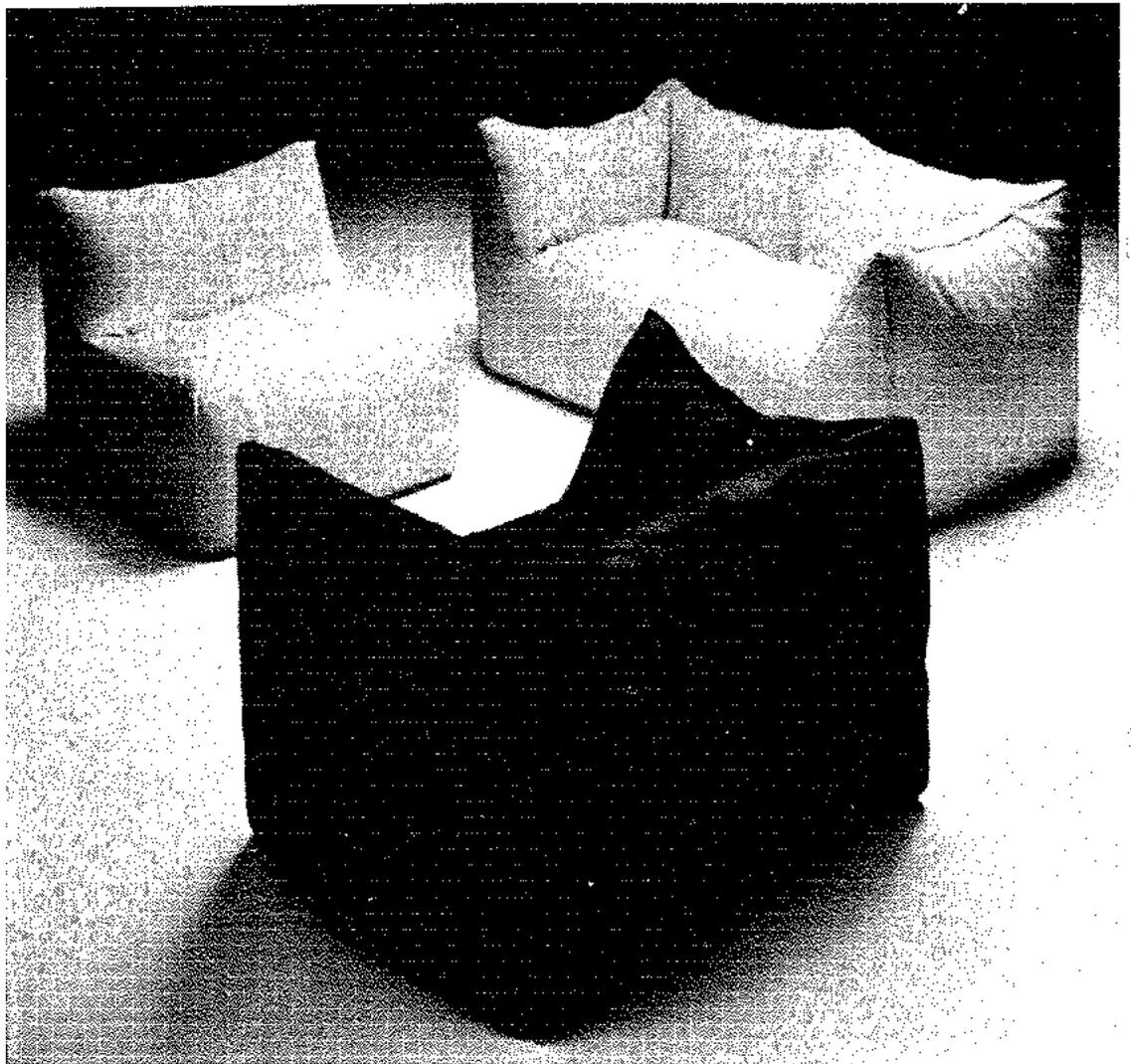
모든 집들은 어느 정도 대조를 활용하고 있다. 즉 자연목재 마루의 차분한 선에 동양적인 복잡한 무늬가 있는 카펫을 깔거나 어두운 색의 소파 위에 밝은 무늬를 가진 덮개가 한 두개의 차분한 줄무늬 의자와 대조를 이루는 것 등이다.

지나친 대조관계는 리듬을 갑자기 깨어버릴 수도 있다. 색채대비가 보색관계를 가질 때 눈이 부실 정도로 큰 반응이 생긴다. 그런 때는 안정과 조화를 이루는 적절한 디자인을 생각해야 한다.

리듬의 열쇠는 연속성이다. 즉 반복되고 발전되는 무늬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연결되어 전체를 이루는 것이다. 리듬의 연속성은 반복·교차·진행·대조를 통해 우아한 색채와 형체들을 늘어 놓을 수 있는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만일 어떤 한 리듬이 지배적이어서 교통혼잡과 같은 어떤 것을 피할 수 있다면 결과는 더 나아진다. 이를 위해 다음 디자인의 원칙인 강조(Emphasis)가 필요하다.

(5) 강조(Emphasis)

균형이나 리듬에 있어서 다같이 강조가 필요함을 앞서 설명하였다. 강조는 어떤 디자인의 몇 부분에 주어지는 다양한 정도의 강도를 의미한다. 우리는 다른 어느 사물을 가볍게



가구는 인체공학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는 생활 도구이나 그것이 실내 공간의 구성요소로서 전시되고 있는 동안 조형적 가치를 지니는 어떤 배스로 부각될 수 있어야 한다.

다루지 않고는 한 사물을 강조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강조는 지배와 종속의 일정한 비율을 자동적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디자인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가는 시각적 중량감 또는 지배적인 시각으로 평가된다. 섬유 디자인에 있어서는 밝게 반복되는 일련의 모티브에 강조를 두기도 한다. 강도의 힘과 범위는 리듬을 형성한다.

작은 디자인이나 실내 전체에 있어서 강조의 중요성은 그것이 우리에게 강조점(또는 초점)이나 눈에 대한 휴식지점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균형과 리듬의 균형이 되는 것이다.

실내에서 다양한 부분의 우세와 열세는 일정한 규모의 중요성을 내포하도록 확대될 것이며, 초점 또는 관심의 중심은 흔히 다른 물체가 측정기준이 된다. 이러한 개념을 다룸에 있어 아래의 네가지 강조점을 설정하여 이해가 쉽도록 한다.

① 절대성강조(Emphatic) : 강력한

초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림벽지 또는 부수물로 이루어진 벽난로나 튼튼한 책장

㉔ 지배적강조(Dominant) : 이러한 뚜렷한 초점 주변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당기는 일단의 큰 가구들

㉕ 보조적강조(Subdominant) : 강압적은 아니나 보조적인 소규모의 가구 집단들. 또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가볍게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들

㉖ 강조의 종속(Subordinate) : 별로 두드러지지 않은 것에 의하여 매력을 넓혀주는 마루·벽천장 그리고 의미와 시각적 매력을 갖고 있지만 요란하지는 않은 부속물들

그러나 이러한 사물집단의 내부 각각에 비슷한 계층이 형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초점으로서 벽난로를 사용할 경우 무엇보다도 가장 강조될 점은 바로 벽난로 선반이며 거기에 놓여지는 부수물들 종속(Subordinate)시킴으로써 그것의 중요성을 더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벽난로

선반은 그 크기나 색깔 때문에 우세한 것인데 반해, 벽돌로 된 난로나 어두운 아궁이는 보조적 강조(Subdominant)가 된다. 그러나 밤에는 다른 효과가 명백하게 나타난다. 불길의 사람들의 눈길을 끌면서 어쩔 수 없는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강조는 물론 자연스럽게 불가피한 것이며 그것들은 우리 가정에 생활의 품격과 흥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낮이나 밤에 일어나는 단순한 광선의 변화는 때때로 사람이 나타날 때와 마찬가지로 초점을 바꿔 놓는다.

훌륭한 디자인은 이러한 변화에 그 균형과 리듬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어떤 한 부분에 끊임없이 집중을 요구할 만큼 우세한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어떤 규제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이 좋다.

(6) 조화(Harmony)

통일성(Unity) 과 다양성(Variety) 이 멋진 조화를 이룰 때 조화(Harmony)가 일어난다.



강조의 효과는 대비에 의해 유발되며 모든 대비 중에서 색의 대비는 평면적인데도 의외의 효율이 생긴다. 흑과 백, 백과 적의 대비는 실내공간의 특성을 쉽게 형성한다.

통일성은 강렬하고 명확한 동기를 부여할 때 쉽게 얻어진다. 즉 벽이나 천장을 똑같은 색으로 하여 동일성이나 반복성을 갖게 할 때 얻어진다.

한편 벽이 어떤 한가지 색채를 갖고 천장은 그 색채보다 약간 어둡거나 밝은 빛으로 하는 한 단계에서 벗어난 유사성은 다양성을 갖게 한다.

다양성은 그 밑에 깔린 정당성의 한계 속에서 펼쳐질 때 전체적인 효과를 높여주고 활력을 준다. 통일성은 동일한 재료를 나열하는 것이 되어서는 조화의 맛을 내지 못할 것이다.

서로 다른 것들이 합쳐져서 조화를 이룰 때 다양성이 생기고 조화의 묘미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것들의 결합에도 디자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너무 많은 것들이 한 실내에서 쓰여지는 일, 지나치게 상충된 것들의 부자연스러운 결합, 형태가 다른 것의 억지 대비 등은 버라이어티 이전의 결격사항이다. 서로 다른 색과 질감, 그리고 형태들의 조화속의 버라이어티가 되도록 결합시켜

야 한다.

조화는 대부분의 디자인 요소들이—공간·형태·선·바탕·광선·색채—일정하고 한두 개의 도전적 요소가 있을 때 쉽게 얻어진다.

예리한 대조는 만약 그것이 거친 것과 부드러운 것의 결합을 강조하는 디자인과 같이 전체 디자인의 일부분처럼 보일 때 조화있는 계획이 된다.

예를 들면 돌과 금속은 그것들이 공존해 온 긴 역사는 물론 다같이 자연재료라는 점에서 동류성을 갖고 있다. 이외의 많은 다른 테마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조화가 무척대고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음악에서와 마찬가지로 조화란 상이한 색조나 상이한 질의 자연스러운 결합이다.

일반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의 실내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실내는 쾌적성의 도가 판이하게 다르게 느껴진다. 감각반응은 사람차가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화를 이룬 실내에서 편하고 기쁜마음을 가

질 수 있으며 이상하고 평범한 실내에서는 감정의 흐름이 그런 분위기를 따르게 된다.

실내공간의 주제가 하나인데도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부주제를 두어 주제를 흐리게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주제표현의 고차원적 테크닉을 도입한 경우로서 주제에 은근하게 접근 사침으로써 심증나지 않는 차분한 실내분위기를 내기 위한 것이다. 실내공간에 두가지 이상의 이미지를 심으면 혼란이 생기기 쉽다. 그러나 복합조화의 원리에 의해 몇가지 이미지가 공존할 경우 그 실내는 보다 풍부한, 즉 좋은 이미지들로 채워진 실내가 된다. 복합조화는 디자인의 일반적인 요소 이외에도 재료미의 다양성, 이미지들, 주제와 부주제 등이 한 실내공간에서 복합성을 띠며 공존하여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조화의 문제는 기본적인 것이며 동시에 최후까지 지켜야 할 원리인 것이다.



建築士銓衡合格者 발표 특별 · 일반 176명 합격

지난 10월 16일 시행한 건축사자격 제 2차 및 특별전형시험 결과 최종합격자가 밝혀졌다.

건설부가 지난 11월초에 발표한 합격자 가운데 특별전형 시험에서는 모두 45명이 합격했다.

한편 건축사자격 일반전형시험 최종합격자는 모두 131명으로, 건설부는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면허수첩은 오는 20일까지 개별통보한다고 밝혔다.

특별전형시험에서 합격한 본협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임봉수회원(대구지부) △박종문 회원(서울지부) △송길환(경북지부) △강희용(서울지부)

建築資材展示會 개최 53개 업체 참가

건설부는 제 5회 건축자재 전시회를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여의도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일반 국민과 建築業에 종사하는 자들이 좋은 建築資材를

選別할 수 있는 眼目을 갖도록 하고, 工學徒들에게는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새로운 자재를 소개하여 우수한 자재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부문별로 자재를 전시하여 관람객들로 하여금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모두 53개 건축자재 생산업체가 참여했는데 부문별로는 ▲構造材部門 6개사를 비롯하여 ▲窓戶材 8개사 ▲防水 및 斷熱材 9개사 ▲冷暖房 기자재 7개사 ▲内外裝材 10개사 ▲급수·위생설비재 10개사 ▲전기설비재 3개사 등이다.

空間學生建築展 개막

건축학도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생들간의 적극적인 작품을 통한 交流의 場을 제공하여 내일의 韓國建築界에 뜻있는 밑거름을 조성하고자 주·공간연구소(대표·金壽根)가 마련한 제 7회 공간학생건축전이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원서동 소재 공간미술관에서 개막되었다.

秋季學術발표회 가져

건축학회 論文集 등 發刊

대한건축학회는 지난달 29일 전국 대학교양학관에서 83년도 추계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는 특별강연과 일반학술논문발표로 나누어 오전과 오후에 각각 진행되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연회도 열렸다.

특별강연 제 1분과(건축 및 도시 계획)에서는 안영배(서울시립대) 교수의 "미국의 건축교육방식에 대하여"를 비롯해서, 서상우(국민대) 김 균(충북대) 김광현(서울시립대) 유 완(연세대) 교수 등의 강연이 있었다.

한편 제 2분과(건축환경 및 에너지)에서는 이창갑(충남대) 교수의 "환경소음의 평가와 차음설계 시스템화에 대하여" 외에 일본 대림조 기술연구소의 田中辰明씨의 "건물의 에너지 절약기술"과 박상동·유현형(동력자원연구소)씨 이종호(동력자원연구소)씨 김홍곤(충북대)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제 3분과(구조 및 시공)에서는 신현식(중앙대) 권택진(성균관대) 仕入豊和(일본동경공대) 김희구(홍익대) 김영문(전북대) 교수 등의 강연이 있었다.

그밖에 일반학술논문발표는 계획분야 I·II(계획, 건축사, 계획방법, 환경, 도시계획)와 구조시공 및 기타 분야로 나누어 모두 28명이 주제발표를 했다.

한편 학회는 이날 발표된 논문과 특별강연을 각각 모아 두권의 책으로 엮었다.

건축물 造景기준 강화 서울시 녹지공간 확보위해

도심재개발지구내의 건축물 조경기준이 대폭강화 됐다.

서울시는 도심녹지공간을 더 많이 확보키 위해 재개발지구 옥외주차장

제 2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한국건축가협회 주최



□ 건축대전 개막식날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회장·李丞雨)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와 대한건축학회가 후원한 대한민국 건

축대전이 지난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서 두번째 맞는 이번 건축대전은 초대작가전과 일반공모전으로 나누어 개최되었으며 개막일에는 이 전의 문공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지태 본회 회장 등, 내외 인사가 참석하여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특히 일반공모전의 입상자들을 격려해 주었다.

초대작가전에는 54명의 회원이 56개 작품을 내놓아 예년에 비해 왕성한 작품현황을 보여 주었으며 일반

공모전에서는 복합문화시설을 위한 계획으로 응모한 朴沆燮·李正旭·朴德植의 작품이 대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이번 건축대전 행사 중에는 건축가축제로서 가협회상 전시회와 건설업체 전시회가 있었으며 10월 22일 오후 1시에는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건축강연 및 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최창규씨의 <현대·근대의 사회상황과 건축양식> 및 장기인씨의 <현대건축의 한국적 초상>, 그리고 <한국적인 건축표현성>이라는 주제로 이 호진씨의 발표가 각각 있었다.

기준면적의 일부를 지하화하고 그대신 남는 대지공간을 도심소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대지의 25% 이상을 차지했던 옥외주차장이 15%로 줄어들고 대신 조경면적이 옥상을 포함, 대지면적의 15%이상에서 30%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는 이 조치로 지하주차장의 공간이 좁을경우 지하주차장을 2층화하여 해결토록 했다.

시는 확보된 녹지공간을 벤치 음료수대 공중전화 및 신체장애자 편의시설등을 갖춘 시민휴식처로 만들 계획이다.

시는 재개발 건물의 외양을 살리기 위해 건물형태가 동일한 경우라도 외장재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축건물 옥상에 저저분한 물건을 쌓아두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옥상 조경을 강화, 건물출입자들의 휴식장소로 활용케 할 계획이다.

이 조치의 첫 적용을 받아 구 신신백화점 자리에 들어서는 제일은행본점 건축계획이 크게 바뀌었다.

이 건물은 당초 옥상을 포함한 조경면적이 대지의 15%, 옥외주차장이 25%로 설계됐었으나 조경면적이 지상 26.3%, 옥상 5% 등 모두 31.3%로 늘었고 주차장은 옥외에 15%, 지하에 85%의 비율로 변경됐다.

세계청년건축가作品公募

유네스코서 기념사업으로

세계청년건축가 작품공모가 유네스

코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는 85년도 “세계청년의 해” 기념사업으로 유네스코가 국제건축가연맹(UIA)과 일본항공의 후원으로 전세계 청년건축가를 대상으로 국제설계경기대회를 개최한다.

이에따라 국내공모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한국건축가협회 주최로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미래의 주거지(Tomorrow's Habitat)로 지역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환경이 고려된 소도시 혹은 시골 마을의 주거지 모델계획으로 되어 있다.

출품자격은 만35세미만(84년 1월 1일현재)의 대한민국 국민(개인 혹은 단체)이며 출품규격은 700밀리 X 1000밀리 2매로 Drawing, Photography, Diagram 형식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영문으로 제출해야하며 모형은 국제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에 한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84년 3월15일 오후 5시까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부(유네스코회관 7층 서울 중구명동 2가 50-16)로 제출하게 되어있으며 국내심사는 주례측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가 맡고 84년 3월말에 개별 통지한다.

시상은 입상5점과 입선 약간으로 입상작가에게는 기념메달과 부상이 수여되며 그밖에는 기념패가 전달된다. 또 입상작품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국제공모전에 출품하며 수상작 10점은 85년 일본 류쿠바국제만국박람회 기간 (3월17일부터 9월 16일)

동안 전시되며 같은해 연말 유네스코 본부(파리) 및 각국 순회전시를 통해 공개된다. (문의처 776-2804~5, 722-4613)

서초동에 “芸術의 展堂”

國內활동의 총 본산구실

강남구 서초동 산130일대 6만1천3백42평이 「예술의 전당」부지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당초 문공부의 요청에 따라 강남구 서초동967일대서울시청청사 이전예정지에 예술의 전당을 세우려 했으나 부지규모가 비좁아 새 후보지를 물색해오다가 이날 이 지역을 부지로 결정된 것이다.

이날 확정된 부지는 남부순환도로변의 牛眠山기슭이며 주변경관과 교통여건이 좋은 곳이다.

건립될 건물은 문예진흥원이 문공부의 후원아래 내년부터 짓게되며 이 건물이 완공되면 국내예술활동의 총 본산구실을 맡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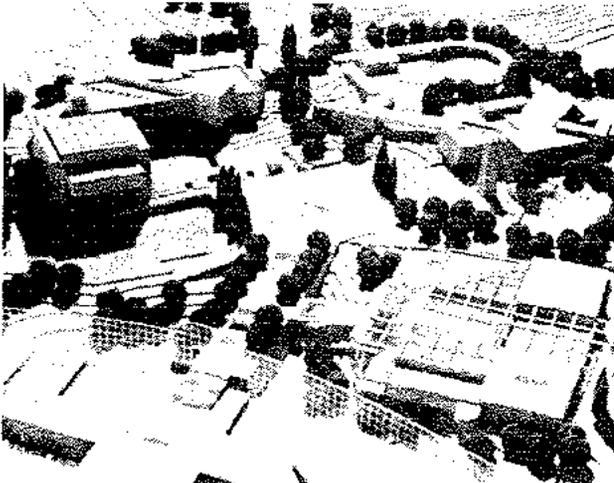
中央大 建設大学院 신설

내년부터 3개학과 모집

중앙대학교는 건설대학원을 신설, 오는 84년부터 석사 및 연구과정 학생을 모집한다.

첫해에 모집하는 학과는 건설시공관리전공을 비롯 구조전공, 토목구조전공학과 등 3개 학과이고 2학기부터는 건축도시설계학과와 토질및 기초학과 환경 및 설비 전공학과 등 3개 학과가 추가될 예정이다.

□ 大賞 / 복합문화시설을 위한 계획 / 박항섭 · 이정욱 · 박덕식 공동작품



百濟塔의 復元

姜 奉 辰

국보건설단대표 · 한국전통건축연구분과위원

1. 序 言

扶餘는 옛날 三國時代에 120餘年間이나 百濟文化의 꽃이 만발했던 王都였다.

羅唐聯合軍에 짓밟혀 有形文化의 대부분을 약탈당하고 또 戰火에 燒失되었지만 지금도 扶餘에는 어디를 봐도 화려했던 文化遺物의 破片 등이 계속 발견된다.

그러나 地上의 建造物은 나라 滅亡時에 대부분이 滅失되었고 塔婆 등 石造遺物이 몇基 남아 있을 뿐이다.

이중 하나인 扶餘定林寺址 5층 石塔은 國寶 9號로서 行政區域上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379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花崗石으로 築造한 것이지만 흙사 木造建築 모양으로 纖細하고 輕快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益山彌勒寺址石塔)과 함께 百濟末期의 서기 7세기 초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石塔은 원래 백제시대의 사찰이었던 定林寺의 금당(金堂=本尊佛을 모시는 佛堂) 남쪽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수차의 兵火로 인하여 寺刹伽藍은 소실되고 석탑만 외로히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석탑의 제1층 屋身의 4면에는 당나라의 蘇定方이 백제를 平定했다는 碑文(서기 660년, 唐 顯慶 5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일명 平濟塔이라고 속칭 되어 왔으나, 이것은 백제가 羅唐聯合軍에 의하여 멸망한 당시, 이미 그전부터 存在하고 있는 이 石塔을 戰勝碑로 惡用하고 거기에 대단히 모욕적인 落書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扶餘地方에서는 옛날부터 이 石塔을 「百濟塔」이라고 불러 내려오고 있다.

2. 百濟塔의 구조양식

이 石塔은 地臺石·地臺底石 및 地臺中石과 地臺甲石으로 구성된 나즈

막한 1층기단 위에 건립한 것으로, 單間 4면의 方形塔이다.

1층 옥신은 거대한 隅柱石 4개와 각면 2매씩 합계 8매의 面石으로 구성되었고, 그 위에 옥개받침 부연 및 옥개받침의 순서로 1층 屋蓋石을 받고 있다.

2층 이상의 구조도 대체로 이와 동일한 方式으로 축조하였다.

이 石塔의 樣式은 益山彌勒寺址塔과 마찬가지로 木塔龕案樣式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완전한 목탑양식은 아니고 추상적으로 목탑을 연상케 하는 수법을 쓴 양식으로, 이것은 창의적이고 우아한 百濟塔의 固有한 樣式이라고 할 수 있다.

3. 百濟塔의 추조기법

이 石塔은 평면상으로 볼 때 각종 옥신은 옥신받침 위에 세웠는데 옥신 하부를 약간 넓게 하고 상부를 약간 좁게 遞減하는 手法을 썼으며, 체감율은 1층이 가장 크고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적어진다.

또 입면상으로는 屋身石 위에 木塔의 貢包出口役割을 하는 옥개받침 부연과 옥개받침을 밖으로 내밀어서 얇고 넓은 옥개석을 받치는 수법을 썼으며 옥신은 1층이 가장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현저하게 얇게 체감하고, 옥개석도 마찬가지로 1층을 가장 넓게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현저하게 좁혀가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수법을 쓴 결과 탑 전체가 안전성 있고 매우 경쾌하게 보인다.

이 石塔의 높이는 측정 장소에 따라 8개소의 높이가 각각 다르며, 그 중 최대치는 서북측 8.927m, 최소치는 동측 8.888m로서 그 평균치는 8.907m이다.

지대석 평면의 크기는 사면이 각각 다르며 최대치는 동측이 3.722m, 최소치는 북측이 3.705m로서 그 평균치는 3.713m이다.

4. 百濟塔의 復元

신라탑의 대표적인 불국사의 多寶塔과 釋迦塔은 1974년에 경주박물관 경내에 각각 復元되었으며, 百濟塔은 1982년도에 새로 移轉되는 충남대학교 경내에 復元건립 되었다.

다보탑과 석가탑은 千餘年の 오랜 세월 동안 風磨雨洗로 磨耗와 沈下를 일으켜 不速 倒潰損滅의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조치로 미리 一基씩 復元한 것이며, 百濟塔은 新築移轉하는 忠南大學校에서 忠南의 대표적인 國寶를 校庭에 復元함으로써 教育的인 效果를 얻기 위해서 復元한 것이다.

百濟塔은 오랜 세월에 不同沈下와 뒤틀림 등으로 당초 건립 당시의 척수를 유지하고 있는 部材는 殆無한 상태이며, 탑의 각면의 척수는 각자 서로 다를뿐 아니라 같은 면에 있어서도 部材의 上·中·下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탑을 復元하기 위하여는 元用尺을 찾아내어 復元值數를 精確하게 산출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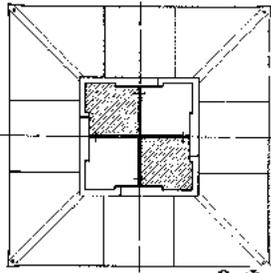
復元值數를 산출하기 위하여는 現存遺構에 대한 정밀한 實測을 행하여 元用尺과 現用尺과의 비례를 구해야 한다.

百濟塔은 각 部材에 대한 비례를 구한 결과, 元用尺 1尺=現用尺 1.0242曲尺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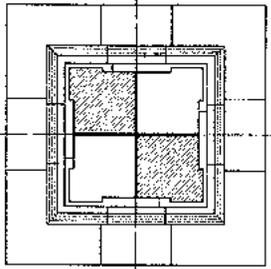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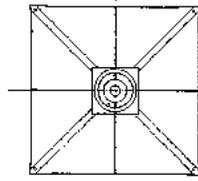
비례로 보아서 唐尺을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비율에 의하여 백제탑의 각 部材에 대한 復元值數를 결정하여 圖面과 같이 作圖한 것이다. (산출과정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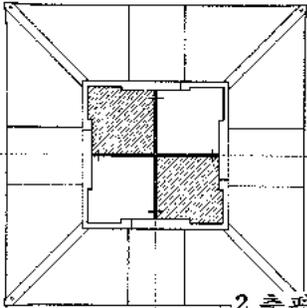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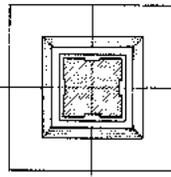
※ 本稿에서 「百濟塔」이란 用語를 사용한 것은 扶餘地方에서 사용하는 俗稱用語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며, 그것은 定林寺址 五層石塔을 指稱한 것으로서 百濟時代의 모든 石塔을 指稱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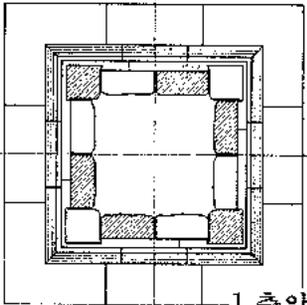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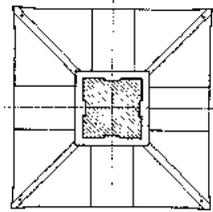
3층평면도 노반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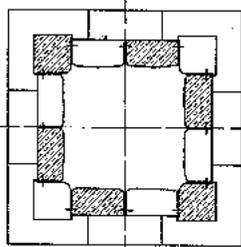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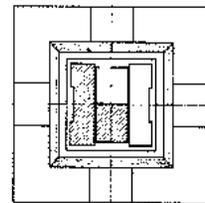
2층앙시도 5층앙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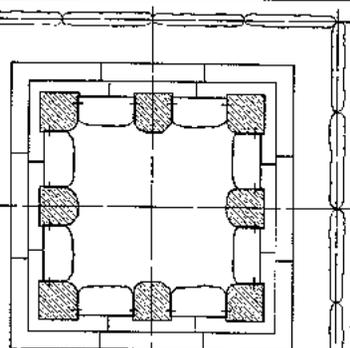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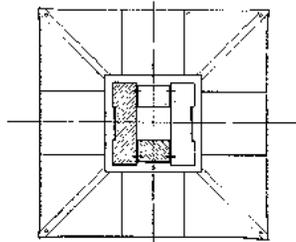
2층평면도 5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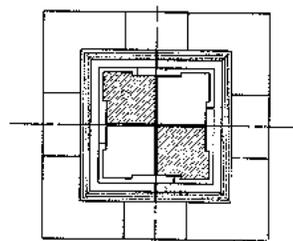
1층앙시도 4층앙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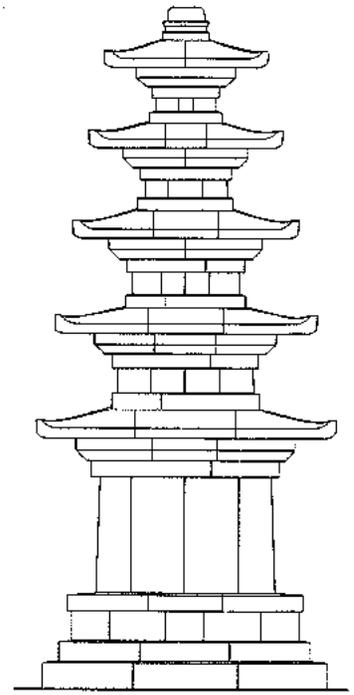
1층평면도 4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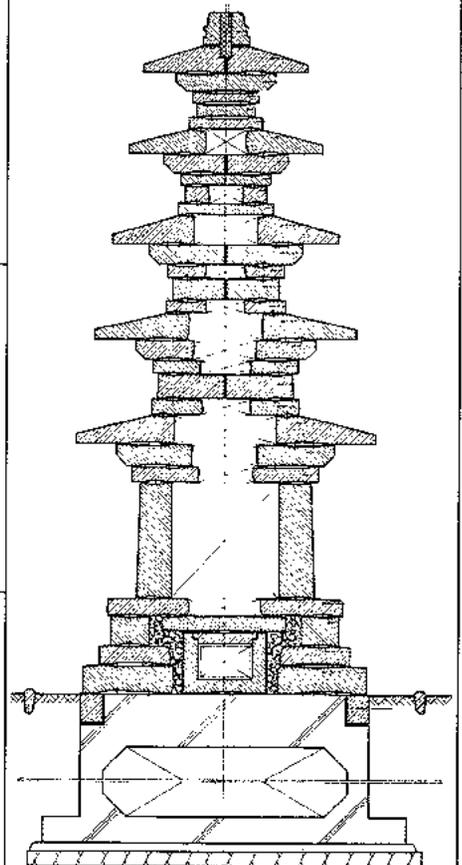
기단평면도



3층앙시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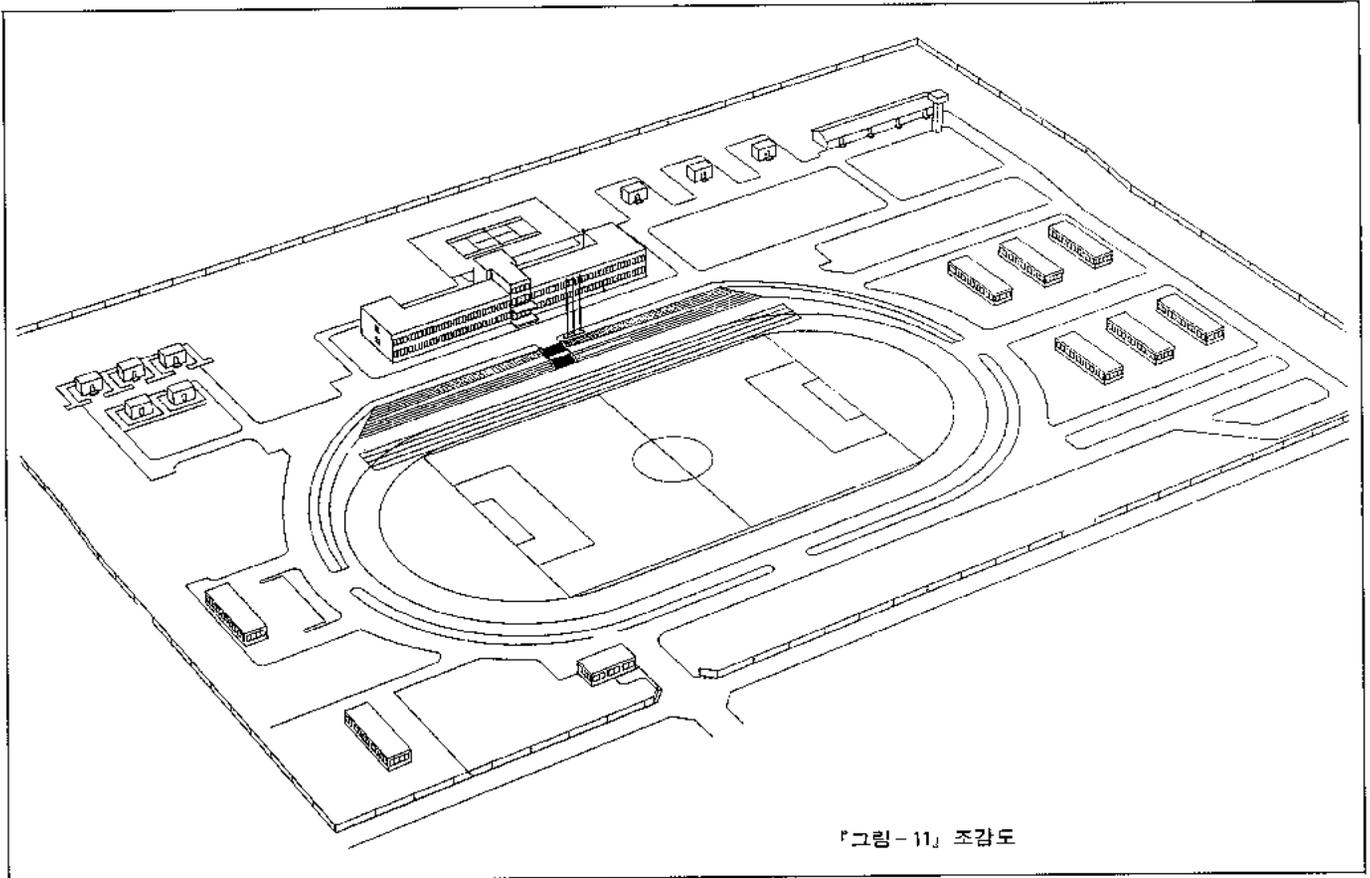
주단면도

컴퓨터에 의한 透視圖 作圖

曹 鐵 鎬 - 건축사 · 建國大교수

PERSPECTIVE BY CAD SYSTEM

CHUL-HO CHO / KONKUK UNIV.



『그림-11』 조감도

8. 조감도의 实例

建物の 투시도는 보는 사람의 눈 높이를 建物보다 낮게 잡을 수도 있고 높게 잡을 수도 있게 된다. 建物の 群은 눈높이를 낮게 잡아 표현할 수는 없고 높게 잡아야 한다. 이 경우 조감도라고 하는데 컴퓨터로 표현할 때는 투시도와 다른 技法이 아니라 같은 技法으로 표현한다. 『그림-11』이 조감도로 표현한 한 예이다.

투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눈높이 및 방향 거리를 자유로이 조절이 가능하다. 플로터에 그리기 전에 CRT 화면상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위치를 결정해서 컴퓨터에 연결된 플로터로 그려내면 될 것이다.

투시도나 조감도나 눈의 위치만 다를 뿐 근본원리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다만 컴퓨터에서는 숨어 있는 線(隱線·Hidden Line)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며, 또 번거로운 것이 된다. 이러한 것은 컴퓨터 自体内에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利用者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筆者 자신이 開發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나, 外國에서 이미 開發되어 활용하고 있는 Package를 소개함으로써 참고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英國 ARC社에서 開發한 BDS (Building Design System) 중의 투시도(Perspective) 부분이다.

9. 外國Package의 利用实例

ARC社의 BDS에서는 XPER라는 명령을 주어 3次元으로 기억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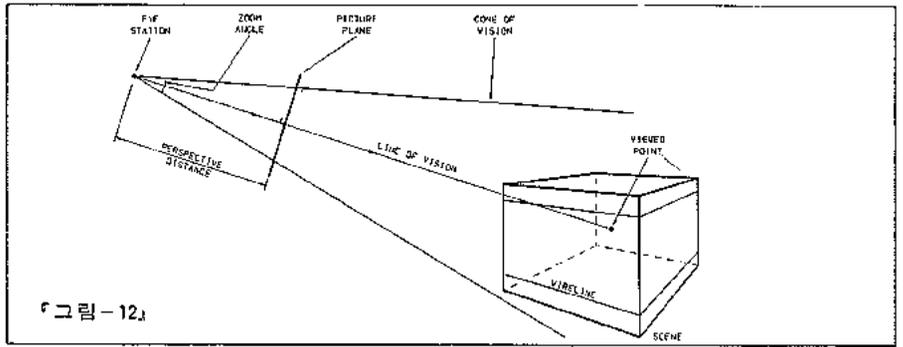
있는 建物 형상을 투시도나 조감도로 표현할 준비를 하게 한다.

『그림-12』와 같이 대상물과 눈의 위치를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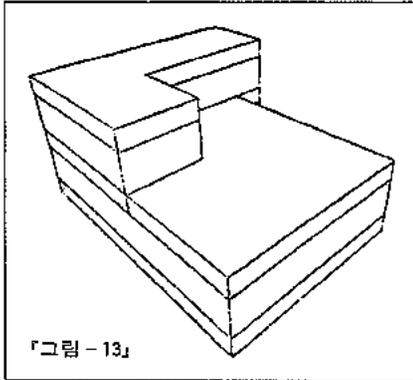
YMODE BUILDING이라는 명령에 의하여 『그림-13』과 같은 건물이 CRT의 일종인 GRAPHICS DISPLAY에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YMOVE Z 15라는 명령어로 눈 높이를 15m 높여 볼 수 있는 예가 『그림-14』이다.

건물을 돌려서 볼 수 있도록 YROUND 50을 하면 50°(度)로 회전하게 된다. 50도씩 4번 회전시킨 것이 『그림-1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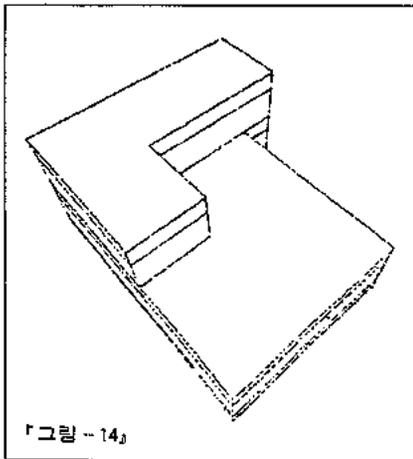
건물바다에 線을 나타낼 경우 YCARPET로 線의 간격이며 범위를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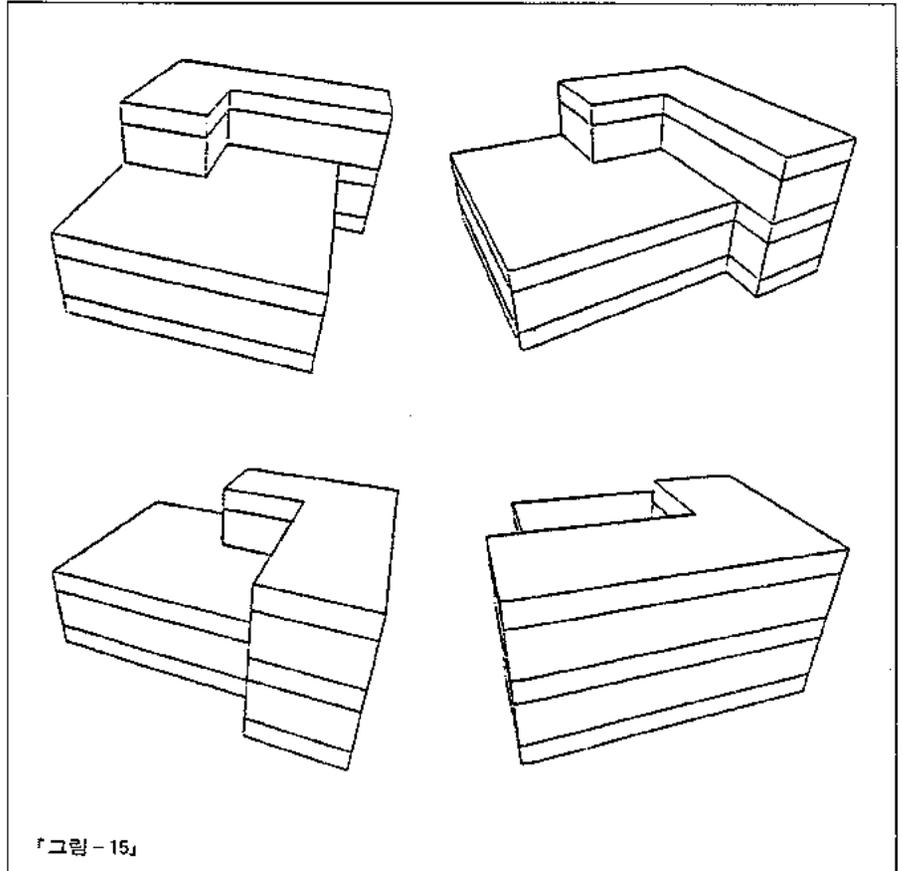
「그림-12」



「그림-13」



「그림-14」



「그림-15」

그 예가 『그림-16』이다.

숨어 있는 線을 보기 위해서는 YHIDENO 로 하면 『그림-17』처럼 된다.

YTHREE OFF 를 하면 3点 투시에서 2点 투시로 바꾸어 지는데 그 예가 『그림-18』이 된다.

이미 작성된 건물 투시도를 원점에서 이동 회전을 위하여 YTRANS 를 쓸 수 있다. 그 예가 『그림-19』이다.

建物에서는 X, Y, Z 方向의 크기를 변동시킬 필요가 거의 없지만 크기를 변동하는 SCALE 의 기능도 있다.

室内 회전계단의 室内 투시도를 작도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회전계단의 平面·立面을 결정하여 입력한 내용이 『그림-20』이다.

벽을 90° 회전해서 본 투시가 『그림-21』이다. 벽과 계단 중심부를 나타낸 것은 『그림-22』가 된다. 계단판을 나타낸 것이 『그림-23』이고, 핸드레일을 나타내면 『그림-24』와 같게 된다. 바닥을 나타낸 것이 『그림-25』이고, 위에서 내려다 본 경우가 『그림-26』이 된다.

실이용자는 3次元 건물이 2次元의 투시도로 변하는 내용을 몰라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11. 3次元 建物에 대한 2次元 画像
『그림-8』에서 눈(점 P) 위치는 직각 좌표로는 H, K, L로 구 좌표로는 ρ, θ, ϕ 로 정해진다. 투영된 평면

이 관측자의 눈으로부터 D만큼의 거리로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투영평면, 즉 화면은 관측자의 눈과 원점을 연결하는 선과 수직을 이루도록 하면 점 P에 새로운 좌표시스템을 하나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눈좌표시스템(Eye Coordinate System)이라 한다. 이 점들은 눈좌표시스템으로 (X_e, Y_e, Z_e) 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표준좌표시스템으로 (X, Y, Z) 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눈좌표시스템에서 관측자의 보는 방향이 표준좌표시스템의 원점을 향하고 있을 때, Z_e 軸은 보는 사람의 시선 방향을 향하고, X_e 軸은 오른쪽을 향하며, Y_e 軸은 위쪽을 향한다. 눈좌표시스템은 왼손 좌표시스템이 된다. 투시도로 작도해 낼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표준좌표시스템에서의 점 (x, y, z) 을 눈좌표시스템에서의 좌표 (Xe, Ye, Ze) 로 변환시켜야 한다.

2. 눈좌표시스템에서의 점 (Xe, Ye, Ze) 로부터 화면 좌표 (Sx, Sy) 를 구해야 한다. 여기에서 2번째 과정은 앞 절에서 설명한 바 있는 식으로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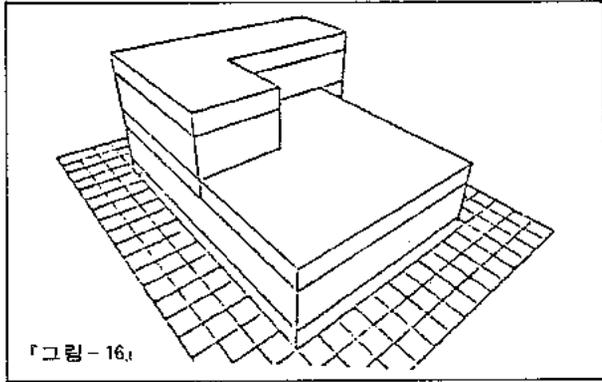
터 $Sx = D(Xe / Ye)$, $Sy = D(Ye / Ze)$ 로 쉽게 구할 수 있다.

표준좌표시스템과 눈좌표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구함으로써 첫번째 과정을 해결할 수 있다. X, Y, Z 좌표 시스템에서 Xe, Ye, Ze 좌표시스템으로 변환하려면 4 단계의 변환과정을 거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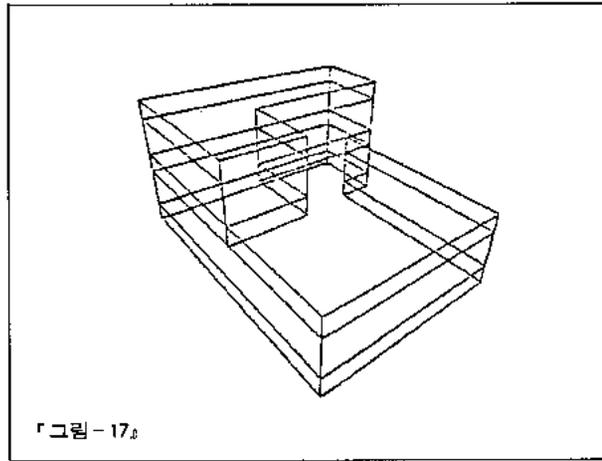
중간단계에서의 좌표시스템들은

모두 x', y', z' 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최종단계에서의 좌표시스템 x', y', z' 은 눈좌표시스템 Xe, Ye, Ze 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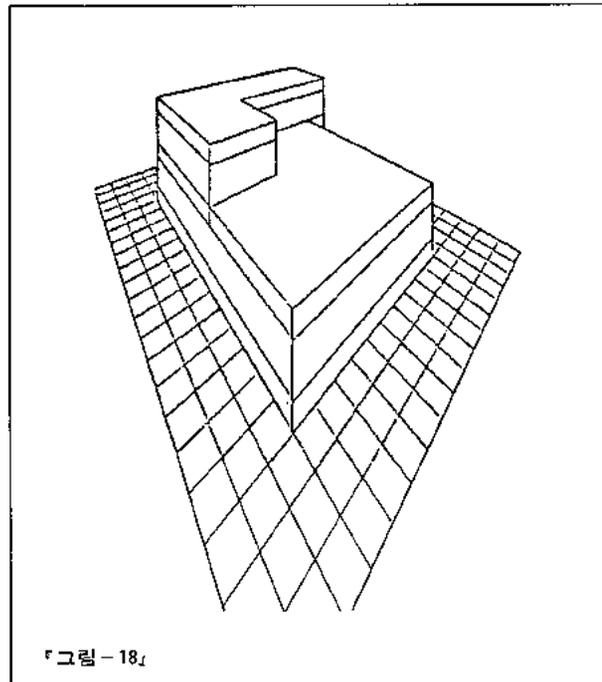
새로운 좌표시스템을 얻기 위한 각 변환들에서 관측자의 눈에 해당하는 점 P는 표준좌표시스템과 관련하여 직각 좌표 (H, K, L) 또는 구좌표 (ρ, θ, ϕ) 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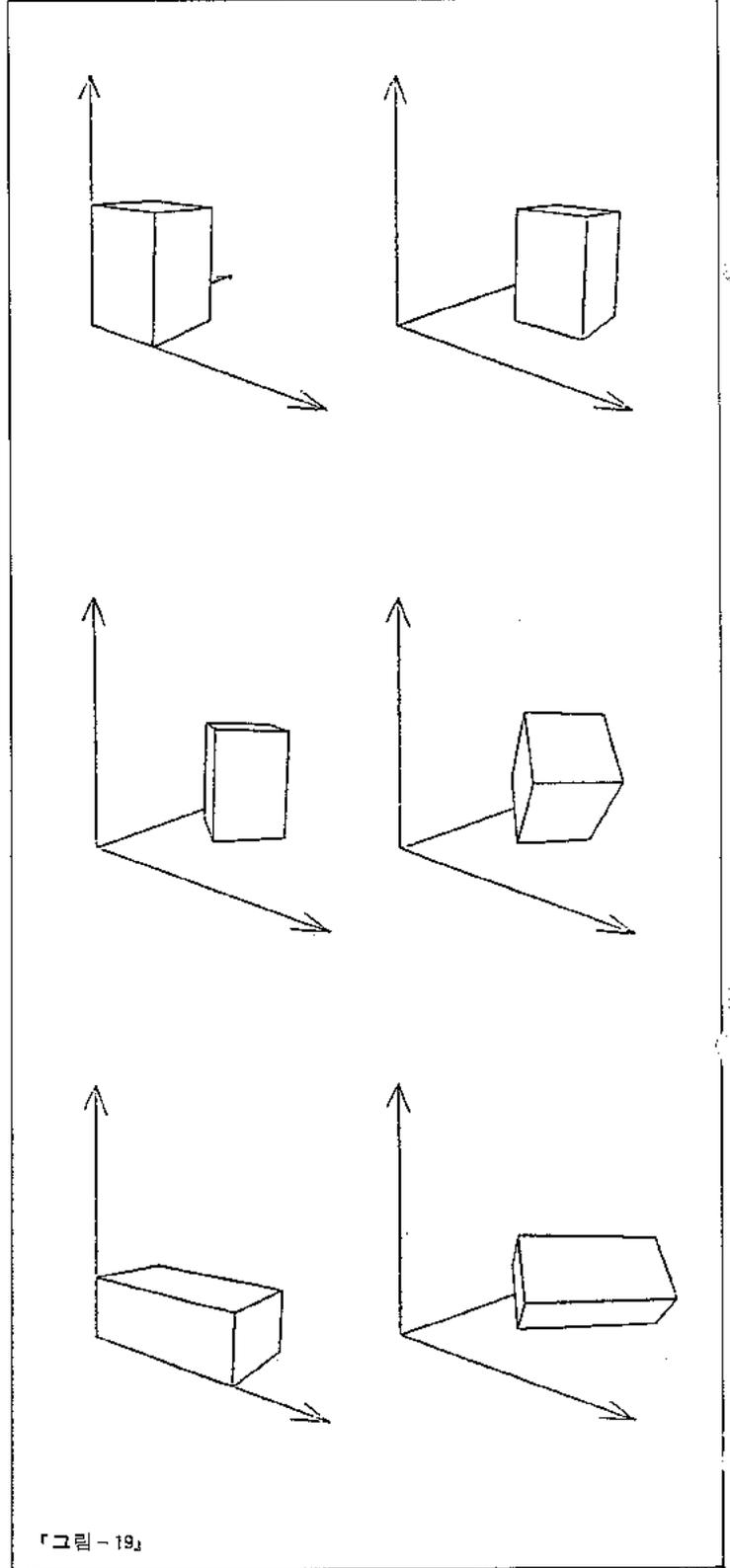
「그림-16」



「그림-17」



「그림-18」



「그림-19」

우 이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H = \rho \sin \phi \cos \theta$$

$$K = \rho \sin \phi \sin \theta$$

$$L = \rho \cos \phi$$

이들 좌표변환 4 단계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게 된다.

1. 제 1 단계에서는 보는 사람의 눈 위치에 원래의 좌표시스템과 동일한 방향의 축을 갖는 새로운 좌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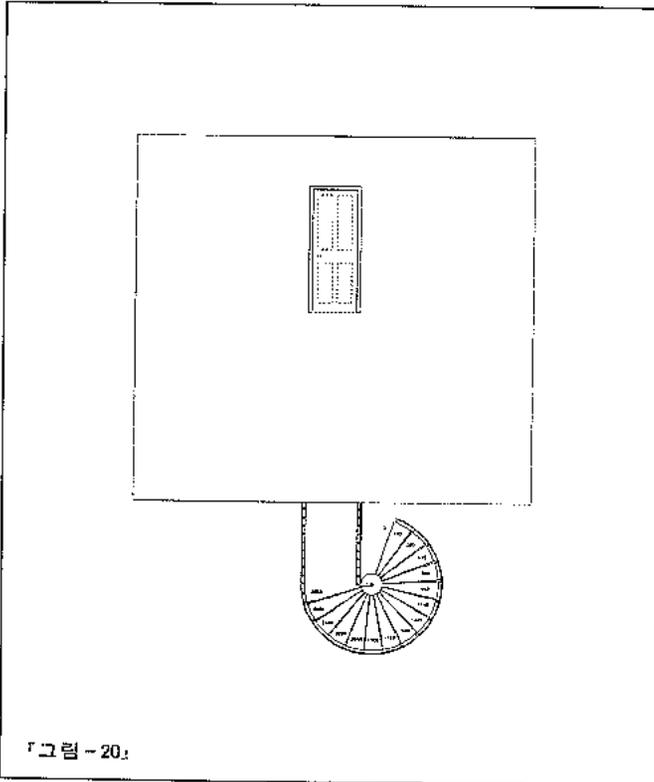
을 구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변환行列 A로 나타낼 수 있다.

2. 제 2 단계와 제 3 단계에서는 제 1 단계에서 좌표축들을 회전 시켜서 Z'축이 표준좌표시스템의 원점을 향하고, Y'축이 양의 Z축과 교차하도록 해서 보는 사람의 위치에서 볼 때에 Y'축은 위쪽을 향하고 X'축은 왼쪽을 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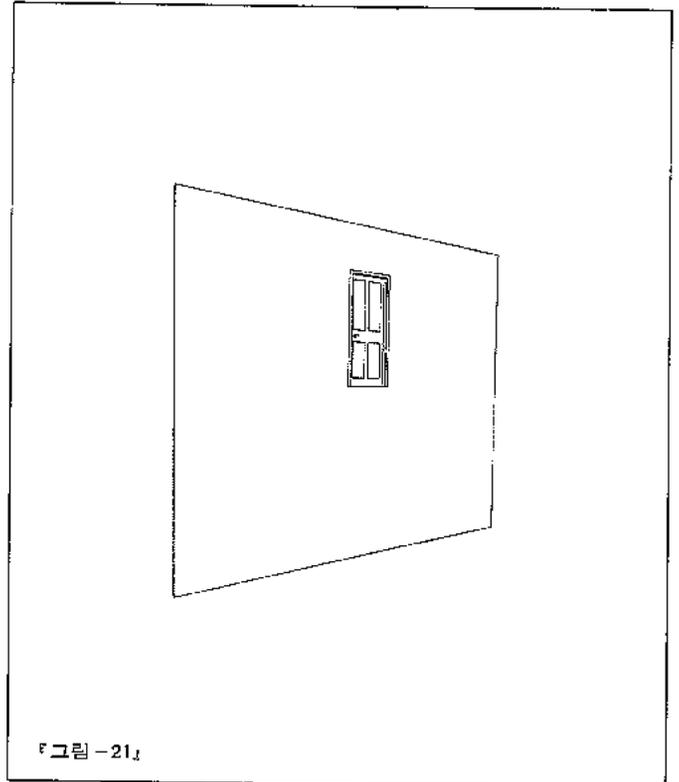
3. 제 4 단계에서는 X'축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왼손 좌표시스템으로 변환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보는 사람의 위치에서 보다 편한 좌표시스템이 구성된다.

각 단계에서의 변환 행렬을 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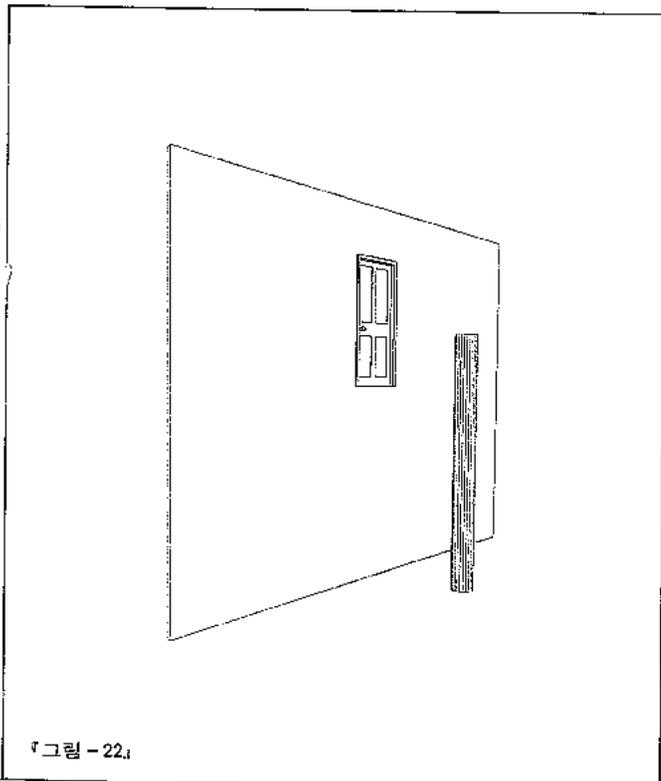
제 1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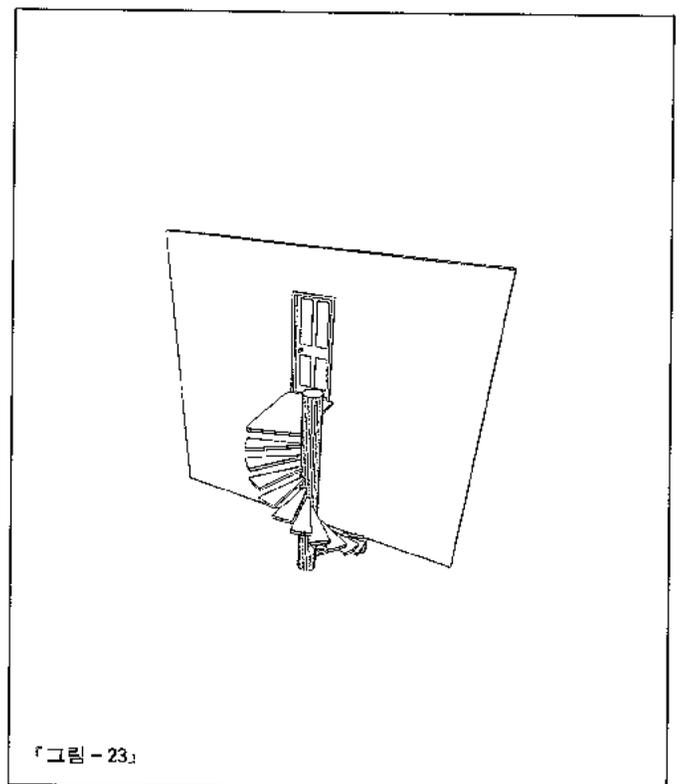
『그림 - 20』



『그림 - 21』



『그림 - 22』



『그림 - 23』

원점을 $(H, K, L) = (\rho \sin\theta \cos\phi, \rho \sin\theta \sin\phi, \rho \cos\theta)$ 에 위치시킨다. 변환 행렬은 다음과 같게 된다.

$$A = \begin{bmatrix} 1 & 0 & 0 & 0 \\ 0 & 1 & 0 & 0 \\ 0 & 0 & 1 & 0 \\ H-K-L & 1 & & \end{b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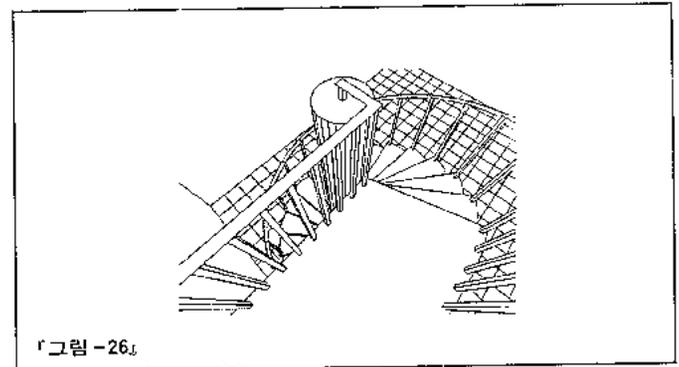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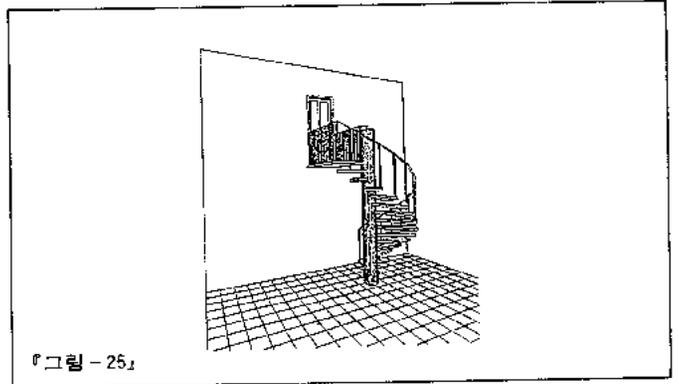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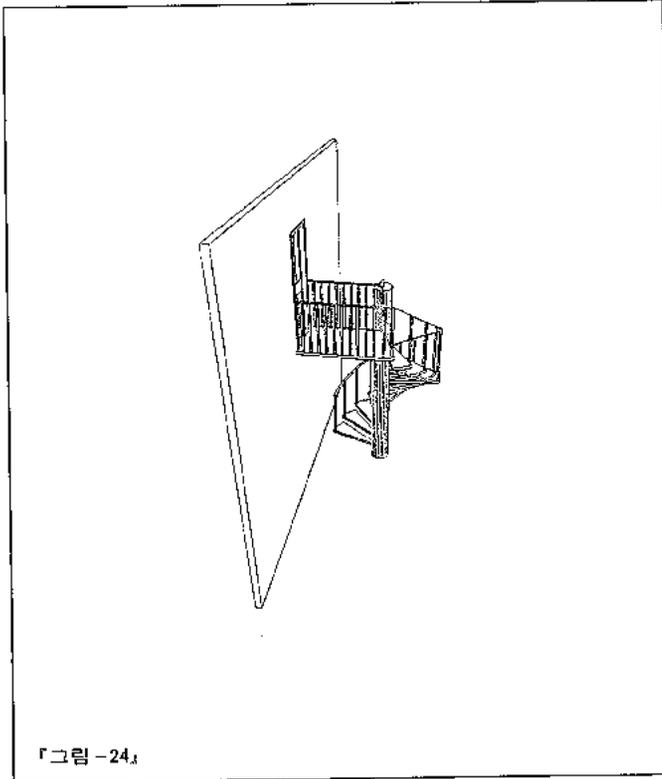
또는 $A = \begin{bmatrix} 1 & 0 & 0 & 0 \\ 0 & 1 & 0 & 0 \\ 0 & 0 & 1 & 0 \\ 0 & 0 & 0 & 1 \end{bmatrix}$

제 방향으로 $(180-\phi)$ 만큼 회전시킨다.

Z'축은 X, Y, Z 좌표시스템의 원점을 향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의 변환 행렬은 다음과 같다.

$$C = \begin{bmatrix} 1 & 0 & 0 & 0 \\ 0 & -\cos\phi & -\sin\phi & 0 \\ 0 & \sin\phi & -\cos\phi & 0 \\ 0 & 0 & 0 & 1 \end{bmatrix}$$

den Surface)을 제거하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에서의 커다란 과제중의 하나가 된다. 隱線제거는 많은 연산시간과 기억용량을 필요로 한다. 大型 컴퓨터에서는 이러한 것을 만족시켜 주지만 Desk-top 컴퓨터와 같은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여유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여러



「그림-24」

「그림-25」

「그림-26」

$$\begin{bmatrix} -\rho \sin\theta \cos\phi & \rho \cos\phi \\ -\rho \sin\theta \sin\phi & 1 \end{bmatrix}$$

여기에서 H, K, L에 대한 구좌표 표현이 보다 불편하게 보이지만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좋게 된다.

제 2 단계

좌표시스템을 Z'축에 대하여 시계 방향으로 $(90-\theta)$ 만큼 회전시킨다. 회전결과로, 음의 Y'축은 Z'축과 교차하게 된다.

이 경우의 변환행렬은 다음과 같다.

$$B = \begin{bmatrix} \sin\theta & \cos\theta & 0 & 0 \\ -\cos\theta & \sin\theta & 0 & 0 \\ 0 & 0 & 1 & 0 \\ 0 & 0 & 0 & 1 \end{bmatrix}$$

여기에서 좌표시스템을 회전시킬 때의 변환행렬은 한 좌표시스템 내에서 점을 회전시킬 때의 변환행렬에 대한 역행렬이 된다.

제 3 단계

좌표시스템을 X'축에 대하여 반시

제 4 단계

다음과 같은 변환행렬로서 X'축의 방향을 바꾸어 왼손 좌표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D = \begin{bmatrix} -1 & 0 & 0 & 0 \\ 0 & 1 & 0 & 0 \\ 0 & 0 & 1 & 0 \\ 0 & 0 & 0 & 1 \end{bmatrix}$$

만약 어떤 점에 대한 표준 좌표(X, Y, Z)를 알고 있다면 눈 좌표(Xe, Ye, Ze)는 $(Xe, Ye, Ze, 1) = (X, Y, Z, 1)$ ABCD로 구해진다.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변환 행렬 T=ABCD를 구해 사용할 수 있다.

$$(Xe, Ye, Ze, 1) = (X, Y, Z, 1)$$

$$\begin{bmatrix} -\sin\theta & -\cos\theta \cos\phi & -\cos\theta \sin\phi & 0 \\ \cos\theta & -\sin\theta \cos\phi & \sin\theta \sin\phi & 0 \\ 0 & \sin\phi & -\cos\phi & 0 \\ 0 & 0 & \rho & 1 \end{bmatrix}$$

11. 隱線 및 隱面을 위한 面의 方向 決定

隱線(Hidden Line)이나 隱面(Hid-

기법들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간단한 3次元 물체에 대한 투시도를 그려보도록 하겠다. 범용으로 쓰이는 隱線 제거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컴퓨터에서 각각의 특정한 응용에 대하여 그것에 맞는 技法을 사용하여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되겠다.

建物の 隱線이나 隱面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이는 隱과 隱線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이다.

建物の 보이는 부분만을 디스플레이하는 가장 확실한 方法은 컴퓨터에 보이는 부분만의 데이터를 入力시켜 주어 그것만을 디스플레이 시키는 方法이겠다.

이 技法에서는 프로그래머가 먼저 특정한 관측점을 구해서 그곳으로부터 보이는 물체의 꼭지점들을 미리 구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매우 간단하며 매우 빠른 시간 내에서 투시도를 그려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또다른 제약점들이 있다. 만일 다른 관측점에서 본 투시도를 그리려면 프로그램에서의 DATA 문과 線을 그리는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11.1 面の方向決定 동작원리

주사위를 보면 『그림-27』과 같이 두면이나 세면이 보이게 된다. 다른 면들은 우리들로부터 멀어지는 쪽을 향하게 되므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隱線 제거방법을 사용하려면 먼저 面의 方向을 결정해야 한다. 정육면체의 각 면에 대해서는 두개의 수직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다.

한 방향은 정육면체의 안쪽을 향하는 것이고, 다른 한 방향은 정육면체의 바깥쪽을 향하는 것이다. 『그림-28』에서 이 方向들을 수직 벡터로 표현하고, 또한 面의 방향 벡터로서는 바깥쪽을 향하는 벡터를 사용하기로 한다.

물체의 각 면에 대해 두번째 벡터로서 視線벡터를 정의할 수가 있다. 이 벡터는 面의 한 꼭지점에서 보는 사람의 눈의 위치인 관측점으로 향하는 벡터이다.

각 면에 대해서 우리는 視線벡터와 方向벡터가 이루는 角을 측정할 수 있다. 만일 이 角이 0°에서 90°사이의 角이면, 그 面은 관측자쪽을 향하게 되어 눈에 보이게 되므로 디스플레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측정각이 90°에서 180° 사이의 각이면, 그 面은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는 쪽을 향하게 되므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面은 디스플레이되지 않는다. 『그림-29』에 이러한 것을 나타내었다.

11.2 方向벡터(Orientation Vector)

『그림-30』과 같이 面의 꼭지점들에 각각 번호를 붙이면, 이 경우 번호 1에 해당하는 꼭지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지만 나머지 꼭지점들은 정육면체를 밖에서 볼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번호를 붙여야 한다. 다음에 1번 꼭지점에서 2번 꼭지점으로 향하는 벡터 \vec{a} 와 1번 꼭지점에서 3번 꼭지점으로 향하는 벡터 \vec{b} 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이 두 벡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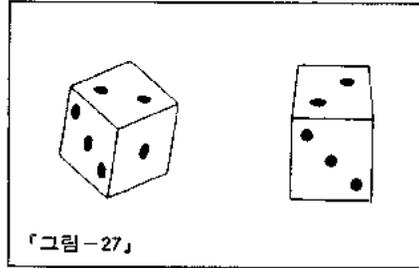
의 外積(Cross Product)에 의한 벡터($\vec{n} = \vec{a} \times \vec{b}$)는 面에 수직하게 되며, 정육면체의 바깥쪽을 향하게 된다.

이 때 방향 벡터 \vec{w} 의 크기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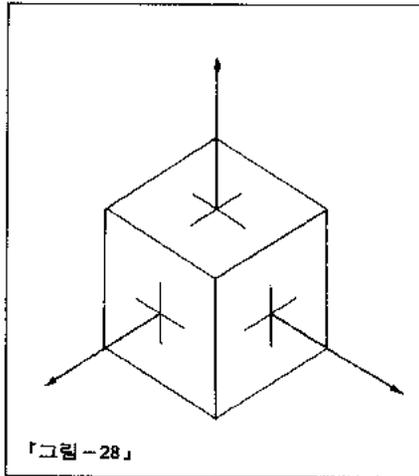
11.3 可視度(Visibility)

벡터 \vec{w} 와 \vec{n} 의 內積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vec{w} \cdot \vec{n} = |\vec{w}| |\vec{n}| \cos \theta$$



『그림-27』



『그림-28』

여기에서 θ 는 벡터가 이루는 角인데, 만일 θ 가 0°~90°사이의 角이면 內積 $\vec{w} \cdot \vec{n}$ 은 正의 값을 가질 것이고 90°~180° 사이의 각이면 $\vec{w} \cdot \vec{n}$ 은 負(-)의 값을 갖게 된다.

우리는 \vec{w} 를 어떤 面의 視線벡터로 하고 \vec{n} 을 方向벡터로 함으로써, 그 面의 可視度を 조사해 볼 수 있다.

『그림-29』의 (b)에서와 같이 보이는 面은 \vec{w} 와 \vec{n} 이 이루는 角이 0°~90°가 되어 $\vec{w} \cdot \vec{n}$ 은 正의 값을 갖는다.

『그림-29』의 (a)에서와 같이 안 보이는 面, 즉 隱面은 \vec{w} 와 \vec{n} 이 이루는 角이 90°~180°가 되어 $\vec{w} \cdot \vec{n}$ 은 負의 값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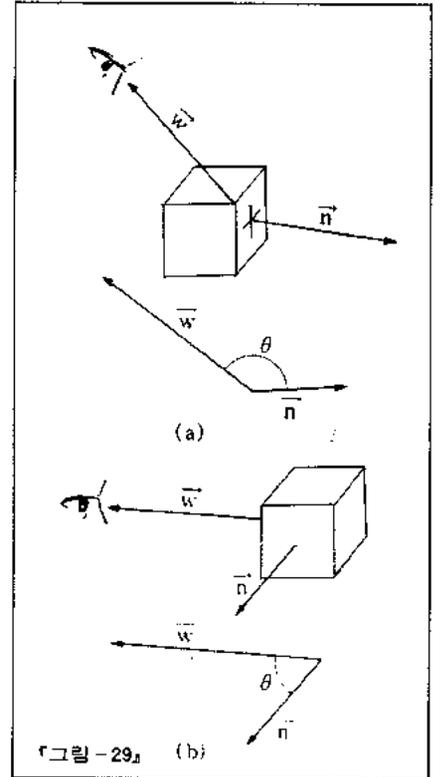
12. Blackout에 의한 두 建物 사이의 隱線除去

여기서는 여러 物體 사이에서 서로 가리우는 부분은 제거하고 보이는 부분만을 그리는 方法으로 해결할 수 있

다. 따라서 한 물체에서의 보이는 면을 결정하는 과정 이외에는 가까운 곳의 물체에 의해 가리워지는 부분도 결정해야만 한다.

어떤 물체의 가리워진 부분도 일단 그렸다가, 다음에 가까운 물체, 즉 가리우는 물체를 그리면서 가리워진 부분은 지워지도록 하는 方法이다.

『그림-31』은 이 方法에 의하여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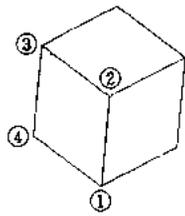
『그림-29』 (b)

려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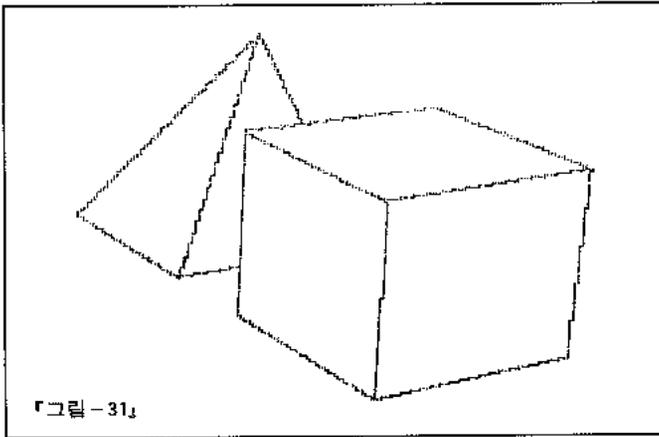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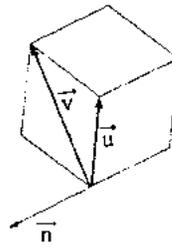
13. 2進 檢索(Binary Search)에 의한 두 물체 사이의 隱線除去

『그림-32』에서 피라미드와 같은 꼭지점 R는 정육면체에 의해 가리워진다. 피라미드의 邊 PR는 부분적으로 가리워져 단지 PS부분만이 보이게 된다. 꼭지점 P의 좌표 좌표값은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점 S의 좌표값은 계산하여야 한다. 점 S는 정육면체의 邊 QT와 피라미드의 邊 PR의 교차점이므로, 점 S의 좌표값은 선 PR과 QT의 방정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에 관련된 대수식은 간단하지만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S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 2진검색(Binary Search)을 이용하는 方法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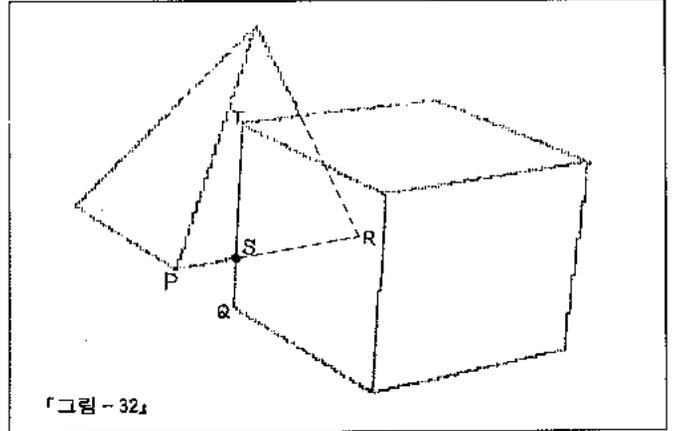
점 S에 대한 가시도 검사를 하기 위해 먼저 점 T에서 점 Q로 향하는 벡터 \vec{a} 와 점 T에서 점 P로 향하는



「그림 - 30」



「그림 - 31」



「그림 - 32」

벡터 $(XP - XT, YP - YT)$, 그리고 점 T에서 점 S로 향하는 벡터 $(XS - XT, YS - YT)$ 를 구한다. 만일 점 S가 보이는 점이면, 점 S는 선 QT에 대하여 점 P와 같은 쪽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두 벡터 $(XS - XT, YS - YT)$ 와 \vec{n} 의 외적의 Z축 성분은 두 벡터 $(XP - XT, YP - YT)$ 와 \vec{n} 의 외적의 Z축 성분과 같은 부호를 갖게 된다. 만일 보이지 않는 점이라면 외

적의 결과는 서로 다른 부호가 되므로, 프로그램에서 이 결과를 比較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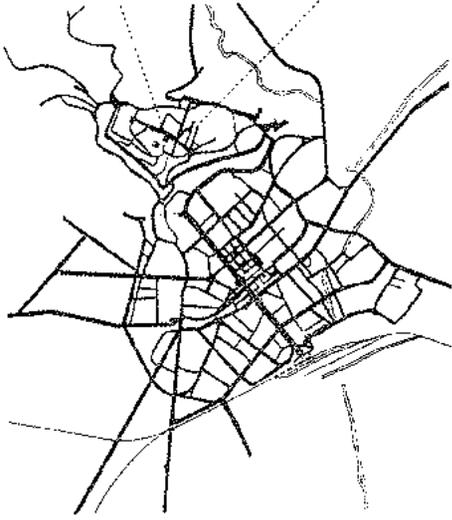
위의 과정을 7번 반복하여 구해진 (XS, YS) 값을 점 S의 좌표 값으로 취하게 된다. 이때 벡터 (P_1, P_2) 의 크기는 두 점 (XP, YP) 와 (XR, YR) 간의 거리의 약 1/128에 해당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컴퓨터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만족할만한 정확도를 갖

는 画像을 얻어 낼 수 있다. 정확도는 반복회수를 증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된다. 반복 루우프에서 빠져나오면 점 P에서 점 S로 선을 긋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다음에는 부분적으로 가리워진 다른 선에 대하여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 건축행정상담 —



□ 건축법

- **㉠** 단독주택을 허가 득하여 시공중 지하층이 많이 돌출되어 성토를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 성토는 저습지 또는 주위보다 꺼진 땅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인접지대의 지포보다 1미터 이상 높지아니하게 성토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 지하에 설치하는 오수정화시설은 바닥면적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까?
답 바닥면적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 **㉢** 인접대지와 대지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 건축물 높이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답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 1 항제 5 호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대지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건 산정을 위한 높이에 있어서는 고저차의 평균한 지점에서 건축물 각부분의 높이를 향하여 적용합니다.
- **㉣** 한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며 5층인 사무실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직통계단은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까?
답 건축법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1개소만 설치하면 됩니다.
- **㉤** 건축물 지붕처마를 외벽에서 1.2미터 정도 돌출하는 경우 건축면적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 처마인 경우에도 외벽에서 1미터를 공제한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정하여야 합니다.
- **㉥** 건축물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가 몇미터이상 도로에 얼마만큼 접해야 합니까?
답 폭6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두곳이상 대지에 접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시행령제63조제 2 항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령 제6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연립주택 건축시 공원용지에 접한 대지의 소정거리도 0.625배를 띄워서 건축해야 되는지요?
답 공원용지에 접한부분의 소정거리는 0.625배 규정에 관계없이 건축법규에 의한 일조건등의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 연립주택 건축시 중간검사는 몇회하는지요. 현행 법령에는 기초철근 배근 완료시 1회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4회를 받으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확실한지요.
답 건축법시행령 제11조규정에 의하면 철근 콘크리트 조 등은 기초철근 배근 완료시 1회에 한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연립주택의 부실 시공방지를 위하여 4회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각층별 배근 완료시 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 **㉨** 건축물내 계단대신 경사도를 설치코자 합니다. 경사도는 얼마로 하면 되고 설치가 가능한지요?
답 건축법시행령 제22조규정에 의거 설치가 가능하며 경사도의 경사도는 1:8을 넘지 않아야 되며 표면은 거칠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 **㉩** 부지증명을 발부 받아보니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이곳에 공동주택(5층아파트)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답 건축법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아파트는 건축이 불가 합니다.
- **㉪** 공동주택(연립주택)은 준공후 몇년간 하자보수 의무기간을 가집니까?
답 건축법시행령 제93조에 의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준공을 마친후 2년간 하자보수 의무기간을 가집니다.
- **㉫** 주거전용지역내 대지 1,50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전폐율과 용적율 적용은 얼마나 받아야 합니까?
답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주거 전용지역에는 연립주택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주거지역내 대지가 8미터 도로폭에 접해있는데 사무실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주거지역내 업무용사무실 300제곱미터 이상은 12미터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대지에 한하여 가능하며 300제곱미터 이하의 근린생활 시설용 사무실은 가능합니다.
- **㉭** 건축법시행령 제102조제 2 항의 규정의 “그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답 새로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수평 또는 수직의 모든 부분을 말하며 이때 ‘부분’이 수평투영 부분으로 바닥면의 개념은 아닙니다.
- **㉮** 기존 단층건축물에 2층을 증축하므로 일조건 규정

에 부적합한 경우 건축이 가능합니까?

답 건축물의 높이가 8미터 미만이면 기존건축물이 현행규정에 적합하고 증축하는 부분에서 거리가 현행일조권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면 건축가능합니다.

● **문** 공동주택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샤프트, 다스트슈터 복도는 바닥면적 산정시 어떻게 됩니까?

답 모두 바닥 면적에 산입합니다.

● **문** 주거지역으로서 1층에 근린생활시설과 2층에는 연립주택 2세대를 신축코자 할시 연립주택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받는지요?

답 2세대 일지라도 연립주택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 **문** 주택을 건축(2층)시 내부계단 말고 전용외부계단으로 설계시 가능한지요.

답 수직통로로 전용외부계단으로만 설계시는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적용받습니다.

● **문** 주거지역내의 필요한 조경면적이 150제곱미터라면 옥상등에 설치할 수 있는 조경면적은?

답 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문** 다방과 대중음식점을 합한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도 판매시설에 해당되는지요?

답 다방, 대중음식점은 면적제한이 없이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됩니다.

● **문** 주거지역내 4층 사무실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주차시설 면적이 부족하여 1층에 확보했습니다. 1층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요?

답 바닥면적에 산입됩니다. 다만 주차장 면적 산정시에는 제외됩니다.

● **문** 3종미관 지구인데 도로계획선이 신설되어 당초130평의 땅이 80坪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층 건축이 가능한지요?

답 3종미관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300 제곱미터 이상되어야 되나 건축법에서는 도시 결정으로 인하여 기준미달대지에 대하여 그 기준을 완화 건축허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5층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인정이 있을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 전면도로폭이 8미터이면 경사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계획하다보니 건축물의 높이가 하단에는 13미터이며 윗면에는 11미터의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적법하게 설계되었는지요?

답 건축법시행령 41조 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단의 13미터는 사선제한에 저촉되므로 부적격 설계된 것입니다.

● **문** 5층기존건물을 6층으로 증축하려고 하는데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답 증축부분 포함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가 넘고 6층이상인 건축물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총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승강기설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문** 주거지역내 조경면적 산정에 있어서 지상에 조경

기준면적의 50%를 하고 나머지 50%는 옥상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상업지역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타지역에서는 옥상의 조경면적을 지상의 1/2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지상에 50%의 조경설치 경우 옥상에는 많은 조경면적을 확보해도 지상의 1/2, 즉 25%만 인정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25%는 지상에 설치해야만 가능합니다.

● **문**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 내에서도 가설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지요.

답 건축법 제47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없는 범위내의 도시계획 시설 또는 예정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도 도시계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가능합니다.

● **문** 예식장의 반자높이는 얼마이상으로 하여야 합니까?

답 예식장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당해층에서)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4.0미터이상 되어야 합니다.

● **문** 주거지역내 주유소건축이 가능합니까?

답 가능합니다.

● **문** 미관지구내에서 건축선에서 6미터를 후퇴하여 건축물을 배치한 경우 조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답 3미터를 제외한 후면에 조경시설을 하는 경우 조경면적에 산입됩니다.

● **문** 주거전용지역내에 연립주택이 가능한지요?

답 주거전용지역에서는 연립주택건축은 불가능합니다.

● **문**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관광광속박시설은 주거지역내에서 가능토록 되어있음만 어떤 경우인지요.

답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관광속박시설은 대지가 폭12미터이상 도로에 12미터이상 접하여야 하고 건폐율은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대지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에 300세대(타지역은 200세대) 이상의 기존주택이 없어야 하며 기타주변의 주거환경 저해요인이 없는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문** 건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토록 되어 있으나 상기기준에 저촉되는 기존건축물의 증축시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답 동법시행령 제92조제 2항에 의하면 담장 및 연면적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건축과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기존건축물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는 적용시키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문** 상가 및 주택3층 건축물을 매입하였는데 하자 사항이 많이 있는경우 하자보수 요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자 보수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었으나 일반건축물은 매도자와 쌍방협의 해결하셔야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건설부령제364호

1983년 10월 14일

건설부장관 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분표시증표의 서식)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통보)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서에 의하여 준공인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용도지역등 이용상황조사보고서)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등 이용상황조사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등 이용상황종합보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경미한 행위) ① 영 제14조제2항·영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서 경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전지역안에서 동지역의 지정목적에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당해 각 지역안에서의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서 산림보전지역안에서 동지역의 지정목적에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
2.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림지 안에서의 10만제곱미터미만의 초지 및 농지의 조성

제6조 (조경계획서류) 영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조경계획서류"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 취득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조경계획서를 말한다. 이 경우 조경계획서에는 조경계획평면도 및 사업비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7조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청서)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

6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상 및 인근상황을 표시한 축척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 지적도·임야도 또는 수치지적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토지의 이용복적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낸 설명서

제8조 (허가증등의 서식) 법 제2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또는 불허가처분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토지에 있는 공작물등) 영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토지에 있는 공작물등"이라 함은 토지의 정착물인 공작물·건축물 및 임목을 말한다.

제10조 (공작물등의 가격산정) 공작물등이 있는 토지등의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공작물등의 가격은 인근의 유사한 토지에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작물등의 가격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제11조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등) ①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제7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제4호중 "허가기준"은 이를 "신고기준"으로 보며, 거래계약 당사자가 신고대상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이미 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를 마친 토지에 대하여는 동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유휴지통지의 서식)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휴 통지서에 의한다.

제13조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등) ①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상 및 인근상황을 표시한 축척2만5천분

의 1 이상의 지형도

- 2. 지적도·임야도 또는 수치지적부 등본
- 3. 토지대장

제14조 (토지등매수청구서의 기타 기재사항등) ① 영 제33조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2. 토지의 지번·지목 및 이용현황
- 3. 토지소유권외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4. 토지에 있는 공작물등에 관한 사항

②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시설등의 용도변경신고서) 영 제4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설·건축물·공작물의 용도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16조 (기준지가의 고시등) 건설부장관은 법 제29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할 대상지역을 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등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준지가의 고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
- 2. 대상지역의 위치와 행정구역별 면적
- 3. 대상지역의 범위
- 4. 대상지역에 관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5. 대상지역의 중심을 포함한 축척 600분의 1 내지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
- 6. 기준지가의 조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제17조 (표준지의 조사평가등) ① 영 제4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 1. 소재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
- 2.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및 임대료
- 3. 토지의 실제용도 및 이용상황
- 4.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
- 5. 용도지역의 구분등 법령상의 제한사항
- 6. 입지조건 및 주위환경
- 7. 가로교통 및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 8. 토지대장
- 9. 대지의 경우에는 그 상태와 효용성
- 10. 농지의 경우에는 그 수리상황·기준수량 및 농업경영상태
- 11. 임야의 경우에는 그 현황 및 임업경영실태

② 표준지는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의 공고일 현재의 이용상태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일시적인 이용상태는 그 평가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표준지는 표준지상에 지상물 및 소유권외의 권리가

없는 상태로 평가한다.

④ 표준지의 평가는 인근지역의 당해 표준지와 유사한 이용상태에 있는 토지의 거래가격(투기적 거래 또는 가수요에 의한 거래가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시점수정 및 사정보정을 하여 행하되, 거래사례가 없거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매립지 또는 새로이 조성된 토지는 그 원가를 고려한 가격으로, 수익성이 있는 토지는 수익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액이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하나의 표준지의 단위당 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⑥ 영 제48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토지평가사는 지가고시를 위하여 표준지를 조사·평가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표준지조사·평가내역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가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가변동률조사를 위한 표준지의 조사·평가내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1. 표준지의 일반적·개별적인 여러요인 등의 분석
- 2. 조사자료등의 선별적 이용의 내역
- 3. 평가방식의 선정 및 적용과 그 사유

제18조 (표준지의 적용) ① 표준지의 지가는 개별분석등 필요한 조정을 한 후 그 적용범위안의 토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안에서 대상토지에 적용할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접한 동일 또는 유사지목의 표준지의 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역분석·개별분석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의신청서의 서식) 영 제5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기타의 기준지가고시사항) ① 영 제51조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 1. 지목 및 면적
- 2. 실제용도
- 3. 이용상황
- 4. 용도지역의 구분
- 5. 주위환경
- 6. 가로교통상황
- 7. 형상 및 지세
- 8. 적용범위

②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에 관한 고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내역서에 의한다.

제21조 (토지평가사의 면허시험등) ① 영 제5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사면허시험응시 원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② 토지평가사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사면허시험응시원서에 응시 수수료로서 2천원을 수입인지로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토지평가사면허시험응시원서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토지평가사면허시험응시원서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 (1차시험면제) ① 영 제52조제2항 단서에서“건설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력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토계획·지역계획·도시계획·토지정책·토지이용계획·토지행정 기타 건설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서 8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2. 토지수용에 관한 업무에 8년이상 종사한 공무원
3. 토지법제 또는 토지세제(과세업무를 포함 한다)에 관한 업무에 8년이상 종사한 공무원
4. 토지의 징발에 관한 업무에 8년이상 종사한 공무원
5. 제1호 내지 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에 관한 감사 및 교육업무에 8년이상 종사한 공무원
6.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하 “은행”이라 하고,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성업 공사를 포함한다)에서의 감정평가업무에 8년이상 종사한 자
7. 한국감정원(구 대한금융단 신용조사소를 포함한다) 또는 구토지금고법에 의한 토지금고에서의 감정평가업무에 8년이상 종사한 자
8. 토지평가사사무소에서 토지평가사의 토지평가업무의 보조업무에 8년이상 종사한 자
9. 지적행정,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취득·관리또는 처분에 관한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공무원
10. 부동산에 관한 동기·경매 또는 민사소송에 관한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공무원
11. 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단기금융회사 또는 증권거래소에서 부동산의 취득·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12.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00억원이상인 법인체에서 부동산의 취득·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13. 측량법에 의한 측량 또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에 종사한 측량기술자 또는 지적측량기술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14. 사법서사로서 10년이상 종사한 자
15. 공인감정사로서 감정평가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16.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토지에 관한 법률학·경제학(재정금융을 포함한다)·부동산학 또는 도시지역계획학에 관한 강의를 5년이상 담당한 자
17. 제1호 내지 제16호와 유사한 경력이 있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에는 고용직공무원 등과 같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각 경력기간은 이를 합산할 수 있다.

제23조 (시험시행의 공고) 건설부장관이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평가사면허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시험방법·시험과목·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면허시험의 합격기준등) ① 토지평가사면허시험에서는 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영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사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1차시험 및 2차시험에서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평균 6할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③ 토지평가사면허시험의 1차시험합격자 명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 (토지평가사의 면허신청) ① 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평가사면허시험 최종합격자가 제출하는 토지평가사면허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사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면허수수료로서 2천원을 수입인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 다만,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신원증명서
3. 경력증명서(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4. 증명판 사진 2매

제26조 (면허증의 교부등) ① 건설부장관은 토지평가사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토지평가사의 면허를 부여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②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평가사의 면허를 부여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토지평가사면허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토지평가사면허증과 별지 제24호서식의 토지평가사면허수첩을 본인에게 교부한다.

③ 토지평가사는 토지평가사면허수첩의 기재사항(주소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토지평가사면허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토지평가사면허수첩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④ 토지평가사는 토지평가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토지평가사면허수첩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7조 (면허수첩의 검열 및 교환) ① 건설부장관은 토지평가사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평가사면허수첩의 일체검열을 받을 것을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일체검열후 3년 이내에는 다시 일체검열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평가사가 토지평가사면허수첩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평가사면허수첩재교부의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토지평가사면허수첩교부신청서에 의한다.

제28조 (사무소개설의 등록) ① 영 제5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토지평가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토지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29호서식의 토지평가사사무소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등록수수료로서 5천원을 수입인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 (합동사무소의 개설등) ① 토지평가사는 영 제5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개설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개설 등록증을 그 대표자에게 교부하고, 그 구성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토지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부에 기재한 후 별지 제29호서식의 토지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영 제5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품위보전 및 책임에 관한사항

④ 제 1항의 규정에 관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개설등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수수료로서 토지평가사 1인당 5천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 (합동사무소의 개설기준) ① 영 제5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개설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서울특별시지역의 경우: 7인이상의 토지평가사
2. 직할시 및 도지역의 경우: 3인이상의 토지평가사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토지평가사의 인원의 기준은 부동산의 평가(감정을 포함한다)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31조 (사무소개설등록사항의 통보) 건설부장관은 매년 토지평가사사무소 및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2월 말일 현재의 개설등록상황을 3월말일까지 토지등의 평가를 필요로 하는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제32조 (보 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토지평가사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매년도의 연간업무실적과 조사연구계획 및 그 실적을 각각 다음해 2월말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33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토지평가사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에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

여야 한다.

1. 평가서의 원본 및 그 부대서류
2. 사무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서류
3. 평가관계조사·연구자료

제34조 (합동사무소구성원의 가입등) ① 영 제54조 제 3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대표자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지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선임관계서류
2. 대표자취임증박서

② 영 제54조제 3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토지평가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토지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를 합동사무소대표자에게 제출하고, 그 대표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지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그 토지평가사 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와 등록수수료로서 토지평가사 1인당 5천원을 수입인지로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의 탈퇴의 경우에는 토지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탈퇴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탈퇴신청서를 첨부하여야한다.

③ 영 제54조제 3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의 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가 별지 제33호서식의 토지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폐쇄신고서에 폐쇄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35조 (토지평가실무수습) ① 법 제29조의 3 제 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받을 토지평가사 (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실무수습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무수습자는 제 1항의 실무수습신청서에 법 제29조의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실무수습기관의 장(이하 "실무수습기관장"이라 한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제 1항의 실무수습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실무수습자가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기관과 실무수습자의 주거지 기타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실무수습을 받을 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때에는 당해 실무수습 기관장과 실무수습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실무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당해 실무수습자가 성실히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실무수습자는 실무수습의 개시전까지 건설부와 실무수습을 받을 기관에 실무수습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건설부장관과 실무수습기관장은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자등록 내용에 따라 별지 제35호서식의 실무수습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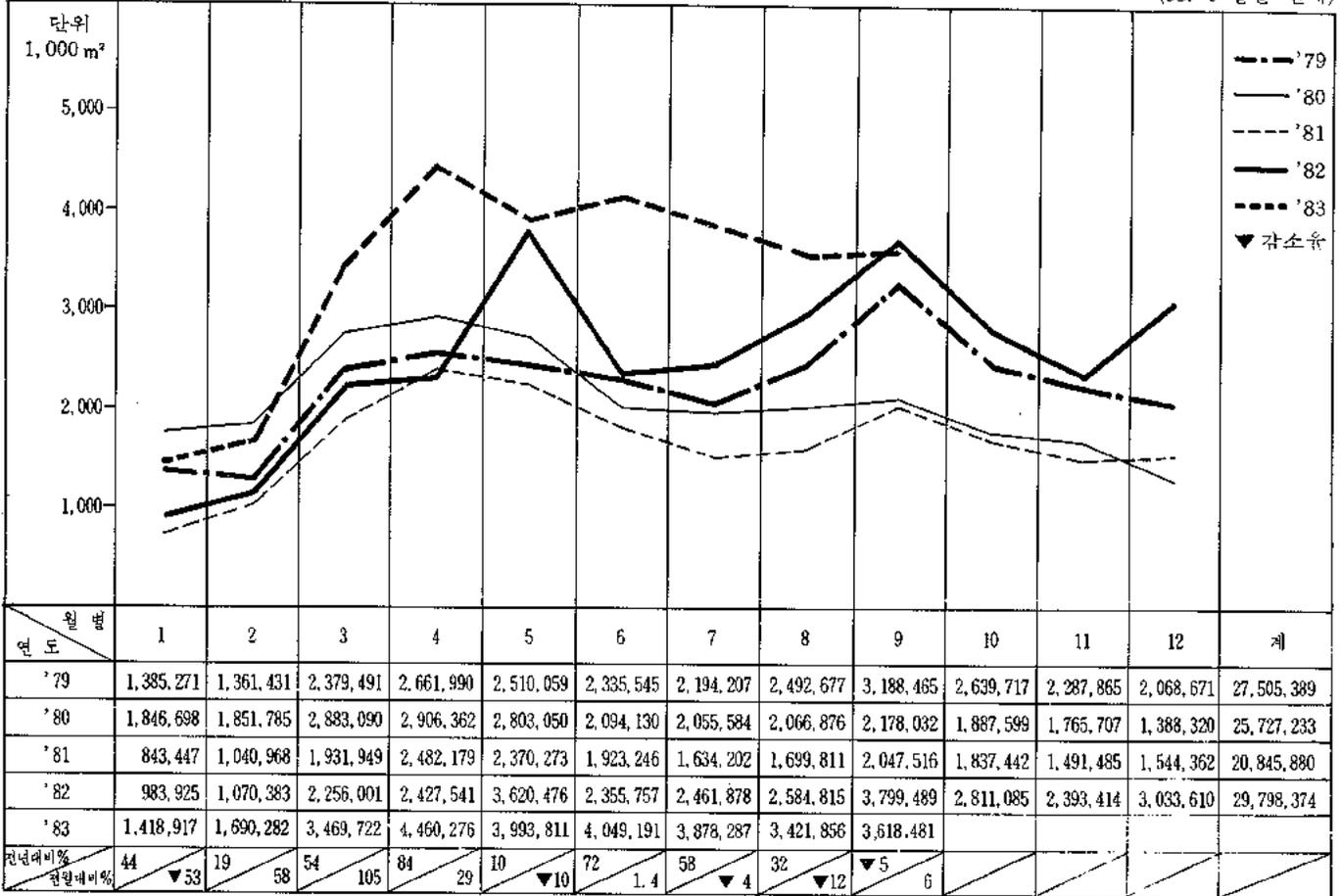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축허가 (도서신고) 면적변동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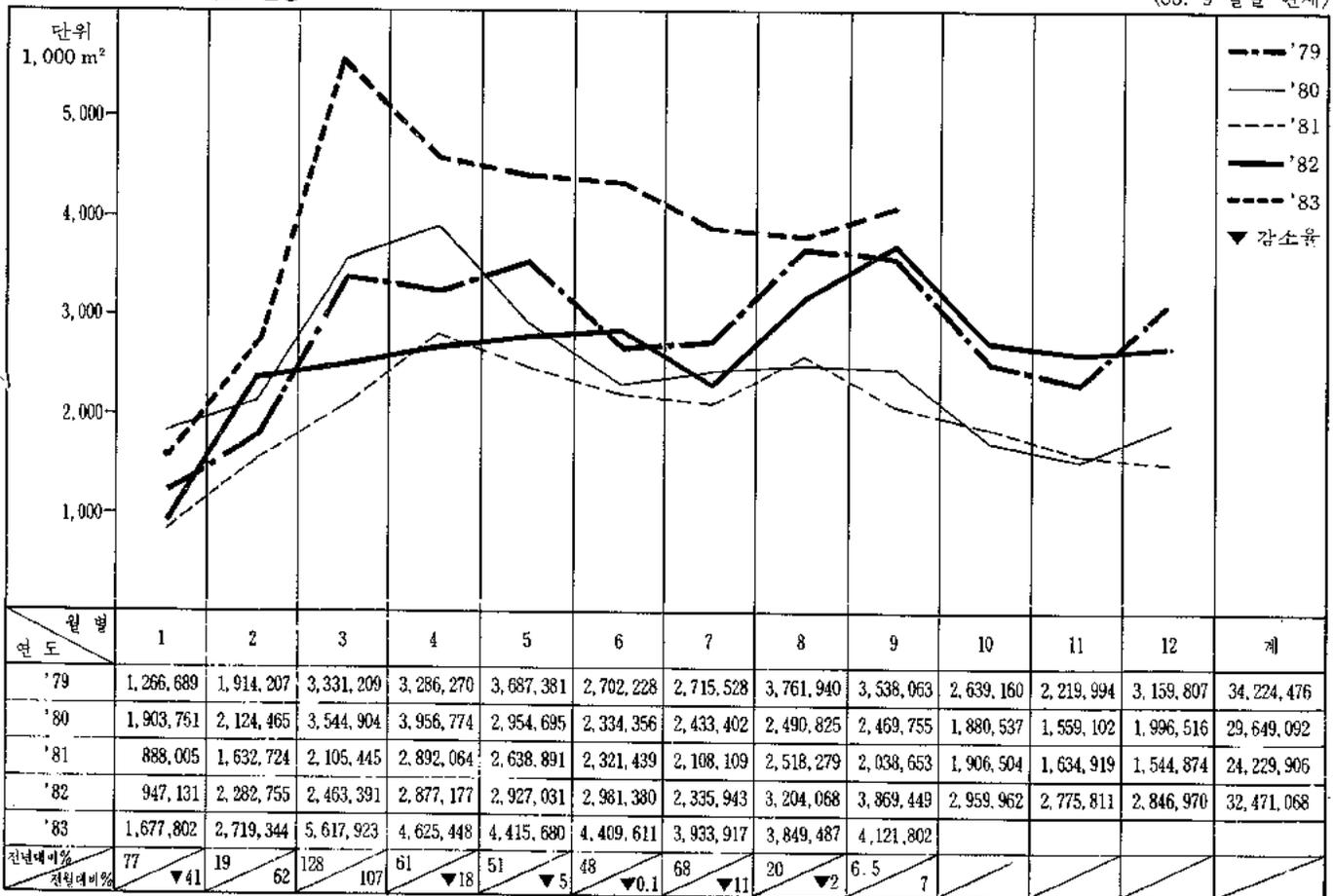
건설부 집계 / 건축허가현황

(83. 9 월말 현재)



건축사협회 집계 / 도서신고현황

(83. 9 월말 현재)



新 入 会 員

<p>李圭宰 / 22. 3. 3일생 / 동익 기술공사 / 영등포구여의도동 1 - 535 / 783 - 7735 / 서울지부</p>	 <p>朴容顯 / 25. 3. 23일생 / 우원 건축연구소 / 강남구역삼동 735 - 5 / 555 - 5197 / 서울지부</p>
<p>鄧文熙 / 28. 9. 26일생 / 성건 축 / 중구필동 2가53번지 / 272 - 0077 / 서울지부</p>	 <p>張潤植 / 35. 9. 26일생 / 유일 건축연구소 / 마포구공덕동 253 - 17 / 713 - 8147 / 서울지부</p>
<p>金賢奎 / 38. 2. 18일생 / 금목 건축연구소 / 시흥군군자면반월공 단관리청사부속건물101호/경기지 부</p>	 <p>鄭一良 / 38. 7. 17일생 / 우림 건축설계사무소 / 동작구노량진동 240 - 25 / 828 - 9364 / 서울지부</p>
<p>梁英浩 / 44. 4. 27일생 / 선건 축연구소 / 중북청주시영동 50 - 2 / 2 - 4710 / 중북지부</p>	 <p>金鏡弘 / 45. 1. 5 일생 / 장호 건축사무소 / 강남구삼성동 166 - 6 (남경빌딩 491) / 462 - 4950 / 서울 지부</p>
<p>李英珍 / 46. 2. 25일생 / 상윤 영진종합건축설계사무소 / 부산시 중구중앙동 4가81 - 15번지/ 462 - 7927 / 부산지부</p>	 <p>金玉彬 / 46. 11. 8일생 / 협화 건축설계사무소 / 강남구서초동 40 4구획 / 590 - 2047 / 서울지부</p>
<p>文龍珍 / 47. 5. 10일생 / 건죽 기술연구소 보림 / 강동구천호동 340 - 34(명화빌딩 305)/ 484 - 6666 / 서울지부</p>	 <p>丁永旭 / 48. 10. 15일생/남해 건축연구소 / 광주시동구궁동 7 - 7 / 전남지부</p>
<p>尹德讚 / 52. 3. 1일생 / 한서중 합건축연구소 / 강남구대치동 316 번지 / 555 - 4487 / 서울지부</p>	 <p>李哲鎬 / 57. 7. 20일생 / 주식 회사고려건축 / 중구서소문동 65번 지 / 778 - 6359 / 서울지부</p>

會員動靜

변경 ■ 경기지부 = △조성만회원 / (주) 삼진건축 / 수원시 교동134-4 / 43-9779

△이병일회원 / (주) 진화건축 / 부천시 심곡동164-1 / 62-5797

△박노선회원 / 선진설계 / 부천시 심곡동164-1 / 62-5797

△김용만회원 / 정동건축 / 안양시 안양동511-8

△박영익회원 / 협신합동기술 / 시흥군 군자면 원시리77-2 / 6-3111

△이용덕회원 / 협신합동기술 / 시흥군 군자면 원시리773-2 / 6-3734

△홍재혁회원 / 화성건축 / 화성군 오산읍 오산리274-2 / 2451

△우선명회원 / 원영건축 / 송탄시 신장동217 / 4-2282

△조병원회원 / 동원건축 / 수원시 교동68 / 42-3869

△민병휘회원 / 민건축 / 수원시 교동68 / 42-3455

△이인구회원 / 정림건축 / 화성군 반원면 건건리645-7 / 28

△민병운·박수원회원 / 대영신합동 / 성남시 태평동5517 / 2-0021·0432

△김승환회원 / 문화건축 / 수원시 교동93-16 / 2-4332

△박태신회원 / 명성건축 / 의정부시 의정부동198-12 / 2-2035

△최웅회원 / 정우건축 / 성남시 신호동80-2 / 3-9666

△최동륜회원 / 한남건축 / 성남시 태평동3309-440 / 2-6257

△정진민회원 / 이천건축 / 성남시 태평동3309-323 / 2-0062

△홍행남회원 / 홍남건축 / 성남시 신호동179-5 / 2-1434

△최승국회원 / 국제종합 / 안양시 안양동511-8 / 2-9659

△심태섭회원 / 정우종합 / 안양시 안양동511-8 / 2-2028

△김봉선회원 / 유일종합 / 안양시 안양동511-8 / 2-2028

■ 부산지부 = ▽김신재·정문일회

원 / 서강황제건축 / 동구초량5동1196-1 / 44-5525

△한병우회원 / 자유건축 / 중구중앙동4가77-3 / 22-8645

△방진근·김하원·안상익회원 / 부림건축 / 남구 남천동11-23 / 623-2279

△김희관회원 / 미림한양건축 / 중구 부평동2가2-1 / 22-2020

△김옥배회원 / 회원심건축 / 부산진구 부전동394-30 / 89-3397

△박재봉회원 / 회원심건축 / 부산진구 부전동394-30 / 87-0596

△강영식·전현길회원 / 영진도시건축 / 동래구 부천동361-2 / 53-2036

■ 서울지부 = △박연심회원 / 중앙건축 / 중구 신당동267-70 / 254-6914

△성미자회원 / 미성건축 / 강동구 삼전동9-14 / 415-6143

△박경원회원 / 동방종합건축 / 영등포구 여의도61 / 782-2476

△이승목회원 / 아남건축 / 성동구 구의동252-16 / 444-7749

△이상수회원 / 한양엔지니어링 / 영등포구 여의도62-2 / 783-5302

△조태중회원 / 예건합동건축 / 서대문구 충정로3가368 / 363-6805

△강산관회원 / 예건합동건축 / 서대문구 충정로3가368 / 362-3115

△이동수회원 / (주)대우엔지니어링 / 영등포구 여의도35-4 / 783-6281

△양재국회원 / 고려건축 / 중구 종림동355 / 392-1671

△지순회원 / 일양건축 / 종로구 윤니동98-78 / 743-6964

△김자호회원 / 일양건축 / 종로구 윤니동98-78 / 743-6964

△김무영회원 / 한국환경설계 / 영등포구 여의도53-1 / 783-6101

△최성일회원 / 한국환경설계 / 영등포구 여의도53-1 / 783-6101

△이성걸회원 / 삼진건축 / 강남구 대치1동941-26 / 568-8526

△김연구회원 / 삼진건축 / 강남구 대

치1동941-26 / 568-8526

△이봉춘회원 / 한서종합건축 / 강남구 대치1동941-26 / 555-4487

△윤덕찬회원 / 한서종합건축 / 강남구 대치1동941-26 / 555-4487

△양효철회원 / 무림엔지니어링·주 / 성동구 자양동220-149 / 444-6511

△김원모회원 / 효진건축 / 강남구 논현동254-4 / 462-5525

△송기성회원 / 범한건축 / 용산구 남영동62 / 793-0367

△이영호회원 / 조일합동건축설계 / 중구 수표동47-6 / 265-8531

△김영록회원 / 조일합동건축설계 / 중구 수표동47-6 / 265-8531

△함영은회원 / 범한건축공단 / 관악구 봉천동422-1 / 877-5177

△김재민회원 / 일연건축 / 서대문구 창천동13-85 / 392-4155

△박승필회원 / 삼영건축 / 강동구 삼전동22-4 / 414-0110

△정철웅회원 / 동건축 / 동대문구 신설동97-19 / 744-1550

△이종엽회원 / 유일종합건축 / 관악구 봉천동856-5 / 877-6231

△오기수회원 / 오기수건축 / 종로구 권농동120-2 / 741-3701

△전동원회원 / 동영건축 / 종로구 관철동42-4 / 724-9420

△강성익회원 / 선환경건축 / 강남구 논현동57-38 / 543-9708

■ 제주지부 = △김한준회원 / 김한준건축 / 서귀포시 서귀동299-6

전입 ■ 서울지부 = △현석홍회원 / 경일종합건축 / 중구 을지로4가310-68 / 261-8892

△김준찬회원 / 대일건축 / 도봉구 수유동190-9 / 904-1203

■ 충북지부 = △이철호회원 / 이철호건축사사무소 / 충북 청주시 영동50-2 / 2-4710

■ 제주지부 = △홍명섭회원 / 마로

건축 / 제주시 2도1동1787-3/3-68
50

재입

■ 서울지부 = △곽대안회원 / (주) 세운건축 / 관악구 신림동 566-7 / 855-7821
△이종정회원 / 아튼건축연구소 / 강동구 송파동 19-2 / 413-7006
△강기세회원 / 범건축 / 강남구 반포동 81-1 / 567-5348
△김정기회원 / 용일건축 / 용산구원효로 1가 57-13 / 712-7647

결혼

■ 인천지부 = △송진호회원 / 장녀결혼 / 새한성공회서울대성당 / 11. 5 일

■ 부산지부 = △최경은회원 / 영애결혼 / 왕십리중앙교회 / 10. 8일
■ 경기지부 = △우선명회원 / 영식결혼 / 시정동성당 / 10. 8일
■ 서울지부 = △김철환회원 / 차남결혼 / 노라노예식당 / 10. 8일
△김창현회원 / 장녀결혼 / 뉴코아에식당 / 10. 23일
△김원안회원 / 4녀결혼 / 결혼회관 / 10. 31
△박원태회원 / 차남결혼 / 목화예식당 / 10. 29일

회갑

■ 경기지부 = △홍재혁회원 / 10. 22일 자택에서

별세

■ 부산지부 = △심상복회원 / 부친별세 / 10. 2일
△구준건회원 / 부친별세 / 10. 22일
■ 경기지부 = △박로진회원 / 부친별세 / 10. 22일 자택
■ 서울지부 = △한광수회원 / 별세 / 자택에서 / 10. 7일
△김춘광회원 / 모친별세 / 자택에서 / 10. 13일
△김상운회원 / 모친별세 / 10. 19일
△김형용회원 / 별세 / 자택에서 / 10. 26일
△최광현회원 / 별세 / 자택에서 / 10. 28일



□ 신축회관부지가 가까이 보이는 임시회관으로 이전을 마친다. 온통 거두어 집을 꾸리고 다시 풀어 제쳐 있을 곳에 있도록 하는 작업도 마무리 지다. 살림을 헤아려 꿈아보고 새살이를 다짐한 총회도 치루고... 이제 다시금 단단한 집을 짓자. <用>

□ 노랑게 타오르는 은행나무에 올라 귀찮다는 표정으로 은행잎을 뜯어내는 노인네에게서, 노인네의 이마에 꽤 주름살보다 더 짙은 우수를 본다. 낙화인들 꽃이 아니라 쓸어 무삼하리오 하던 옛 시인의 정취는 부질없는 한숨이 되어 버렸고, 노란 아름다움을 쓰레기로 보이게 하는 세월의 흐름에 왈각 서러움을 느낀다. <京>

□ 빨강게 타오르는 난보와 따끈한 키피한잔이 그리워지는 그런 때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맛을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울 것 같기에 더욱 그러하다.

하얀 겨울이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며 따스한 마음으로 맛을 채비를 해야 할까 보다. <宙>

□ 손때 묻은 흔적으로 하루하루 넘겨진 책상 앞의 DESK DIARY / 그 속에 사계절이 숨쉬고 이제 또 첫장을 넘기던 계절 속에 숨는다. 하얀 눈의 깨끗함 때문에 겨울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곤 한다. 하지만 깨끗하다는 것이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닌가 싶다. 넘겨진 날들의 DIARY 속에 메모의 흔적조차 없는 날들의 깨끗한 면을 보노라면 왠지 아쉬움으로 그날들이 남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새까맣게 메모가 적힌채로 뜯겨진 날들의 紛矢이 삶의 결실을 맺기에 더욱 소중하지 않을까! 이제 몇장 남지 않은 날들의 장에는 귀한 결실의 씨앗으로 심어지길..... <楸>

